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⑤ 체육

2008.2 ~ 2013.2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사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 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신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로의 전환, 주5일 근무·수업제 시행 등의 변화로, 국민들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이제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문화국가의 위상을 확립하여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정책현장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문화기반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인근에 국내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건립하고, 서울 역사(驛舍)를 문화예술이 생동하는 문화 플랫폼 ‘문화역서울 284’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한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한글날’을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우리 민족의 최고 문화유산인 한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예술지원의 원칙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예술인 복지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해 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등의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렸습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성공은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K-POP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한국 영화, 한글,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콘텐츠산업 매출과 수출은 2007~2011년 동안 각각 6.4%와 21.9%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적인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 투자재원 다변화, 업계의 제작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관광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전개한 결과,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UNWTO 총회, 핵안보 정상회의 등 세계 유수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 6위의 국제회의 강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변 문화관광 및 생태·녹색관광 자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유치함으로써 동·하계 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F1 등 5대 국제경기대회를 모두 치르는 세계 다섯 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지원 정책은 2012 런던올림픽대회에서 종합 5위의 성과를 거두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동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분야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갈무리한 자료로서, 앞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책을 만드느라 애쓰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집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 광 식



목차

제1장 체육정책 개관	19
제1절 체육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0
1. 2008년 체육정책목표	20
2. 2009년 체육정책목표	21
3. 2010년 체육정책목표	21
4. 2011년 체육정책목표	22
5. 2012년 체육정책목표	22
제2절 체육정책 주요 성과	23
1. 〈문화비전 2008~2012〉 체육 부분 주요 정책과제	23
2. 분야별 정책성과	25
제3절 체육법령	37
1. 개관	37
2. 체육관계법 현황	38
제4절 체육재정	49
1. 개관	49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50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51
제2장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 확대	55
제1절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56
1.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정책의 의의	56
2.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사업	56
제2절 생활체육 참여의 질 제고	72
1. 생활체육 참여의 질 제고 정책의 의의	72
2. 생활체육 참여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	73



제3절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95
1.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의의	95
2. 국민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	95
3. 생활체육시설 지원	96
제4절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지원	102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의의	102
2. 스포츠 바우처 사업	102
3.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108
4.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110
제3장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정착	113
제1절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114
1. 제정 의의	114
2. 주요 내용	114
제2절 일반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118
1.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119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121
제3절 학생선수를 위한 지원사업	127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127
2.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방안	129
3. 각종 토너먼트대회의 리그 전환 사업	129
4. 체육중 · 고등학교 육성 지원	131
5. 대학스포츠의 선진화 사업	134
6.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135



목차

제4장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와 국제스포츠역량 제고	141
제1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성공	142
1. 세 번째 도전의 배경과 의의	142
2. 유치 준비계획과 경과	146
3. 유치 성공요인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	162
제2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164
1. 대회 개요 및 개최 의의	164
2. 대회 준비 운영	166
3. 대회의 성과와 과제	180
제3절 F1 코리아 그랑프리	181
1. 대회 개요 및 개최 의의	181
2. 대회 준비 운영	182
3. 대회의 성과와 과제	191
제4절 국제스포츠교류 노력과 성과	194
1.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사업과 성과	194
2. 태권도 세계화	200
제5장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205
제1절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206
1. 체육영재 및 지역체육인재	206
2. 꿈나무선수	208
3. 청소년대표선수	212
4. 후보선수	218
제2절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224
1. 국가대표선수 훈련	224
2.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	226



3.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과학적 지원	228
4. 국가대표선수 복지 개선	229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 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230
1. 전국체육대회	230
2. 전국동계체육대회	233
3. 전국소년체육대회	236
4. 국가대표 훈련시설	238
제4절 경기력 향상 지원성과	245
1. 하계 · 동계올림픽대회	245
2. 하계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255
3. 기타	262
제5절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	292
1. 현장지원체제와 운영	293
2. 기자재	297
3. 현장지원사업의 성과와 실적	298
제6장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조성	305
제1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306
1.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구조	306
2.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316
제2절 장애인 대표선수 육성 및 지원 확대	320
1.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320
2. 전문체육	323
제3절 국제대회 우수 성과 거양 및 스포츠외교력 강화	333
1. 국제교류	333
2.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345



목차

제7장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조성	347
제1절 스포츠산업 현황	348
1. 스포츠산업규모	349
2. 스포츠산업 부문별 매출 및 실적 현황	351
3. 스포츠산업 종사자 및 고용 현황	355
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내수 및 수입 현황	357
5.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358
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362
7.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363
8. 프로스포츠산업 현황	364
제2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372
1. 스포츠산업정책(2008~2012)	372
2.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372
3. 스포츠산업체 지원 정책	375
4.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 정책	388
5.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400
6. 스포츠산업정보망 구축	401
 제8장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405
제1절 선수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스포츠인권 사업 강화	406
1. 현황 및 문제점	406
2. 추진계획	408
제2절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408
1. 추진배경	408
2. 주요 추진내용	409
3. 추진성과	413
4. 향후 계획 및 과제	416



제9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417
제1절 체육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	418
1. 체육정책 환경 변화	418
2. 체육정책 전망	419
제2절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420
1.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 확대	420
2.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정착	422
3.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와 국제스포츠역량 제고	424
4.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426
5.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조성	429
6.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조성	431
7.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432



표 목차

〈표 1-1〉	〈문화비전 2008~2012〉 체육 부분 주요 정책과제	24
〈표 1-2〉	주요 개정내용	39
〈표 1-3〉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50
〈표 1-4〉	분야별 국고예산 현황	51
〈표 1-5〉	정부예산 대비 체육예산 현황	51
〈표 1-6〉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53
〈표 2-1〉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57
〈표 2-2〉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58
〈표 2-3〉	2011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60
〈표 2-4〉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65
〈표 2-5〉	스포츠 7330 정책 추진경과	70
〈표 2-6〉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70
〈표 2-7〉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	71
〈표 2-8〉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71
〈표 2-9〉	국민체력 100의 체력측정요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75
〈표 2-10〉	국민체력 100의 인증단계 및 수상기준	76
〈표 2-11〉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사업 추진실적	78
〈표 2-12〉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현황	79
〈표 2-13〉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현황	80
〈표 2-14〉	동호인클럽지도자 배치 현황	81
〈표 2-15〉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사업 추진실적	82
〈표 2-16〉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실적	82
〈표 2-17〉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83
〈표 2-18〉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	85
〈표 2-19〉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실적	93
〈표 2-20〉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97
〈표 2-21〉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98
〈표 2-22〉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99
〈표 2-23〉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실적	101
〈표 2-24〉	시·도별 등록 현황	103
〈표 2-25〉	종목별 등록 현황	104
〈표 2-26〉	바우처 비교표(2010)	106
〈표 2-27〉	소외계층 용구 지원 추진실적	109



〈표 2-28〉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실적	111
〈표 3-1〉	2008~2009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비교	119
〈표 3-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의 예산	120
〈표 3-3〉	시·도청별 스포츠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120
〈표 3-4〉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의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122
〈표 3-5〉	연도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124
〈표 3-6〉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2011.12.1.)	124
〈표 3-7〉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예산(2007~2012년)	125
〈표 3-8〉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개요	125
〈표 3-9〉	2010년 학교스포츠클럽 대상 시·도 교육감배대회 개최 현황	126
〈표 3-10〉	2011년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	126
〈표 3-11〉	최저학력기준의 단계별 적용계획	128
〈표 3-12〉	최저학력기준 미달률 현황	128
〈표 3-13〉	연도별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	130
〈표 3-14〉	2011년도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별 구성	131
〈표 3-15〉	2010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132
〈표 3-16〉	연도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 현황	133
〈표 3-17〉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134
〈표 3-18〉	종목별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137
〈표 3-19〉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규정 변화과정	139
〈표 4-1〉	유치위원회 변천	149
〈표 4-2〉	위원회 현황	150
〈표 4-3〉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구성 현황	151
〈표 4-4〉	드림팀	154
〈표 4-5〉	주제별 전문가 및 담당팀 구성 현황	155
〈표 4-6〉	경기종목별 경기장명	156
〈표 4-7〉	경기장 배치 현황	157
〈표 4-8〉	후보도시파일 작성 로드맵	158
〈표 4-9〉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종목	165
〈표 4-10〉	단계별 사무처 구성 현황	167
〈표 4-11〉	위원총회 운영 현황	167
〈표 4-12〉	대회 재정 운용계획	167
〈표 4-13〉	시민서포터즈 선발 현황	170



표 목차

〈표 4-14〉	협약체결 광역자치단체 현황	171
〈표 4-15〉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172
〈표 4-16〉	코리아 그랑프리 주요 기관 단체	182
〈표 4-17〉	총사업비 현황(2007~2011)	184
〈표 4-18〉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제효과(2010~2011)	192
〈표 4-19〉	국제스포츠인력 강화방안	194
〈표 4-20〉	국제스포츠인력 양성 사업 운영실적(2011.12.)	195
〈표 4-2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 현황(2011.12.)	196
〈표 4-22〉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위원 진출 현황(2011.12.)	196
〈표 4-23〉	국제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2011.12.)	197
〈표 4-24〉	국제 아시아경기연맹 회장단 진출 현황(2011.12.)	198
〈표 4-25〉	사업 추진일정	201
〈표 4-26〉	태권도 국제행사 연도별 사업 참가인원	202
〈표 4-27〉	태권도 세계화 사업 현황	203
〈표 5-1〉	연도별 체육영재	207
〈표 5-2〉	연도별 지역체육인재	207
〈표 5-3〉	연도별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현황	207
〈표 5-4〉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209
〈표 5-5〉	연도별 세부종목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211
〈표 5-6〉	2010년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 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213
〈표 5-7〉	2011년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 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214
〈표 5-8〉	연도별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내용	216
〈표 5-9〉	연도별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	217
〈표 5-10〉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수	218
〈표 5-11〉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	219
〈표 5-12〉	연도별 후보선수의 훈련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지원내역	220
〈표 5-13〉	연도별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220
〈표 5-14〉	연도별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223
〈표 5-15〉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224
〈표 5-16〉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225
〈표 5-17〉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226
〈표 5-18〉	외국인 코치 초청 현황	227
〈표 5-19〉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	227



〈표 5-20〉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 여건 개선 현황	230
〈표 5-21〉	전국체육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233
〈표 5-22〉	전국동계체육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235
〈표 5-23〉	전국소년체육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238
〈표 5-24〉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현황	241
〈표 5-25〉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현황	242
〈표 5-26〉	국가대표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243
〈표 5-27〉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244
〈표 5-28〉	하·동계올림픽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246
〈표 5-29〉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47
〈표 5-30〉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49
〈표 5-31〉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50
〈표 5-32〉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52
〈표 5-33〉	런던하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53
〈표 5-34〉	런던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55
〈표 5-35〉	하·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256
〈표 5-36〉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57
〈표 5-37〉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58
〈표 5-38〉	아스타나-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59
〈표 5-39〉	아스타나-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61
〈표 5-40〉	2008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262
〈표 5-41〉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64
〈표 5-42〉	2009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265
〈표 5-43〉	하얼빈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66
〈표 5-44〉	하얼빈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67
〈표 5-45〉	베오그라드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69
〈표 5-46〉	베오그라드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70
〈표 5-47〉	아시아청소년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71
〈표 5-48〉	월드게임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72
〈표 5-49〉	월드게임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73
〈표 5-50〉	아시아무도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74
〈표 5-51〉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75
〈표 5-52〉	실내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77



표 목차

〈표 5-53〉	실내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78
〈표 5-54〉	동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79
〈표 5-55〉	2010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280
〈표 5-56〉	싱가포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81
〈표 5-57〉	싱가포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82
〈표 5-58〉	무스카트아시아비치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83
〈표 5-59〉	2011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284
〈표 5-60〉	에르주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성적	285
〈표 5-61〉	에르주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86
〈표 5-62〉	중국 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287
〈표 5-63〉	중국 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각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290
〈표 5-64〉	제2회 뉴질랜드동계대회의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현황	291
〈표 5-65〉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종목과 담당연구원	294
〈표 5-66〉	2011년 중점·전략종목과 지원팀 구성 현황	294
〈표 5-67〉	연대별 기자재 도입 특성	297
〈표 5-68〉	스포츠과학기자재 구입예산(2008~2011)	298
〈표 5-69〉	스포츠산업 기자재 구입예산(2008~2010)	298
〈표 5-70〉	전공별 스포츠과학 현장적용 연구 분야(2008~2011)	302
〈표 5-71〉	각 종목별 스포츠과학 현장적용 연구보고건수(2008~2009)	303
〈표 5-72〉	런던올림픽대회 지원내용 및 성과	304
〈표 6-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307
〈표 6-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311
〈표 6-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과 역할	312
〈표 6-4〉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변천	312
〈표 6-5〉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설립 현황(2011, 2012.4.)	313
〈표 6-6〉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314
〈표 6-7〉	장애인체육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315
〈표 6-8〉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지원 현황	316
〈표 6-9〉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현황	317
〈표 6-10〉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현황	317
〈표 6-11〉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2012.12.)	318
〈표 6-12〉	전일제지도자 배치 현황(2012.9.)	320
〈표 6-13〉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321



〈표 6-14〉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 현황	322
〈표 6-15〉	장애유형별 경기단체 등록선수 현황	323
〈표 6-16〉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황	234
〈표 6-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324
〈표 6-18〉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326
〈표 6-19〉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훈련 지원 현황	327
〈표 6-20〉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328
〈표 6-21〉	경기력 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329
〈표 6-22〉	경기력 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 복지 사업 지급 현황	329
〈표 6-23〉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2012.9.)	330
〈표 6-24〉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내역	332
〈표 6-25〉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 (14개 종목 활용)	333
〈표 6-26〉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 현황	334
〈표 6-27〉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335
〈표 6-28〉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337
〈표 6-29〉	역대 아·태장애인경기대회(향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38
〈표 6-30〉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39
〈표 6-31〉	역대 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40
〈표 6-32〉	하계스페셜올림픽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44
〈표 6-33〉	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344
〈표 6-34〉	스포츠외교인재 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 사업 현황	345
〈표 6-35〉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현황	345
〈표 6-36〉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 사업 현황	346
〈표 7-1〉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현황	348
〈표 7-2〉	GDP 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349
〈표 7-3〉	연도별 스포츠산업규모	350
〈표 7-4〉	스포츠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350
〈표 7-5〉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352
〈표 7-6〉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353
〈표 7-7〉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354



표 목차

〈표 7-8〉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355
〈표 7-9〉	부문별 고용 현황	356
〈표 7-10〉	조직형태별 고용 현황	357
〈표 7-11〉	운동·경기용품 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358
〈표 7-12〉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358
〈표 7-13〉	2002~2010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 업종 이용자 수	359
〈표 7-14〉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현황	360
〈표 7-15〉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 현황	361
〈표 7-16〉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362
〈표 7-1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363
〈표 7-1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363
〈표 7-19〉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365
〈표 7-20〉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365
〈표 7-21〉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366
〈표 7-22〉	프로단체 현황	367
〈표 7-23〉	프로축구 연도별 관중 수 변화 추이	368
〈표 7-24〉	프로야구 관중 입장 수	370
〈표 7-25〉	남자프로농구 관중 수	370
〈표 7-26〉	여자프로농구 관중 수	371
〈표 7-27〉	프로배구 관중 입장 수	371
〈표 7-28〉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조직구조 변화	374
〈표 7-29〉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376
〈표 7-30〉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 현황	376
〈표 7-31〉	201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전시규모 현황	377
〈표 7-32〉	지역별 해외 바이어 참가 비율(38개국)	377
〈표 7-33〉	품목별 참가 비율	378
〈표 7-34〉	상담 및 계약실적	378
〈표 7-35〉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 현황	379
〈표 7-36〉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383
〈표 7-37〉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용자사업 개요	387
〈표 7-38〉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용자 현황	387
〈표 7-39〉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기준	389
〈표 7-40〉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 현황	389



〈표 7-41〉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391
〈표 7-42〉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기준	392
〈표 7-43〉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현황	393
〈표 7-44〉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지원 현황	395
〈표 7-45〉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지원과제 현황	395
〈표 7-46〉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추진절차	397
〈표 7-47〉	스포츠산업기술 개발사업 지원 개발기술의 사업화 사례	398
〈표 7-48〉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현황	400
〈표 7-49〉	스포츠포털의 세부내용	402
〈표 7-50〉	스포츠용품 인증 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	403
〈표 8-1〉	선수인권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407
〈표 8-2〉	선수인권 침해에 대한 징계건수	407
〈표 8-3〉	경기단체 평가지표 총괄표	411
〈표 8-4〉	불법사이트 접수 및 처리 현황	414



그림 목차

〈그림 2-1〉 국민체력 100 사업 운영 흐름도	74
〈그림 3-1〉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140
〈그림 5-1〉 꿈나무선수 선발과정	209
〈그림 7-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2012.7.)	373
〈그림 7-2〉 인증제 사업 구성도	375
〈그림 7-3〉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절차	379
〈그림 7-4〉 기금용자 시행절차	387
〈그림 7-5〉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 시행절차	393
〈그림 7-6〉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의 비전	394
〈그림 7-7〉 전략과제(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399
〈그림 7-8〉 자유공모과제 선정절차	399
〈그림 8-1〉 국민체육진흥법 홍보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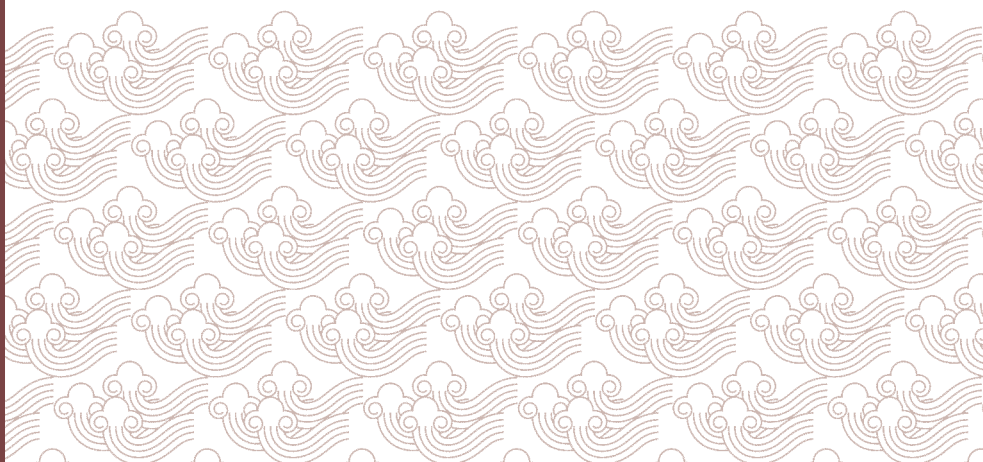
제1장 체육정책 개관

제1절 체육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제2절 체육정책 주요 성과

제3절 체육법령

제4절 체육재정



● 제1장 체육 정책 개관

●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한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정책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스포츠 강국’에서 더 나아가 스포츠정신과 스포츠의 즐거움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절 체육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이명박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시한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정책의 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비전 2008~2012>에서 밝히고 있듯이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스포츠 강국’에서 더 나아가 스포츠정신과 스포츠의 즐거움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15분 프로젝트’를 대표 과제로 하고, 중점과제로서 체육활동 참여 여건 개선, 체육친화적 교육 환경, 교육친화적 체육 환경,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세계 속의 스포츠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를 설정하였다.

1. 2008년 체육정책목표

(1) 2008년 비전: “스포츠 선진국가 실현”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이나 국민복지로서의 스포츠권리는 완전히 보장되지 못했고, 그 이면에는 스포츠의 비민주적 행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 기형적이고 분리적인 체육 시스템이 고착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올림피즘(Olympism) 구현과 스포츠의 사회적 기여에 동참하고 있으나 한국은 올림픽대회 유치 등 국가이익에 국한하여 국제체육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스포츠산업은 유아기적 상태로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학교체육을 중점 육성하여 생활체육, 전문체육과 선순환되어 유기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선수의 스포츠인권·윤리가 강화되고 스포츠 산업을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추진하는 ‘스포츠 선진국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2) 3대 목표: 건강한 국민, 활기찬 사회, 강한 나라

첫째, 모든 국민이 스포츠권리를 누리는 사회로서 성, 연령, 계층에 관계 없이 스포츠를 하나의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둘째, 스포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사회로서 국제경기력 제고와 스포츠의 고부가가치화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사회를 구현한다.

셋째, 스포츠의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로서 스포츠인권이 보장되고, 스포츠에 정치성이 배제되며 체육행정의 시스템이 선진화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2. 2009년 체육정책목표

2009년에는 “스포츠로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스포츠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국민생활체육 여건 개선,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강화, 학교체육 육성 기반구축,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5대 중점과제로 하였고, 14대의 이행과제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3. 2010년 체육정책목표

2010년에는 “스포츠로 스마일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고 ‘온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

지,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를 2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함께 즐기는 행동의 스포츠, 눈으로 보는 감동의 스포츠, 스포츠로 빛나는 글로벌 대한민국, 스포츠로 만드는 국가경쟁력’을 4대 중점과제로 하였고, 12대의 이행과제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4. 2011년 체육정책목표

(1) 2011년 비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스포츠 선진국에서의 모습은 남녀노소, 취약계층 등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학생 시절부터 건강한 체육수업 및 훈련을 받으며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 국제대회 운영, 스포츠산업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리가 없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체육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것이다.

(2) 정책목표: 스포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국제대회 성공 유치·개최 및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체육활동 참여 여건의 지속적 개선, 서민 중심의 생활 공감 체육정책 확대·강화,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6대 중점과제로 하였고, 23대 이행과제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5. 2012년 체육정책목표

(1) 2012년 비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2011년과 같이 비전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하고 정책추진방향을 ‘2012년을 스포츠 선진국 진입의 원년으로!’로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육활동에 있어 계층·세대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경기력, 외교역량 등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하였다.

셋째,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2) 정책목표: 생활체육 참여율 41.5% → 43%, 국제경기대회 성적 세계 10위권, 아시아 2위권,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33.4조 원 → 35.8조 원, 장애인체육활동 참여율 9.6% → 10.6%

‘일상적 체육활동 참여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생활 공감 스포츠서비스 강화, 국제대회 성공 개최 및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스포츠산업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스포츠시스템의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를 6대 핵심과제 및 21대 이행과제를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제2절 체육정책 주요 성과

1. <문화비전 2008~2012> 체육 부분 주요 정책과제

이명박 정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체육에서는 체육친화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체육활동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 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육성·보급,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제고,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레저스포츠시설·공간 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는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세계 속의 스포츠 한국을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을 추진하고, 엘리트스포츠 경쟁력 분야에서는 2012 런던올림픽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양성, 우수 선수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육상발전계획 추진, 엘리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스포츠의 과학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였다.

그 밖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스포츠용품의 고부가가치화,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표 1-1 <문화비전 2008~2012> 체육 부분 주요 정책과제

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체육활동 참여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 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레저스포츠시설·공간 확충
체육친화적 교육 환경 교육친화적 체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세계 속의 스포츠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대회경기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스포츠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활동 강화 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U-스포츠사회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민간체육시설의 이용 환경 개선

부문별 목표	추진내용
엘리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런던올림픽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적 양성 및 훈련과학화 • 우수 선수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 비인기 종목 활성화 • 스포츠의 · 과학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 엘리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 선진형 체육법 · 제도 정비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2. 분야별 정책성과

(1) 체육활동 참여 여건의 지속적 개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의 조성을 위해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충으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생활체육 진입장벽을 낮춰 참여를 높이면서 생활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①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서 시·도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참여대상별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지역단위별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누구나 생활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였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197명이던 생활체육지도자는 2011년 1,376명으로 늘어났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도 2008년 345명에서 2011년 543명으로 늘어나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스포츠 7330 등 생활체육 참여 캠페인의 전개,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② 생활체육의 질 제고

참여의 양적 증가를 넘어 생활체육 참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국민체력 100(일공공)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이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도록 하였고, 생활체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동호인클럽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을 100개소 육성하고 있다. 2008년 34.2%이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0년 41.5%로 크게 증가하였고, 동호인클럽 회원수도 2008년 298만 5천 명에서 2011년 308만 1천 명으로 증가였다. 또한 생활체육 수요 변화에 따라 2012년에는 생활체육지도자제도를 세분화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다.

③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였다.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다양한 수요에 따른 맞춤형 생활체육시설이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까지 운동장 체육시설을 673개교에,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을 총 77개교에 건립하여 학교체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 1인당 체육시설은 2008년 2.54㎡에서 2011년 말 3.29㎡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노후시설 보수를 2010년부터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활용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2) 학교체육 정상화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정상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그간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본격적 실시 및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서 선진형 학교체육 문화가 정착되었다.

특히 그간 학교체육 정상화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동 작업으로 2012년 1월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있다.

① 일반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체육친화적 교육 환경)

일반학생들의 학교 내외에서의 체육활동 축소로 기초체력 저하, 전인적 성장 저해, 학교 체육과 평생체육의 연계 약화 등 문제가 속속 발생되면서 제기되었다. 이에 학교체육 진흥 등을 위해 200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확대 및 정례화, 학교체육 관련 대책의 공동 발표 등 양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2008년 825명으로 시작하여 2012년에는 2,838명으로 증가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도 2008년 초·중·고생의 17.1%에서 2011년 45%로 크게 확대되었다.

② 공부하는 학생선수(교육친화적 체육 환경)

학원스포츠는 지금까지 한국 전문체육의 산실이었으나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 향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최저 학력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최저학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운동부의 합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수업 후 훈련하고 주말 동안 대회에 참가하는 주말리그제를 2009년 초·중·고 및 대학축구에 도입하고 2010년에는 대학농구, 고교 아이스하키에 점차 확대하고 있다.

③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출범

대학스포츠의 고질적 병폐인 수업 결손, 임의적 성적 부여 등의 문제와 체육특기자 입학 관련 각종 비리를 해결하고 미국대학체육협회(NCAA)와 같이 대학스포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26일 한국대한스포츠총장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학생선수 학사관리, 대학리그 경기운영 등 대학스포츠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학총장 간 협의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대학선수 입시 개선, 체계적인 학사 관리와 경기 운영으로 공부와 학업을 병행하는 진정한 스포츠인재 양성과 선진형 대학스포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학제의 정점에 있는 대학스포츠의 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하여 초·중·고 학교운동부를 선진화하고 입시비리 척결 등 공정사회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대학스포츠를 브랜드화하고 수익사업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침체된 대학스포츠 부활 및 재정자립의 구심점을 형성하였다.

(3)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체육정책을 발전시켜 장애인체육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관련 조직 단체 설립 확산, 예산 증액, 생활체육 사업 확대 등의 다양한 장애인체육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교류 분야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성과를 남겼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와 스포츠평람 바우처의 도입,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지원 등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먼저 2005년 장애인체육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이후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지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축제 지원 등 다채로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2008년 39명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9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57개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율을 2007년 5.4%에서 2012년 10.6%로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다.

②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이명박 정부 동안 전문체육 분야에서 국내 대회 지원을 통해 가맹단체별 전국 규모의 국내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국내등급분류사 및 심판 등 경기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전문체육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 지도자 및 국제심판 초청강

습 등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장애인 국제체육 교류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 장애인 후보선수 지원, 장애인 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2009년 10월 개관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장애인전문체육의 발전에 큰 진전으로, 2010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와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③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의 확대

스포츠활동에 있어 계층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노인 등 체육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장애인 대상의 스포츠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원대상 및 규모의 확대, 전달체계 개선 등 기존 사업의 개선·보완을 통해 사업 효율성 및 수혜대상의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7~19세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바우처를 2009년 최초로 도입하여 스포츠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09년 예산이 60억 원으로 수혜대상의 4%인 1만 4,535명이 수혜를 받았고, 2011년 총 123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나 수혜대상의 7%인 2만 4,575명으로 늘어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스포츠경기 관람을 지원하는 스포츠관람 바우처는 2010년 10월 도입되어 매년 약 5,00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운동용품 보내기와 순회지도, 유명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다문화가족 생활체육교실,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 실버스포츠 보급,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4) 국제대회 성공 유치·개최 및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성공 유치·개최 및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태권도 세계화 등 국제스포츠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세부성과를 달성하였다.

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성공 총력 지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공식후보도시로 평창(한국), 뮌헨(독일), 안시(프랑스)를 선정(2010.6.22.)하였고, 신청도시파일(2010.3.10. 제출)과 공식 PT 결과, 평창과 뮌헨이 앞선다는 평가에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확산’ 명분과 ‘IOC 위원별 맞춤식’ 유치활동으로 유치 성공을 견인하였다. 이에 1단계(2011.1.~2.)는 후보도시파일 제출(1.11.), IOC 현지실사(2.14.~20.) 등 IOC 공식 일정의 완벽한 마무리, 2단계(2011.3.~6.)는 국내외 국제행사 계기 홍보, 동계스포츠 발전방안 발표, 개도국 사업 지원 등으로 해외 유치활동 총력 지원(AIPS총회(3.22.~27. 서울), 스포츠어코드(4.3.~8. 영국), IOC 테크니컬브리핑(5.18.~19. 스위스), 3단계(2011.7.)는 개최지 선정 IOC 총회(7.6.) 계기 막판 표심 확보에 주력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②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원

213개국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스포츠대회의 하나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선수·미디어촌 등 대회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조성, 국민 참여를 통한 육상 저변 확대 및 국가브랜드 제고 계기로 활용하였다. 2011년을 ‘대구지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대구관광 마케팅 및 대구공연예술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대회 준비 및 운영역량 강화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실현하였다.

③ 주요 국제대회 개최 준비 및 내실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회관련시설계획 수립(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2.5.) 및 변경(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1.5.)을 검토·확정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여부, 사후 활용방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였다. 또한 국비, 옥외광고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한 수익금 배분으로 국제대회 운영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준비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 운영(2010.12.~),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2011.4.), 지원특별법 제정(2011.4.) 등 대회 준비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시설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대회 운영 관리를 위한 각종 IT 시스템 구축·보완(2011.3.~12.),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계획 수립(2011.4.), 프레(Pre) 대회 대비 경기장과 각종 시설 안전점검 및 보완을 추진하였으며, 상징물 개발, 개·폐회식, 성화 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프로그램(Non-Sports Program) 개발 추진(2011.3.~12.), 대회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주제가 등) 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2011.4.), 자원봉사자 발대식(2011.5.) 등 대회 붐 조성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꾀하고 있다.

④ 국제스포츠인재 육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원 프로그램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국제무대 진출 희망자(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 분야 종사자 및 신규인력 등)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연수와 국제기구 인턴십을 통해 현장 경험을 축적하여 국제스포츠인재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국제심판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⑤ 태권도 세계화

2009년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대통령 보고를 통해 태권도를 국가브랜드 10대 과제로 선정하고, 태권도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전 세계 202개국 7천만여 명이 수련하는 한국의 고유문화 유산인 태권도를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서 우선,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을 조성(2005~2013년)하였는데 기본·실시설계(2008년), 기본·실시계획 승인(2009년) 후 공사를 착공(2010.3. / 2011년 36.5% 공정)하였다. 이외 태권도 상설공연장(K-아트홀) 건립(2009~2012년), 태권도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글로벌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2011년), 태권도 해외 보급을 통한 이미지 제고(태권도 글로벌 인재 양성), 세계 태권도 본산인 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공공

성 제고(2010년), 올림픽대회 종목 유지를 위한 경기력 개선(세계태권도연맹(WTF) 규칙 개정) 및 대책을 지원(2008년~)하였다.

추진성과로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의 본격 조성 및 태권도 상설공연장(K-아트홀) 건립 추진을 통한 태권도 인프라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태권도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태권도 사범·시범단·평화봉사단·인턴 파견 등을 통한 태권도 해외 보급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10월 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서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대회 종목에 선정되었다.

(5)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이명박 정부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함께 엘리트체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 대회 및 훈련시설 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등을 통해 전문체육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였다.

① 체계적 선수 양성 및 훈련

꿈나무 → 청소년대표 → 후보선수 →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꿈나무 선발종목에 탁구, 유도, 핸드볼 3개 종목을 추가하여 8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대표선수를 국가대표의 2~3배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2009년부터 전임지도자 처우 개선, 2012년에는 선수수당, 급식비, 전임지도자수당 인상 등 선수 및 지도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675명의 국외전지훈련을 지원하였고, 18명의 외국인 코치를 초청하여 선진 경기기술 및 전술전략을 습득하였으며 179명에게 지도자 해외연수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체육영재 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여 육상, 체조, 수영과 같은 기초종목 저변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지역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역별 전략종목에 대한 과학적 측정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②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과학적 지원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과학적 훈련 지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은 국가대표선수 지원을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구축(체력단련실 과학적

시스템 도입 등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종목별 훈련장 영상분석시스템 구축 및 사후 관리), 의무실 강화(선수 개인별 의무·체력 측정카드제 도입, 운동처방실 강화를 통한 운동능력 평가, 재활훈련 기능 강화 등), 체육과학연구원과의 연계훈련 강화(훈련과학협의회·스포츠 과학세미나, 스포츠과학교실 등), 국가대표 선발 시 의·과학화 기초자료 작성(연 2회 국가대표선수 ‘체력측정의 날’ 운영, 종목별 담당연구원과 체력측정 주기적 실시,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2 런던올림픽대회에서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 18개를 전략종목으로 선정하고 과학적 기술 지원 훈련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스포츠과학세미나 개최, 연구발표회 등 훈련과 학회를 위한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 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보분석·관리시스템 강화, 대표팀 동행 현지 조사활동 실시, 연구원 해외 파견 정보 수집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③ 엘리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여건 개선

태릉선수촌은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대표선수들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훈련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첨단화된 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 태릉선수촌의 노후화와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을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다(2011.10.27. 1단계 공사 준공 → 2017년 2단계 공사 완료예정)

이러한 노력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7위, 2009년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및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대회 5위, 2010년 FIFA 월드컵 축구대회 16강, 2010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축구대회 우승,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2위 등 비인기·동계종목 등 메달 획득종목 확대로 질적 측면에서도 스포츠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 달성으로 글로벌 스포츠 위상 강화와 국민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였다.

(6) 스포츠산업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스포츠용품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 기술, 자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조성과 프로스포츠 및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09-2012)>을 수립하여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국내 스포츠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①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마케팅활동 강화

이명박 정부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첫째, 프로스포츠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경기장 장기임대, 아시아선수 쿼터제 도입, 프로선수 도핑 검사, 국방부의 국군체육부대 종목 감축, 프로스포츠 관중 증대방안 등 프로스포츠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다. 경기장 장기임대를 구현하고(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수익시설 설치기준을 완화(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국토해양부)시키며 노후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화체육관광부)하였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기장 관련법령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과 수익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지자체 소유의 프로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익계약으로 25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셋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프로스포츠 발전을 도모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29조(수익금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를 주최단체에 배분하고, 주최단체지원금 집행지침 제8조(지원금의 배분 및 집행단체)를 통해 주최단체는 배분받은 지원금을 해당 아마추어단체에 15% 이상 배분하도록 하였다.

② 스포츠용품시장 지원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스포츠산업박람회 지원, 우수 체육용품 생산업체 지정 및 기금용자 확대,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기금용자, 체육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기금용자,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스포츠용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전산시스템 개발과 인증마크(KISS)를 제정하여

스포츠용품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만능재료시험기, 삼차원측정기, 로크웰경도기 등 119종, 2011년 기준) 도입을 통해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③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과정,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으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인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2010년에는 산업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터과정을 장기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의 양적 인력 양성체계에서 질적 인력 양성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 경영관리자,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체육행정공무원 등 11개 과정에 총 1,613명의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7)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① 스포츠환경 변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레저스포츠의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및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률 제정안에는 레저스포츠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국가 및 지자체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레저스포츠시설·기구의 안전기준, 레저스포츠업 기준·의무, 레저스포츠활동의 안정성 강화조치 등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었다.

국내 개최 주요 국제경기대회와 이로 인한 개별 지원입법의 증가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일반원칙 확립 및 행정낭비 개선이 필요하여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다. 즉 지원대회 종류 및 범위, 정부지원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설치, 대회 관련 재정 지원, 대회시설 범위 및 설치·이용, 기타 행정특례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경기대회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시스템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표준 모델 개발(유치 타당성 분석, 대회 운영 및 사후평가방안 등)

및 대회 관련 유산 축적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식정보센터 구축 사업을 연구용역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국제대회(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입상자 중 일정점수 이상(평가점수 20점)인 경우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을 지급(15만 원~100만 원)하도록 메달리스트 연금제도(경기력 향상연구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 동시에 올림픽대회 메달 종류(금·은·동)에 따른 연금 지급격차 완화 및 선수 징계(부정 등에 따른 자격정지·박탈)에 따른 연금 일시 중지조항을 신설하였다.

②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의 건설’이 발표되면서, ‘공정’,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정치·사회는 물론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를 비롯한 체육유관단체들은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차단하는 등 스포츠의 공정성 확립과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5개 정부기관 및 체육단체 등과의 합동회의를 갖고 확정·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위한 종합대책>에 집약되어 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책임 명확화를 통한 자율통제,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 개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근절을 통한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 운영비용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말리그제 확대 추진,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제고를 통한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을 통한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로서,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와 워크숍 운영, 선수 및 지도자 교육,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 개소(2012.4.30.) 등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제3절 체육법령

1. 개관

체육 관련 법은 특수한 법의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실정법에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말한다. 체육 관련 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법 체계를 실정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법을 분류하는 데는 법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효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의 수는 약 4,000여 건으로, 형식에 따라서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최상의 위치에는 헌법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밑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총리령과 부령이 시행규칙으로서 존재한다. 이외에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법규가 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주체가 되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공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법을 말하며, 사법은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이 외에 공법과 사법에 걸쳐 법률관계가 규정되는 중간 영역인 사회법이 있다. 이 사회법의 범주에는 보통 사회보장법, 노동법과 경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체육관계법에 대한 분류는 주로 공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수상레저안전법〉 등도 특별법의 형태로 체육관계법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청소년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체육·스포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법에서는 직접 스포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률은 단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률은 그 적용순서에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체육관계법에서 일반법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며, 〈한국마사회법〉이나 〈경륜·경정법〉 등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령은 시간적인 효력에 따라서 일반법과 한시법으로 분류한다. 보통 일반적인 법령은 절차에 의하여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나, 한시법의 경우 유효기간을 부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처럼 명문으로 규정된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의 체육관련 법령은 체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대략 50여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 체육관계법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①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후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된 법률로서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 6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 진흥의 기본이 되는 조장적 법률로서, 체육,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동호인 조직, 운동경기부 등의 제 개념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체육활동의 권장·보호·육성의무를, 제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운동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호,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경기의 건전 육성, 경륜·경정 등 여가체육활동의 건전 시행,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등을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사용을, 제5장에서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1-2 주요 개정내용

연 도	내 용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되 5년간 한시적으로(2014년 12월31일까지) 지원하도록 개정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과 구매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대상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조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대상별·기능별로 세분화 자격검정을 거친 후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 체육교사 및 선수(프로선수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 해주도록 조정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마련,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자격취소 요건을 보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불법적인 스포츠도박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및 관련 벌칙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금지를 명확히 하였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행위를 한 자 등의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강화와 징역, 벌금의 병과 규정을 신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1989년 3월 31일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2007년 4월 11일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민간체육시설업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 5장 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업으로 나누며, 민간체육시설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사인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체육지도자 배치·시설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의 장에게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가하는 동시

에 지역주민을 위해 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은 양벌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다. 2010년에는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2007년 4월 6일 제정된 법률로서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프로구단이 관객 유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설 사용·수익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프로구단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④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제정된 법률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⑤ 경륜·경정법

〈경륜·경정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률로서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타보트 경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륜·경정의 시행, 수익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발생하는 미환급금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여 각종 체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입장료 징수범위를 경주장에서 경주장 및 장외매장으로 수정하였다.

⑥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 및 공포된 법률로서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명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2011년도 주요 개정을 살펴보면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고,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2012년도의 개정을 보면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 대구세

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하였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 근거 규정 신설,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운영 및 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⑦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무예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예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의 조성·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⑧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은 2009년 10월 9일 제정된 법률로서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6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대회시설 및 수익 사업, 대회지원단체 지원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⑨ 씨름진흥법

〈씨름진흥법〉은 2012년 1월 17일 제정된 법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

금 기본계획 수립, 씨름의 날 지정 및 행사 진행, 씨름 및 씨름시설의 지원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⑩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법으로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8장 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⑪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 진흥,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행사인 바, 이러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서울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개별입법 추진의 행정낭비를 개선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대회 유치절차와 관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유치 신청서 제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소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승인 시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⑫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은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13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

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규정과 예규

①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26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4호)

이 규정은 문화체육부훈령 제104호(1993.8.9.)로 제정되었으며, 관세법 제36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총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재위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③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6호)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부훈령 제19호(1993.7.13.)로 제정되었다.

④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25호)

이 요령은 체육부고시 제2009-25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용구 등의 우수 업체의 지정대상업종·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우수 업체 제품의 우선구매, 대한체육회 및 체육과학연구원의 기술지도, 우수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지정업체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호)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1호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훈령으로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⑥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7호)

이 훈령은 2007년 11월 22일 문화관광부훈령 제107호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체육대회의 체계적·심층적인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체육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단체 등이 국제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승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기금 내지 기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국제 종합경기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연맹(IFs)에서 주최·주관하는 종목별 국제경기대회로서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선수단(선수와 임원을 포함한다)이 참가하는 대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등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기타 공인된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1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 기타 중앙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경기대회로 제한하고 있다.

⑦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은 1984년 2월 16일 제정된 규칙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연수, 자격검정 및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체육지도자연수원, 연수과정 및 교과, 연수계획의 수립 및 제출, 연수 시행, 수료증 교부, 자격검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체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루지봅슬레이 종목을 루지와 봅슬레이스켈레톤 종목으로 분리하고, 공수도·댄스스포츠·택전을 종목에 새로 추가하는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을 추가·분리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2010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3) 체육 유관 법령

①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은 국민의 여가스포츠로서의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형적인 여가스포츠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종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의 근거 마련과 조종면허 결격사유, 갱신기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둘째,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하고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신설한다. 셋째,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 보완·신설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개정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한다. 넷째,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 환경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이용한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1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을 ‘도시·군 계획’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③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오늘날 사격은 스포츠경기의 한 종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스포츠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격은 총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은 “사격과 사격장을 단속하여 공안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이 스포츠활동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주요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은 2011년 3월 9일 제정된 법으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이용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승마장 및 승마장업과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절차 및 시설·안전기준 등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⑥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도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 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⑦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법률로서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2011년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숲길의 정의를 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로 새롭게 신설하고, 숲길의 종류를 신설하

여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정의하였으며,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주요 산의 둘레길과 트레일을 포함),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⑧ 기타 법률

그밖에 체육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것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스포츠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과 〈하천법〉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양한 법들이 체육 관련 법에 해당된다.

제4절 체육재정

1. 개관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은 크게 중앙정부의 국고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민간체육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2008년 3조 1,303억 원, 2009년 3조 4,090억 원, 2010년 3조 5,344억 원, 2011년 3조 5,938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시·도교육청의 체육예산 등의 재원을 포함할 경우 실제 체육진흥재원의 규모는 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체육진흥재원의 구성

단위: 억 원

연 도	국 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 방 비	체육단체	계
2008	2,343	2,578	24,808	1,574	31,303
2009	2,135	3,860	25,949	2,146	34,090
2010	1,529	5,295	26,193	2,327	35,344
2011	1,559	6,568	25,677	2,134	35,938

※ 국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만 작성

※ 지방비: 시·도 및 시·군·구 일반회계 최종예산

※ 체육단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지부, 가맹경기단체 자체 수입 예산,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자체수입 예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008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7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가 7.5%, 기금이 8.2%, 체육단체 자체수입이 5.0%를 차지하였다. 2009년에는 지방비가 7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기금이 11.3%, 체육단체 수입이 6.3%, 국고가 6.2%를 차지하였다. 2010년에는 지방비가 7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5%, 체육단체 수입이 6.6%, 국고가 4.3%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2011년도 체육재정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비가 7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이 18.3%, 체육단체 수입이 5.9%, 국고가 4.3%를 차지하였다.

2.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중앙정부의 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체육 지원은 기금사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국고예산의 감소를 볼 수 있다.

2008년도까지는 국고예산 총계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09년 2,135억 원에서 1,52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 국고예산은 1,558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다(표 1-4 참조).

표 1-4 분야별 국고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생활체육	17,649	12,863	93,896	96,547
전문체육	193,058	177,563	42,404	43,128
국제교류	12,998	7,970	7,609	7,126
스포츠산업	6,262	8,269	3,244	3,444
장애인체육	4,110	6,610	5,500	5,401
기 타	263	244	226	220
합 계	234,340	213,519	152,879	155,866

※ '기타'는 체육국의 기본사업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정부예산에서 체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0.13%였으나 2009년 0.11%, 2010년 0.07%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11년은 2010년과 같이 0.07%를 차지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정부예산 대비 체육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정부예산 (A)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부문	
		예 산 (B)	점 유 율 (B/A, %)	예 산 (C)	점 유 율 (C/A, %)
2008	1,782,797	15,136	0.85	2,343	0.13
2009	2,041,000	16,579	0.81	2,135	0.11
2010	2,053,312	18,166	0.88	1,529	0.07
2011	2,099,303	19,603	0.93	1,559	0.07

※ 이 표는 예산만 해당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국고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기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부세·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구성된다.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되는 중앙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30~50%인 국고보조율에 따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증가는 지방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행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

2008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조 4,800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156조 44억 원의 1.73%를 차지했으며, 2009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예산 155조 3,144억 원 중 2조 2,829억 원으로 1.56%로 나타났다.

2009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조 6,030억 원으로 전체예산 172조 2,731억 원의 1.51%를 차지했으며, 2010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예산 161조 7,407억 원 중 2조 4,344억 원으로 1.51%로 나타났다.

2010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조 6,193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169조 67억 원의 1.54%를 차지했으며, 2011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예산 165조 3,791억 원 중 2조 2,153억 원으로 1.33%로 나타났다.

2011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조 5,677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178조 4,234억 원의 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체육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예산 177조 7,474억 원 중 2조 2,906억 원으로 1.29%로 나타났다.

(2) 광역자치단체 체육예산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도 2008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4,616억 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397억 원으로 경기도의 약 8.60%정도에 불과하였다. 2009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5,591억 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467억 원으로 경기도의 약 8.35%정도에 불과하였

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5,191억 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425억 원으로 경기도의 약 8.18%정도에 불과하였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경우 경기도가 5,386억 원인 것에 반해 제주도는 404억 원으로 경기도의 약 7.5%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있으나, 체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건설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예산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의 경우 총 2조 5,999억 원 중 기타가 1조 927억 원으로 42%를 차지했고, 전문체육(33.3%), 생활체육(22.5%), 장애인체육(1.6%), 국제교류(0.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생활체육의 비율이 각각 44.3%와 39.2%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전문체육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타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의 경우 총 2조 6,704억 원 중 기타가 1조 3,338억 원으로 49.9%를 차지했고, 전문체육(27.4%), 생활체육(19.6%), 장애인체육(1.6%), 국제교류(1.4%)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국제교류의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문체육의 비율이 각각 72.1%와 44.4%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타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1-6).

표 1-6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분야별 체육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 원
2010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서울특별시	25,578	63,022	4,465	1,950	661	95,676
부산광역시	1,690	13,669	1,443	1,493	127,179	145,474
대구광역시	3,644	9,898	1,418	90	75,598	90,648
인천광역시	4,790	40,718	2,024	2,073	19,809	69,414
광주광역시	2,204	12,150	1,634	190	18,293	34,471
대전광역시	8,915	17,614	633	-	19,445	46,607
울산광역시	1,913	11,826	1,331	95	16,323	31,488
경기도	5,318	54,997	3,087	40	3,646	67,088
강원도	2,073	7,158	1,546	105	22,190	33,072
충청북도	18,592	15,940	1,407	33	4,194	40,166

2010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충청남도	1,283	11,279	1,181	—	1,274	15,017
전라북도	4,825	14,488	1,102	36	21,603	42,054
전라남도	1,854	6,882	1,152	—	29,468	39,356
경상북도	1,832	11,363	1,536	—	135	14,866
경상남도	1,352	33,483	1,133	63	—	36,031
소계	6,474	17,928	944	333	16,793	42,472
제주특별자치도	도	1,904	12,201	941	230	26,173
	제주시	3,661	4,484	3	49	8,197
	서귀포시	909	1,243	54	5,896	8,102
2011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기타	예산총액
서울특별시	13,525	27,770	4,270	1,350	69,604	116,519
부산광역시	2,117	13,418	2,142	1,182	112,109	130,968
대구광역시	1,666	11,481	1,320	70	83,797	98,334
인천광역시	3,509	41,546	2,240	1,855	29,837	78,987
광주광역시	8,802	9,844	1,569	—	44,551	64,766
대전광역시	14,349	14,305	2,132	—	25,238	56,024
울산광역시	3,211	13,219	1,374	50	33,036	50,890
경기도	10,664	27,040	3,128	40	32,681	73,553
강원도	7,015	15,897	1,680	189	14,373	39,154
충청북도	16,964	8,542	1,688	37	22,207	49,438
충청남도	1,323	9,629	1,322	—	1,214	13,488
전라북도	4,657	15,206	1,187	—	21,411	42,461
전라남도	3,944	11,330	1,346	—	37,060	53,680
경상북도	2,064	10,444	1,765	—	1,926	16,199
경상남도	1,608	24,684	1,600	60	437	28,389
제주특별자치도	9,751	29,136	1,402	125	—	40,41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2장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제1절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 제2절 생활체육 참여의 질 제고
- 제3절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 제4절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지원





제2장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 확대



생활체육 참여에는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수반되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접근성 제약은 생활체육 진입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이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지도자, 체육 관련 정보 등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해줌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진입의 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1절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1.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정책의 의의

생활체육 참여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같다. 그러나 생활체육 참여에는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수반되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접근성 제약은 생활체육 진입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이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지도자, 체육관련 정보 등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해줌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진입의 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한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사업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확대, 전문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정보 접근성 확대 사업이 있다.

2.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 사업

(1)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① 시·도 생활체육교실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스포츠교실’ 운영 1만 개소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선호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체육시설, 체육공원 등 근린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교실은 소규모 지역단위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

공하여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체육교실은 2002년 3,208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 3,886개소, 2009년 4,205개소, 2010년 4,146개소, 2011년 3,901개소가 운영되었다.

시·도 생활체육교실 사업 예산은 2009년까지 정부에서 30%, 지방자치단체에서 70%를 분담하며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기에 2010년부터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관되었다. 따라서 2010년 시·도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2009년까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2009년 운영 현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2011년 시·도 생활체육교실은 3,901개소가 운영되었는데, 이는 2009년 대비 8%, 2010년 대비 6%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부터 생활체육교실 사업이 정부예산 지원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2010년, 2011년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수

단위: 개

연 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	3,886	599	227	286	96	113	158	87	509	154	206	212	359	195	237	395	53
2009	4,205	975	276	263	97	154	107	87	607	143	203	137	309	186	233	380	48
2010	4,146	1,272	204	187	285	126	126	87	403	153	226	-	320	64	271	377	45
2011	3,901	961	195	162	367	122	150	86	245	117	213	-	550	48	285	381	1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광장은 지역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기초적인 참여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체력 향상 및 이웃 간 이해 증진을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광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8년

520개소, 2009년 520개소, 2010년 520개소, 2011년 518개소에 지도자가 배치되어, 매일 아침 또는 저녁시간대에 약수터, 공원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약 6개월 동안 지속 운영되었다.

생활체육광장은 2010년 520개소에서 7만 4,924회 운영되어 총 280만 명이상이 참여하였으나 2011년에는 518개소에서 5만 6,644회 운영되어 총 180만 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2011년 사업 추진실적이 2010년보다 저조한 이유는 예산 축소(1억 8천만 원)에 따른 생활체육광장 운영 개소 수와 사업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부터 참가인원 등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9년까지는 정부의 예산과 지방비를 통해 추진된 사업실적이 모두 포함된 반면, 2010년부터는 지방비로 추진된 사업실적은 제외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실적만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생활체육광장의 기본 프로그램은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준비체조와 선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체조로는 태권, 스트레칭, 민속생활체조(가슴을 열자, 덩터꿍 체조, 민속 에어로빅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선택 프로그램으로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에어로빅, 족구, 테니스 등 지역실정 및 장소에 적합한 생활체육종목 중 참여자가 희망하는 종목을 지도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마나 태풍 등 기후에 따라 참여 인원이 유동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생활체육 참여 확산의 중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2-2 생활체육광장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사업 실적	개소 수	520개소	520개소	520개소	518개소
	회수	88,609회	86,363회	74,924회	56,644회
	참가인원	4,818,484명	4,750,232명	2,822,325명	1,803,503명

※ 2010년도부터는 지방비로 운영된 사업실적 제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③ 참여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 어린이체능교실 및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시·도와 해당 지역 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2008년 어린이체능교실에는 약 82만 5천 명, 청소년체련교실에는 약 67만 명이 참가하였고, 2009년 어린이체능교실에는 60만 3,643명, 청소년체련교실에는 51만 708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 어린이체능교실은 서울,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6만 1,161명이 참가하였고, 청소년체련교실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16만 5,313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 어린이체능교실은 서울, 경기,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3만 1,489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청소년체련교실은 서울, 대전, 경기, 경북, 제주 지역을 제외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12만 3,394명이 참가하였다.

● 장수체육대학 및 여성생활체육강좌

스포츠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방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장수체육대학에는 약 100만 5천 명이, 여성생활체육강좌에는 약 52만 8천 명이 참가하였고, 2009년은 장수체육대학 73만 9,688명, 여성생활체육강좌에는 43만 123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 장수체육대학은 서울, 대전, 경북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38만 4,773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서울, 부산, 충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0만 887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 장수체육대학은 서울, 경기, 대전, 경북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46만 6,854명이 참가하였다.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남, 경북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44만 5,953명이 참가하였다.

● 레크리에이션교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에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용시설 및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생활체육과 레크리에이션활동을 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8년 레크리에이션교실에는 약 3만 1,355명이 참가하였고, 2009년 1만 9,034명, 2010년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5만 8,416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에는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4만 9,983명이 참가하였다.

●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이 사업은 클럽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상호우의를 증진하며 협동심을 배양함과 동시에 대회 참가를 통한 성취감과 사회성 발달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종목별연합회 주관으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사실이 없는 만 13~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종목 중 2종목을 선정해 클럽 간 대항전을 개최하고 있다.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에는 2008년 5만 6,387명, 2009년 4만 991명, 2010년 2만 564명, 2011년 1만 8,505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에는 서울, 인천, 경북, 제주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에서 운영하였다.

●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직장의 체육담당자에게 직장체육 운영방법 등과 같은 전문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직장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직장, 지역체육지도자, 직장체육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종목의 개발과 체협 등을 통해 체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는 2008년 1,602명, 2009년 1,753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은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933명이 참가하였고, 2011년은 부산, 인천, 충북,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였으며 총 212명이 참가하였다.

표 2-3 2011년 지역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참가 현황

단위: 명

연 도	프로그램 지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 강좌	레크리 에이션 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2008	서 울	51,694	54,206	58,346	1,000	918	2,330	30
	부 산	85,020	42,430	78,820	51,570	2,600	2,700	89

연 도	프로그램 지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 강좌	레크리 에이션 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2008	대 구	86,848	44,128	79,399	44,636	3,245	2,665	89
	인 천	87136	73,246	1,429	1,296	80	2,333	100
	광 주	31,296	32,576	26,400	63,360	2,800	1,107	80
	대 전	12,823	18,433	11,901	18,468	805	1,730	124
	울 산	1,239	1,278	12,430	22,106	2,400	1,679	60
	경 기	15,366	11,576	38,176	10,747	1,675	3,094	40
	강 원	90,531	39,184	64,919	62,955	1,828	3,198	266
	충 북	27,106	22,725	38,148	35,904	610	10,625	100
	충 남	12,355	15,758	20,367	12,561	10,635	11,649	200
	전 북	78,928	72,204	96,593	20,395	1,029	2,254	50
	전 남	82,000	90,050	100,025	85,300	460	1,111	100
	경 북	85,340	76,334	95,931	45,899	1,000	6,200	150
	경 남	70,395	62,128	268,788	41,765	320	3,212	124
	제 주	7,211	14,516	13,492	10,050	950	500	0
	합 계	825,288	670,772	1,005,164	528,012	31,355	56,387	1,602
2009	서 울	32,068	24,268	34,560	900	1,066	1,569	100
	부 산	13,573	15,088	58,450	29,868	200	1,624	70
	대 구	71,546	42,172	83,525	47,592	525	1,756	80
	인 천	116,894	118,497	25,443	13,423	100	2,573	100
	광 주	13,392	8,176	13,638	30,215	1,878	1,243	80
	대 전	12,980	18,098	13,981	11,284	780	1,850	160
	울 산	852	1,154	14,963	26,567	780	1,850	58
	경 기	25,348	18,349	41,712	32,221	2,462	2,691	35
	강 원	72,491	28,902	79,890	44,224	1,865	3,914	268
	충 북	41,201	20,479	28,807	33,647	880	5,308	100
	충 남	13,724	9,873	25,437	7,937	200	1,156	200
	전 북	6,736	14,296	30,612	20,685	1,215	2,500	72
	전 남	59,320	84,601	69,120	60,599	460	800	100
	경 북	63,208	55,938	73,600	38,305	1,200	3,284	145
	경 남	58,610	46,367	138,062	28,506	3,143	8,373	185
	제 주	1,700	4,450	7,888	4,150	2,280	500	0
	합 계	603,643	510,708	739,688	430,123	19,034	40,991	1,753

연 도	프로그램 지역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 강좌	레크리 에이션 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2010	부 산	10,259	7,147	44,697	—	200	1,360	70
	대 구	48,360	11,808	1,615	1,386	0	1,640	0
	인 천	14,632	—	55,691	32,916	22,364	—	—
	광 주	10,033	10,150	15,038	20,013	—	1,377	—
	대 전	3,436	—	—	19,726	—	1,420	—
	울 산	900	1,200	15,000	30,000	2,400	1,500	58
	경 기	44,835	21,887	22,833	22,921	205	1,970	—
	강 원	54,846	45,347	72,856	4,614	—	590	13
	충 북	5,312	2,005	31,276	24,401	710	5,053	100
	충 남	2,484	3,100	3,580	—	—	1,158	200
	전 북	63	47	70	39	24	27	50
	전 남	20,360	18,561	16,857	8,257	28,000	954	44
	경 남	45,641	44,061	94,116	29,104	643	3,515	400
	제 주	—	—	11,144	7,510	3,870	—	—
	합 계	261,161	165,313	384,773	200,887	58,416	20,564	933
2011	부 산	16,811	6,612	60,884	—	202	1,360	70
	대 구	32,184	13,624	1,349	1,287	—	1,570	—
	인 천	27,856	3,005	115,222	265,584	73,126	1,071	11
	광 주	1,690	2,630	10,358	24,747	1,500	—	—
	대 전	6,240	—	—	19,726	—	2,130	—
	울 산	1,236	1,363	6,426	—	—	—	—
	강 원	69,110	20,726	107,399	35,125	—	—	—
	충 북	5,834	2,268	30,344	21,888	920	3,960	100
	충 남	2,290	1,760	3,240	—	—	1,340	—
	전 북	3,410	8,547	10,714	24,780	151,493	3,140	—
	전 남	12,384	13,265	12,131	5,732	21,357	1,500	31
	경 남	52,444	49,594	99,537	33,434	1,325	2,434	—
	제 주	—	—	9,250	13,650	60	—	—
	합 계	231,489	123,394	466,854	445,953	249,983	18,505	21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

2009년에는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동기 유발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선수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유명선수에게 직접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성인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전인교육 실천에 기여하였다. 2009년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은 5~11월까지 축구(34교실), 탁구(4교실), 농구(4교실), 배드민턴(3교실), 테니스(3교실), 배구(2교실), 육상(2교실), 핸드볼(2교실), 볼링(2교실), 자전거(2교실), 인라인스케이팅(2교실) 등 11종목 60개 교실이 운영되었다. 이외에도 2010년부터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서울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종목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걷기, 게이트볼, 농구, 수영, 태권도 등 2010년에는 34개 종목에 걸쳐 총 293만 813명이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35개 종목에 걸쳐 총 171만 4,328명이 참가하였다.

(2) 생활체육지도자 접근성 확대

① 생활체육지도자 정책의 의의

생활체육지도자는 프로그램 및 시설과 함께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보급을 위해 1974년부터 경기지도자 1·2급을, 198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2·3급을, 1998년부터 운동처방사인 생활체육지도자 1급을 양성해 왔다. 국가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의무고용제도와 자격 증명의 공신력에 의해 관련 분야 채용 및 개업에 활용도가 높다.

2011년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되는 종목은 모두 42개 종목으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접근성과 프로그램 참여효과 및 참여동기 유발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국민의 생활체육지도자 수혜율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도자의 효율적 수요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체육

지도자공동운영제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눈높이에 적합한 전문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다.

②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사업은 체육지도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는 일종의 체육지도자 뱅크(Bank)라 할 수 있다. 즉 각 급 연수원을 통하여 정부에서 배출한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와 지역 내 체육지도 가능 인력들의 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체육지도자가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에 적절한 지도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의 수요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기관과 지도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등록된 지도자의 현장 배치를 주선하며 생활체육지도자 개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언론매체(소식지, 인터넷)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생활체육지도자 구직구인란)를 지도자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체육지도자공동운영제 등록대상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경기지도자, 체육 관련 학과 학생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의 전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체육지도가 가능한 인력을 파악하여 부족한 지도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양질의 지도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및 배치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12월 말까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 2012년 4월 말까지 자격증을 수령한 체육지도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체육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단위: 명

연 도	구 분	합 계	1급	2급	3급
2008	생활체육지도자	120,929	581	6,590	113,758
	경기지도자	19,823	636	19,187	—
2009	생활체육지도자	134,975	699	7,323	126,953
	경기지도자	22,355	768	21,587	—
2010	생활체육지도자	146,574	769	7,641	138,164
	경기지도자	24,238	844	23,394	—
2011	생활체육지도자	157,346	826	7,932	148,588
	경기지도자	26,462	910	25,552	—

출처: 체육과학연구원(2011), 경기·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각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지도·육성할 유자격 지도자를 행정 구역별로 배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련 업무는 시·도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계획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지도자원을 확보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무지는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관리·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 관리 및 활동예산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정식 유급직원으로 연중 배치되어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체육 현장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하는 지도자 외에도 시간제(Part-Time)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젊은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사업은 노인들이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부터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보수교육을 수료한 지도자를 전국에 배치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은 2006년 250명, 2007년 300명, 2008년 346명, 2009년 474명, 2010년 500명, 2011년 550명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이는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체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배치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들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도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인의 지속적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별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방문 지도·보급하고 있으며, 지역체육동호인조직 가입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도는 지도자가 방문시설의 운동 여건 및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실시종목은 생활체조, 요가, 스트레칭, 에어로빅,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수영, 재활운동, 필라테스, 근력운동, 탁구 등이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련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은 유자격 생활체육지도자로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생활체육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추진된 사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스포츠클럽들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클럽활동의 활성화와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은 생활체육 지도인력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며 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역별 생활체육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자원봉사자를 생활체육 현장의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부족으로 인한 생활체육 진입장벽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3) 생활체육 정보 및 참여 접근성 확대

생활체육 참여가 심신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 건강 유지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올바른 실행방법과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참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활체육 참여 유인과 참여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올바른 참여방법에 대한 홍보와 생활체육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①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확대

생활체육 홍보는 규칙적 참여자의 지속적 참여를 유인하고 비참여자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촉진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홍보 사업은 ‘스포츠 7330’으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취지 아래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계획적 홍보 사업이며, 생활체육이 올바른 참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 스포츠 7330 정책 태동배경

• 생산적인 여가문화로의 전환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여가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가형태는 TV시청, 낮잠 등 단순휴식과 외식, 쇼핑 등 소비형 여가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 이에 국민 여가시간을 저비용 고효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문화로 전환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했다.

•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 제시

스포츠활동이 가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보다는 '보는 스포츠'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보는 스포츠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스포츠활동 직접 참여자의 운동상해 예방과 참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생활체육 향유계층의 양극화 해소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인구는 32%(문화체육관광부(2010),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계층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짙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적극 유인하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국민의 체력지수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10년 이상 낮아 노인의료비 부담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 스포츠 7330의 과학적 의미

스포츠 7330은 스포츠 참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 채택된 캠페인이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가 갖는 과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을 해야 하는가?

스포츠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신체활동 등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영향이 지속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주일에 5일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4일의 운동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최대의 건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해야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왜 30분 이상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선행연구 결과 5~10분 동안 지구성 운동만 하더라도 심폐지구력이 증가하지만 운동효과 측면에서는 30분 이상이 유효하다고 한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말은 투자시간에 비해 가장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운동에너지 소모와 관련이 있다. 운동할 때 사용되는 주 에너지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다. 이 중 탄수화물은 낮은 중강도 운동 때 주요 기질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시간(30분 이상) 운동 시에는 탄수화물 대사로부터 점차 지방으로 기질대사의 의존율이 증가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30분 이상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 운동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운동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운동의 강도 결정의 주요 표준은 최대운동능력을 100으로 했을 때 약 몇 %의 강도로 할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운동 심박수의 약 60~70% 내외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의 경우, 특히 중장년층은 60% 이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60% 정도의 운동강도는 통상 목표 심박수 130 정도이며, 목표 심박수는 $\{(220 - \text{본인나이}) \times 0.6\}$ 이다. 독일의 생활체육 슬로건인 'Trimming 130'은 바로 심박수를 130이상으로 올리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운동을 하고 나면 대체로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축축하게 난다.

- **스포츠 7330 정책 경과**

정부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과 홍보물 제작·배포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7330 정책 추진경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스포츠 7330 정책 추진경과

정책 개발 및 적용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운동참여방법에 관한 스포츠과학적 가이드 마련 • 운동 참여 계몽을 위한 로고 개발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범국민 가두캠페인 전개
다양한 캠페인 전개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브랜드로 선정하고 비전 및 미션 설정 • 언론과 연계하여 기획보도·각종 광고, 직접홍보 등 캠페인의 다원화 •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직접홍보 강화
맞춤형 캠페인 전개 (2007년 이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스포츠 7330 캠페인' 전개 • 인지도 조사를 토대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캠페인 정책방향을 설정 • 공모전을 통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에 대한 국민관심 유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스포츠 7330의 단계별 로드맵

스포츠 7330은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선포식과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40~50%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기법을 다양화하고 스포츠 7330 아젠다를 형성하였고, 3단계에서는 생활체육 참여율 50% 목표 달성을 위해 스포츠 7330 생활화와 브랜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2-6 스포츠 7330 단계별 목표와 내용

구 분	1단계(시범 사업-도입)	2단계(정착사업-확산)	3단계(강화)
목표	생활체육 참여율 40%	생활체육 참여율 40~50%	생활체육 참여율 50% 이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선포식 • 로드맵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기법의 다양화 • 스포츠 7330 아젠다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생활화 • 브랜드의 국제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2-7 스포츠 7330 대중언론매체 캠페인 실적

1단계 (2005~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명칭 확정, 브랜드 알리기 위한 전략 수립 • 스포츠 7330 선포식 및 퍼레이드 전개
2단계 (2007~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TOOL의 다변화(온-오프라인 병행, 틈새광고 시행) • 학교기관과 연계(세미나, 학술대회, 교과과정에 편성) • 관공서 및 사회단체 집회 시 스포츠 7330의 이슈화 • 종목별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 확산 • 지역문화 축제 및 각종 행사시 스포츠 7330 캠페인과 연계 • 생명보험사 및 기업체와 연계 공동 프로젝트 추진 •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츠클럽 활성화
3단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7330 노래 제정, 확산 • 브랜드 상품 개발(캐릭터 개발, 브랜드의 상품화 등) • 브랜드의 해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국제교류, 세계한민족축전 참가자들을 통한 홍보 - 각종 국제대회 시 한국 선수단을 통한 노출 - 재외공관,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문화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 전개를 통한 접근성 확대

정부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범국민 생활체육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은 TV·라디오, 주요 일간지 및 기타 간행물, 지하철, 전광판, 인터넷, 극장 등에 생활체육에 관한 이미지광고를 게재하고, 생활체육정책,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방법 및 효과, 외국의 사례, 뉴스포츠, 동호인 활동 사항 등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국민생활체육지를 제작하여 지역별·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활동 소식과 생활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8 범국민 생활체육캠페인 추진실적

연 도	보도실적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광고
2008	1,190회	28회	37회	186회
2009	1,380회	41회	594회	217회
2010	1,490회	45회	30회	248회
2011	1,680회	32회	31회	181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③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접근성 확대

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전달 및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21세기가 정보화사회로 변화되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각종 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이 새롭게 등장하고 인터넷이 정보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생활체육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유하는 e-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정보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2절 생활체육 참여의 질 제고

1. 생활체육 참여의 질 제고 정책의 의의

스포츠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이 1975년 3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 회의에서 천명되면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관련 사회운동 및 국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1986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등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는 양적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생활체육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참여결과의 효과로 나타나는 체력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2011), 《국민체력 실태 조사》).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여의 질적인 측면, 즉 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생활체육 참여행태와 참여 지속성 문제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생활체육 참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둔 생활체육 진흥 정책이 생활체육 참여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질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2009년부터 생활체육 참여의 양적 확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과 건강 유지 및 증진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생활체

육 참여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민체력 100’ 사업(구(舊) 국민체력인증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생활체육의 규칙적·지속적 참여의 주요 동인인 동호인클럽활동 지원사업과 국민의 체육활동선호도 등 체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양질의 전문적 체육지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생활체육 참여 질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

(1) 국민체력 100(일공공) 추진

① 추진배경 및 경과

국민체력 100(구(舊)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하고 체력이 인증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공인된 인증기관이 체력을 인증(Award)하는 국민의 체육 복지서비스이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인증(체력상)’이라는 도전적 동기(Motive)를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증대시키고, 건강한 체력에 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해 준다. 또한 개인 체력수준 맞춤형으로 전문가가 처방해 준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기반해 체육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 및 건강증진의 효과를 거양하여 체육활동 참여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체력수준이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비율이 4.6%에 불과하며 국가에서 체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80%로 매우 높고 국민의 68.6%가 체력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는 국민의 요구에 입각해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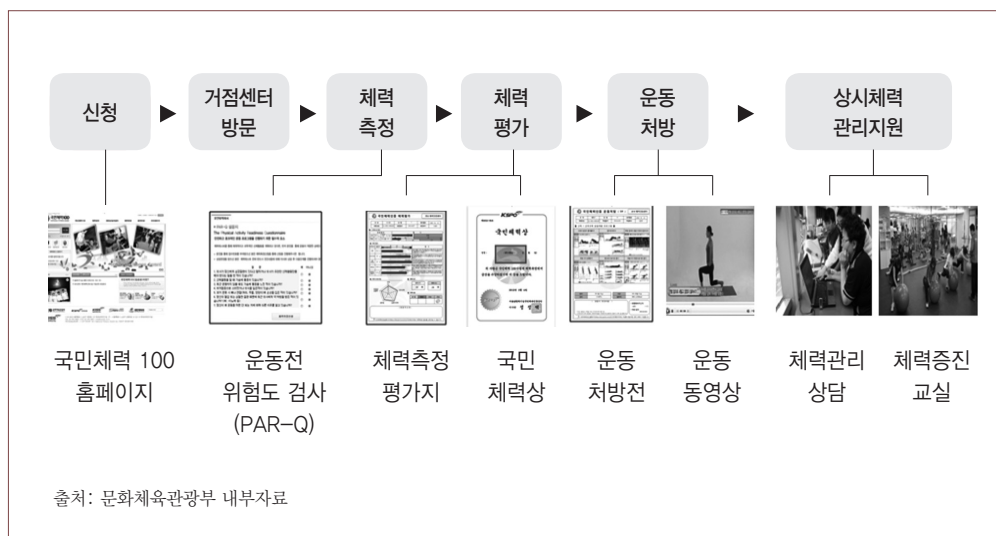
국민체력 100 사업의 시초는 2005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입각해 청소년의 체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청소년체력인증제 운영 및 기준 개발 연구이다. 이후 국민체력인증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의 기본계획 등의 연구가 수행되다가 국민생활체육 진흥의 정책 사업으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2010년 만 19~64세 성인 대상 체력인증기준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국민체력인증 사업

운영 및 활성화방안 연구가 수행되어, 국민체력 100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2011년 국민체력 100의 시범 사업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012년에는 체육과학연구원에 ‘국민체력사업팀’을 신설하여 국민의 국민체력 100사업 참여기회 확대와 참여의 질 제고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에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별 거점체력관리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체육활동 생활화와 참여효과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노인 대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체력인증기준 개발, 운동처방 프로그램 및 동영상 개발, 국민체력 100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국민체력 100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민체력 100은 사업대상을 연차적으로 청소년, 장애인 등 전 국민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② 사업 운영내용

국민체력 100 사업은 국민체력 100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를 접수한 후 거점센터에 방문하여 체력을 측정하고 체력평가를 받는 절차로 운영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체력평가 결과자료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받고 전문가에 의한 체력관리 상담 및 체력증진교실 참여를 통해 체력관리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2-1 국민체력 100 사업 운영 흐름도



국민체력 100 사업은 2011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2012년 현재 만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2011년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에서 시범 사업이 운영되었으며 실제 체력측정 등이 이루어진 3개월간 4,583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 사업은 성인 대상 체력수준 평가 및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지도 등 체력관리 에 초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다.

2012년 국민체력 100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 거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사업주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며 시행은 거점체력인증센터이다.

국민체력 100 사업의 체력 측정항목은 신체조성, 건강체력, 운동체력 분야의 8개 항목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체력요인과 운동수행에 필요한 운동체력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체력 100 사업은 국민이 체력 및 건강상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와 체력 및 건강 증진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국민체력 100 사업의 참여 유인을 위한 기재로서 체력측정 결과를 토대로 인증단계별 인증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참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특히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운동교실뿐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인 이외에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민의 생활체육의 참여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2-9 국민체력 100의 체력측정요인, 측정항목, 측정방법

구 분	요 인	측정항목	측 정 방 법	비 고
체 격	신체조성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신장, 체중 측정 / 체성분측정기	필수/선택
체 력	건강체력	근 력	상대악력	필 수
		근지구력	교차윗몸일으키기 / 윗몸말아올리기(택일)	필 수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20m)	필 수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필 수
	운동체력	민첩성	왕복달리기(10m×4회)	택 일
		순발력	제자리멀리뛰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2-10 국민체력 100의 인증 단계 및 수상기준

구 분	인증 단계	수 상 기 준
체력인증수상	금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30% 이내(신체조성 제외)
	은 상	5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50% 이내(신체조성 제외)
	동 상	4개 검사기록이 모두 상위 70% 이내 (체지방률 또는 BMI가 건강 권장 범위일 때)
	참가증	기타 참가자(위 수상기준 미달자)
신체조성건강 권장범위	남 자	7% < 체지방률 < 25% 또는 18 < BMI < 25
	여 자	16% < 체지방률 < 32% 또는 18 < BMI < 2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동호인클럽활동 지원

이 사업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동호인에게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동호인클럽활동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 유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가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과 동호인행사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수와 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①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동호인클럽은 생활체육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며 합리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해 전국종목별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는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연합체로서 지역 및 클럽 간 체육교류활동을 가능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종목별연합회 발전은 동호인클럽 육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은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인 전국연합회를 육성·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구심단체로서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운영방침은 생활체육 종목별동

호인클럽활동의 구심체를 확대하고, 신규 종목별연합회 결성을 유도하며, 동호인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규모대회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동호인클럽의 관리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국연합회가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52개 단체(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자전거, 스케이팅, 윈드서핑, 탁구, 테니스, 족구, 배구, 사격, 궁도, 스키, 스킨스쿠버, 볼링, 택견, 생활체조, 풋살,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정구, 보디빌딩, 승마, 줄다리기, 야구, 농구, 국무도, 골프, 당구, 검도, 태권도, 국학기공, 등산, 씨름, 인라인스케이팅, 낚시, 철인3종, 수영, 우슈, 스쿼시, 종합무술, 라켓볼, 하키, 익스트림게임즈, 인라인하키, 그라운드골프, 줄넘기, 핸드볼, 파크골프 외 향후 추가될 2개 단체)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종목별연합회의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로서, 신규 전국종목별연합회 결성 확대 및 활성화 지원 등이다.

주요 지원사업은 종목별연합회의 전국규모대회, 종목별 초보자 및 지도자 강습회 등이다. 또한 전국종목별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지도사업으로 전국연합회 결성종목의 시·도연합회 확대 결성 유도, 전국연합회 사무처 직원 실무교육 실시, 전국연합회에 대한 업무지도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 확대를 위해 국민 참여도가 높은 종목, 향후 동호인 확산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 자연친화 및 극기 종목, 레저스포츠 등을 확대 지원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 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의 중심체인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왔다.

② 생활체육대회 개최

●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

체육활동 참여자에게 자신의 기량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체력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유인책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격려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 사업이 되고 있다.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사업은 전국종목별동호인행사를 지원하여 체육의 생활화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종목별동호인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동호인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사업은 전국연합회별동호인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지방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지역 분산 개최를 권장하며, 종목별 지역동호인클럽의 신규 육성 및 친선 교류기회가 확대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은 전국 일원에서 종목별로 연중 개최되며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운영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대회 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종목별 장관기 대회는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시·도 대항전 경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특성상 시·도 대항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클럽 대항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은 46개 종목 124개 대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규모는 13만 2,754명이었다. 2009년에는 46개 종목 133개 대회, 2010년에는 50개 종목 122개 대회, 2011년에는 48개 종목 127개 대회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참가규모는 2009년 11만 635명, 2010년 12만 4,520명, 2011년 12만 2,613명이었다.

표 2-11 종목별동호인행사 지원사업 추진실적

구 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대회종목 수	46종목	46종목	50종목	48종목
대회 수	124회	133회	122회	127회
참가규모	132,754명	110,635명	124,520명	122,613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1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서, 동호인 개개인의 명예와 성취감 고취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기회를 마련하며 생활체육 실천으로 개인적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전으로 개최되며, 언론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제 생활체육 교류행사와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되고 있다. 매년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며 체육경기 외에 지역문화행사와 지역문화축제, 내 고향 특산물 전시회, 뉴스포츠 체험, 온 가족 함께 걷기대회, 지역명소 탐방, 이동건강검진센터 등 각종 부대행사가 열린다. 이외에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세미나가 개최된다.

표 2-12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현황

연 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 시 종 목
2008	5.23.~5.25. (대구광역시)	6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 선수 24,795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종목(25개):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 스케이팅, 국학기공 – 민속종목(4개): 국무도, 씨름, 줄다리기, 택견 • 시범종목(9개):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종합무술, 스쿼시, 라켓볼, 낚시 • 대학동아리(2개): 농구, 축구 • 장애인(4개): 탁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 전시종목(2개): 그라운드골프, 론볼
2009	5.22.~5.24. (전라북도)	6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6,723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종목(26개):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 스케이팅, 국학기공, 낚시 – 민속종목(3개): 씨름, 택견, 줄다리기 • 시범종목(9개):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스쿼시, 라켓볼, 국무도, 윈드서핑 • 대학동아리(2개): 축구, 농구 • 장애인(6개): 탁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게이트볼, 당구 • 전시종목(4개): 그라운드골프, 우슈, 론볼, 파크골프(장애인 종목)
2010	6.11.~6.13. (부산광역시)	6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7,162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종목(26개):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 스케이팅, 국학기공, 낚시 – 민속종목(3개): 씨름, 택견, 줄다리기 • 시범종목(10개):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스쿼시, 라켓볼, 국무도, 윈드서핑, 그라운드 골프 • 대학동아리(2개): 축구, 농구 • 장애인(6개): 탁구,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게이트볼, 당구 • 전시종목(3개): 우슈, 론볼, 파크골프(장애인 종목)
2011	10.28.~10.30. (인천광역시)	6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27,055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종목(41개): 축구, 육상, 배드민턴, 게이트볼, 정구, 탁구, 테니스, 볼링, 족구,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야구, 농구, 당구, 합기도, 풋살,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보디빌딩, 태권도, 등산, 인라인스케이팅, 국학기공, 낚시, 씨름, 택견, 줄다리기, 궁도, 철인3종, 골프, 사격, 승마, 윈드서핑, 라켓볼, 스쿼시, 국무도, 그라운드골프, 축구(대학), 농구(대학) • 장애우종목(6개): 탁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게이트볼, 당구 • 전시종목(4개): 우슈, 론볼, 파크골프(장애인 종목), e-스포츠경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로서 2007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대한노인회 노인건강축제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6개 시·도에서 참가한 종목별동호인 경기와 통합하여 게이트볼 등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노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견인함으로써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 대회는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대회로 추진되며, 시·도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종목별 경기를 비롯해 문화·부대행사와 연계된 예술단체 공연, 지역문화축제(풍물놀이, 예술제 등), 내 고향 특산물 전시회 및 먹거리 장터, 실버용품 전시회, 지역명소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2-13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현황

연 도	기간/장소	참가인원	실 시 종 목
2008	9.8.~9.10. (경기도 수원)	1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7,243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장기, 바둑
2009	9.9.~9.11. (인천광역시)	1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23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2010	9.29.~10.1. (전라북도 익산시)	1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00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낚시, 그라운드골프
2011	9.21.~9.23. (대전광역시)	10,000여 명 (16개 시·도, 임원·선수 8,000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종목 - 게이트볼 I, II,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생활체조, 자전거, 국학기공, 정구, 당구, 등산, 장기, 바둑, 낚시, 그라운드골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③ 동호인리그

●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

이 사업은 지역별, 종목별동호인들의 연중 리그를 통하여 지역사회 동호인활동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국민생활체육 진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종목별 리그에는 동호인클럽전담지도자(234명)가 배치되어 연중 지속되는 동호인 리그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역동호인클럽리그는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의 기초사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군·구 생활체육동호인클럽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 복지혜택을 균등히 제공하고 생활체육동호인 저변 확대를 도모하며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의 체계적인 육성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표 2-14 동호인클럽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명

지 역	지도자 수	지 역	지도자 수	지 역	지도자 수	지 역	지도자 수
서 울	25	광 주	5	강 원	18	전 남	22
부 산	16	대 전	5	충 북	12	경 북	23
대 구	8	울 산	5	충 남	16	경 남	20
인 천	10	경 기	31	전 북	14	제 주	4

※ 2008~2011년 지도자 수 동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따라서 지역동호인클럽 활성화 사업의 운영 방침은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실정과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해 시·군·구별로 2개 종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역별 동호인클럽 간 정기 교류전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동호인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업은 지역별로 연중 실시되며 지역별, 종목별 특성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표 2-15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사업 추진실적

구분	2008	2009	2010
추진 실적	234개소 115,394회 3,995,645명	234개소 107,918회 3,324,578명	234개소 313,178회 3,050,130명
종목	생활체육종목 중 2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종목 중 2종목 이상 선택 실시	생활체육종목 중 2종목 이상 선택 실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이 사업은 2005년 ‘즐거운 주말리그’ 사업과 ‘시·도 동호인클럽 운영지원’ 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외에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과 동호인클럽 등록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호인클럽 등록업무는 지역에 배치된 동호인클럽전담지도자가 시·군·구 생활체육회 및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에 등록된 클럽현황을 취합하여 매월 국민생활체육회 주전산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1년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회원수는 6.3%이며, 축구가 52만 1,2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체조 16만 5,027명, 배드민턴 15만 2,523명, 테니스 12만 2,022명, 게이트볼 11만 9,973명, 탁구 10만 1,799명 순으로 많았다.

표 2-16 시·도 종목별대회 지원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대회 수(회)	738	385	458	482
참가인원(명)	325,868	249,929	236,332	152,69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2-17 인구 대비 동호인클럽 현황

연 도	구분 지역	인구 수	계		지 역		직 장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2008	계	48,497,166	95,075	2,985,253(6.2)	79,138	2,509,142	15,937	476,111
	서울	10,043,258	10,168	315,375(3.1)	7,032	213,977	3,136	101,398
	부산	3,591,677	5,514	164,512(4.6)	4,453	136,674	1,061	27,838
	대구	2,547,186	3,951	133,765(5.3)	3,650	128,202	301	5,563
	인천	2,603,480	5,150	176,530(6.8)	4,403	157,307	747	19,223
	광주	1,440,096	3,382	86,516(6.0)	3,068	77,830	314	8,686
	대전	1,469,304	2,856	235,856(16.1)	2,107	175,818	749	60,038
	울산	1,097,679	3,847	95,434(8.7)	3,600	89,721	247	5,713
	경기	10,954,856	19,790	630,472(5.8)	18,444	597,801	1,346	32,671
	강원	1,473,661	3,825	107,340(7.3)	3,487	99,372	338	7,968
	충북	1,485,544	6,325	163,924(11.0)	4,552	123,312	1,773	40,612
	충남	1,921,046	5,623	173,163(9.0)	4,306	154,089	1,317	19,074
	전북	1,793,980	3,042	95,336(5.3)	2,503	78,326	539	17,010
	전남	1,820,250	4,451	123,352(6.8)	3,586	96,787	865	26,565
	경북	2,622,822	7,530	219,714(8.4)	6,293	177,974	1,237	41,740
	경남	3,090,575	6,764	188,875(6.1)	5,219	137,073	1,545	51,802
	제주	541,752	2,857	75,089(13.9)	2,435	64,879	422	10,210
2009	계	48,746,693	97,697	3,081,436(6.3)	81,717	2,604,286	15,980	477,150
	서울	10,036,377	10,313	320,206(3.2)	7,177	218,808	3,136	101,398
	부산	3,471,154	5,794	173,206(5.0)	4,733	145,367	1,061	27,839
	대구	2,443,994	3,962	133,994(5.5)	3,661	128,431	301	5,563
	인천	2,645,189	5,150	176,530(6.7)	4,403	157,307	747	19,223
	광주	1,448,818	3,584	97,576(6.7)	3,270	88,890	314	8,686
	대전	1,505,957	2,910	236,803(15.7)	2,161	176,765	749	60,038
	울산	1,089,451	3,979	97,157(8.9)	3,732	91,444	247	5,713
	경기	11,446,877	19,790	630,472(5.5)	18,444	597,801	1,346	32,671
	강원	1,452,148	3,872	116,115(8.0)	3,534	108,147	338	7,968
	충북	1,480,661	6,805	180,196(12.2)	5,032	139,584	1,773	40,612
	충남	1,951,218	5,840	180,434(9.2)	4,486	160,719	1,354	19,715
	전북	1,724,035	3,042	95,259(5.5)	2,503	78,249	539	17,010
	전남	1,761,820	4,503	126,626(7.2)	3,639	99,981	864	26,645
	경북	2,606,056	8,361	248,486(9.5)	7,124	206,747	1,237	41,739
	경남	3,136,682	6,829	189,943(6.0)	5,284	138,141	1,545	51,802
	제주	546,256	2,963	78,433(14.4)	2,534	67,905	429	10,528

연 도	구분 지역	인구 수	계		지 역		직 장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클럽 수	회원 수
2010	계	48,874,539	97,815	3,085,879(6.3)	81,835	2,608,679	15,980	477,200
	서울	10,038,916	10,313	320,206(3.2)	7,177	218,808	3,136	101,398
	부산	3,445,562	5,808	173,655(5.0)	4,747	145,816	1,061	27,839
	대구	2,431,017	3,962	133,994(5.5)	3,661	128,431	301	5,563
	인천	2,660,610	5,150	176,530(6.6)	4,403	157,307	747	19,223
	광주	1,450,267	3,584	97,576(6.7)	3,270	88,890	314	8,686
	대전	1,515,084	2,915	236,903(5.6)	2,166	176,865	749	60,038
	울산	1,093,657	3,986	97,263(8.9)	3,739	91,550	247	5,713
	경기	11,636,673	19,790	630,472(5.4)	18,444	579,801	1,346	32,671
	강원	1,442,929	3,879	117,102(8.1)	3,541	109,134	338	7,968
	충북	1,478,998	6,845	181,552(2.3)	5,072	140,940	1,773	40,612
	충남	1,958,523	5,850	180,733(9.2)	4,496	161,018	1,354	19,715
	전북	1,702,960	3,042	95,259(5.6)	2,503	78,249	539	17,010
	전남	1,740,076	4,505	126,760(7.3)	3,641	100,065	864	26,695
	경북	2,591,549	8,361	248,486(9.6)	7,124	206,747	1,237	41,739
	경남	3,140,817	6,834	190,039(6.1)	5,289	138,237	1,545	51,802
	제주	546,901	2,991	79,349(4.5)	2,562	68,821	429	10,528
	계	48,988,833	74,784	3,081,448(6.3)	70,865	2,650,700	3,919	430,718
2011	서울	10,038,905	6,685	422,341(4.2)	6,285	354,825	400	67,516
	부산	3,420,679	3,295	156,352(4.6)	3,013	101,666	282	54,686
	대구	2,417,943	3,846	129,627(5.4)	3,566	114,047	280	15,580
	인천	2,675,476	3,735	173,684(6.5)	3,693	163,823	42	9,861
	광주	1,451,394	4,532	208,651(14.4)	4,394	188,603	138	20,043
	대전	1,523,840	1,931	237,472(15.6)	1,882	163,948	49	73,524
	울산	1,097,354	3,062	99,083(9.0)	2,965	87,330	97	11,753
	경기	11,817,528	10,702	322,976(2.7)	10,233	299,884	469	45,092
	강원	1,433,625	4,896	153,790(10.7)	4,589	126,685	307	27,105
	충북	1,477,089	4,988	144,838(9.8)	4,780	135,668	208	9,170
	충남	1,965,578	3,600	160,298(8.2)	3,293	140,929	307	19,369
	전북	1,682,992	3,386	225,539(13.4)	3,124	206,763	262	18,776
	전남	1,718,450	5,320	135,511(7.9)	4,839	114,889	481	20,622
	경북	2,576,901	5,011	173,303(6.7)	4,773	149,982	238	23,321
	경남	3,143,687	7,363	241,931(7.7)	7,086	232,816	277	9,090
	제주	547,392	2,432	74,052(13.5)	2,350	68,842	82	5,210

※ 인구수는 매해 12월 말 기준 추계 인구수이며, 괄호 안은 인구 대비 회원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2-18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현황(매해 12월 말 기준)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08	계	95,075	2,985,253	축구	14,667	482,942
	검도	1,385	59,133	카누	11	215
	경당	47	361	탁구	3,634	79,822
	게이트볼	6,382	118,385	태권도	2,647	159,791
	골프	534	15,620	태극권	41	1,285
	궁도	666	17,360	택견	590	20,092
	그라운드골프	184	3,735	테니스	7,942	226,018
	기공	13	666	패러글라이딩	686	14,874
	낚시	1,577	39,528	풋살	1,417	18,822
	농구	3,125	43,228	피구	47	1,026
	단전호흡	40	1,062	필드하키	25	544
	단학기공/법륜궁	1,510	52,985	합기도	1,372	63,685
	당구	1,180	27,051	항공스포츠	26	2,301
	댄스 스포츠	525	36,633	핸드볼	33	554
	등산	3,512	184,637	헬스	610	34,582
	라켓볼	203	4,038	행글라이딩	18	314
	럭비	32	1,018	MTB	33	2,505
	레크리에이션	157	5,855	X-게임	28	1,247
	롤러스케이팅	126	8,124	스포츠글라이딩	1	30
	무에타이	13	340	캠프	252	2,216
	미식축구	38	694	인라인하키	214	15,477
	배구	2,321	48,559	국무도	221	7,751
	배드민턴	4,297	158,092	아이스하키	7	361
	보디빌딩	1,221	70,584	트라이애슬론	43	2,204
	복싱	118	3,455	부메랑던지기	3	65
	볼링	9,770	220,687	레포츠	15	2,066
	사격	237	4,692	레슬링	5	344
	사이클	173	6,611	론볼링	7	214
	생활체조	3,126	168,507	민속경기	44	18,480
	석궁	6	146	생활무술기공	11	464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08	소프트볼	120	2,438	전통무예	4	54
	수상스키	70	3,352	우드볼	29	1,052
	수영	1,292	52,335	열기구	1	32
	스케이팅/빙상	190	5,887	양 궁	5	56
	스쿠버다이빙	52	1,481	해동검도	26	2,541
	스쿼시	355	11,963	레저복싱	11	269
	스키	284	9,113	클라이밍	21	592
	스킨스쿠버	458	16,612	격투기	11	731
	승마	286	5,450	기천문	1	52
	씨바이벌	8	266	킥복싱	19	642
	씨름	377	8,080	활기도	1	38
	야구	2,879	63,513	오리엔티어링	23	304
	에어로빅	1,309	57,587	파크골프	50	1,002
	역도	6	167	보치아	1	16
	요가	287	11,873	경비행기	9	539
	요트	15	313	걷기	13	606
	우슈/쿵후	313	11,552	법률대법	14	318
	윈드서핑	194	4,052	프리테니스	50	1,171
	유도	165	4,607	인라인스케이팅	595	52,038
	육상/조깅마라톤	1,956	54,942	펜싱	-	-
	자전거	879	23,324	특공무술	47	1,917
	전통무용	109	2,975	경호무술	7	460
	정구	573	12,636	무예24기	3	168
	족구	3,983	67,288	궁수도	7	187
	줄넘기	197	7,639	싱크로빅스	3	4,207
	줄다리기	161	3,076	건강달리기	60	2,515
	종합무술	283	6,718	국선도	7	334
	철인3종	87	2,070	모터스포츠	1	26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09	계	97,697	3,081,436	카누	11	216
	검도	1,438	62,696	탁구	3,689	81,933
	경당	47	373	태권도	2,655	160,110
	게이트볼	6,421	120,331	태극권	45	1,388
	골프	574	17,368	택견	593	20,143
	궁도	678	17,968	테니스	7,990	229,656
	그라운드골프	235	5,070	패러글라이딩	687	14,919
	기공	13	682	풋살	1,549	20,855
	낚시	1,784	46,465	피구	47	1,026
	농구	3,172	44,614	필드하키	25	544
	단전호흡	44	1,072	합기도	1,376	63,796
	단학기공/법륜궁	1,645	58,332	항공스포츠	25	2,269
	당구	1,189	26,983	핸드볼	33	559
	댄스 스포츠	579	39,966	헬스	622	34,933
	등산	3,527	186,196	행글라이딩	18	315
	라켓볼	205	4,053	MTB	39	5,223
	력비	33	1,037	X-게임	28	1,247
	레크리에이션	173	6,586	스포츠글라이딩	1	30
	롤러스케이팅	125	8,117	캠핑	254	2,344
	무에타이	17	482	인라인하키	214	15,477
	미식축구	38	694	국무도	224	7,938
	배구	2,473	54,049	아이스하키	7	361
	배드민턴	4,406	163,682	트라이애슬론	43	2,204
	보디빌딩	1,259	72,197	부메랑던지기	3	54
	복싱	120	3,671	레포츠	16	2,126
	볼링	9,925	223,466	레슬링	5	344
	사격	237	4,781	론볼링	7	214
	사이클	176	6,806	민속경기	44	18,484
	생활체조	3,362	178,614	생활무술기공	11	464
	석궁	6	146	전통무예	4	54
	소프트볼	124	2,501	우드볼	29	1,052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09	수상스키	70	3,351	열기구	1	32
	수영	1,339	54,396	양 궁	5	56
	스케이팅/빙상	198	6,142	해동검도	26	2,541
	스쿠버다이빙	52	1,481	레저복싱	11	269
	스쿼시	429	14,039	클라이밍	21	592
	스키	301	9,948	격투기	11	731
	스킨스쿠버	459	16,520	기천문	1	52
	승마	306	5,807	킥복싱	19	642
	서바이벌	8	315	활기도	1	38
	씨름	391	8,428	오리엔티어링	23	304
	야구	2,965	65,133	파크골프	70	1,633
	계	97,815	3,085,879	카누	11	216
2010	검도	1438	62,732	탁구	3,695	82,214
	경당	47	373	태권도	2,656	160,125
	게이트볼	6423	120,374	태극권	45	1,388
	골프	580	17,566	태권	593	20,143
	궁도	678	17,993	테니스	7992	229,822
	그라운드골프	238	5,171	패러글라이딩	687	14,919
	기공	13	682	풋살	1555	20,958
	낚시	1785	46,477	피구	47	1,026
	농구	3179	44,732	필드하키	25	544
	단전호흡	44	1,072	합기도	1377	73,816
	단학기공/법륜궁	1654	58,636	항공스포츠	25	2,269
	당구	1189	26,992	핸드볼	33	559
	댄스 스포츠	580	40,036	헬스	624	34,995
	등산	3530	186,274	행글라이딩	18	315
	라켓볼	205	4,053	MTB	39	5,223
	럭비	33	1,037	X-게임	28	1,247
	레크리에이션	174	6,645	스포츠글라이딩	1	30
	롤러스케이팅	125	8,117	캠핑	254	2,344
	무에타이	17	482	인라인하키	214	15,447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10	미식축구	38	694	국무도	225	7,968
	배구	2482	54,417	아이스하키	7	361
	배드민턴	4409	163,768	부메랑던지기	3	54
	보디빌딩	1259	72,197	레포츠	16	2,126
	복싱	122	3,708	레슬링	5	344
	볼링	9933	223,573	론볼링	7	214
	사격	237	4781	민속경기	44	18,484
	사이클	176	6,806	생활무술기공	11	464
	생활체조	3371	179,156	전통무예	4	54
	석궁	6	146	우드볼	29	1,052
	소프트볼	124	2,501	열기구	1	32
	수상스키	70	3,351	양 궁	5	56
	수영	1340	54,630	해동검도	26	2,541
	스케이팅/빙상	198	6142	레저복싱	11	269
	스쿠버다이빙	52	1,481	클라이밍	21	592
	스쿼시	434	14,180	격투기	11	731
	스키	306	10,179	기천문	1	52
	스킨스쿠버	459	16,520	킥복싱	19	642
	승마	312	5,929	활기도	1	35
	서바이벌	8	315	오리엔티어링	23	304
	씨름	391	8,428	파크골프	70	1,633
	야구	2967	65,180	보치아	19	7
	에어로빅	1357	61,009	경비행기	9	53
	역도	6	167	견기	20	1,087
	요가	363	14,767	법률대법	11	261
	요트	15	313	프리테니스	64	1336
	우슈/쿵푸	350	12,120	인라인스케이팅	618	52,976
	윈드서핑	195	4098	특공무술	47	1917
	유도	185	5415	경호무술	8	468
	육상/조깅마라톤	1989	56,330	무예24기	3	168
	자전거	911	24,406	궁수도	7	194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10	전통무용	131	3381	싱크로빅스	8	4,357
	정구	579	12,579	건강달리기	64	2,905
	족구	4056	68,163	국선도	8	412
	줄넘기	238	8,982	모터스포츠	5	51
	줄다리기	166	3,184	바둑	31	1062
	종합무술	292	6,877	스포츠마사지	5	401
	철인3종	131	4,294	축구	14857	488,519
2011	계	74,784	3,081,448	택견	582	20,916
	검도	1,512	60,046	테니스	3,348	122,022
	경당	26	516	패러글라이딩	414	9,731
	게이트볼	4,473	119,973	풋살	1,647	53,690
	골프	692	18,255	피구	141	5,775
	궁도	610	21,985	필드하키	45	2,041
	그라운드골프	585	19,721	합기도	1,495	85,768
	가공	108	3,078	항공스포츠	17	1,509
	낚시	369	9,597	핸드볼	29	1,027
	농구	1,704	33,807	헬스	0	0
	단전호흡	99	4,978	행글라이딩	24	1,308
	단학기공/법륜궁	0	0	MTB	201	10,128
	당구	855	29,346	X-게임	93	4,308
	댄스 스포츠	1,373	43,139	스포츠글라이딩	15	125
	등산	1,149	53,747	캠프	42	3,446
	라켓볼	117	4,114	인라인하키	26	1,549
	럭비	20	837	국무도	166	5,794
	레크리에이션	146	11,723	아이스하키	16	444
	롤러스케이팅	17	284	철인3종	0	0
	무에타이	67	2,361	부메랑던지기	5	125
	미식축구	23	440	레포츠	39	2,048
	배구	2,582	57,028	레슬링	7	441
	배드민턴	3,468	152,523	론볼링	21	1,130
	보디빌딩	773	39,678	민속경기	157	11,923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11	복싱	244	6,047	생활무술기공	10	230
	볼링	3,464	73,924	전통무예	21	1,004
	사격	186	4,357	우드볼	31	1,468
	사이클	40	3,098	열기구	6	314
	생활체조	4,331	165,027	양 궁	31	516
	석궁	5	147	해동검도	24	1,390
	소프트볼	110	4,223	레저복싱	5	195
	수상스키	63	3,461	클라이밍	50	1,396
	수영	1,198	56,213	격투기	122	4,940
	스케이팅/빙상	97	3,867	기천문	6	239
	스쿠버다이빙	0	0	킥복싱	52	1,015
	스쿼시	406	19,513	활기도	5	247
	스키	226	10,506	오리엔티어링	0	0
	스킨스쿠버	254	6,890	파크골프	265	6,697
	승마	219	7,228	보치아	3	79
	서바이벌	57	2,877	경비행기	4	112
	씨름	415	19,241	견기	371	37,356
	야구	2,728	70,992	법률대법	28	899
	에어로빅	888	29,168	프리테니스	125	3,183
	역도	23	485	인라인스케이팅	796	25,242
	요가	937	38,315	펜싱	25	1,335
	요트	59	1,212	특공무술	88	5,278
	우슈/쿵푸	307	9,687	경호무술	56	1,845
	윈드서핑	94	1,893	무예24기	0	0
	유도	249	9,222	궁수도	23	2,727
	육상/조깅마라톤	387	25,314	아쿠아빅스	0	0
	자전거	780	26,783	건강달리기	1,498	67,903
	전통무용	302	9,327	국선도	50	3,494
	정구	507	14,589	모터스포츠	14	346
	족구	3,201	60,849	바둑	212	8,471
	줄넘기	586	22,084	스포츠마사지	4	76

연 도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종목	클럽 수	회원 수
2011	줄다리기	214	7,524	국학기공	1,453	68,551
	종합무술	277	10,105	벨리댄스	135	4,133
	철인3종	161	5,890	세팍타크로	5	47
	축구	9,354	521,243	싱크로빅스	6	169
	카누	113	5,293	열기구	0	0
	탁구	3,355	101,799	음악줄넘기	43	2,266
	태권도	2,380	81,557	기타	1,615	351,496
	태극권	87	4,41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종목별클럽리그제 운영

종목별클럽리그제 운영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종목 간 연계와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종목별클럽리그제 사업의 목적은 종목별동호인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직장 간 교류활동의 정례화와 종목별동호인클럽의 지속적인 교류 촉진을 통한 동호인 참여 확산에 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운영종목의 확대를 유도하고 전국 종목별동호인이 참가하는 동호인축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목별클럽리그제에는 2008년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탁구, 테니스(10종목)가 포함되어 있다. 리그 운영방법은 각 종목별 시·군·구 리그(예선전 및 리그전) → 시·도 리그(풀리그전) → 결승전(16~32개 클럽)으로 연간 3만 7,035개 클럽, 63만 6,613명의 동호인이 참여하였다. 2009년에는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10종목)가 포함되어 있다. 리그 운영방법은 각 종목별 시·도 리그 → 권역 리그 → 결승전으로 1만 5,897개 클럽, 29만 2,591명의 동호인이 참여했다. 2010년에는 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10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리그 운영 방법은 각 종목별 시·도 리그 후 결승전(종목별로 토너먼트 또는 리그)으로 2010년에는 1만 7,200개 클럽, 32만 400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2011년에도 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10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그 운영 또한 각 종목별 시·도 리그 후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1만 4,539개 클럽, 31만 6,669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종목별클럽리그제 운영은 해당 종목 동호인의 저변 확대, 클럽활동 활성화, 지역 클럽 간의 교류 정례화 등으로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생활체육 종목별클럽리그가 전문체육의 정규리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단체의 관심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전문체육의 종목별 정규리그와의 연계 운영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규리그를 1부, 2부, 3부 리그 등으로 구분하여 동호인클럽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직장리그와 동호인 한마음리그는 2006년부터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동호인클럽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 단위 사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체육의 구심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국민체육진흥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체육진흥을 도모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정책방향에 비추어볼 때, 생활체육동호인클럽은 국민들에게 체육활동 참여동기 부여를 통해 자율적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은 생활체육진흥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이 사업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다세대·다계층이 참여하는 동호인스포츠클럽을 조직·운영함으로써 국내 스포츠시스템 선진화 및 평생체육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기존 동호인클럽 간 연계를 통한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선진화된 종합형 스포츠클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 신규로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동호인클럽 선정 및 운영, 스포츠클럽 인력풀 구성 및 운영, 각종 대회 및 리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9 동호인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실적

운영개소	운영횟수	참가인원	지도자 수	동호인 등록 현황
80개소	43,616회	1,083,504명	509명	74,784개 클럽 3,081,448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체육환경 대응적 체육지도자법 개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체육지도자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뿐 아니라 참여효과를 거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체육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 및 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활동 참여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본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보급을 위해 1974년부터 경기지도자 1·2급을, 1986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2·3급을, 1998년부터 운동처방사인 생활체육지도자 1급을 양성해 왔다. 국가자격증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의무고용제도와 자격증명의 공신력에 의해 관련 분야 채용 및 개업에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체육 선호도 및 요구와 체육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체육지도자의 양성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체육지도자를 대상별·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관련 법령을 2012년 2월 17일자로 일부 개정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지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였으며(안 제2조제6항), 자격검정을 거친 후에 현장 중심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 등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1조제2항).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격취소요건을 보완하였다(안 제11조의5 신설 및 제12조).

제3절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확대

1.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의의

체육시설은 인간의 신체활동과 스포츠활동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터전이라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시설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민 체육활동 참여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용하며,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체육시설은 국민들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 및 증진시켜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건강 관련 비용을 낮추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이렇듯 체육시설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관계되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며, 국가 발전에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이자 직접 생산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국민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

정부는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고조된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1990년 3월 <국민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추진하였다. 국민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은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이뤄내 복지사회의 실현과 국민의 축적된 에너지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의 가속화,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한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두었다. 국민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진행방향은 평생체육의 실현과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한 국력 배양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에서 체육시설 부분을 보자면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단계적으로 확충·조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규 확충 대상을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체육시설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마

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올림픽동산, 직장체육시설 등으로 하여,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단계적인 확충을 전략적 실천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장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주민생활체육장화 등의 실천방안을 수립하였다.

3. 생활체육시설 지원

정부는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의 목적은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요 추진전략은 체육시설 신규 조성과 함께 기존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국민체육센터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구(舊) 천연잔디구장 및 우레탄 시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개방형 학교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1) 국민체육센터 확충

국민의 체육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해 서민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사회복지 기반을 구축하며, 생활체육시설의 전국적 확대 건립을 통한 체육서비스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해오고 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한 국민생활관 사업을 초석으로 1997년부터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스포츠센터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에는 보급형스포츠센터로, 다시 2001년부터는 국민체육센터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활체육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도별로 각 1개소씩 연차적으로 착공, 2001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에서는 일반 대중이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종합체육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시·구 단위에 각 1개소씩 기존의 35개소를 포함하여 85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확대하였으며, 다시 시·군·구에 각 1개소씩 건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기본형(4레인×25m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력

측정실 등), 체육관복합형(기본형+체육관), 다목적체육관형(체육관복합형에서 수영장 제외) 등 3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다. 다음 표 2-20은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이다.

표 2-20 국민체육센터 연도별·지역별 건립 지원 현황

() : 지원금액 (단위: 개, 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서울(3/25)	-	-	-	-
부산(14/16)	기장(29)	연제(30) 사상(30) 동래구(31) 북구(31)	강서구(30)	동구(32)
대구(7/8)	-	달성(29)	-	중구(30)
인천(6/10)	-	-	중구(29)	강화군(32)
광주(5/5)	-	동구(31)	-	-
대전(5/5)	중구(30)	-	-	-
울산(4/5)	남구(29)	-	-	-
경기(24/31)	포천(29) 안성(29)	남양주(28) 김포(27) 성남(27) 여주(28) 고양(27)	이천(29) 파주(28) 양주(28)	구리시(29) 수원시(27)
강원(14/18)	속초(30) 횡성(31)	양구(31) 홍천(31) 정선(31)	영월(32)	-
충북(12/12)	-	옥천(31) 단양(31)	진천(31) 괴산(32)	-
충남(14/16)	태안(30)	예산(31) 당진(29)	부여(32) 청양(32)	-
전북(14/14)	부안(32)	김제(31)진안(31)	무주(32) 순창(33) 임실(33)	고창군 (33)
전남(19/22)	장흥(32)	영암(31) 화순(30)	신안(33) 광양(29) 완도(33)	-
경북(20/23)	칠곡(29)	고령(31) 울릉(32)	-	김천시(31), 의성군(32), 영양군(32), 성주군(32)
경남(20/18)	통영(31)	사천(31) 고성(31) 하동(31) 산청(31) 창원(27)	창녕(32) 함천(32) 남해(32) 함양(32)	-
제주(5/2)	남제주(30)	-	-	-
계	183(168) (5,160)	29 (871)	20 (624)	10 (310)
결산액	460	531	409	53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축구발전 종합대책>(1997.9.)과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2002년)에 입각해 학교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유망주 육성 등을 통한 전문체육 발전 기반조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체육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8년부터 공설운동장과 학교운동장을 대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였고 1999년에 공설운동장 35개소를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천연잔디구장과 잔디·우레탄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는 종합운동장 조성지원사업, 2004년에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2005년부터는 사업명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개칭하여 초·중·고·대학교와 공설운동장의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까지 매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초·중·고교 운동장 132개소, 대학(교) 10개소, 지자체 33개소 등 총 175개소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1,311개소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간 협약 체결(2008.10.15.)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9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에 총 1,000개 초·중·고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내용: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운동장을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 다목적구장 등으로 조성지원
- 계획: 2009~2012년 기간 총 1,000개교의 학교운동장 조성(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각 500개교)
※ 200개교(2009년) → 200개교(2010년) → 300개교(2011년) → 300개교(2012년)

표 2-21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연잔디구장	2008	108	10	10	7	5	4	5	4	15	5	5	6	4	8	9	2
	2009	200	18	17	12	7	10	11	5	19	15	8	14	14	12	18	3
	2010	140	10	14	11	6	7	6	3	17	8	7	9	8	8	11	3
구장	2011	175	16	14	10	7	5	6	4	21	14	7	10	10	13	18	3
	합계	623	54	55	40	25	26	28	16	72	42	27	39	36	41	56	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주요 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투자 대부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 복지 실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 단위 이하 지역의 체육시설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은 기존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으로 지원되던 농어민문화체육센터(2004년 종료)의 대안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되는데 이는 조성된 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농어촌 체육복지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농 간 지역 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 화합과 삶의 질의 균형발전 도모, 국민체육 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22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연도별·지역별 지원실적

() : 지원금액 (단위: 개, 억 원)

시·도	개소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6	남양주(3.5), 포천(5)	양주(5), 여주(5)	파주(5)			여주군(6)
강원	7	삼척(6)		영월(6)	홍천(4.5) 화천(5), 고성(6)	춘천시(6)	영월군(6)
충북	1				음성(6)		
충남	3					서천군(6) 예산군(6)	부여군(6)
전북	4	순창(5)		정읍(5)		부안군(6)	무주군(6)
전남	4	고흥(6)	영암군(6)	강진(4.5), 신안(6)			

시·도	개소 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 북	6		구미(4.5), 포항(5), 영주(6)	봉화(6)	청도(5)		의성군(6)
경 남	6	사천(6), 산청(6)	하동(6)	창녕(4.5)	함안(6)	거창군(6)	
제 주	1				제주(5)		
계	38 (210)	7 (37.5)	7 (37.5)	7 (37.5)	7 (37.5)	5 (30)	5 (3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지원대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읍 지역(199개소)이며 그 중 국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기타 유사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2011년 말 현재 총 38개소를 지원하였고 그 중 24개소가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소가 건설 중에 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의 구성은 레크리에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건립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해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지 확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 및 일반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에 따라 2009년도에는 지방재정자립도 30% 이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25개 초·중·고교를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는 재정자립도 30% 이하 조건을 완화하여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중 30%는 체육기금, 20%는 지자체,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용(정규) 체육관(바닥면적 600㎡ 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강당 겸용 체육관(평상 시: 체육활동, 행사 시: 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 2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발표 및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간 업무협약 체결(2008.10.15.)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5개교씩 총 100개 초·중·고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비 및 지방교육청 예산 확보 등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표 2-23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지 역	수량	금액	2009	2010	2011
계	77	37,617	25개소 9,750백만 원	27개소 14,597백만 원 (대도시 8, 소도시 19)	25개소 13,270백만 원 (대도시 8, 소도시 17)
서울	1	900	-	동작 동작초 900	-
부산	2	1,166	-	북구 가람중 686	동신중(480)
인천	1	480	-	강화 교동중 480	-
대구	-	-	-	-	-
광주	1	900	-	-	광주체고(900)
대전	2	1,800	-	서구 서원초 900	서중(900)
울산	-	-	-	-	-
경기	8	4,751	양평 개군초 410 가평 상면초 400	성남 이매중 900 고양 화정초 600 안산 미디여고 900	현산초(600)/삼송중(461)/ 갈매중(480)
강원	7	2,845	홍천 팔월고 315 횡성 강림중 220	인제 용대초 480 영월 옥동초 480	귀래초(390)/춘천초(480)/ 화계초(480)
충북	4	1,820	진천 이월중 410 영동 황간고 450	청원 미원초 480	진천고(480)
충남	7	3,164	부여 백제중 400 홍성 광동초 400	공주 정보고 480 금산 금산여고 480	천안초(444)/웅천중고(480)/ 서야고(480)
전북	8	4,020	완주 구이중 400 무주 무주초 400 정읍 이평초 400	남원 용북중 480 장수 개남초 480	원광여중(900)/ 한국한방고(480)/산서초(480)
전남	16	6,531	장흥 관산초 400 보성 예당고 400 진도 군내북초 400 영암 도포중 270 강진 강진여중 400 해남 송지중고 400 순천 매산중 400	목포 대연초 375 목포 임성초 375 담양 고서초 465 강진 중앙초 480 장흥 장평초 351 완도 노화고 480	대불초(375)/도사초(480)/ 금일초(480)
경북	13	5,790	상주 중모중 400 예천 감천초 420 고령 대가야고 400 영주 대영고 415 의성 의성초 400 영천 전자고 415 영양 영양초 425	구미 선주초 480 안동 경덕중 480 상주 화령초 465	이동중(530)/경일고 (480)/ 영동중고(480)
경남	6	2,970	-	밀양 홍제중 480 창녕 길곡초 480 함양 서하초 480	진해여중(570)/대성일고 (480)/남지중(480)
제주	1	480	-	제주 귀일중 48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4절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지원

1.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의의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1975년 유럽 각국 체육부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에서 스포츠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선언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성, 연령, 경제적 수준, 사회적 계층, 신체적 능력 등에 의해서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는 경제·사회적인 안정과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지원 없이도 스스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체육활동 소외계층에 초점을 둔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을 실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와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부터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불우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불우청소년 생활체육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불우청소년 대상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동용구 지원과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2. 스포츠 바우처 사업

(1) 2009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를 실시하였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도 기준, 1990년 1월 1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2009년도 총 예산은 39억 2천만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와 지자체 예산 50%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4,654명이 참여하였다. 상반기 체육시설별 등록실적은 수영장이 가장 많은 41.8%, 그 뒤를 이어 태권도도장이 36.1%로서 각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스포츠 바우처에 대한 호응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 학생의 보호자 오○○씨는 “수영강습을 통하여 아이가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매우 만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에 거주하는 송○○ 학생의 경우 “태권도를 배우며 활동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흡족해 하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는 성장기 유소년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신장과 정서를 순화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국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24 시·도별 등록 현황

구분	계획인원(명)	등록인원(명)	등록률(%)	비 고
서울	665	624	93.8	
부산	479	562	117.3	
대구	372	419	112.6	
인천	266	262	98.5	
광주	266	268	100.8	
대전	186	198	106.5	
울산	80	45	56.3	
경기	744	668	89.8	
강원	213	165	77.5	
충북	160	158	98.8	
충남	266	208	78.2	

구분	계획인원(명)	등록인원(명)	등록률(%)	비 고
전북	425	255	60.0	
전남	372	158	42.5	
경북	372	329	88.4	
경남	346	277	80.1	
제주	106	58	54.7	
계	5,318	4,654	87.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2-25 종목별 등록 현황

종 목	인원 수(명)	인원 비율(%)	비 고
골프연습	3	0	
농구	84	1.8	
롤러스케이트	21	0.4	
무도학원	53	1.1	
배드민턴	15	0.3	
볼링	4	0	
테니스	4	0	
라켓볼	1	0	
빙상	33	0.7	
수영	1,992	41.8	
스쿼시	5	0	
역도	2	0	
에어로빅	66	1.4	
체육도장 (태권도)	2,194 (1,721)	46.0 (36.1)	
(유도)	(7)	(0)	
(검도)	(136)	(2.9)	
(합기도)	(7)	(0)	
(체조장)	(5)	(0)	
(기타)	(323)	(6.8)	
체력단련(헬스)	192	4.0	
축구	65	1.4	
탁구, 배구	7	0	
기타(스포츠용품)	28	0.6	요트, 체조, 줄넘기 등
계	4,769		월별 종목을 변경한 인원 102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2010·2011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여행 바우처 사업에 추가하여 기초생활보장가구를 대상으로 스포츠 관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 시범 사업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저소득층의 스포츠관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하여 계층 간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을 다음의 4가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① 선진국형 가족단위 스포츠관람문화를 선도

4인 가족이 분기별 1회 이상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여 선진국형 스포츠관람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50%(10만 원), 프로스포츠단체에서 40%(8만 원) 그리고 본인이 10%(2만 원) 부담토록 하여 가구당 연간 20만 원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2010년도는 시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배정된 예산을 조기에 소진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가구수를 2배로 확대토록 한다. 스포츠관람종목은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스포츠의 정규시즌 및 플레이오프경기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4일부터 신청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를 통해 접수하고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프로야구의 경우 플레이오프 경기 지정석은 구매할 수 없고 일반석만 구매 가능하다.

② 전국의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수혜대상을 기초수급자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스포츠관람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수급자 비율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분에 한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0년 5억 원 0.59%에서 2011년 30억 원 3.5%로 지속적 예산 증액을 하였다.

③ 향후 스포츠관람 대상 종목을 비인기 종목으로 확대

우선 4대 프로스포츠종목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향후 핸드볼 및 씨름 등의 비인기 종목으로 확대하여,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관람 지원을 통해 해당 경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및 관중 증가로 스포츠종목 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④ 바우처카드시스템 도입으로 스포츠관람 바우처 이용 편의성을 도모

기초생활수급가구 적격여부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금융사의 전산망에 연계하여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함으로써 관람티켓을 온·오프라인에서 구매 가능토록 하여 수혜자라는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이용 및 정산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부정사용 및 오용 방지를 위하여 제도 및 시스템적으로 예방장치로써 1회 및 월간 사용한도를 지정하여 관리, 카드사 협조하여 부정사용 모니터링시스템 활용,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지속적인 부정사용 방지 홍보 시행 등을 마련하여 서민 지원사업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스포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누구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선다.

표 2-26 바우처 비교표(2010)

구분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프로스포츠관람 바우처	여행(관광) 바우처
예산	67억 원	60억 원	5,67억 원	8억 원
재원	복권기금(50%), 지자체(50%)	체육기금(50%) 지자체(50%)	토토적립금	관광기금
주관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복지협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협중앙회 (한국관광공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그 가족 (연령 제한 없음)	기초생활수급 가구 내 유청소년(만 7~19세)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연령 제한 없음)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 56,630원 이하인 전국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대상자 선정방식	신청 인증	선정 통지 (시·군·구 지자체)	신청 인증	신청 인증
방식	홈페이지 포인트제	지자체-체육시설 정산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구분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프로스포츠관람 바우처	여행(관광) 바우처
자부담	없음 (공연단체 50% 할인, 영화티켓 6000원 정액 할인 등)	없음	10% (국가 50% 지원 + 경기단체 40% 할인 + 본인 10% 부담)	추가경비 자부담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1회 이상 추가결제 의무)
이용 대상	지역주관처에서 선정한 공연·전시·영화관람, 도서구입	공공체육시설 및 시·군·구 선정 사설체육시설의 스포츠강좌·용품	프로스포츠 경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국내 모든 여행상품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만 원 (선착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좌: 최대 60,000원(월별) 용품: 연 1회 65,000원(평균) 	연간 최대 10만 원 (선착순 지원)	국내 여행상품 15만 원 이내 보조 (개별여행 / 가족여행)
지원인원	30만 명(2009년)	13,900명	약 5,000가구 지원	약 6,000명 내외
수혜비율	전체대상자 (327만 명)의 9%	전체대상자 (36.6만 명)의 3.8%	전체대상자 (854천 가구)의 0.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3) 2012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

2012년에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각 지역의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골고루 스포츠 바우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활동의 참여기회를 얻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은 스포츠 바우처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수강료로 매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매월 최대 6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는 매월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도 총 예산은 151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70%(106억 원)와 지자체 예산 30%(45억 원)를 사용하여 총 3만 6,000명(전체 대상자의 10%)에게 지원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적인 여건으로 스포츠수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대 상 자: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만 7~19세, 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계층 포함
- 지원내용: 매월 7만 원 한도, 스포츠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지자체 특성 감안한 지자체별 차등(3~12개월)
- 스포츠 바우처 사업자: 등록된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및 스포츠강좌 운영자
- 강좌내용: 태권도, 검도, 축구,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 종목이며 수혜자가 선택
- 절 차: 인터넷 회원가입 및 신청 → 지자체별 선정·통보 → 스포츠강좌
 -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공무원(주민자치센터 담당 등) 인터넷 대리 신청 가능
 - ※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시·군·구)홈페이지 참조

3. 생활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

(1)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정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소외계층에게 운동용구를 지원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여가선용 여건을 조성해 주고, 명랑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단체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근거로 선정하고 있다. 운동용품 지원 품목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거나, 대상별 희망용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운동용품 지원 대상 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지원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순회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970개소(아동시설 226개소, 노인시설 290개소, 장애인시설 150개소, 한부모가정 107개소,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교화시설 63개소,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에 지원되었고, 2009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970개소(아동시설 226개소, 노인시설 290개소, 장애인시설 150개소, 한부모가정 107개소,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교화시설 63개소,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에 지원되었다. 2010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1,184개소(아동시설 315개소, 노인시설 400개소, 장애인시설 25개소, 한부모가정 51개소, 이주노동자시설 52개소, 교화시설 62개소, 격오지 국방시설 1개소)에 지원되었고, 2011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1,326개소(지역아동센터 400개소, 노인시설 426개소, 중증장애인작업시설 180개소, 부랑인시설 37개소, 사회복지시설 12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개소)에 운동용구가 지원되었으며, 그 동안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표 2-27 소외계층 용구 지원 추진실적

연 도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2008	아동시설	226개소 15종 11,350점
	노인시설	290개소 12종 2,187점
	장애인시설	150개소 16종 4,500점
	한부모가정	107개소 13종 3,544점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10종 2,118점
	교화시설	63개소 10종 2,181점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 8종 581점
2009	아동시설	226개소 15종 11,350점
	노인시설	290개소 12종 2,187점
	장애인시설	150개소 16종 4,500점
	한부모가정	107개소 13종 3,544점
	이주노동자시설	73개소 10종 2,118점
	교화시설	63개소 10종 2,181점
	격오지 국방시설	61개소 8종 581점
2010	아동시설	315개소 10종 3,815점
	노인시설	400개소 4종 1,251점
	장애인시설	25개소 4종 31점
	한부모가정	51개소 7종 562점
	이주노동자시설	52개소 4종 365점
	교화시설	62개소 6종 498점
	격오지 국방시설	1개소 32종 88점
2011	지역아동센터	400개소 6종 8,800점
	노인시설	426개소 4종 3,408점
	중증장애인작업시설	180개소 4종 667점
	부랑인시설	37개소 5종 185점
	사회복지시설	125개소 7종 1,255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8개소 4종 632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 사업은 생활체육활동 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불우청소년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체육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은 시·도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종목과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자가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시·군·구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스키(캠프), 축구, 스케이팅, 탁구, 야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팅, 핸드볼, 인라인하키 등 지역실정에 적합한 종목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일정은 시·도 및 시·군·구 실정에 따라 정해지며, 동계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되고 기간은 2박 3일 일정으로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4.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우리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다문화가정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다민족 및 다문화사회의 어울림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인 융화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되어 2008년까지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체육행사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이 지속 확대되고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09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9년에는 16개소에서 294회에 걸쳐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었으며 7,222명의 외국인 노동자 및 가족이 참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가 15회에 걸쳐 운영되었는데 이 캠프에 339가족 1,291명이 참여하였다.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이 100개소에서 4,790회 운영되었으며 어울림축제가 15회 개최되었고 7,590명이 참가하였다.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이 130개소에서 5,841회 운영되었고 어울림축제가 16회 개최되어 9,460명이 참가하였으며 어울림캠프가 130회 개최되어 6,320명이 참가하였다.

표 2-28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실적

연 도	사 업 추 진 실 적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운영: 16개소 299회 7,228명 생활체육캠프 개최: 16회 1,106명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운영: 100개소 4,790회 78,426명 어울림축제 개최: 15회 7,590명 다문화 지도자교육: 189명(2010.6.30.~7.1. 천안상록리조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운영: 130개소 5,841회 108,630명 어울림축제 개최: 16회 9,460명 다문화교실 지도자교육: 260명(2011.5.26.~27. 덕산스파캐슬) 어울림캠프 개최: 130회 6,320명
2012 (10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운영: 100개소 5,498회 82,268명 어울림축제 개최: 5회 1,820명 어울림캠프 개최: 97회 4,599명 패밀리데이 개최: 600회 18,344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및 내부자료



제3장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정착

- 제1절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 제2절 일반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 제3절 학생선수를 위한 지원사업





제3장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특히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국가는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여 저체력 또는 비만학생들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한다.

제1절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1. 제정 의의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된 <학교체육진흥법>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학교체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특히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국가는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하여 저체력 또는 비만학생들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보장제도, 학교운동부의 합리적인 운영, 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전문강사의 제도적 보장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와 학교체육진흥원의 설립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였다(법 제1조). 즉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의 함양을 통하여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법 제3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이 5개년 기본시책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비를 학교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법 제6조). 즉 ①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②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및 제9조에 따라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③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④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⑤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⑥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⑦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⑧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교류활동 활성화 ⑨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⑩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필요한 조치와 예산 확보이다.

그동안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 교과 위주의 입시준비교육에 의해 체육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높여 국가경쟁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간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 학교폭력의 근절대책으로 체육시수를 늘리고 스포츠클럽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체력증강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체육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편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관할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

(2) 학교체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①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현재 학생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은 미흡한 편이며, 체육용품이나

기자재 확보도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학교의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그것도 기존 시설의 관리 미흡과 낙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학교 증축 또는 리모델링 등 학교운동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고, 신설학교의 운동장 크기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학생들의 체육활동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학교 내의 실내 체육활동 장소도 매우 부족한데 특히 체육관, 수영장 등이 크게 부족하고 소규모의 실내체육수업장도 마련하지 못한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정규모적에 미달되거나 낙후된 시설이 많고, 체육시설과 장소의 사용이 방과 후의 운동선수 훈련장으로 전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방과 후 체육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확충과 체육교재 및 용품 등의 확보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였다(법 제7조).

②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제도의 시행

국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합적인 실시계획을 매년 3월까지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실시(집행)하여야 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 학기기술부령으로 정한다(법 제8조).

③ 건강체력교실, 스포츠클럽 등의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판정은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9조).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스포츠전문강사와 전담교사를 두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스포츠클럽활동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진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법 제10조).

④ 스포츠전문강사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높이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스포츠전문강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스포츠강사제도는 2008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⑤ 학교운동부의 정상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상시합숙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동부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1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 12조).

(3)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운영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첫째,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둘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학교체육진흥원의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함은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 4조).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이론적인 기반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정책적인 개발 연구나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법 제17조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교체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생체력 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운영,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2절 일반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은 체력 강화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과 인지적 발달에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어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육활동 여건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태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정규체육 및 특별활동 지원으로 1%의 운동부학생이 아닌 99%에 해당되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과목으로의 체육수업과 방과 후 자율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과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이 있다.

1.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초등학교에 일정 자격 이상의 스포츠강사를 정규 체육 수업의 보조와 함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2009년 초등교사 중 여교사 비율이 전국적으로 74%, 서울시만 83%에 육박하여,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초등학교생의 체육수업의 흥미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에 시범 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육과학연구원이 2008년에 실시한 시범 사업 평가 결과, 학교 관리자 및 교사의 92.1%가 이 사업이 체육수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할 만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에는 16개 시·도에 1,000명의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었으며, 2009년 스포츠강사 사업은 시범 사업 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며 이루어졌다. 2008년과 2009년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1과 같으며 강사 1명이 1개 학교당 7개 학급(주당 21시수)의 수업을 보조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다.

표 3-1 2008~2009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비교

구분	2008년(시범 사업)	2009년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 졸업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체육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자격 보유자 경기단체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이상 체육 현장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대 졸업자 중 체육 심화과정 이수자 체육관련 학과 전문대졸 이상 졸업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체육교사 자격, 실기교사 자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경기지도자 자격 보유자
선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전형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심사(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선발 후 2차 심사(면접심사)
모집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개 시·도 (원거리 배치자 계약 포기 사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단위 모집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2009년에 178억 6천만 원이었으며,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1,223명의 스포츠강사를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지역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 211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516명의 스포츠강사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되었는데 이는 2010년 대비 293명 증원된 수치이다. 2011년에는 총 264억 9천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표 3-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의 예산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배치목표	825	1,000	1,300	1,800	2,200	
사 업 예 산						
문화체육관광부	7,490	9,030	14,688	20,834	26,173	78,215
시·도 교육청	—	8,830	14,188	20,234	25,473	68,725
합 계	7,490	17,860	28,876	41,068	51,646	146,94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3-3 시·도청별 스포츠강사 배치인원 및 인건비 소요예산

단위: 교, 명, 천 원

시·도	초등학교수 (교)	2011년 정원 (명)	2010년 배치 정원(명)	증원	2010년 소요예산		2011년 소요예산	
					문화부	교육청	문화부	교육청
서울	587	158	129	29	1,139,070	1,139,070	1,395,140	1,395,140
부산	298	81	67	14	582,780	582,780	715,230	715,230
대구	214	58	47	11	415,010	415,010	512,140	512,140
인천	226	61	50	11	441,500	441,500	538,630	538,630
광주	145	63	51	12	273,730	273,730	556,290	556,290
대전	138	50	41	9	273,730	273,730	441,500	441,500
울산	118	32	26	6	229,580	229,580	282,560	282,560
경기	1,145	144	117	27	1,103,750	1,103,750	1,271,520	1,271,520
강원	353	112	91	21	715,230	715,230	988,960	988,960
충북	259	82	67	15	503,310	503,310	724,060	724,060
충남	430	118	96	22	847,680	847,680	1,041,940	1,041,940

시·도	초등학교수 (교)	2011년 정원 (명)	2010년 배치 정원(명)	증원	2010년 소요예산		2011년 소요예산	
					문화부	교육청	문화부	교육청
전 북	413	115	94	21	830,020	830,020	1,015,450	1,015,450
전 남	433	124	101	23	891,830	891,830	1,094,920	1,094,920
경 북	494	136	111	25	980,130	980,130	1,200,880	1,200,880
경 남	495	136	111	25	980,130	980,130	1,200,880	1,200,880
제 주	106	30	24	6	211,920	211,920	264,900	264,900
계	5,854	1,500	1,223	277	10,419,400	10,419,400	13,247,011	13,245,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최근 일반학생의 체력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정규적인 체육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학교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체육동아리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확대·개편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와 참여의 질을 제고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사업의 추진체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의 추진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 구분된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사업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 및 대회 개최 지원을 실시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스포츠클럽을 등록시켜 학생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내대회를 개최한다.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대한 각 조직의 역할과 추진체계를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의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① 지침 시달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사업계획 지침 시달
② 세부계획 수립 · 시행	• 시 · 도교육청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달 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 관리 및 대회 개최 지원
③ 운영계획 수립 · 시행	• 지역교육청에서 운영계획 수립 · 시달 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 관리 및 대회 개최 지원 ※ 리그전 형식으로 지구별 대회 개최 권장
④ 교내대회 개최, 학교대표 선발	• 학교 자체계획 수립 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교내대회 개최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되, 학교 대표로 교육부(청) 주최 등 대회 참가 시 출전비(교통비, 식비 등) 일부 지원
⑤ 지역교육청대회 개최, 대표 선발	• 지역교육청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초 · 중학교학생 대상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역 교육청대회 개최
⑥ 시 · 도교육청대회 개최, 대표선발	• 시 · 도교육청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고등학교학생 대상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시 · 도교육청대회 개최, 초 · 중학교학생(지역교육청 대표팀) 대상 대회 개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사업내용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크게 주요 사업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사업’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학생에게 참여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간 경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때 대회는 규모별로 교내의 학급 · 학년별 대회, 지역교육청 및 시 · 도교육청대회로 위계화되어 있다.

한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 영역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파견,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실적의 공식기록화, 각종 인센티브방안 마련 등으로 구분된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파견은 현재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수업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를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등 일반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2008년 825명에서 2009년 1,000명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2012년까지 총 2,200명으로 점차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강화 사업은 오프라인 매체인 홍보용 동영상, 팸플릿, 우수 사례집 등과 함께 온라인매체인 학교스포츠클럽 홈페이지(<http://www.sportsclub.ne.kr>)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개설 권장을 통한 학교스포츠

클럽 상호 간 대회 개최 등 정보교환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실적의 공식기록화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향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자리 잡게 될 때 반영하기 위한 참여 활성화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센티브방안 마련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우수 교사, 우수 교 및 우수 지역교육청 등에 대한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등 스포츠자원봉사자제도 확대, 스포츠 홍보대사 임명 및 찾아가는 스포츠시범단 운영 확대 등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학교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체육동아리 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기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을 교육청에 등록·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사업과 정기적으로 경기기회를 제공하는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육성 사업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담당 지도교사(초등학교는 스포츠강사도 가능) 1명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등록하되 동일 학교의 학생만으로 편성하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은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 고등학생은 지역교육청에 하며, 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등록과 육성·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0년도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청 등록률은 37.6%, 등록학생수도 216만 7,772명으로 2007년도 46만 591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획초기 목표였던 25%를 12% 이상 초과달성한 수치이다.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청 등록률은 45.0%, 등록학생수도 293만 7,025명으로 2007년도 46만 591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스포츠클럽 등록학생수, 등록률, 종목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연도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연도	학교 현황(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학교 수	학생 수 (초4~고3)	교원 수	운영학교 수	등록학생 수	등록교원 수	등록강사 (교치) 수
2007	10,947	5,718,028	395,379	8,286(75.7%)	460,591(8.1%)	23,029(5.8%)	2,349
2008	11,080	5,873,827	403,796	10,061(90.8%)	1,003,575(17.1%)	38,868(9.6%)	4,382
2009	11,160	5,838,680	409,217	10,424(93.4%)	1,597,308(27.4%)	53,128(13.0%)	5,621
2010	11,237	5,758,644	411,958	10,957(94.3%)	2,167,772(37.6%)	67,062(16.3%)	6,23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한편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청 등록률은 45.0%, 등록학생수는 293만 7,025명으로 늘어나 2007년도 46만 591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은 표 3-6과 같다.

표 3-6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2011.12.1.)

단위: 명, 팀

급별	학생 등록률			클럽 수
	전체학생 수 (초2~고3)	등록학생 수 (초2~고3)	등록률(%)	
초	2,675,451	1,661,005	62.1%	46,884
중	1,910,572	777,318	40.7%	24,084
고	1,943,798	498,729	25.7%	15,786
계	6,529,821	2,937,052	45.0%	86,75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담당지도교사 인건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5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88억 9,5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총 106억 5,000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7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예산(2007~2012년)

단위: 백만 원

재원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교육과학기술부	2,500	2,795	2,500	-	-	-	-	7,795	35.3%
문화체육관광부	50	50	450	600	1,050	1,050	1,050	4,300	19.5%
교육청	-	-	-	2,500	2,500	2,500	2,500	10,000	45.2%
합 계	2,550	2,845	2,950	3,100	3,550	3,550	3,550	22,09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사업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과 후 및 주말·방학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종목별로 교내대회, 교육지원청대회, 시·도교육청대회, 전국대회의 순으로 개최된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개요

대회 종류	운영방식	출전팀 수	시 상	예 산	일 정
전국대회	토너먼트방식 (왕중왕전)	시·도 1~2위 (16~32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체육단체장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등	2학기 (10~12월)
▲					
시·도대회	토너먼트방식 (시·도 대표팀 선발)	시·군·구 1~2위	교육감상/ 광역자치단체장상 시·도체육단체장상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2학기 (9~10월)
▲					
시·군·구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시·군·구 대표팀 선발)	학교 1위	교육장상/ 기초자치단체장상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체육단체 등	1학기 (6~8월)
▲					
교내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학교 대표팀 선발)		학교장상	해당 학교 (자체예산)	1학기 (3~5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중 2010년 시·도교육감배대회 개최 현황은 표 3-9와 같으며 전국적으로 소요된 예산은 53억여 원에 달한다.

표 3-9 2010년 학교스포츠클럽 대상 시·도교육감배대회 개최 현황			단위: 백만 원
시·도	학생등록률	교육감배대회 개최종목	사업예산
전국	37.6%		5,359
서울	37.1%	• 전국대회 10종목 외 자율종목(400MR, 티볼, 플로어볼, 치어리딩) ※ 학교스포츠클럽 15개 중점학교 운영	104
부산	62.7%	• 21종목	155
대구	46.9%	• 전국대회 6종목 외 풋살, 프리테니스	45
인천	40.1%	• 전국대회 10종목	100
광주	37.7%	• 12종목	70
대전	41.0%	• 전국대회 10종목	505
울산	37.9%	• 전국대회 10종목 외 족구	190
경기	26.8%	• 전국대회 10종목 외 체력왕선발, 씨름	1,219
강원	32.2%	• 전국대회 10종목	208
충북	51.8%	• 전국대회 10종목	81
충남	48.3%	• 전국대회 10종목 외 바이크비치, 건강달리기	107
전북	31.2%	• 전국대회 10종목 외 넷볼, 족구, 풋살	651
전남	33.3%	• 전국대회 10종목 외 풋살	280
경북	50.1%	• 전국대회 10종목	234
경남	31.9%	• 전국대회 10종목	150
제주	24.2%	• 전국대회 10종목 외 발야구, 태권도	1,26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한편 2011년 학교스포츠클럽을 위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참가팀 수가 총 500개이며, 참가인원은 총 6,224명이었다(표 3-10 참조).

표 3-10 2011년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

단위: 팀, 명

종목별 급별	초		중		고		계	
	팀 수	참가인원	팀 수	참가인원	팀 수	참가인원	팀 수	참가인원
축구	25	380	25	444	16	288	66	1,112
야구	7	96	11	177	8	138	26	411
농구	22	243	24	268	21	240	67	751
배구	8	130	16	215	14	210	38	555
배드민턴	27	209	29	236	29	252	85	697
소프트볼	4	61	11	188	5	82	20	331
탁구	27	224	22	180	22	183	71	587
핸드볼	18	248	10	132	11	106	39	486
피구	12	187	20	302	15	233	47	722
줄넘기	14	195	19	266	8	111	41	572
계	164	1,973	187	2,408	149	1,843	500	6,2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3절 학생선수를 위한 지원사업

학원스포츠는 지금까지 한국 엘리트체육의 산실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각종 학원스포츠 사업에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체육특기자 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최근까지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인권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경기력 이상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정부는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

저학력기준을 설정하여 학생선수가 이에 미달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0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 2011년도에 초등학교 4~6학년, 2012년도에 중학교 1학년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표 3-11 참조).

표 3-11 최저학력기준의 단계별 적용계획

학교급 \ 적용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등	시범	초4~6						
중등	시범		중1	중2	중3			
고등	시범					고1	고2	고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현재 단위학교에서 시행하는 1, 2학기말 고사에서 지정된 과목에 대하여, 그 성적이 전교생 평균성과 비교하여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1~2학기 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달률은 8.8%로, 2010년 조사인원 대비 12.8%보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일선학교 운동부가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표 3-12 참조).

표 3-12 최저학력기준 미달률 현황

연도	급별	초등	중등	고등	계
2010	조사인원	572	642	624	1,838
	기준미달자(%)	8(1.4%)	139(21.7%)	88(14.1%)	235(12.8%)
2011	조사인원	907	916	998	2,821
	기준미달자(%)	7(0.8%)	127(13.9%)	113(11.3%)	247(8.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방안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사업은 모든 학생선수가 정규수업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학생선수는 교육법상 정규수업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가 전국 체전이나 소년체전 그리고 종목별 전국대회 등에서 상위입상하기 위하여 정규수업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학교 내 체육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능한 빙상, 조정, 골프 등 종목의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2, 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등 별도 반 편성·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의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 확대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단위 학교별로 학생선수에 대한 학업성적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학력부진 아반’에 성적부진 학생선수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수업결손에 대한 수업보충 방안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별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대학생 멘토링제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고 있으며 대학생 학습도우미(동료, 또래)에 대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여 대학생 학습도우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선수 학력증진 사업은 시·도교육청 단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제에 포함되지 않아 시험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재육성재단-(주)대교와 함께 학생선수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는 사전 학습능력 진단평가 실시 후 수준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주 1회 해당 학교 학습장소로 방문교사가 방문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0년도에 전국 소재 179개교의 총 2,469명(초등학생 1,052명, 중학생 1,117명, 고등학생 300명)이 학생선수 학력증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3. 각종 토너먼트대회의 리그 전환 사업

각종 대회의 리그 전환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토너먼트대회의 과열양상을 완화하고자 대회일시를 주중에서 주말로 전환하고 대회형식을 토너먼트대회에서 리그대회로 전환

하는 사업이다. 리그대회 사업은 축구종목에서 2009년부터 가장 먼저 실시되었는데, 축구 리그는 학교축구부를 중심으로 본격 실시되어 4~10월에 지역리그제, 11월에 왕중왕전을 치루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주중에는 정규수업 후 훈련을 하고 대회는 주말·공휴일·방과 후에 개최하는 관행이 서서히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축구리그는 2010년도에 참여팀 수가 2008년 대비 113팀(초등학교 90팀, 중학교 15팀, 고등학교 8팀)이 증가하여 총 636개 팀이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참여팀 수가 2008년 대비 157팀(초등학교 116팀, 중학교 23팀, 고등학교 16팀)이 증가하여 총 680개 팀이 되었다. 이러한 축구리그는 2010년 11월에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 선수 84.2%, 학부모 78.2%, 지도자 79.3%가 만족하고 있어 현장에서 호응을 받으면서 정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3-13 연도별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

연도 \ 급별	초			중			고			전체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계
2008 (리그 시작 전)	221	-	221	173	-	173	129	-	129	523	-	523
2009	210	56	266	169	6	175	135	-	135	514	56	570
2010	205	78	283	173	19	192	134	-	134	512	97	609
2011	206	105	311	173	15	188	137	-	137	516	120	636
증감 (2008~2011)	△15	105	90	-	15	15	8	-	8	△7	120	11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한편 2010년에는 새롭게 고교아이스하키에 리그제가 도입되었다. 총 8개 고교가 참가하고 있는 고교아이스하키리그는 연간 3차 리그와 왕중왕전을 실시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동시에 학업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 야구도 주말리그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8개 권역 53개 팀으로 구성하고 전후기로 나누어 3월에서 8월까지 총 372계임을 진행하였다. 전기리그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치러지며 동일권역별리그와 24개 팀으로 왕중왕전이 토너먼트로 열린다. 후기리그는 6~8월간에 진행되며 권역별 인터리그와 후반기 왕중왕전이 열린다(표 3-14 참조).

표 3-14 2011년도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별 구성

구 분	1	2	3	4	5	6	7
서울 A	취문고	배재고	신일고	중앙고	충암고	선린인터넷고	경기고
서울 B	장충고	배명고	성남고	경동고	서울고	청원고	덕수고
경상 A	제주고	경남고	개성고	울산공고	부산공고	부산고	부경고
경상 B	용마고	대구고	김해고	상원고	포철공고	마산고	경북고
전라권	군산상고	동성고	효천고	광주일고	진흥고	전주고	화순고
충부권	북일고	세광고	청주고	공주고	충주성심학교	대전고	
경기권	부천고	안산공고	유신고	인창고	야탑고	충훈고	
강인권	설악고	동산고	인천고	원주고	제물포고	강릉고	

※ 경상권 A: 부산, 울산, 제주 / 경상권 B: 대구, 경남, 경북 / 전라권: 광주, 전남, 전북 / 충부권: 대전, 충남, 충북 / 강인권: 인천, 강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체육중 · 고등학교 육성 지원

체육계열 중 · 고등학교는 2011년 신설된 경기체육중학교를 포함한 체육중학교 8개교 및 체육고등학교 14개교와 1개 반을 특기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인 제주 남녕고를 포함하여 총 23개가 있다. 2011년 현재 체육계열 중 · 고등학교의 재학생수는 체육중학교 922명, 고등학교 3,698명을 포함하여 총 4,620명이며 소속코치는 총 311명의 규모이다. 이는 2009년과 2010년 체육계열 중 · 고등학교의 재학생수 체육중학교 850명, 고등학교 3,600명에 비해 각각 72명, 98명 증가한 수치이며, 소속코치는 297명에서 14명 증가한 규모이다.

표 3-15 2010년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명, 개

학교명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비고	
	학생 수		코치 수		육성종목 수		졸업생 수			
합계	4,450	4,620	297	311			35,464	37,332		
중학교	소계	850	922	—	—	—	—	5,559	6,261	중고 병설 운영
	서울체육중	147	176	—	—	—	—	1,158	1,256	
	광주체육중	194	194	—	—	—	—	1,420	1,548	
	대전체육중	112	136	—	—	—	—	811	947	
	*경기체육중	—	29	—	—	—	—	—	—	
	강원체육중	76	84	—	—	—	—	60	121	
	전북체육중	98	76	—	—	—	—	—	81	
	전남체육중	124	128	—	—	—	—	275	397	
	경북체육중	99	99	—	—	—	—	1,835	1,911	
고등학교	소계	3,600	3,698	297	311			29,905	31,071	
	서울체육고	417	428	44	47	22	22	3,737	4,003	
	부산체육고	270	300	22	23	16	18	2,483	2,653	
	대구체육고	157	161	13	15	10	10	229	327	
	인천체육고	258	278	21	20	13	13	6,650	6,872	
	광주체육고	259	287	15	17	14	14	2,857	3,016	
	대전체육고	266	274	24	27	18	16	2,520	2,767	
	경기체육고	297	287	23	23	13	13	966	1,156	
	강원체육고	199	208	17	18	16	16	1,033	1,151	
	충북체육고	240	251	13	15	12	12	1,254	1,404	
	충남체육고	187	224	14	14	12	12	1,151	57	
	전북체육고	260	238	19	19	16	16	2,322	2,468	
	전남체육고	168	167	21	22	12	17	180	322	
	경북체육고	248	227	25	25	16	16	2,303	2,456	
	경남체육고	264	259	19	20	14	14	1,848	2,015	
	제주남영고	110	109	7	6	10	16	372	40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그리고 체육계열 중·고등학교는 전문체육 양성의 산실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소속 선수 중 국가대표 60명, 후보선수 235명으로 총 295명의 국가대표(후보)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대비 43명 증대한 수치인데 특히 국가대표선수의 증대가 두드러져 체육계열 중·고등학교의 엘리트선수 육성기능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연도별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대표선수 보유 현황

연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9	국가대표	9	-	3	1	-	5	7	1	1	-	1	-	-	-	-	28
	후보선수	62	11	12	17	20	21	34	24	13	3	18	13	24	21	4	297
	계	71	11	15	18	20	26	41	25	14	3	19	13	24	21	4	325
	비율(%)	22	3	5	6	6	8	13	8	4	1	6	4	7	6	1	100
2010	국가대표	9	1	4	-	2	2	4	2	1	-	1	-	1	1	1	29
	후보선수	43	25	18	19	11	18	-	-	-	8	24	12	23	15	7	223
	계	52	26	22	19	13	20	4	2	1	8	25	12	24	16	8	252
	비율(%)	21	10	9	8	5	8	2	1	-	3	10	5	10	6	3	100
2011	국가대표	5	2	3	-	16	1	2	3	-	-	23	1	3	-	1	60
	후보선수	42	17	27	15	-	16	25	15	12	13	-	16	19	16	2	235
	계	47	19	30	15	16	17	27	18	12	13	23	17	22	16	3	295
	비율(%)	16	6	10	5	5	6	9	6	4	4	8	6	7	5	1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한편 체육계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전문선수 양성의 산실인 체육계학교의 훈련 여건 개선 지원을 통하여 우수 선수의 체계적 육성과 경기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총 22억 3,3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연구학교운영비 1천만 원, 대회개최비 1억 원, 훈련비 10억 2,800만 원, 훈련시설·장비비 10억 9,500만 원으로 구분된다. 2010년도에는 총 22억 3,3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연구학교운영비 1천만 원, 대회개최비 1억 8천만 원, 훈련비 10억 890만 원, 훈련시설·장비비 10억 3,410만 원 등으로 구분된다. 2011년도 현재 총 16억 4,324만 원

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연구학교운영비 1천만 원, 대회개최비 8천만 원, 훈련비 9억 3,324만 원, 훈련시설·장비비 6억 2천만 원 등으로 구분된다.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예산은 표 3-17과 같다.

표 3-17 체육계열 중·고등학교 지원내역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학생 수 (중·고 합계)	합 계	연구 학교 운영	대회 개최비	훈련비 (훈련경비, 훈련 용구비 등)	훈련시설·장비비				비고 (전년도)
						소 계	일률 지원	학생 수 비례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수 비례	
2009	4,450	2,233,000	10,000	100,000	1,028,000	1,095,000	495,000	490,500	109,500	2,233,000
2010	4,484	2,233,000	10,000	180,000	1,008,900	1,034,100	450,000	484,100	100,000	2,233,000
2011	4,620	1,643,240	10,000	80,000	933,240	620,000	270,000	288,000	62,000	2,233,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5. 대학스포츠의 선진화 사업

현재 대학스포츠는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지나친 경기 및 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창립, 축구 및 농구 등 대회방식의 리그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운동부 보유 대학총장들의 협의체로서 2010년 7월에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를 모델로 하여 선수대상 학사관리, 대학스포츠 브랜드화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구성되었다. 운동부 보유 대학 102개 중 50%인 51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으며 17개 대학총장을 임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학의 축구, 농구, 배구 종목에 대해 리그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미 2009년부터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축구의 경우 2010년에 69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2011년에도 69개 팀이 참가하여 권역별리그 613경기, 챔피언십과 친선경기 75개를 포함하여 총 688경기를 실시하였다. 농구는 12개 팀이 참가하여 정규리그 132경기(홈 앤드 어웨이(Home & Away) 방식으로 각 대학이 22경기를 실시함), 챔피언결정전 9경기를 포함하여

총 141개 경기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 리그제를 도입한 배구는 8개 팀이 참가하고 전·후 반기로 분류하여 정규리그 60경기와 챔피언결정전 6경기를 실시하였다.

6.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그동안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2007.1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7.12.) 등을 비롯하여 최근 학교운동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사회전반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및 운동선수 기피현상의 심화로 학생선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관리 소홀로 성적저하가 심화되고 중도포기로 인한 사회부적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원스포츠 전반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초·중·고 학교축구 리그대회 개최, 합숙훈련 금지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왔고, 그 결과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종합적 정책계획이 제안되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개별 사업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학원스포츠 선진화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행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형 학교운동부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제도·환경 개선 등의 세부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학생선수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은 크게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및 경기력 향상서비스 강화, 교원·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은 학습 출발점 점검,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서비스 체계화, 학습동기 관리, 학습이력 관리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다. 학습

출발점 점검은 교육청 및 학교가 주체가 되어 기초학습능력 진단, 학습 환경 분석 등을 통해 학생선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서비스 체계화는 평소 교사의 수시진단 및 전문 검사도구를 활용한 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학습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습동기 및 학습이력 관리는 학습 성취감 부여를 위한 학교 단위의 ‘개인별 교육 성공 프로그램’ 도입·운영 및 SMS, 메일링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진행상황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및 경기력 향상서비스 강화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및 경기력 향상서비스 강화는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습 충실, 방과 후 보충학습지도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선수 개별지도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운동연습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인턴교사, 대학생, 퇴직 교원, 포레·선배학습도우미, 학부모 등을 활용하여 학교차원에서 방과 전·후 보충학습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인근 대학과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방과 후, 야간, 주말, 방학기간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지도 실시,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마련, 스포츠과학자문단, 동작(영상)분석 자료 지원 등의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③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운동부지도교사·운동부지도자(코치)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단위학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연계로 구분된다. 운동부지도교사·운동부지도자(코치)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부진학생선수 지도, 평가, 학습상담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승진가산점·성과급 반영, 표창 등을 통해 학생선수 책임지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및 교육청 단위의 학교경영컨설팅팀을 구성·운영하며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교 내에서 진단 및 관리가 어려운 학생선수들이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 학교운동부제도 및 환경 개선

학교운동부제도 및 환경 개선은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준수 철저,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 및 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준수 철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회에 참가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저해하게 되는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기종목별 대회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학교운동부 참가일수를 연간 3~4회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전체 51개 종목 중 육상, 체조를 비롯한 12개 종목은 연간 4회 이하, 정구, 탁구 및 테니스, 핸드볼 등 대회가 3일 이상 진행되는 41개 종목은 연간 3회 이하로 제한한다(표 3-18 참조). 그러나 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방학 중 개최되는 대회는 이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표 3-18 종목별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대회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 태권, 공수도(12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31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10종목)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 및 지원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 및 지원사업은 운동부 코치들이 본인이 선수시절 습득한 방식에 의거하여 학생선수 지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선수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훈련이 이루

어지지 못하여 선수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구타 또는 폭언, 부상으로 인한 선수생활 단축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기 학생선수들에게 적절한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생활 환경 제공 등을 위해 종목별 표준 훈련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기술 분석 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사업은 학생선수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현장 지도자의 교육적 역량을 담보하고, 사기를 양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도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도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는 학교운동부지도자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인권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해 전임코치의 경우 코치관리 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및 정원을 배정하고 학교에서 선발·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경력을 감안하여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학생선수 학습환경 개선 사업은 학생선수의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 관련 조치의 일환이며, 초·중학교 합숙훈련 전면금지 등 상시합숙훈련 금지 강화, 선수휴게실 및 선수기숙사 학습 환경 개선, 정규수업 후 운동을 위한 야간조명시설 설치 확대 등의 세부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거 합숙훈련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활용되었으나 학생선수의 발달 단계 상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초·중학교는 전면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기 중 상시합숙훈련 금지 규정에 대한 변화 추이는 표 3-19와 같다.

표 3-19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규정 변화과정

	2004~2006	2008	2009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기간 중의 합숙 및 전지훈련은 원칙적으로 억제 – 초등학교: 학기 중 상시합숙(2주 이상) 훈련 금지 – 중·고등학교: 상시합숙(2주 이상)시 감독교육청에 훈련 계획 제출·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초등학교: 합숙훈련 전면 금지 – 중·고교: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 초·중학교: 합숙훈련 전면 금지 – 고등학교: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사 유	2003.3.26. 천안초 축구부 화재사건(9명 사망)을 계기로 2004년부터 합숙훈련 제한 규정 신설	학원체육 촉구 국회결의안(2007.1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07.12.)	국회, 언론 등 요구 →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수립(2008.5.) ※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까지 합숙훈련 금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한편 정부는 타 지역 학생선수의 전입을 위한 기숙공간 확보 차원에서, 독일의 스포츠 기숙학교, ‘인터나트(Internat)’을 벤치마킹하여 학생선수에게 숙식(宿食)을 제공하는 선수기숙사제도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정규수업 후 운동을 정착화 하기 위해 일몰 후 훈련을 위한 야간조명등 설치를 확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목표와 실천과제는 그림 3-1과 같다.

추진목표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

-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2007) → 80%(2012)
- ※ 학생선수 · 학부모의 학교운동부활동 만족도 2012년까지 80%이상 도달



최저학력기준 제시

- 성적기준, 적용대상, 도입시기 제시
- 기준미달 선수 제제방안 강구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 학습부진 예방 - 진단 - 관리 시스템 구축
- 맞춤형 학습지도서비스 강화
- 교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제도 · 환경 개선

- 리그대회 전환 및 종목별 특성화
- 환경개선 및 훈련시스템 개발 · 지원
- 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
-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 모델 확산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지방) 구성 및 단위학교 역할 강화

중 앙

(교과부, 문화부, 대한체육회)

- 최저학력제 도입계획 수립
- 학생선수 학력증진방안 제시
- 체육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시범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등

지 방

(교육청, 경기단체 등)

- 시 · 도별,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운동부지도자 연수 및 전문성 제고
- 학습부진 학생선수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

단위학교

- 성적 확인 및 대회참가 승인
- 정규수업 이수 및 수업결손 보충 의무화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및 인프라 활용 확대 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2011 체육백서》



제4장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와 국제스포츠역량 제고

제1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성공

제2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대회 개최

제3절 F1 코리아 그랑프리

제4절 국제스포츠교류 노력과 성과



● 제4장 국제경기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국제 스포츠역량 제고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이미 우수한 실력으로 국제경쟁력을 입증해 보인 한국 스포츠가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끼는 동계종목들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수준을 일거에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과정이 잘 관리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과거와 달리 상당수준의 성장한 한국의 국제스포츠외교역량과 결합되어 한국은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성공

1. 세 번째 도전의 배경과 의의

(1) 동계올림픽 유치 의의

동계올림픽대회는 7경기 분야 15종목(98개 세부종목)의 동계종목 경기대회를 치른다. 동계올림픽대회가지만 이미 올림픽대회 자체가 ‘지구촌 최고의 이벤트’, 혹은 ‘스포츠행사 이상의 이벤트’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최도시들이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갈망한다.

우리나라는 2010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이래 2014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도전에 실패한 이후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시도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성공은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시켜주고 남북한 화해협력 및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많은 국제경기대회가 국민통합 및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시켜주었듯이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국민통합 및 자긍심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평창과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의 지역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관광지로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국제적, 혹은 아시아적인 차원에서 관광허브(Hub)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유치도시로서 강원도는 평창올림픽대회 유치가 개최지역이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사회간접자본(SOC)을 일시에 확충하게 될

것이고 지방의 국제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이 발전해나가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강원도는 이제까지 기후 환경적으로 선점해 온 동계스포츠 거점으로서 강원도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와 동계스포츠 메카라는 이름을 얻으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평창은 2008년도 산업연구원 연구용역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는 교통망, 경기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비롯해 대회 준비 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동계올림픽대회가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어 도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산업연구원(2008) 타당성 분석보고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로 인해서 유발되는 총생산 유발효과 20조 원(강원 11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조 8천억 원(강원 5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 23만 명(강원 14만 명)이라고 추산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교통망 확충비용, 6,503억 원의 경기장 건설비용,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회운영비와 관광객 지출이 파급한 유발효과이다. 이외에 일반적으로 기존 올림픽대회의 파급효과로 강조되어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허브로서의 국제적 인지도가 향상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따라 올 것이라 평가되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이미 우수한 실력으로 국제경쟁력을 입증해 보인 한국 스포츠가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끼는 동계종목들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수준을 일거에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과정이 잘 관리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과거와 달리 상당수준의 성장한 한국의 국제스포츠외교역량과 결합되어 한국은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세 번째 도전의 배경

2014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실패 이후 재도전 문제가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자 강원도에서는 재도전의 필요성과 동계올림픽대회는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고 2007년 9월 3일 재도전을 공식 선언하였다. 현실적으로 여러 역대 올림픽대회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대회유산의 성공적 전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가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강원도의 세 번째 동계올림픽대회 유치결정에는 10년 이상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서 투입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지역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려는 개최도시의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다.

① 2014 유치 실패 원인과 관련하여

평창이 IOC 등 국제스포츠계, 국제언론 등으로부터 최고의 유치신청서와 실사평가 그리고 가장 훌륭한 프레젠테이션과 효율적인 유치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국제스포츠계, 언론은 물론 심지어 스포츠베팅(Betting)회사까지도 평창이 이길 것으로 점치는 상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요인이 있었다.

첫째, 한국이 주요 국제대회를 독식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IOC 위원들 사이에 평창 지지의 필연성과 부담감으로부터 이완현상 발생

둘째, 강대국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과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상당수의 평창에 대한 우호적 표심 이탈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표 중 평창 지지 성향 표 일정 수가 러시아로 이탈하고, 유럽 표의 경우도 국가·개인 간 이해관계 등으로 러시아로 표가 이동한 분위기가 컸다. 이때 러시아의 경우 동계스포츠 최강국이며 한 번도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못했다는 점도 하나의 설득요인(Point)이 되었다.

② 2018년의 국제적 여건 및 유치전망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환경은 다음과 같다. 2018년 동계올림픽 경쟁도시 및 국제역학관계에 대한 전망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2018년에는 적어도 러시아와 같은 강국의 변수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의 경우 일부도시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은 2016년 시카고하계올림픽대회에 주력하고 있고, 또한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2년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한 후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이 유치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간의 유치 기반을 감안할 때 그 주도권은 평창이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2016년 도쿄하계올림픽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8년 만에 아시아권에서 다시 하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럽의 경우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신청이 예상되고 있지만 2002년 솔트레이크(미국) → 2006년 토리노(이탈리아) → 2010년 밴쿠버(캐나다) → 2014년 소치(러시아)로 이어지고 있어 유럽에서 연이어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쉽지 않으며, 국제스포츠계에서도 2018년은 일단 아시아 후보도시가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평창의 경쟁력 측면을 분석하자면, 2014년에 비해 보다 더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평창이 2014년 유치과정에서 IOC 등으로부터 개최 여건, 역량, 명분 등에서 경쟁도시들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2018년의 경우 개최지 현지 실사가 이루어질 2011년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스키점프 경기장,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을 새로이 선보일 수 있으며, IOC와 약속했던 드림프로그램의 지속·발전적 실행(8년차)을 통해 올림픽 운동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국제스포츠계에서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고, 특히 IOC의 신뢰감과 참여국가 IOC 위원들의 친밀감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각종 국제동계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최희망도시인 평창의 개최능력과 인지도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8 쇼트트랙세계선수권대회, 2009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2009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2009 여자컬링세계선수권대회 등 대회를 계기로 IOC 위원 등 국제스포츠 주요 인사와의 유대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 두 차례 유치 도전에서 쌓은 평창의 인지도, 국제적 네트워크, 정보력 및 대처능력 등이 2018 유치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이미 형성된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다 용이한 유치활동 가능 및 평창에 대한 국제무대의 인식 변화(평창도 동계올림픽대회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능력 보유 등) 최고의 신청서, 현지실사, 프레젠테이션 및 축적된 해외 유치·홍보활동 등을 통해 노력과 경비를 덜 들이면서도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었다.

③ 동계올림픽대회 유치가 강원도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

올림픽은 대회 개최는 물론, 대회 준비과정 자체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대외이미지 제고 및 국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이어져 국가·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 요인이 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는 동북아 정치·경제상황 변화와 맞물려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우선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는 교통망, 경기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비롯해 대회 준비 단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동계올림픽이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어 도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원주~강릉 간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이들 간선망을 축으로 이와 연계된 지역순환교통체계의 확충도 앞당겨질 것이다.

2. 유치 준비계획과 경과

(1) 국내 후보도시 결정과 정부승인

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국내 후보도시 결정

KOC는 강원도로부터 2018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신청서를 접수(2009.2.13.)하였고 IOC는 2018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일정을 통보(2009.4.1.)함에 따라 올림픽현장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내 후보도시 선정은 2009년 4월 중 KOC 상임위원회와 총회를 열어 단독 신청된 평창을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020 하계올림픽대회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에서 동계올림픽대회와 하계올림픽대회의 경제적인 효과와 유치가능성, 강원도가 12년간 국제대회 유치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7월 31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강원도는 IOC의 후보도시 절차가 시작되는 3개월 동안 정부승인과 유치위원회 출범, 2009년 10월 15일까지 IOC 제출마감인 신청파일 작성 등 유치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경쟁도시인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에서는 이미 국내 절차를 마무리짓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4월 후보도시 결정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는 점, 2020 하계올림픽대회는 IOC의 일정이 통보되는 2011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4월 중에 국내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KOC에서도 유치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고, 조기에 국내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박제 KOC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16명)하여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평창과 강릉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KOC 국제관계특별위원회(위원 12명)에 제출되어 심의의결(2009.4.10.)하였고, 2009년 4월 16일 KOC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되었다. 그러나 부산의 강경한 입장에 KOC 상임위에서는 부산에게도 기회를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해 부산과 평창의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허용하였고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찬반투표가 아닌 사실상 평창과 부산 가운데 한 도시를 선택하는 투표로 변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표결로 이어져 KOC 상임위원 26명 중 찬성 18표, 반대 8표로 평창의 국내 후보도시 심의안건은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안건은 같은 방식으로 KOC 위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2009년 4월 23일 상임위원 및 올림픽종목위원 43명이 참

가한 가운데 실시된 KOC 위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찬성 30표, 반대 13표로 2018 동계올림픽대회 국내 후보도시로 강원도 평창이 최종 선정되었다.

② 정부승인

정부승인은 KOC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내 후보도시 선정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 대회유치 정부승인을 공식 신청(2009.4.30.)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장 등 3명과 국토해양부 관계자 1명, 외부 전문가 2명 등 6명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평창, 정선 중봉, 강릉 지역을 현장 실사하였고, 같은 해 5월 14일 국제체육대회유치 심사위원회를 구성(11명: 위원장 제2차관,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4명, KOC 사무총장,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민간위원 3명)하여 타당성 검토 심사를 완료하고 5월 18일 기획재정부에 2018 개최 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일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등 3명이 평창의 경기장시설, 교통망 등 현장 확인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12명, 위원장: 제1차관,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5명)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승인(2009.6.19.)을 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요 내용으로 ①대회시설에 대해서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사후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수입흑자 발생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초기 계획수립 시부터 확실히 하고 과잉투자로 인한 국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기장, 숙박시설 등은 적정하게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③교통망 확충예산, 대회운영경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입장권 판매, TV중계료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하되 국고지원규모 등은 유치 확정 후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협의 조정이 필요하며 ④특히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국제행사 유치를 독식하려고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국제스포츠계 동향 및 외교적 고려 등을 종합 감안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유치활동체계와 주요 활동

① 추진체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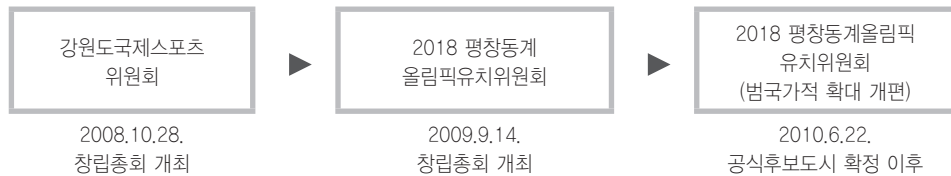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추진체계는 2014유치 당시의 경험과 유치활동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유치활동주체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정부·국회·KOC·강원도·의회·기업체 등을 기본 축으로 하는 범국가적 유치지원체제로 운영되었다.

2018 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 설립된 (재)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육성조례(2009.4.3. 강원도조례 제3324호)에 의거 2009년 9월 14일 창립총회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기절차(2009.9.24.)를 이행함으로써 법적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사무처는 2008년 8월 1일 강원도로부터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의 기구와 정원(14명)이 한시적(2008.8.1.)으로 승인된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강원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기구와 정원(66명)이 승인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직원 5명을 파견을 받아서 1총장 1차장 4처장 8부 16팀 66명으로 2009년 9월 14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창립총회 이후 사무처가 공식 발족하였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유치전략 수행 및 신청파일 작성, 공식후보도시 선정에 따른 업무의 총체적인 준비를 위하여 사무처의 기구개편 및 인력의 확대배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0년 6월 23일에는 1총장 1특보 2실관 4처 8부 16팀 69명으로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으로 확대 재편하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23일 IOC 현지실사 및 IOC 총회를 대비하여 기구를 일부 조정·편제하였으며 IOC 총회 이후에는 ‘청산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하여 법인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는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 539호, 2009.9.14.)에 의한 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그리고 국회차원의 국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강원도차원에서는 강원도행정지원본부와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범도민후원회(1,357명), 3개 시·군 및 2개 리조트의 전담기구, 시군추진위원회 및 유치지원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범국가적 유치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② 유치기구 설립 운영

표 4-1 유치위원회 변천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2007년 8월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강원도에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앞서 유치과정에서 이루어 낸 강원도 동계스포츠의 위상과 역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을 조성해 나갔다. 또한 동계스포츠의 발전방안 및 전략 등의 연구·개발, 경기장 및 인프라시설의 올림픽 수준으로의 확충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동계스포츠 유치·추진,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강원도 스포츠 관광 발전을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도민적인 성격의 전담기구를 설립하고자 재단법인 형태의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유치위원의 인선과 함께 창립총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법인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 하고 2008년 10월, 위원장 등 총 4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 창립일자: 2008.10.28.
 - 인 원: 40명 (위원장 1, 위원 39)
 - 임 원: 위원장(도지사), 부위원장 1명, 집행위원 9명, 감사 2명
 - 위 원: 도의회, 시장·군수, 리조트, 체육계, 학계, 사회단체 등
- 강원도 및 도의회(8), 시장·군수(6), 도내 리조트대표(3)
 - 체육계(4), 학계(7), 언론계(4), 사회단체(5), 여성계(2)
- 기 구: 위원총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 기 능
 - 국제스포츠발전방안의 연구·개발 및 교류 활성화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추진 및 꿈나무 육성 발전
 - 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 지원 등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2009년 4월 23일 KOC에서 강원도 평창을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한 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앞서 유치신청도시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식 유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IOC 등 올림픽 관련 인사, 동계스포츠 경기단체장, 2014년 유치도전 당시 국제스포츠계 관련 인사, 국내외 언론·학계인사, 올림픽 관련 기업인, 개최지 자치단체장 등의 인사를 대상으로 하여 총 77명의 유치위원을 선임하였다.

2009년 9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국회의원 등 초청인사와 77명의 유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집행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겸임토록 하였으며 삼일회계법인 어충조 위원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배창환 위원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또한 국내 IOC 위원 2명과 한승수 전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전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10명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여 유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①경과보고 ②유치위원회 정관 심의 ③위원장 선출 ④위촉장 수여 ⑤임원(부위원장, 집행위원, 감사)선출 ⑥유치위원회규정(운영규정, 사무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인규정, 회계규정, 여비규정 등

총 8종) 심의 ⑦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위원회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프레스센터 7층에 개소하였다.

표 4-3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구성 현황

- 창립일자: 2009.9.14.
 - 인 원: 79명(위원장 2, 위원 77)
 - 임 원: 위원장, 부위원장 4, 집행위원 16, 감사 2
 - 위 원: 체육계, 관련기관·단체, 국제인사, 개최지 자치단체장 등
- KOC 부위원장단, 관련 경기단체인사, 대한체육회 부회장단
 - 메달리스트, 전·현직 동계종목단체장, 체육기관·단체·학계대표
 - 관련 지원기관·단체대표, 국제관계인사, 개최지 자치단체장 등
- 기 구: 위원총회,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 기 능
 -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외 유치활동
 - 대회유치와 관련된 주요 사업의 시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 사무처 운영

- 최초 기구 및 인력(2009.9.14.~2010.6.22.)

2009년 10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8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기구 및 인력 66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부 7명, 강원도 39명, 대한항공 11명, KOC 3명 등을 포함한 66명 체제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처가 정식 발족되었다. 이에 유치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서울프레스센터빌딩 7층에 주 사무소를, 춘천에는 춘천사무소를 개소하였다.

- 1차 개편(2010.6.23.~12.22.): 국제업무의 역할 강화 및 신청파일 작성

유치위원회 창립 이후 2010·2014 유치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물적 자원, 국제관계 인적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IOC 일정에 따라 치밀하고 차별화된 유치전략과 단계

별 로드맵에 의해 IOC가 요구하는 기준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후보도시와 차별화된 비전과 명분을 제시하고, 국제유치전략 수행 및 신청파일 작성과 2010년 6월 22일 평창이 IOC로부터 공식후보도시 선정에 따른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총체적인 준비를 위하여 사무처의 기구개편 및 인력의 확대배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0년 6월 23일에는 1총장 1특보 2실관 4처 8부 16팀 69명으로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으로 확대 재편하였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홍보(IR) 및 IOC 관련 업무에 대한 위원장 보좌 및 국제업무 관련 국제처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특보와 국제협력관, 위원장 보좌활동 및 부위원장단 회의 운영과 위원장 지시사항 처리를 위한 상황실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게 되었다.

• 2차 개편(2010.12.23.~2011.3.14.): IOC 현지실사 준비 및 성공적 수행

공식후보도시 선정이후부터 개최도시를 결정짓는 IOC의 중요평가 일정한 신청파일 작성·제출, IOC 현지실사, IOC 주관 국제행사 프레젠테이션, 국제유치 활동 등 방대하고 전문화된 유치로드맵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기구와 인력의 보강이 불가피하였다. 이를 위해 IOC 현지실사 이전에는 IOC 현지실사와 신청파일 작성 등에 무게를 두고 개편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기구에 IR 및 IOC 관련 업무에 대해 중앙부처(외교통상부) 업무 협조 및 국제업무 강화를 위하여 공관지원관을 두었으며, IOC 현지실사 대비를 위한 실사지원팀과 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하여 미디어 2팀을 신설하였고, 운영부의 총무팀과 재정팀을 총무재정팀, 국제처의 국제1부와 국제2부를 각각 국제부와 대외협력부로 재편 운영하였다.

• 3차 개편(2011.3.15.~2011.10.3.): IOC 총회 참가 및 성공유치 총력, 유치위원회 활동 정리

2011년 2월 'IOC 현지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 개최지 선정을 위한 IOC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총회에서 마지막 득표활동에 전력을 쏟는 한편, IOC 총회 이후 유치위원회 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최소화로 개편을 단행하였다.

- 4차 개편(2011.10.4.~조직위 출범 시까지)

IOC 총회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 운영해오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2011년 7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어 2단계에 걸쳐 감축 운영되었다. 1단계인 2011년 7월부터 8월말까지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KOC, 강원도, 강릉시, 대한항공 파견 인력의 복귀 등으로 총 52명으로 운영되었으며, 2단계로 2011년 10월 5일 해산총회 이후에는 자체채용 계약직 해지로 36명의 청산단이 운영되었다.

(3) 신청도시 후보도시파일 작성 및 제출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대회 시설계획 수립 시 2010·2014의 대회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2번의 IOC 조사평가 결과, IOC의 권고사항, 역대도시 및 경쟁도시의 사례,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 등의 연구과정을 거쳐 유치전략 측면에서 경기장을 2개의 클러스터로 계획하여 집중 배치하고 모든 경기장은 선수촌에서 30분 이내 도착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콘셉트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콤팩트한 경기장 배치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 중심, 경기 중심의 올림픽 구현과 효율적인 경기운영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신설되는 6개 경기장은 사후활용에 중점을 두고 배치와 활용계획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신청도시파일 작성

● IOC 요구사항 및 주요 질문내용

IOC에서는 신청도시파일 작성과 관련하여 총 25개의 질문에 답하고 4개의 원본 보증서(올림픽 현장 준수, 출입국 보장, JMPA계약 보증, 호텔등급 표준화 보증)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은 A4용지에 종으로 작성, 영어와 불어 두개 언어로 최대 50쪽 분량(영어 25쪽 + 불어 25쪽)으로 작성하여 2010년 3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다.

● 작성팀 구성

유치위원회에서는 신청도시파일(Application File)과 후보도시파일(Candidature File)

의 작성을 위해 17개 주제별로 1명의 전문가와 7명의 총괄자문단으로 구성된 ‘드림팀’(23명)을 구성하고 2009년 11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표 4-4 드림팀

주 제 별	소 속	성 명	주 제 별	소 속	성 명
총괄자문단	강원발전연구원	염도민	재정	한림대학교	안동규
	강원대학교	진장철	마케팅	연세대학교	노전표
	강원대학교	구정모	경기 및 경기장	정림건축사	전진근
	일리노이즈대	김창호	장애인올림픽	연세대학교	전용관
	아주대학교	이상은	선수촌	KOC	김소희
	국제스포츠 연구원장	윤강로	의료 및 보건	연세대학교	이영희
	부위원장	방재홍	안전	대불대학교	이동영
개념 및 유산	중앙대학교	성민정	숙박	한국관광공사	이 참
정치경제환경구조	서울대학교	박원호	수송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법적문제	연세대학교	정영철	기술	KT	송하일
세관 및 입국	관세청 서울세관장	태응렬	미디어	전 KBS	천영일
환경과 기상	기후변화센터	엄기증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신청도시파일 작성은 최대한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유치 당시 작성된 비드파일(Bid File)을 근거로 우선 작성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키로 하였고, 각 주제별로 드림팀과 유치위원회 직원 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는 주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 팀을 구성하는 등 운영에 탄력을 주었다. 또한 매월 2회 이상 정례모임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모임을 정례화 하였으며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일정보다 조기에 신청도시파일 작성을 완료하였다.

표 4-5 주제별 전문가 및 담당팀 구성 현황

구 분	주제별	전문가		담 당	
		총괄 책임	주제별 전문가	담당팀	성 명
통합주제Ⅰ	1. 올림픽비전, 유산, 소통	성민정	성민정	실사 준비팀	정일섭
			박원호		
	2. 올림픽 콘셉트		성민정		
			김지혜		
통합주제Ⅱ	3. 정치·경제적환경과 구조	이동영	구정모	실사 지원팀	김용환
			박원호		
	4. 법적측면		정영철		
			태응렬		
통합주제Ⅲ	5. 세관 및 입국절차	안동규	이종옥	실사 준비팀	전철수
			이영희		
	6. 의료서비스 및 도핑관리		이동영		
			안동규		
통합주제Ⅳ	7. 안전	전진근	이동영	실사 지원팀	김영희
			안동규		
	8. 재정		삼일회계법인		
			노전표		
통합주제Ⅴ	9. 마케팅	문영준	권형일	시설1팀	이성률
			전용관		
	10. 패럴림픽		이흥재		
			전진근		
통합주제Ⅵ	11. 경기 및 경기장	이혜연	이혜연	시설2팀	정홍섭
			김소희		
	12. 올림픽선수촌		김병삼		
			박창석		
통합주제Ⅶ	13. 숙박	정희성	정희성	시설2팀	손창환
			문영준		
	14. 환경과 기상		송하일		
			KT		
통합주제Ⅷ	15. 수송	천영일	천영일	시설1팀	이세영
	16. 기술		송하일		
통합주제Ⅷ	17. 미디어 운영	이창재	이창재	시설1팀	이세영
			천영일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본선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경기장시설들은 평창을 중심으로 30분 내에 배치하였으며 스키 등 설상경기는 평창 지역에서, 빙상경기는 강릉 지역에서 개최토록 하였고 선수촌, 미디어촌의 규모도 조정하였다. 이러한 집중화계획에 따라 새로 조정되는 경기장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국내 연맹별 전문가 및 국제경기연맹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평창에서 모든 경기장까지는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신청파일에 적용하여 IOC에 최종 제출하였다.

표 4-6 경기종목별 경기장명

경기 및 종목			경기장명	좌석 수 (명)	입석 수 (명)	연습경기장
설 상 종 목	알파인	활강, 슈퍼G	중봉알파인경기장	6,000	6,000	동일베뉴
		대회전, 회전	용평알파인경기장	6,000	6,000	“
	스키점프		알펜시아스키점프장	11,000	15,000	“
	크로스컨트리		알펜시아노르딕센터	5,000	10,000	“
	바이애슬론		알펜시아바이애슬론센터	5,000	15,000	“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1,000	10,000	“
	프리스타일		보광프리스타일경기장	4,000	10,000	“
	스노보드		보광스노보드경기장	4,000	10,000	“
빙 상 종 목	스피드스케이팅		사이언스오발	8,000	—	“
	피겨/쇼트트랙		경포아이스홀	12,000	—	피겨(임시)
	컬 링		강릉실내빙상장	3,500	—	동일베뉴
	아이스하키 I		유니온하키센터	10,000	—	임시1링크
	아이스하키 II		영동대학체육관	6,000	—	“
비 경 기 장	선수촌	평창	알펜시아	1,818실	3,520 베드	—
		강릉	유천택지	1,405실	2,340 베드	—
	미디어촌	평창	알펜시아	5,250실	—	—
		강릉	유천택지	5,250실	—	—
	IBC/MPC		알펜시아	60,000㎡	—	—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 경기장시설

- 알펜시아 클러스터
 - 알펜시아: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 용평시평: 알파인(회전, 대회전)
 - 보펜시광: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 정펜시선: 알파인(활강, 슈퍼G)
 - 코스타 클러스터
-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I, II)

● 대회 운영시설

- 알펜시아 클러스터
- 선수촌: 평창(3,500beds), 강릉(2,300beds)
- 미디어촌: 평창(5,250beds), 강릉(5,250beds)
- IBC/MPC, 대회운영본부, 개폐회식장: 평창(알펜시아)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② 신청도시파일 제출

신청도시파일은 IOC에서 1단계로 후보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2009년 7월, 2018 후보도시 선정절차를 발표하면서 총 9개 분야 25개 세부항목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을 2010년 3월 15일까지 IOC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을 구성하여 신청도시파일 작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작성 및 자문에 착수하는 한편 정부협의 등도 병행하여 2010년 1월초 초안을 마련하였고, 초안을 바탕으로 자문단 및 기술위원회, 선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0년 2월에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 유치위원장, 강원도지사, 개최도시 등의 사인이 담긴 서한문과 함께 IOC에 제출하였다.

③ 후보도시파일 작성

후보도시파일은 신청도시파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더욱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대 후보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면서 교통망 및 경기장 등 관련 인프라의 꾸준한 확충으로 2014보다 더욱 진전된 올림픽대회계획 수립, 드림프로그램 등 IOC와의 약속사항 지속 이행 등 잘 준비된 평창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유치위원회에서는

IOC에서 요구한 17개 분야 261개 세부항목에 대한 질문과 정부 및 KOC, 동계종목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관련 보증서를 징구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 구성과 유치위원회 담당자 등을 추가동해 본격적인 질의응답 작성에 착수하여 2010년 8월에 한글초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 및 KOC,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보증서 확보 등 2010년 12월 최종 답변서를 완료하였다.

④ 후보도시파일 제출

작성된 한글초안은 최고 품질의 영·불문 번역을 위해 후보도시파일 감수에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와 원어민 등을 참여케 하여 최종적인 감수를 병행하였으며 2011년 1월 6일 유치위원장을 비롯해 강원도지사, 개척도시 시장·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후보도시파일 제출 서명식을 개최하였고, 2011년 1월 10일 위원장을 비롯한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이 직접 IOC본부를 방문하여 후보도시파일을 제출하였다.

표 4-8 후보도시파일 작성 로드맵

2010.2.	전문가 용역계약 체결	17개 주제별 전문가(팀장+팀원)
	▼	
2010.2.~8.	파일작성팀(전문가+유치위) 정례회의 개최	통합 및 분야별 실시 월 1회
	▼	
2010.8.	파일작성초안 작성, 보고회 개최	위원장+유치위원회 주요인사 참석
	▼	
2010.9.	2차 후보도시파일 보고회 개최	위원장+유치위원회 주요인사 참석
	▼	
2010.9.	디자인 제작계획 수립 및 전문 업체 선정	
	▼	
2010.9.	정부, KOC, 경기연맹 등 파일수록내용 협의 및 보증서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 유치위원회
	▼	
2010.9.~11.	번역업체 선정·계약 및 파일 번역	영문 → 불문
	▼	
2010.11.	정부,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 반영 파일 최종 확정	정부 + 컨설턴트 + KOC 등
	▼	
2010.12.	파일인쇄 및 제본	유치위원회
	▼	
2011.1.	파일제출 서명식 및 제출	IOC 본부방문(스위스)

출처: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 종합백서》

(4) 국제유치활동과 IOC 총회

① 국제유치활동 총괄

평창은 부산의 2020년 하계올림픽대회 도전 등의 이유로 국내 후보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경쟁도시(뮌헨)에 비해 늦게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이 매우 불리한 상태로 유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초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된 독일 뮌헨은 현 IOC 부위원장이면서 차기 IOC 위원장으로 거론될 만큼 국제 영향력이 매우 큰 토마스 바흐를 위원장으로 하여 전설적인 피겨 스타인 카타리나 비트, 정부와 BMW 등 글로벌 기업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치전에 제일 먼저 나섰다. 프랑스 안시는 IOC 국제위원장을 지닌 거물급 IOC 위원인 기드뤼와 막강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힘을 보태고 대기업의 후원 아래 국제적 스타급의 선수 중심의 유치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평창은 두 번의 유치과정에서 구축한 국제스포츠 인맥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명분과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유치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유치활동 초기 국제스포츠계와 외신에서는 평창보다는 토마스 바흐가 이끌고 있는 뮌헨을 우승 후보로 꼽았으며, 평창은 2009년도말까지도 IOC 위원 수(이건희위원 자격 정지)와 지명도, 국제스포츠계 네트워크 등에서 라이벌인 도시 뮌헨에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평창은 IOC 내부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는 거물급 인사가 없는 것이 최대의 약점으로 지적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IOC 위원으로서 이견희 회장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에서 일어났고 이를 강력히 청원함에 따라 2009년 12월 29일자로 이견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조치가 단행되어 2018대회 국제유치활동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그 다음해인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선전을 이룬 후부터 평창의 유치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재외공관을 비롯한 정부, KOC, 기업 등 외교채널을 총 동원한 전방위적인 유치활동 결과 IOC 실사 이후에서야 경쟁도시인 뮌헨과 대등해졌다는 평가를 대내외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유치위원회는 IOC 실사 이후를 국제 유치활동의 전환점으로 보고 평창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였다. 첫 번째, 각 IOC 위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Man-To-Man) 득표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IOC와 연결되는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두

번째, IOC 위원들과 국제스포츠계에 평창의 강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평창의 대세론과 함께 평창은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분위기와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의 협조요청이 필요한 국가(중동 및 왕족위원 소속 국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정상외교 계기를 활용한 표심확보에 주력하였고, 재계에서는 CEO들의 막강한 스포츠계 인맥과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지원 등을 앞세워 유치활동을 지원하였다. IOC 총회 개최지 결정 100여 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내외신 등에서 평창 우위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일부 IOC 위원들은 최종적으로는 평창과 뮌헨의 싸움이 될 것이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고 평창 쪽이 다소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실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기도 하였다.

2018대회 유치 전 마지막 관문인 더반 IOC 총회에 유치활동 리더, 경기단체 회장 등 모든 인사가 총 출동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와 전략으로 득표활동에 임하였으며, 현지에서의 대통령 중심의 IR 활동에 모든 노력의 초점을 맞추어 득표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 IOC 위원과 부동층의 IOC 위원들을 집중 공략한 결과 마침내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낼 수 있었다. 1차 투표에서 평창의 큰 승리를 가져다 준 득표의 주요인으로는 더반총회에서 개최지 결정투표를 앞두고 아시아 IOC 위원들이 단결하여 평창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으며, IOC 위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유럽의 표심이 2020 하계올림픽대회 유치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이해관계가 얹히면서 유럽 중심의 표심이 분산되었고 승부처라고 판단되는 한국의 전통 지지표이던 아프리카 표심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평창 승리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다.

② 국제유치활동

공식후보도시 이전(2010.6.)과 이후로 단계별로 나누어 유치활동 주체 및 대상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득표와 연계되는 유치활동에 주력하였다. 공식후보도시 선정 이전에는 국제 홍보활동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우선, IOC 윤리규정과 국제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23개 국제대회·행사(별첨: 국제대회·행사 참가 현황 참조)에 참가하여 IOC 위원에게 평창의 재도전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해 나가다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 대표단 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유치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공식후보도시 선정과 동시에 본격적인 국제유치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58개 주요 국제대회·행사를 통해 홍보(IR)활동을 전개하면서 IOC 위원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평창의 이미지와 새로운 지평이라는 평창의 명분과 당위성을 알렸으며 동계스포츠 국제경기연맹 등 올림픽패밀

리들과의 관계 강화, 유치위원회와 IOC 후보도시 담당 직원들과의 유대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매번 국제행사·대회 참가 시마다 차별성 있게 유치활동의 새로운 스타일과 콘셉트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으며 유치위원회 자체분석 또는 컨설턴트의 피드백 보고서, 합동회의 등을 통하여 결과를 진단하고 다음 행사 및 대회 참가 시 문제점을 개선, 국제유치 활동 기간 중 총 81개 대회·행사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후보도시를 대상으로 한 IOC 초청행사 시 프레젠테이션의 주된 방향과 전략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동계스포츠 확산, 국민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IOC와의 약속이행 등을 중점 강조하며 평창개최의 명분과 당위성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③ IOC 총회 참가방침 결정

제123차 IOC 총회 참가는 결전을 치르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위해 사전답사팀을 구성하여 5월 2일부터 8일까지 더반 현지에 파견, IOC 주관의 더반 총회 준비 브리핑에 참가하는 한편 더반 현장 제반사항을 점검하였고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 유치위원회에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KOC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참가계획을 확정하였다.

● 대표단 구성 및 출입국 개요

한국대표단은 총 280명으로 구성(공식대표단 100, 일반참가단 74, 미디어 67, 유치지원단 39)하였으며 대한항공 특별전세기(KE9963편)로 2011년 7월 1일 10:00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계획보다 1시간여 늦은 7월 1일 21:30경에 더반 현지에 도착하였고 7월 8일 14시 10분에 전세기(KE9964)편으로 귀국하였다.

④ IOC 총회 공식행사 참가

2018 평창유치위원회 대표단은 IOC 총회 기간 중 IOC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참가하여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유치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⑤ 프레젠테이션 실행

IOC에서는 영상 등을 포함한 프레젠테이션에 45분, 질의·응답에 15분 등 총 60분의 시간을 각각의 후보도시에게 허용하였다. 유치위원회는 총회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지난 로잔 테크니컬 브리핑 발표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동시에 공략하되 감성적인 부분을 더욱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치위원회에서는 총 9개 분야와 4개의 영상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⑥ IOC 총회 미디어 홍보

총회가 임박해지자 외신들의 평창 현장 방문 취재도 줄을 이어 이러한 분위기를 반증해 주었다. 총회 취재는 미디어 개개인이 IOC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였으며, 유치위원회는 일부 언론의 등록 지원과 더반 현지 미디어센터 준비 등 취재 지원을 하였다. 총회 참석 전에 참가 미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현지 취재 여건 등을 안내하고 취재 협조를 하였다. 더반 현지에서는 IOC 위원에 대한 인터뷰 자제 등 조용한 가운데 취재에 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1일 브리핑제를 운영하여 현지 상황을 전파하였다.

3. 유치 성공요인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

(1) 유치 성공요인

평창의 승리요인은 지난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기장 및 올림픽 관련 시설 투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완벽하게 준비해 온 모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설득한 점이 주효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강원도, KOC, 삼성, 재계 등 각계각층의 전 방위적 유치활동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막바지 더반 현지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드림 프로그램 등 IOC 약속사항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제스포츠계에 깊은 신뢰를 주었고 평창 개최의 당위성과 명분이 IOC 위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92%에 달하는 국민들의 유치열망과 한결같은 지지가 경쟁도시를 압도하였으며 동계스포츠 저변 확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2010 밴쿠버에서 빙상종목 등의 패거리가 2018 평

창의 슬로건인 ‘New Horizons’를 아시아대륙의 동계스포츠 확산과 연계, 효과적으로 이해시킨 것도 크게 작용하였으며, 2018 동계올림픽대회는 아시아의 차례라는 설득도 주효했지만 차기 IOC 위원장 선거, 2020 하계 및 2022 동계대회 유치를 둘러싼 국제스포츠계의 이해관계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성공 개최를 위한 향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 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조직위원회 구성
- 문화올림픽을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확보
- 환경올림픽을 위한 효율적·친환경 인프라 구축
- 흑자 대회 달성 및 사후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제올림픽 실현
-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드라이브 더 드림 II’ 본격 추진

5대 전략의 추진방향에 따라 대회 준비체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10월 19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초대위원장으로 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출범케 하였다. 또한 2012년 1월 26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문화올림픽 달성’을 목표로 각종 콘텐츠 발굴을 추진키로 했으며 체육·문화예술·관광·홍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 및 올림픽과의 연계방안’ 등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평창에서도 올림픽 참가국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진행해 지구촌 축제이자 평창 및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모든 신축 경기장에 대해서는 LED 인증을 획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온실가스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제안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외에도 환경전문가 및 환경 NGO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대회 개최 경

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을 추구해 예산을 절감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 하는 동계종목 체험과 같이 동계스포츠에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전문 관광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대회가 끝난 후에는 다목적홀·전시장·시민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경기장을 활용하며 특히 아이스하키 I 경기장은 해체 후 원주로 이전, 한라 위니아 및 하이원 아이스하키 실업팀의 전용 구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경기장 사후활용을 통한 경제성 확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넘어 내실 있는 ‘경제올림픽’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이번 유치 성공을 계기로 동계스포츠 육성 방안 ‘드라이브 더 드림 II’도 본격 추진되고, 제2의 김연아 발굴을 목표로 멀티트레이닝센터 건립을 통한 상시 훈련환경 구축, 훈련의 과학화 지원, 글로벌 선수 인재 양성을 위한 동계스포츠 선진국 스키학교 입학 지원 및 해외 지도자 초청 강습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선수 출신의 인재를 활용하는 등 차세대 인재 양성을 통한 스포츠외교력 제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2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1. 대회 개요 및 개최 의의

(1) 대회 개요

① 개최방향

대구는 아시아 육상 발전을 통한 세계 육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11년 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대회로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최고수준의 경기 여건을 마련하여 대회목표를 달성하고 문화와 환경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대회로 개최하며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국제도시 대구를 세계인들의 가슴에 각인시키기 위해 범국민적인 문화축제의 장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

② 개최장소 및 기간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대구월드컵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등에서 치러졌다. 주경기장인 대구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7월 건립되었으며 관람석 6만 6,400석(관람석의 74% 이상은 자연채광이 가능한 테프론 코팅막 차양시설 설치)을 갖추었다. 경기장은 100m 9레인 과 400m 8레인을 갖추었다. 선수촌, 경산 육상전용경기장, 대구시민운동장 등 3개소의 연습장과 현지적용 훈련장 1개소가 운영되었다. 대회개최기간을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9일간)로 제안했다.

③ 경기종목 및 참가규모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은 총 47개 종목으로 남자 24종목과 여자 23종목이다. 참가규모는 202개국 1,945명(남 1,046명, 여 899명)의 선수와 1,817명의 임원이 참가하여 역대 대회 중 최대 규모이고 관람객은 44만 6,305명이다.

표 4-9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종목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10,000m, 4×100m 릴레이, 4×400m 릴레이, 110m(100m)허들, 400m 허들, 마라톤, 20km 경보, 50km 경보(남), 3,000m 장애물(남), 남자 10종 경기, 여자 7종 경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원반던지기, 포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출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www.daegu2011.org>)

(2) 대회 유치경과 및 개최 의의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도전하게 된 것은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이를 지역의 활력을 찾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희망의 도시 일류도시 대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렬한 욕구가 뒷받침되었고, 이는 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로 한국 육상의 발전을 통한 아시아와 세계 육상의 중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2005년 6월 1일 87명의 유치위원으로 구성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해 8월 10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경쟁도시보다 육상열기나 저변이 취약한 대구가 개최권을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으나 적극적 공동체의식을 가진 260만 대구시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대구광역시와 지역의 기업들은 이런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번의 도전으로 경쟁도시들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07년 3월 27일 오후 3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 성공’이라는 케냐 몸바사에서의 감동은 260만 대구광역시민들의 열정과 염원으로 이루어낸 쾌거였다.

2. 대회 준비 운영

(1) 대회 준비 운영 및 지원체계

① 조직위원회 발족

대구광역시에서는 먼저 유치위원회의 조직을 활용하여 대회 준비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 9월 14일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초대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포함한 95명의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발족했으며, 같은 해 11월 2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그 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변경 등기했다.

조직위원회 사무처 설립 단계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25, 대구은행 중앙로지점에서 첫 사무실을 개소했고, 점차적으로 기구와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 1단계에서는 기구 확대에 부족한 사무실을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으로 561번지 메리츠화재(7층)를 추가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운영 2단계에서는 경기국과 미디어국을 대구스타디움으로 이전·운영했다.

표 4-10 단계별 사무처 구성 현황

설립 단계	준비 단계	운영1단계	운영2단계	현장운영 단계
2007년 10월~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12월	2010년 1월~ 2010년 7월	2010년 8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2011년 9월
1실 1본부 4부 10팀 47명(54명)	1실 2본부 2관 8부 18팀 92명(107명)	1실 3국 15부 2관 1소 39팀 183명(252명)	1실 4국 15부 3관 1소 40팀 243명(252명)	2실 4국 1촌 2관 1단 15부 5,30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기본계획 수립 대회 마크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운영매뉴얼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회 운영매뉴얼 제정 물자 및 장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X 및 리허설 비상대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레스리허설 대회 물자 배치·운영

※ ()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정원임

출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201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② 조직위원회 운영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조해녕 전 대구광역시장)과 부위원장(4명), 집행위원(12명)을 포함한 18명의 임원과 감사 1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고 의결기관으로 위원총회를 두고 정관개정, 조직위원회 위원 해임 및 선임, 조직위원회 해산, 청산인 선임 등 9차례에 걸쳐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조직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전문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 심의를 총 18차례에 걸쳐 6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 4-11 위원총회 운영 현황

구 분	일 시	참 석	심 의 안 건	비 고
창립총회	2007년 9월 14일	65	설립취지문 채택, 조직위원회 위원 선임 등 5건	
2차	2007년 12월 28일	79	정관개정, 박정기 명예위원장 추대 등 3건	서면결의
3차	2008년 4월 24일	74	정관 일부 개정 등 1건	"
4차	2008년 9월 5일	67	정관 일부 개정 등 1건	"
5차	2009년 4월 21일	75	정관 일부 개정, 조직위원회 해임 및 선임 등 4건	
6차	2009년 9월 11일	61	조직위원회 감사 선임 등 1건	서면결의
7차	2010년 8월 17일	67	정관 일부 개정, 조직위원 해임 및 선임 등 2건	"
8차	2011년 3월 15일	64	조직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등 1건	"
9차	2011년 12월 22일	77	조직위원회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등 2건	

출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201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특히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를 위해 사무집행기관으로 조직위원회 내에 사무처를 두고 대회 준비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수익 사업, 국제협력, 시설물 개보수, 문화행사 준비 등의 사무를 집행했으며, 사무처는 문동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대한육상경기연맹 등 공공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구성했다.

(2) 대회재정수지

① 개요

대회재정은 유치 이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국제육상경기대회 규정과 대회 조직협정서에 의거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후 대회 준비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1차 변경을 했다.

재정수입은 대회 마케팅, 입장권, 선수·미디어촌 사용료, 물자·장비 임대료수입 등의 자체수입과 국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출은 대회 운영비와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했다.

사전심의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도모했으며 특히 그 간의 국제대회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했다.

② 지출

대회지출예산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국제육상경기대회 규정과 대회 조직협정서(E.O.A)를 토대로 대회 운영사업비 1,264억 원, 대회시설비 1,814억 원 정도로 추계했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대회재정계획을 수립했다.

그 후 2010년 2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승인을 받은 대회 기본계획에 의거한 대회 준비실행계획을 추진하면서, 물가상승 요인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서 요청한 사업의 반영 등으로 대회 운영사업비가 494억 원 증가한 1,758억 원으로 재정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③ 수입

중앙정부,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연도별·재원별 확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중앙정부로부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의거, 옥외광고 사업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의한 수익금을 지원받았다. 옥외광고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국제대회 개최도시 및 조직위원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직위원회는 121억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은 대회지원법에 의거 증량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사행성 조장 우려로 증량발행을 미루다가 2011년 1월에 증량발행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부터 판매한 수입금을 2011년 7월에서야 배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회가 종료된 후까지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준비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케팅 사업은 공식후원사, 공식공급업체 그리고 공식상품화권자에게 대회 공식명칭과 상징물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금전 또는 물자·용역으로 제공받는 사업이다. 대회의 마케팅수입은 육상이라는 비인기종목의 경기대회,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마스코트 등 대회상징물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이나 기념품을 제조·판매할 권리를 부여받은 공식상품화권사업을 국내 업체로 선정하지 못한 것은 대회홍보 및 기념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입장권 판매수입 98억 원, 선수·미디어촌 사용료 22억 원, 대회 물자 및 장비 시설임대료(레이트카드) 33억 원 등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이 밖에도 지역의 (주)금복주가 50억 원을 기탁하는 등 기부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당초목표를 상회하는 수입을 확보하였다.

표 4-12 대회 재정 운용계획

단위: 억 원

수 입	2,466	비 고	지 출	2,466	비 고
중앙정부 지원	1,223		대회시설비	708	
• 국비(기금)	844		• 경기장시설 개보수	468	
• 옥외광고사업사업수입 배분금	203		• 선수훈련시설	79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176		• 선수촌 부대시설	80	
			• 방송·보도시설	81	

수 입	2,466	비 고	지 출	2,466	비 고
조직위원회 자체수입	391		대회 운영사업비	1,758	
• 후원사 수입(VIK포함)	155		• 경기 운영비	137	
• 입장권 판매수입	98		• 대회 행사	143	
• 선수·미디어촌 사용료	22		• 미디어 운영	170	
• 물자·장비 임차료	33		• 대회 운영	750	
• 기부금	51		• 수익 사업	158	
• 기타수입(이자 등)	32		• 조직위원회 운영	400	
대구광역시 출연	852				

출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201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3) 대회 인프라 준비

① 대구광역시 활동

● 시민서포터즈

시민서포터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기업, 종교단체, 주한 외국인 등으로 구성했고, 각국 선수단 환영, 환송, 응원, 통역, 안내, 대구 알리기(시티투어, 쇼핑, 지역문화 체험행사 등) 역할을 수행했다.

시민서포터즈 모집은 1, 2차에 걸쳐 인터넷이나 방문신청을 통해 기관·단체, 기업체, 동아리, 개인별로 공개모집을 했다. 1차 모집(2011.1.) 때는 선발 예정인원 1만 7,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2만 76명이 신청했으며, 2차 모집(2011.3.) 때도 2,213명이 신청, 시민서포터즈 활동의 실질적 참여 가능성 여부와 적극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표 4-13 시민서포터즈 선발 현황

계	기업체	국제교류단체	다문화가정	기관·단체	일반시민	비 고
17,099	1,365	212	11	12,804	2,707	

출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201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 전국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대구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7개)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표 4-14 협약체결 광역자치단체 현황

구 분	2011.6.10.	2011.6.14.	2011.6.15.	2011.6.29.	2011.7.18.	2011.7.20.	2011.8.4.
체결도시	인 천	서 울	부 산	경 기도	울 산	대 전	경 남
체결장소	인천 광역시청	대구 광역시청	부산 광역시청	대구 광역시청	울산 광역시청	대구 광역시청	대구 광역시청

출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201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 대회 운영 교통대책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경기장 주변과 로드경기 시 교통흐름을 주시했고 적절한 교통대책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교통상황실을 대구스타디움 내에 설치, 주변 교통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대회의 원활한 추진 및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통제소(9개소)를 운영했다. 마라톤 코스가 루프 코스(Loof Course)로 결정되면서 로드레이스(Road Race) 주변에 교통섬이 발생하게 됐다. 교통섬 지역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5회, 10만 매)하고 구역별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방문안내 등 홍보에 전력을 다했다. 관람객 수송은 대구광역시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셔틀버스 운영을 했으며 지하철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최대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② 대구광역시의회 활동

제6대 대구광역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2010.7.)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대회 홍보활동에 이어 대회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에 나섰다.

표 4-15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활 동 기 간	위원장	위 원	비 고
제5대	2007. 9. 4.~2010. 6.30.	김익식	권기일, 김대현, 박돈규, 박정희, 유영은, 정규용, 전성배, 지용성	
제6대	2010. 9.10.~2011.12.31.	박상태	권기일, 김화자, 신현자, 윤석준, 이재녕, 홍창호	

출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201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과보고서》

③ 문화시민운동협의회 활동

문화시민운동협의회(회장 신일회, 계명대총장)는 2009년 6월 사무국을 설치하고 문화 시민운동의 활동방향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문위원(33명), 시민강사(33명), 실천봉사단(46명) 구성과 홈페이지 구축(2010.9.), CI 제정(2009.12.)을 하였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문화시민운동지원조례(2010.12.20. 제4212호)를 제정해 활동 기반을 조성했다.

(4) 대회 운영

① 대회의 기획·조정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의 창의적 추진과 기관·부서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하여 종합기획 및 조정업무를 추진했다. 대회 준비 기본계획과 로드맵(Road Map)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시민참여형 정책개발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으로 시민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아울러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보험, 내실 있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일상감사,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의 법률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비한 법률자문기관 선정으로 내실 있는 대회를 준비했다.

② 대회 운영조직 및 인력

조직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은 대회 준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기초한 단위업무를 분석하고 기능을 고려해 보직과 규모를 결정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충원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정부의 작고 실용적인 조직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강소조

직으로 꾸렸고, 국제협력·경기·미디어 분야는 국제대회 유경험자 등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했다.

③ 대회시설 확충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회시설은 기존 대구스타디움을 주경기장으로, 경기장 서편의 보조경기장을 준비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남서편에 위치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투척전용 준비운동장으로 조성해서 사용했다. 연습장시설은 시민운동장을 개보수하고 선수촌으로 활용한 율하택지개발지구 내의 율하체육공원을 선수촌연습장으로 조성, 활용한 뒤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했다. 로드레이스는 도심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출발하여 대구 시가지를 순환하는 루프(Loop)형 코스를 개발했으며, 대회 운영 관련 경기기능실 등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기술대표 실사, 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국제경기대회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조성했다.

④ 경기 운영

원숙한 경기 운영을 위해 국내기술임원(NTO) 양성 및 경기 운영요원들의 언어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기일정은 국내 메인뉴스 시간과 국민들의 관심도를 우선 고려했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주)Dentsu/AMS, 유럽 지역 방송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대구스타디움에 설치한 TIC(Technical Information Center)와는 별도로 선수촌에 CID(Competition Information Database)를 설치하여 선수들이 필요한 경기정보를 선수촌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입국에서부터 출국 시까지 선수단의 연락창구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별 연락관인 아타셰(Attache)를 운영하여 대회기간 중 선수단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했다. 또한 완벽하고 독창적인 대회 연출을 위해 주관방송사(KBS)와 공동으로 대회 연출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마스크트 살비 코스를 이용하여 경기장에서 선수를 응원하고 전광판을 이용하여 관람에티켓을 제공했다.

⑤ 의료서비스·도핑컨트롤

의무는 선수·임원,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관계자, 미디어, 관중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완벽한 대처활동을 통해 대회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대회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반도핑활동(Doping Control)은 우리나라 반도핑기구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조직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선수촌, 대구스타디움, 로드레이스 지역에서 도핑검사를 수행했으며, 이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부터 실시되는 ABP(Aathletes Biological Passport) 도핑 컨트롤 등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⑥ 방송·보도

메인프레스센터(MPC) 및 국제방송센터(IBC) 등 미디어 관련 시설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방송지침과 취재 및 사진기자지침, 대회조직협정서를 근거로 국제육상경기연맹 방송·보도 실사를 거쳐 최상의 미디어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경기장 내 해설자석과 기자석, 공동취재구역(Mixed Zone) 등 모든 미디어 작업공간에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을 제공하여 IT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리고 주관방송사를 KBS로 선정하여 최고의 고화질(HD) 품질로 국제신호를 제작한데 이어, 안전한 주관통신사의 시설망을 이용하여 자국에 송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신 환경을 구축·운영했다.

⑦ 정보통신·전기 운영

정보통신시설은 대구스타디움에 정보통신시스템을 설치한 뒤 로드레이스, 선수촌, 총회장, 본부호텔 등에 전용회선으로 구성하여 운영했다. 정보통신네트워크는 조직위원회(전자결재),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인터넷, 해설자정보시스템(CIS) 운영 부분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독립된 네트워크로 구성했다.

조직위원회 네트워크(전자결재)는 조직위원회 직원 전용으로 운영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대회기간에는 대회관련 업무용으로 활용했다. 대회업무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했지만 보안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한 사용자 설치 제약으로 네트워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설자정보시스템(Commentary Information System) 부문은 고품질의 장비로 이중화 및 초고속 전송로를 활용,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T 강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대구스타디움 음향시설 부문은 국내 최초로 정지향 혼 타입(Horn Type)의 라인어레이스 피커(Line Array Speaker)를 적용, 잔향과 울림(에코) 등의 방해 요소로부터 명료도를 획

기적으로 개선해 선명한 음질을 음영지역 없이 제공했다. 경기장 전광판은 기존 전광판의 1.5배 크기로 주·보조전광판을 새로 교체했고 대회기간에는 경기장 본부석 맞은편 상단 관중석에도 임시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 운영했다.

대회 전기시설은 경기장 전기설비와 대회 임시 시설에 대한 전기 공급으로 구성했다. 경기장 전기는 한전용량 4,500kW를 6,500kW로 증설하고, 에어컨 등 대회물자에 대한 추가 전기용량은 한전 임시 수전설비 1,350kW를 긴급 설치해 대회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경기장 외 지역인 준비운동장과 마켓스트리트(Market Street) 등 대회 임시 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은 발전기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전기설비의 증설을 억제했다.

⑧ 의전 운영 및 출입국 지원

의전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의전지침(Protocol Guide Line)에 의거, 의전 범위대상을 설정하여 공항, 본부호텔, 경기장, 총회장소 등 장소별로 의전활동을 수행했다. 대회에 참가하는 VVIP, 선수·임원, IAAF Family 등을 대상으로 품위 있고 체계적인 의전을 전개해 품격 있는 글로벌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의전 분야 참여기관 간 의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전활동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적 현장 의전실 운영으로 안내, 등록, 수송, 숙박 등을 일괄지원체계(One-Stop Service)로 운영했다.

⑨ 등록

등록은 대회 시설별로 카테고리별 출입구역을 조정하여 원활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입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로 안전한 대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시설별·그룹별 진입구역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대회 관계자들의 안정적 동선을 확보했다.

⑩ 수송 운영

쾌적하고 안락한 이동권을 보장했다. 경기장, 선수촌, 본부호텔, 대구공항의 유기적 연결로 대회시설 간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관람객을 위한 수송차량을 확보하여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동시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다.

⑪ 숙박 운영

대회에 참가하는 IAAF 패밀리, 선수·임원, 후원사, 미디어, 심판 및 개인코치 등 대회 관계자들에게 편안한 최상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선수·미디어촌을 건립·운영하고 일부 미디어는 경주지역 숙박시설을 활용토록 했으며, 숙박대행사를 선정하여 모든 대회 관계자들에게 숙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숙박시설 이용률을 제고했다.

⑫ 급식 운영

식음료는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임원, 미디어관계자, VIP, 심판 및 운영요원, 관중 등에게 양질의 식사와 효율적이고 안전한 최상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급식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가 대륙별 취향에 맞는 안전한 식단을 편성하고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급식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식음료를 제공했다. 라마단 기간 내 이슬람권의 선수·임원, IAAF 패밀리들의 식사를 위해 식당 운영시간을 조정했으며 라마단 기간 중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코치들에게 석식 도시락을 경기장 준비구역(Warm-Up Zone)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⑬ 선수촌 운영

선수촌은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선수 및 임원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친목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완벽한 안전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했다.

입촌 선수·임원들에게 국가와 언어권, 종교, 친소관계 등을 고려하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의견을 수렴해 숙소를 배정하고 양질의 식·음료를 제공했으며, 모든 참가 선수단에게는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국가, 언어권 및 친소관계 등을 감안하여 선수촌을 운영했다. 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만족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선수촌과 인접한 체육공원에 선수촌 연습장을 설치하고 선수들이 편리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직위원회의 조기입촌계획에 따라 2011년 8월 10일부터 9월 7일(29일간)까지 208개국 3,351명의 선수·임원과 650여 명의 국내외 미디어들이 입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⑭ 마케팅

마케팅은 후원사를 모집하여 대회 운영비를 확보하고, 대회 운영과 관련된 물자를 현물 후원(VIK)으로 제공받아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 있다. 공식후원사는 후원사 모집 대행사를 선정하고 조직위원회와 공동 노력을 전개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파트너, 국내 파트너(18개사) 등을 모집했다. 조직위원회는 후원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후원사 권리보장, 후원사 접대구역 제공, 후원사 제품 전시 홍보 등을 위한 마켓스트리트 운영 지원, 후원사 브랜드 노출을 위한 환경장식(Signage)의 설치를 지원했다.

⑮ 물자 운영

대회 운영물자는 정확한 수요 판단과 효율적인 수급체계를 확보하고, 기존 대회시설별 보유물자를 우선 활용하는 한편 후원(VIK), 무료·유료임차, 구매의 순으로 확보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경제대회를 구현했다. 물자의 운영은 소요물자의 최적 규모를 파악하여 필요시기에 맞춘 적적적소의 수급, 관리운용 및 처분과정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물자 확보 시에는 대회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후원사를 통한 현물 후원(VIK), 기증, 임차(무료, 유료), 구매의 순으로 추진했다. 대회 종료 후 처분대상 물자는 물자처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별, 단체별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품을 구분하여 소모성 생활용품(바구니, 빨래건조대 등)은 지역 취약계층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경기용기구 등은 2012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잔여 유니폼은 교육청에 기증했다.

⑯ 자원봉사자 운영

대회 성공의 중요한 원동력 가운데 하나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선발, 교육, 배치, 후생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지원, 안내, 사무지원, 의무, 도핑, 안전, 운전 등 11개 분야에서 4,629명이 IAAF 패밀리, 선수·임원, 미디어, 관람객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⑰ 입장 관리

입장 관리는 좌석등급의 배분과 가격결정으로 만족관중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입장 관리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다. 입장권 디자인과 제조, 입장권 검

표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IT 강국 한국과 개최도시 대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입장권 구매자들이 경기관람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서비스와 관람석 모니터,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람서비스를 제공,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했다.

⑱ 관람서비스

경기관람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멋진 스타들의 경기를 통한 볼거리와 먹거리, 쇼핑 거리를 제공해 고객감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켓스트리트, 매점과 관중식당, 그리고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사상 처음으로 대구스타디움 내 관중용 식당을 운영하고 매점, 편의시설, 의료시설, 유실물·미아보호센터 운영 등으로 경기장을 찾은 고객들이 만족하는 대회를 구현했다.

⑲ 개·폐회식 등 문화행사

대회 공식행사는 문화와 환경, IT 기술이 융합된 스포츠 문화축제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승화시키고 짧지만 간결하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문화행사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문화행사기획단을 운영했으며 문화행사기획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개·폐회식 및 전야제, Loop Festival 등의 문화행사 대행사는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⑳ 대회 홍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월드컵 축구대회, 올림픽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임에도 국내의 인지도가 낮고, 특히 육상 약체국인 우리나라에서 육상경기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육상경기의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해 육상의 역사, 체험과 관전 요령을 알리고 육상 홍보시설물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보급했으며, 기획보도와 특별 프로그램 제작·방영, 영화 보급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단계별로 추진했다.

㉑ 대회 환경장식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환경장식사업(Signage)을 위해 역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차별화된 독특한 장면과 느낌(Look & Feel)을 연출하여, 개최도시 대구의 품격과 생활편의시설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적으로 대회 환경장식의 GSM(Graphic Standard Manual)은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 관련 시설의 특징과 대회 콘셉트의 일관된 환경장식으로 시각적인 안내효과를 높이고 각종 장식물의 표준·규격화를 통해 대회 이미지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GSM은 학계·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회마크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육상의 역동적 이미지와 개최도시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고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승인을 받아 제정했다.

㉒ 건강한 지구 가꾸기 ‘Green Project’ 운영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인간 본연의 활동이자 모든 스포츠의 기본인 걷고, 뛰고, 넘는 육상경기를 인류가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건강한 지구 가꾸기(Green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개최도시 대구가 지난 2000년 재활용에너지자원 활용노력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로부터 ‘솔라시티-대구(Solar City-Daegu)’로 지정된데다,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돼 세계적인 녹색성장 환경도시임을 감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그린대회로 대회 콘셉트를 설정하고 운영했다. 잘 갖추어진 환경 인프라를 토대로 쾌적한 대회 환경을 조성, 건강한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영향감소운동, 재생에너지시설의 확충과 그린수송시스템, 기념식수, 환경보전 전시회 등을 추진했다.

㉓ 대회 안전

완벽한 안전활동으로 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안전관련 기관(14개)들이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를 구성했으며, VVIP, 선수, 임원, IAAF 패밀리, 미디어 등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안전활동은 경기장, 선수촌, 본부호텔, 대구공항 등 장소별 및 대테러, 소방, 전기 등 분야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완벽한 대회 안전을 이뤄냈다.

㉔ 기관·단체 간 협력 사업

조직위원회는 2010년 7월 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와 참여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항공 및 열차수송 확대, 비행소음 감소 등 경기 운영에 필수적 협조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기 소음 저감과 프로스포츠경기의 대구일정 조정 등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등 대회 홍보, 관람객 확보를 위한 5개 분야 10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했다.

3. 대회의 성과와 과제

(1) 대회 성과와 평가

세계 200여 개국에서 대회의 개막식을 비롯한 경기장면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연인원 80억 명 이상이 대구와 대회를 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구라는 이미지와 도시이름이 1,000번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50억 달러의 광고효과를 보게 되며 도시브랜드는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를 계기로 방문한 국제스포츠계의 주요 인사 및 선수단은 대회 운영 외에도 문화축제를 통해서 대구와 한국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또한 대구시민들의 모습은 비인기 종목인 육상종목이지만 자원봉사자와 시민서포터즈로서 기여한 점이 지역 발전에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 외에도 대회 유치 시 선수촌·미디어촌 건립, 시민서포터즈 운영,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학교육상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육상진흥센터 설립을 통한 세계 육상 발전에 기여, 만석관중 실현 등 국제육상경기연맹과 회원연맹에 약속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일부 문제가 노정되었다. 프리미어 접대구역과 미디어 급식과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미디어들을 위한 급식메뉴의 부족은 해소노력(해피타임 동안 다양한 간식 제공)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대회기간 동안 지적을 받았다. 또한 국제방송센터(IBC)의 출입구를 미리 닫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외에 미디어들을 위한 프레스킷(Press Kit) 제공 등 세밀한 미디어 대응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2) POST 2011 대책과 활동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아시아 개최는 한국 육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육상낙후 지역인 아시아의 육상대중화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 육상의 균형발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크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이후 대회를 통해서 알려진 국제적 인지도나 시민들의 일체감을 대회 이후 지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면서 ‘POST 2011’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POST 2011 대책’은 국제도시로서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지역 및 지역기업의 대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POST 2011은 ‘마라톤 중심 육상 활성화’와 동시에 ‘육상 인프라 활용 지역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 이전에 개최해왔던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국제육상대회는 통합 운영하되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증하는 경기로 승격될 수 있도록 관리해가려는 목표와 내국인이 참가자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회의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해갈 것이 제안되었다.

제3절 F1 코리아 그랑프리

1. 대회 개요 및 개최 의의

(1) 대회 개요

① 대회명칭

한국 F1 대회의 공식 명칭은 FIA 포뮬러원(Formula 1) 코리아그랑프리(FIA(국제자동차연맹)가 주최하고 FOM(Formula One Management)과 F1 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② 개최기간

2006년 유치 확정된 한국 F1 대회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개최기로 계약 체결하였으며(이후년도는 FIA와 협의해 연장 개최 가능), 1차대회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차대회는 2011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었다. 대회 개최시기는 매년 전년도 12월 FIA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MSC, World Motor Sport Council)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③ 개최장소

한국 F1 대회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소재한 F1 경주장에서 개최된다. F1 경주장은 1,853천㎡(56만 평)의 부지에 트랙(Track), 그랜드스탠드(Grand stand), 피트(Pit)·패독(Paddock),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팀 빌딩(Team Building),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서킷(Circuit) 길이는 5.6km이고 관람석은 11만 9,000석이다.

④ 참가규모 및 경기일정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페라리, 벤츠, 르노 등 12개 팀 24명의 드라이버와 팀 관계자, FIA·FOM 관계자, 해외 방송 등 미디어 관계자 등 총 3,000여 명이 참가하고, 관람객 수는 2010년의 경우 16만 236명, 2011년은 16만 5,000명이다. 경기일정은 금요일(1일차)에는 연습주행, 토요일(2일차)에는 예선전, 일요일(3일차)에는 결승전이 치러진다.

표 4-16 코리아 그랑프리 주요 기관 단체

- FIA(International Automobile Federation) 국제자동차연맹: 세계모터스포츠 총괄
- FOA(Formula One Administration): FIA로부터 F1 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부여받은 기관
- FOWC(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 FOA에서 명칭 변경(2011.1.1.)
- FOM(Formula One Management): F1 대회 주관(FOA로부터 권한위임)
- WMSC(World Motor Sport Council): FIA 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
- KARA(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국내모터스포츠 총괄

출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 대회 유치 경과 및 개최 의의

전라남도가 F1 대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젊음과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레저도시를 육성하여, 자동차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낙후된 전남의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F1 사업을 구상하였다. 2006년도 한국 F1 대회 유치를 결정한 이후 경주장 건설, 주변 진입도로 정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 등 4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도 국내 첫 F1 대회를 개최하였다.

F1 대회는 첨단기술과 거대자본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대회로 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와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세계의 일류 자동차회사들이 12개 팀을 구성, 매년 20여 개국을 2~3주 간격으로 순회하며 경기를 개최한다. 전 세계 188여 개국 6억 명의 TV 시청자에게 개최국가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연관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회 준비 운영

(1) 대회 준비 운영 및 지원체계

① 조직위원회 운영

2009년 12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의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박준영 전라남도지사)과 부위원장(4명), 집행위원(11명), 감사(2명) 등 총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 F1 대회는 대회운영기업(KAVO) 주도로 개최하였으나 마케팅 부진과 기관 간 역할분담체계 미흡 등 민간 주도방식의 한계점이 드러남에 따라, 2011 F1 대회는 F1 대회조직위원회 주도로 대회운영시스템을 변경해 업무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2010년 2월 출범한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1사무총장 1본부 2부 6팀 29명에서 2011년 1사무총장 3본부 7부 16팀 60명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2012년 1월에는 F1 대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축소개편(1사무총장 2본부 4부 9팀 37명)하였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관계자 숙박·수송을 지원하고 문화행사 등 이벤트 개최 및 지원, 관람객 숙박·교통대책 마련,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관광상품 개발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대회 운영, 수익 사업, 마케팅, 국제협상 등 대회개최 준비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전라남도 지원체계

대회운영기업(KAVO)과 조직위원회 간 업무협약에 따라 대회 운영 전반을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 3급 국장체제의 F1 대회지원본부부를 폐지하여 조직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기업도시과에 F1 지원담당과 개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F1 대회 국비 확보 및 정부협약, KAVO 및 F1 대회조직위원회 행·재정적 지원, 경주장 및 SOC 건설, F1 경주장 사후활용 및 모터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삼포지구 2단계개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었다.

(2) 대회재정수지

① 개요

2006년 한국 F1 대회가 확정된 이후 2011년까지 대회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약 6,747억 원이며, 이는 국비, 도비, 민자, 기금, 마케팅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출은 F1 경주장 건설 및 편의시설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대회운영비로 집행하였다.

표 4-17 총사업비 현황(2007~2011)

단위: 억 원

구 분	계	경주장 건 설	편의시설	대회 운영비		기반시설
				2010	2011	
계	6,747	4,457	80	919	925	648
국비(기금)	981	728	80	—	1	172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44	—	—	—	44	—
도 비	4,631	3,447	—	98	610	476
민 자	627	—	—	627	—	—
마케팅 수익금	437	—	—	194	243	—
기 타	27	—	—	—	27	—

출처: 포몰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2011)

② 재원 확보

● 국비(기금) 등 중앙지원

2011년도 정부예산안에는 F1 대회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었으나 2011년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F1 경주장 건설 사업비 200억 원을 2010년 528억 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하여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경주장 건설비 200억 원 지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경주장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로 80억 원과 경주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172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발행 수익금으로 2016년까지 192억 원 지원될 계획이며 2011년도에 44억 원을 확보하였다.

● 도비 출연금

F1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투입된 도비는 경주장 건설비 3,447억 원, 대회 운영비 708억 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476억 원 등 총 4,631억 원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마케팅 수익 확대 및 운영비 절감을 통해 도비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자체수입

F1 대회 관련 자체수입은 민자, 마케팅 수익금 등 1,091억 원으로 전부 대회 운영 관련 경비로 지출되었다. 마케팅 수익금은 입장권 판매수입, 스폰서십, 팀 빌딩 임대수입 등으로 2010년도는 대회운영기업인 KAVO 주관하에 194억 원의 수익을, 2011년은 대회운영체제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하여 243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3) 대회 인프라 준비

① 대회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 F1 경주장 건설

2007년 12월부터 (주)금광기업에서 F1 경주장 토목공사(연약지반개량)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6월 F1 대회운영법인 KAVO와 SK건설, 금광기업 간에 토목·건축공사 도급계약(2,438억 원)을 체결하고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다. 2010년 10월 F1 경주대회에 필요한 전체 시설을 완료하였고 2011년에는 야외화장실 및 관람객 편의 시설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1년 9월 30일 최종 준공하였다.

● F1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F1 코리아그랑프리 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주장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시급함에 따라 사업비 312억 원을 투자하여 2.8km인 지방도 810호선의 기존 2차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 10월 준공하였다. 또한 경주장 진입로를 추가 확보하여 경주장 진출입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비 238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에서 경주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교차로 2개소 변경공사(평면교차로 → 입체교차로)를 2008년도부터 추진하여 2011년 10월 준공하였다.

② F1 경주장 인수·운영

● 경주장 인수 필요성

당초 지금까지 F1 사업은 KAVO가 국·도비 지원과 PF(Project Financing) 자금으로 F1 대회 개최, 경주장 건설·운영, 삼포지구 토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왔다. 이렇게 민자유치구도로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였으나, 안타깝게도 KAVO의 대규모 운영적자와 경주장 추가공사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민자유치구도가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2011년 F1 대회의 차질 없는 개최와 정상적인 경주장 관리·운영 및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남도가 F1 경주장 인수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경주장 운영 추진방식 전환

당초에는 전남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F1 경주장 및 F1 사업 전반을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F1 경주장 인수재원은 공사채 발행보다는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으로서, F1 대회 지원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초과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1,9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F1 경주장을 전라남도가 직접 인수하고 전남개발공사가 F1 경주장을 위탁운영함과 동시에 기업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KAVO의 기업도시 토지개발권을 인수·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였다.

● F1 경주장 인수에 따른 기대효과

전라남도가 F1 경주장을 인수·운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F1 경주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체육시설을 지역민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년 200일 이상 F1 경주장이 활용됨으로써 국내 이벤트 개최에 따른 관람객 직접 지출액(134억 원)이 숙박·요식업 등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문기관 연구(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하면 F1 경주장 운영으로 인해 연간 384억 원 20년간 1조 74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F1 경주장을 인수 후 개발공사가 F1 경주장(56만 평) 위탁운영과 연계하여 인근 기업도시 삼포지구(74만 평) 주변 토지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업도시 삼포지구(74만 평)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약 1,388억 원의 개발이익 발생이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전라남도가 F1과 모터스포츠 연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부상함으로써 낙후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이미지 쇄신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 육성,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무형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4) 대회 운영(2011년)

① 대회 홍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F1이지만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 유발과 더불어 저변 확대를 위해 획기

적인 홍보 아이템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국내 첫 F1 대회 개최결과 인지효과가 가장 큰 TV 매체(51%) 등을 활용한 광고에 홍보사업을 집중하였으며 우호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PR 행사를 운영하였다.

대회 주관방송사로 MBC가 참여하여 해외 F1 대회 중계방송, 한국 F1 대회 예고방송, CF광고, 예능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F1 대회의 저변 확대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더불어 온라인 홍보, 계기별 홍보 이벤트 개최, 홍보관 및 이동전시관 운영,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② 마케팅

F1 대회 관람객 저변 확대를 위해 입장권 가격을 2010년 대비 30% 할인하고 일일권 비중을 상향(10% → 70%) 조정하였으며, 티켓 등급을 5등급으로 단순화하는 등 가격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조기 구매자 1만 명에게 50% 할인과 단체구매 할인 등 할인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인터파크를 온라인 티켓판매 대행사로 선정하고 농협과 광주은행을 오프라인 판매창구로 활용하는 등 티켓판매경로를 다양화하였다.

티켓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접촉기업, 지역연고기업, 1,000대 기업, 전국 모터스 포츠 동호회 및 유관기업 등 방문활동을 전개했으며 기업 폐쇄물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KTX 연계 국내 여행상품 출시, 전세기 임차비 지원, 중간딜러망 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티켓판매를 활성화하였다.

③ 경기 진행

F1 대회 진행과 장비·물자 및 인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오피셜(경기진행요원)은 경기 진행의 가장 핵심으로서 단계별 교육을 이수하고 트랙사이드, 피트, 구난, 소방, 의료 등 분야에 771명이 투입되었다. 경기진행 및 구난을 위한 차량은 80여 대로 이중 51대를 자동차 회사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인력과 각종 차량을 배치하였고 경기 중 만약의 사고 및 사태에 대비하여 각종 구난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

F1 경기의 결승은 예선경기의 성적에 따른 1위부터 24위까지의 성적으로 그리드를 배정하여 일요일 15시에 출발하였다. 경주차들의 예열과 트랙 최종점검을 위한 포메이션랩

(Formation Lap)을 한바퀴 주행하고 다시 그리드에 정렬한 후 신호등에 의해 모든 차량이 동시에 출발하여 길이 5.615km를 55바퀴를 가장 먼저 주파한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

경기 중 3번 코너에서 7번 마이클 슈마허를 10번 비탈리 페트로프가 뒤에서 추돌하여 슈마허가 기권한 사고가 있었고, 총 24대의 차량 중 12대의 차량이 55바퀴를 완주하였고 나머지 9대는 55바퀴를 채우지 못하고 체커를 받아 경기종료가 되었다. 경기결과 레드불 레이싱팀의 독일 베텔이 1:38:01.994로 1위를, 2위는 1:38:14.03의 기록으로 영국 맥라렌 소속의 해밀턴이 3위는 1:38:14.471의 기록으로 레드불 레이싱팀의 호주 웨버가 차지했다.

④ 대회장 운영

대회기간별 출입 예상인원을 산출하여 관람객, 대회관계자, VIP를 위한 입·퇴장 관리 및 서비스 계획을 마련하여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관람객의 안전과 원활한 대회장 운영을 위한 경호·경비, 안전요원, 감독요원, 청소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4,000여 명의 인력을 권역별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규모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권역별 매표소와 안내소를 설치·운영하고 안내 사인물 설치 및 인력 배치를 통해 경기장 내 관람객 편의시설, 각종 관람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관람객들이 경주장면 및 홍보동영상을 시청하도록 관람석 앞쪽에 슈퍼비전 13대를 설치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장 운영을 추진하였다.

⑤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는 입·퇴장 관리, 관람석 안내, 안내·편의시설, 사무지원, 물자관리, 공공부스, 주차안내, 통역 등 8개 분야에 780명을 모집하여 서류심사 및 통역요원 언어능력시험, 교육훈련 등을 거쳐 대회기간 중에는 300명이 배치되어 경주장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⑥ 미디어센터 운영

F1 코리아 그랑프리 미디어센터는 세계 각국의 외신들에게 전라남도만의 정적이면서도 국제수준에 걸맞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책임기관인 FIA, 방송부문 운영담당기관인 FOM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해외 미디어에게 비자발급을 지원하였

고, 수송 및 숙박지원, 음식, 경호, 보도자료 제공 등 국내외 미디어들의 취재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⑦ 교통·숙박 대책

F1 대회 특성상 3일간의 짧은 시간에 대규모 관람객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최대교통 혼잡시간 교통량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경주장 진입도로 2개 노선을 확충하였고, 임시항공노선 및 KTX 1편 증편, 고속버스 증회운행으로 수도권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환승주차장 조성 및 버스 전용차로, 셔틀버스 운행 등 전남경찰청과 인접시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언론으로부터 교통정체 없는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되었다.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부족한 고급호텔 9개소, 626실을 확충하였고 F1 호텔 등 F1 지정업소 285개소를 선정·정비하였으며, 캠핑촌, 템플스테이, 한옥민박 등 다양한 체형 대체숙박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전라남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숙박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교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다.

⑧ 문화행사 개최

F1 경주장 내 국내외 관람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결승전 개막 그리드이벤트 및 K-POP 한류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경주장 인근에서는 락 페스티벌과 F1 성공기원 축하 페스티벌, 영암 삼호 무화과 축제 등을 개최하여 대회관계자 및 관람객, 일반시민들에게 F1 대회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다.

⑨ 안전대책

F1 대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 군부대, 소방본부 등 14개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5개 실무부서장으로 안전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안전대책을 기획·조정하였다. 대회 개최기간에는 현장안전지원실을 운영하여 테러 및 소방, 의료전기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2년 연속 무사고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다.

종합콜센터는 F1 대회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로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F1 대회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전년도 통화량과 필요인력 등을

감안하여 1단계는 대회 1주일 전까지 교통·숙박, 티켓 등을 자체 운영하고, 2단계는 인력을 추가하여 경주장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한국관광공사 콜센터(1330)로 연결하여 24시간 안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대회의 성과와 과제

(1) 대회의 성과와 평가

① 대회의 성과

● 2년 연속 16만 명의 관람객 유치로 F1과 모터스포츠의 국내 정착 가능성 확인

2011 F1 대회는 10월 16일(결승) 8만 4,174명, 10월 15일(예선) 6만 4,828명, 10월 14일(연습주행) 1만 1,234명 등 총 16만 236명이 관람하여 2년 연속 16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으며, 해외관광객 9천명과 F1 대회 관계자, 팀 스태프 등 총 1만 1천 명의 외국 방문객이 방문함에 따라 지역이미지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람객은 전년도(16만 5천 명)와 비슷한 수준이나, 유료 관람객은 오히려 20~30% 증가해 전년도 대비 티켓수입이 36% 증가하는 등 내실이 훨씬 강화되었다.

● ‘가볼만한 대회’에서 ‘가보고 싶은 대회’로 브랜드 가치 상승

공중과 홍보 프로그램과 국내외 언론보도 확대에 따른 대회 붐 조성,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로 국민적 관심 증대와 기업의 참여 증가, 한류열풍을 활용한 K-POP 콘서트 등 문화콘텐츠 보강, 교통정체와 숙박난 해소,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등으로 F1 대회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기업 비즈니스 장으로 본격 활용

2011 F1 대회는 포스코와 SK루브리컨츠에서 대회 공식 후원(트랙사이드 광고), 농협·GS칼텍스·부영·삼성 등에서 티켓프로모션을 통한 후원, 기업부스(17실)를 활용한 VVIP 고객 프로모션 전개 등 기업들의 비즈니스 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 전 세계 188개국에 중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011 F1 대회는 전 세계 188개국에 중계되었으며 주요국가 시청률은 영국 43.8%, 독일 42.0%, 스페인 39.9%, 이태리 39.3%이고 국내 시청률도 6.1%로 분석되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② 대회의 평가

2010년도에 비해 홍보, 마케팅, 대회 운영 등이 대폭 개선되어 국내에서 생소한 F1 대회와 모터스포츠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공중과 홍보 프로그램과 국내외 언론보도 확대에 따른 대회 붐 조성으로 국민적 관심과 기업의 참여 등이 관람객 확보로 연결되어 F1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하였다.

④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제적 파급효과(2010~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함으로써 관람객과 레이싱 팀 등 해외 관계자 소비지출과 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지출 등 총 6,236억 8천만 원의 직접적인 지출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2,449억 4천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접지출 대비 2.0배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317억 9천만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2,260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홍보효과 및 기업이미지 제고효과 등 간접경제효과가 총 8조 5,081억 원(2011년 2조 6,713억 원, 2010년 5조 8,368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4-18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제효과(2010~2011)

구 분		합계(백만 원)	2011	2010
직접지출 효과	관람객 소비지출	54,605	28,649	25,956
	참전 팀 지출	17,898	9,921	7,977
	대회 준비/운영 지출	551,181	75,257	475,924
	소 계	623,684	113,827	509,857
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1,244,944	224,953	1,019,991
	부가가치유발효과	531,792	94,473	437,319
	고용유발효과(명)	12,260	2,845	9,41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향후 과제

F1 대회 지속적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 수지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회 개최비용의 70%에 육박하는 개최비용·중계권료가 관건이었다. 대회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인 전라남도는 개최비용·중계권료의 인하를 위해서 FOM과 2011년 11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협상을 벌인 결과 TV중계권료를 면제하고 개최비용을 2012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의 비용인하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F1 대회 고비용 구조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수지개선을 위한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 참여를 확대시켜나갈 것과 티켓시장 개척 등 마케팅적인 노력이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 세계 20개 서킷(경주장)에서 대회가 열리고, 개별 경주장에서 단 3일간 대회가 열리는 F1 대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벤트 개최관련 자체 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만으로 경주장 조성 및 대회 개최에 들어간 투자를 보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위해 국제수준의 경주장(Grade1) 특성을 살리면서 이 시설물을 상시 활용할 방안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활용방향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경주대회의 장으로서 활용도를 올리는 것이다. AFOS, CJ 슈퍼레이스, 현대 K·S·F(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 등 국내의 레이스대회 유치 및 관련 이벤트 지속 개최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드라이빙 스쿨, 트랙데이, 택시타임 등 운영하거나 자동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타이어 실험 등), 신차 발표회, 자동차 시승회, 자동차 기업의 CF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장시설의 상시 활용은 일회성 이벤트 유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경주장 인프라를 활용한 모터스포츠 레저공간이 집적되는 것이나 경주장 주변에 모터스포츠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기업이나 모터스포츠용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모여들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F1 서킷을 국내 자동차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여 모터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모터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한국인 국적을 갖는 F1팀·드라이버 육성은 기업의 몫이지만 초기 싹을 키우는 일은 정책적인 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는 TV & Internet 홍보를 확대해나가고 이벤트 기간 동안 F1 대회 경기장을 찾는 자가용 관람객들에게 추가적인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과, 다양한 대중교통 노선 및 연계 교통수단 확충을 과제로 갖고 있다.

또한 경주장 주변 환경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안내서비스 강화 등은 향후 F1 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제4절 국제스포츠교류 노력과 성과

1.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사업과 성과

(1) 국제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및 파견 사업

① 국제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국제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서 입안되어 추진되었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공무원, 경기단체 및 KOC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등을 대상으로 KOC가 주관하여 근무시간 후 6개월 또는 어학연수 기관의 교육이수를 통해 매년 10~100명씩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무시간 후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의 부족, 집중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외국어 연수교육의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단기 어학교육과 소양교육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외교실무, 정치외교관계론, 체육학 관련 분야(스포츠외교론, 스포츠마케팅, 체육행정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참여정부 5개년 계획에서 국제스포츠에 관한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권위 있고 교육·양성 분야에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1~5년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제스포츠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스포츠외교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스포츠 인력의 전문성과 활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단기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9 국제스포츠인력 강화방안

구 분	사 업 명	대 상
단기정책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체육단체 임직원, 메달리스트, 국제심판 등
중장기 대책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 지원	메달리스트 및 국가대표 선수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체육단체 임직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	심판, 코치, 국가대표급 선수
	인력 풀 구성	국제체육기구 임원, 전·현직 외교관, 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3), <스포츠외교력 강화방안>

② 국제스포츠인력 강화방안

2007년에는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이 처음으로 경기대학교에 개설된 이후 2008년 제2기 경기대학교, 2009년 제3기는 경희대학교, 2010년 제4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차세대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규모가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어학연수와 학위과정 지원, 국제스포츠기구 파견 이외에 경기지도자 및 국제심판 등 국제자격 취득 지원,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스포츠 전문 인력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표 4-20 국제스포츠인력 양성 사업 운영실적(2011.12.)

단위: 명

사업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계
국내 어학과정	전화영어	46	38	—	84
	사설어학과정	—	59(59)	—	59(59)
	한국외대과정	3	—	65(65)	44(44)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17	21	23	폐지	61
국외어학연수	20(16)	13(9)	19(19)	16(16)	68(60)
해외 학위과정	16(15)	10(9)	2(2)	—	28(26)
국제자격 취득	—	46(46)	77(77)	53(53)	176(176)
국제기구 파견	4(2)	14(11)	14(14)	7(7)	39(34)
국제 전문 인력 지원	13(13)	35(35)	40(40)	32	120(88)
연도별 계	119	236	240	152	747(552)

※ 정책수혜자 수는 대한체육회 및 체육인재육성재단 사업 대상자 합계이며, 체육인재육성재단 사업 대상자는 괄호 속 인원으로 표시함

※ 다년간 수혜자의 경우 선정연도에만 인원을 표시하였음

출처: 대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

2011년 사업실적을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한 국내 어학연수과정에 44명,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실시된 국외 어학연수과정에 16명이 각각 참가하여 과정을 수료하였고 해외 학위과정과 국제기구 인턴사원 파견 사업으로 각각 18명과 14명이 사업에 참가하였다. 또한 국제자격 취득으로 국제경기단체지도자과정 53명, 국제심판과정 52명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체육단체에 40명의 인력 근무를 지원하였다.

(2)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국제체육기구의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국제스포츠에 있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국가경쟁력이기도 하다. 특히 IOC 위원 혹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IOC에서 한 국가의 스포츠 위상은 물론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반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과 집행위원 또는 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기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현재 110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중 2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럽이 26개국 46명, 미주가 14개국 20명, 그리고 오세아니아주가 3개국 5명, 아프리카가 13개국 15명 그리고 아시아가 21개국 24명으로 IOC 위원이 편성되어 있다. 3명 이상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는 7개국이며 최다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로 5명의 IOC 위원이 있다.

표 4-2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활동 현황(2011.12.)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 기	국내직위
위 원	이건희	1996.7.	-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위원	문대성	2008.8.21.	8년	대한체육회 이사

출처: 대한체육회

IOC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진출은 국제스포츠의 국가 간 관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현재 25여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4명의 위원이 3개 분과에 위원으로 진출하였다.

표 4-22 IOC 산하 분과위원회(Commissions) 위원 진출 현황(2011.12.)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 기	국내직위
국제관계분과위원	박용성	2010.3.31.	4년	대한체육회장
	최종준	2010.3.31.	4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생활체육분과위원	문대성	2009.6.19.	4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수분과위원	문대성	2008.8.21.	8년	

출처: 대한체육회

한편 올림픽경기대회 정식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진출한 회장단과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은 2011년 12월 현재 2개 종목의 회장, 7개 종목의 부회장, 2개 종목의 사무총장, 19개 종목의 집행위원, 그리고 46개 종목의 분과위원 등 총 30개 종목에 총 81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4-23 국제경기연맹 임원 진출 현황(2011.12.)

직 위	올림픽종목	인원	그외 종목	인원
회장	태권도, 배드민턴	2	-	
부회장	사이클, 바이애슬론, 태권도,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봅슬레이, 루지	7	정구, 검도, 세팍타크로	3
사무총장	복싱, 태권도	2	정구, 카바티	2
집행위원 (이사포함)	육상, 탁구, 배구, 레슬링(2), 스키, 사격, 펜싱, 태권도(8), 카누, 근대5종, 컬링	19	정구(4), 야구, 검도, 인라인롤러, 산악,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수중, 댄스스포츠, 오리엔티어링	13
분과위원	육상(6), 축구, 탁구(2), 핸드볼, 역도, 복싱(3), 빙상(2), 유도, 체조, 농구, 스키(6), 승마, 사격(3), 바이애슬론, 펜싱(2), 조정(3), 요트(4), 양궁(4),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2)	46	정구(3), 야구, 수상웨이크보드, 산악(2), 소프트볼	8
기타	축구, 탁구, 빙상, 배구, 양궁	5		-
소계		81		26
합계				107

※ 올림픽경기대회 정식종목에 한정, 축구는 2011년 6월 부회장 및 집행위원 임기만료
출처: 대한체육회

한편 우리나라의 IOC 이외의 국제종합체육기구 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24 국제 아시아경기연맹 회장단 진출 현황(2011.12.)

기구	직 위	성 명	피선년도	임기	국내직위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OCA)	OCA 부회장	박용성	2011. 7. 선임	4년	KOC 위원장
	스포츠위원	최종준	2011. 7. 선임	4년	KOC 사무총장
	스포츠와환경분과 위원장(집행위원)	유경선	2011. 7. 재선임	4년	KOC 문화환경교육위원장
	의무위원	박원하	2011. 7. 선임	4년	의무위원장
	교육위원	김동환	2011. 7. 선임	4년	문화환경교육위원
	국제관계분과위원	문희중	2011. 7. 선임	4년	국제위원, KOC 부속실장
	선수위원회	전이경	2011. 7. 선임	4년	선수위원
	여성과 스포츠 위원회	김소희	2011. 7. 선임	4년	국제위원
	고문위원	문대성	2011. 7. 선임	4년	IOC위원
동아시아대회 협의회 (EAGA)	협의회위원	최종준	2010. 9.	4년	KOC 사무총장
	협의회위원	김지영		4년	KOC 국제위원장
	규정기술분과위원	백성일	2009. 8.	4년	KOC 국제협력본부장
	의무분과위원	박원하	2010. 9.	4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FISU)	FISU 집행위원	김종량	2011. 8. 재선임	4년	前 KUSB 위원장 한양대학교총장
	FISU 명예위원	장철희	2011. 11. 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CT(기술위원회)	박남환	2011. 11. 선임	4년	대학방상경기연맹 부회장
	CIC(조정위원회)	유병진	2011. 11. 재선임	4년	KUSB 위원장
	CM(의무위원회)	윤택림	2011. 11. 선임	4년	전남대 의대 교수
	CESU (대학스포츠연구위원회)	홍양자	2011. 11. 재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CEC(성평등위원회)	원영신	2011. 11. 선임	4년	KUSB 상임위원
	SC(학생위원회)	추영	2011. 11. 선임	4년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아시아대학 스포츠연맹(AUSF)	상임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장호성	2010. 9.	4년	KUSB 부위원장
	감사	하웅용	2010. 9.	4년	KUSB 상임위원
세계체육기자연맹 (AIPS)	집행위원	박갑철	2010. 5.	4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아시아 체육기자연맹 (ASPU)	회장	박갑철	2006. 11. (선거연기 2012.9.~10.)	4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재무위원	방준식	2006. 11.(미정)	4년	

※ 아시아체육기자연맹 임원 임기는 2011년 선거 시까지

출처: 대한체육회

(3) 국가 간 체육교류 및 지원사업

2011년도의 국제체육교류 지원사업으로는 국제친선 및 교류 사업으로서 국가 간 친선경기대회 개최(33건), 개도국 활동 지원(17건), 체육교류 후속지원사업(9건), 태권도시범단 파견(14건) 등 69건이 추진되었고, 국제기구 및 연맹교류 사업으로서 대한체육회 국제회의 참가 지원(20건), 국제연맹총회 참가 지원사업(47건) 및 K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1건) 등으로 80건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① 국제친선 및 교류 사업

● 국가 간 친선경기대회 사업

2011년에 국가 간 친선경기대회 사업으로 추진된 대회는 총 33개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국가 간 친선경기사업에 편성된 1억 7천 만 원 중 1억 6,841만 8,900원이 집행되었다.

● 개도국 활동 지원사업

2011년에 수행된 국제체육교류 사업 중 개도국 활동 지원사업은 총 17건이 수행되었으며 1억 7,000여만 원이 투입되었다.

● 체육교류 협정 후속지원사업

한국은 1979년 KOC와 대만올림픽위원회(COC) 간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31개국과 정부 간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50개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간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에는 우루과이와 벨라루스 2개 국가와 체육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뉴질랜드와 NOC 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에 수행된 체육교류 협정 후속지원사업으로 총 9건이 수행되었다. 이들 사업은 1억 9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② 국제회의 참가 지원사업

2011년도에 국제체육교류지원사업으로 총 67건의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의 국제회의 참가가 지원되었는데 세부내용으로 대한체육회 국제회의 참가 지원은 20건, 국제연맹 총회 및 아시아연맹 총회 참가는 47건이다. 이와 함께 국제체육교류 사업 중 하나인 KOC 올림픽아카데미 정규과정 지원사업은 1건이 수행되었다.

2. 태권도 세계화

(1) 태권도공원(태권도원) 조성

① 태권도공원 조성 추진경과

정부는 태권도공원(태권도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5년 2월 14일 ‘태권도공원조성추진준비단’을 발족,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준비단은 단장 이외에 4급 1명, 5급 1명, 6~7급 2명, 업무보조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로드맵 수립, 태권도공원 해외 홍보, 태권도공원 명칭공모,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제안, 태권도공원 조성을 담당할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2009년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을, 같은 해 12월에는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득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 6월 22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되었다. 2008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구(舊)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의해 태권도공원 입찰방법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2008년 5월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태권도공원 감리 및 터키사업자 선정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였다. 2008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태권도 공원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청 설계경기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8년 9월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 12월 태권도공원 건설사업관리(CM, 감리) 사업자를 선정, 계약 체결하였으며,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공고하였다. 2009년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2009년 8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09년 9월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태권도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승인을 취득하였다.

② 태권도공원 향후 사업 추진일정

2010년 3월 미매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공사착공에 따라, 태권도공원은 2010년도에 문화재 시·발굴조사, 부지정리, 가설 및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건축물 골조공사와 내·외장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개장할 예정이다.

표 4-25 사업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추진기관
2010	문화재(시·발굴)조사 가설공사 및 토목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2011~2012	건축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2013	개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11년도 태권도공원 건립공사는 단지조성공사, 부대토목공사, 시설별 기초 및 골조공사, 수목 간벌·식재공사 등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공사 현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사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CM)를 운영하였고,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분기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사업장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친환경 우수사업장(수질, 자연생태, 경관 등)으로 지정되었다.

(2) 태권도브랜드 개발 및 태권도 세계화

① 태권도 상징브랜드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태권도의 통합적 이미지 활용을 통한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태권도이미지 표준화를 통하여 일관적이고 강력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체제 확립을 위해 ‘태권도브랜드’를 개발, 태권도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전 세계 태권도 관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앞으로 태권도단체 공동 프로모션, 브랜드 활용 문화상품 개발 등 태권도브랜드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② 국제행사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전 세계에 태권도의 가치 전파 및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를 통해 올림픽 정신 구현, OVEP(Olympic Values Education Program) 실천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태권도 위상 강화 및 2020년 이후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으로 지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7월 22일 미국의 권위 있는 UC Berkeley 대학과 공동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미래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도태권도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였다.

표 4-26 태권도 국제행사 연도별 사업 참가인원

사업명	2009	2010	2011	2012
계	4,865	5,120	5,220	4,333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274	270	254	210
국제심포지엄	120	150	150	200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1,471	1,500	1,116	919
세계태권도한마당	3,937	2,815	3,200	3,004

출처: 태권도진흥재단

③ 태권도 보급 및 세계화 사업 추진

2008년부터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 당시 발표한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태권도 세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기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은 각 단체별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기원은 태권도시범단과 사범 파견 사업을 진행하면서 태권도 종주국의 수준 높은 태권도기술을 각 국가에 전파했고,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나눔과 봉사의 실천을 목적으로 전 세계 개도국 대상으로 태권도평화봉사단을 파견, 태권도 보급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파와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2011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와 타악기, 비보잉이 혼재된 퓨전 태권도 공연 ‘탈’ 공연단을 9개국에 파견, 태권도에 대한 흥미 제고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연평균 약 25개국의 코치들과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 태권도 교육·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했고 전자호구, 도복 등 태권도용품 지원했다.

표 4-27 태권도 세계화 사업 현황

사업명	2008	2009	2010	2011	2012
태권도시범단 파견	6개국	5개국	5개국	14개국	18개국
태권도사범 파견	—	12개국 12명	12개국 12명	12개국 12명	12개국 12명
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	—	36개국 146명	44개국 309명	41개국 272명	38개국 215명
탈 월드투어	—	—	—	9개국	115개국
태권도선수 및 지도자 훈련	21개국 25명	23개국 29명	28개국 59명	31개국 64명	33개국 86명
태권도용품 지원	19개국	26개국	24개국	24개국	13개국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제5장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제1절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제2절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 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제4절 경기력 향상 지원성과

제5절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



● 제5장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 체육특기자제도, 병역특례제도, 국군체육부대, 태릉·진천·태백선수촌, 주말리그제, 학생선수 학업능력 향상 지원사업 등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지원 정책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 후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 육성은 스포츠경쟁력의 근간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제1절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체육특기자제도, 병역특례제도, 국군체육부대, 태릉·진천·태백선수촌, 주말리그제, 학생선수 학업능력 향상 지원사업 등 정부는 엘리트스포츠 지원 정책 중에서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 후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 육성은 스포츠경쟁력의 근간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체육영재 및 지역체육인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육영재는 스포츠과학을 도입하여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기초종목 분야의 선수 수급구조의 개선을 위해 육성하고 있다. 체육영재의 선발 및 육성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체육영재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11개소 530명, 2010년 13개소 608명, 2011년 16개소 710명, 2012년 17개소 751명 체육영재센터에서 초등학교 2~6학년을 대상으로 KOSTASS(체육영재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육상(384명), 수영(190명), 체조(177명) 등 3개 종목에서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다.

지역체육인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전략종목의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종목의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과학적·체계적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16개 광역시·도에서 지역별로 선정

된 주관사업자를 통해 배드민턴, 사격, 사이클, 조정,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복싱, 태권도, 테니스, 펜싱,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등 17개 종목 556명의 인재를 선발·육성하였다.

2011년에는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역별로 선정된 주관사업자 22곳을 통해 사격, 육상, 유도, 테니스, 탁구, 양궁, 태권도, 럭비, 배드민턴, 레슬링, 펜싱, 사이클, 수영, 하키, 배구, 인라인 등 16개 종목 550명의 인재를 선발·육성하였다.

아울러 2011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로, 학업 및 심리상담, 스포츠과학 및 기술훈련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표 5-1 연도별 체육영재

단위: 명

연 도	종 목			계
	육상	수영	체조	
2009	303	112	115	530
2010	330	138	140	608
2011	380	162	168	710
2012	384	190	177	751

출처: 체육인재육성재단

표 5-2 연도별 지역체육인재

연 도	지 역	주관사업자	종목	인원
2010	16개 광역시·도	16곳	17개 종목	556명
2011	14개 광역시·도	22곳	16개 종목	550명

출처: 체육인재육성재단

표 5-3 연도별 학생선수 통합지원센터 현황

연 도	지 역	주관사업자	종목	인원
2011	3개 시·도	3개 센터	26개 종목	900명
2012	5개 시·도	5개 센터	25개 종목	1,000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꿈나무선수

(1) 개요

꿈나무선수 사업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어린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과학적 훈련과 관리를 통해 차세대 국가대표선수로 육성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신인선수 선발·육성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부터 ‘꿈나무선수 제도’로 개편되었다. 꿈나무선수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 선수 저변 확대, 차세대 대표선수 충원 기반 확충,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관리 등을 통해 엘리트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고 여타 종목 선수 확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받는 육상, 수영, 체조 3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2003년부터 동계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빙상, 스키종목을 추가하였고, 2008년부터 핸드볼, 탁구, 유도도를 포함하여 총 8개 종목(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핸드볼, 탁구, 유도)으로 확대하였다. 연도별로 2008년 총 300명, 2009년 총 300명, 2010년 총 370명, 2011년 총 370명의 꿈나무선수들을 선발하여 육성하고 있다.

(2) 꿈나무선수 선발·훈련

● 선발과정

꿈나무선수 선발은 종목별로 시·도에서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체격(30~50%), 체력(30~40%), 경기력(20~30%) 3개 요인을 종합측정하고, 점수화한 평가 결과와 특성불안과 집중력 등 심리검사 결과를 합산하여 종목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선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상의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다.

꿈나무선수 선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1단계는 ‘꿈나무선수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서 일선학교 체육지도자·체육단체 코치, 스포츠클럽지도자 등이 꿈나무선수 후보자를 해당종목 시·도 협회에 추천하고, 시·도 협회의 자체평가를 거쳐 중앙경기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2단계는 각 종목별 중앙단체가 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자를 선정하고, 3단계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선발대상자의 측정·평가가 실시된다. 체육과학연구원은 기초검사, 정밀검사, 심리검사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 및 체형(체력)등을 측정하고 종목별·연령별·평가항목별 표준점수 및 가중점수 등을 계산,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이외 해당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전문가 등과 협의에 의해 단계들이 추진된다. 4단계는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가 해당종목의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측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각 종목별 꿈나무선수선발위원회에서 위원 협의를 거쳐 꿈나무선수를 최종 확정한다.

2008년도에는 기존 5개 종목에서 핸드볼, 탁구, 유도를 포함하여 총 8개 종목 673명, 2009년도에는 총 8개 종목 879명, 2010년도에는 총 8개 종목 650명, 2011년도에는 총 8개 종목 753명을 측정·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4와 같다.

그림 5-1 꿈나무선수 선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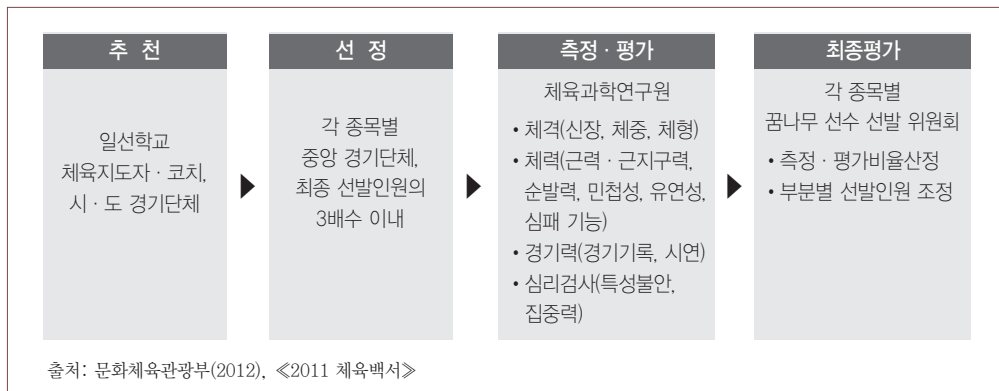


표 5-4 종목별 꿈나무선수 선발 현황

종목	구분	연 도			
	인원	2008	2009	2010	2011
육상	최종선발	80	80	120	120
	측정·평가 참가	152	264	210	326
수영	최종선발	40	40	40	40
	측정·평가 참가	72	57	41	45
체조	최종선발	40	40	40	40
	측정·평가 참가	85	112	80	42
빙상	최종선발	30	30	50	50
	측정·평가 참가	105	102	93	48
스키	최종선발	30	30	40	40
	측정·평가 참가	59	109	81	120
핸드볼	최종선발	30	30	30	30
	측정·평가 참가	63	71	90	65

구분		연 도			
종목	인원	2008	2009	2010	2011
탁구	최종선발	30	30	30	30
	측정·평가 참가	95	102	55	51
유도	최종선발	20	20	20	20
	측정·평가 참가	42	62	52	56
총계	최종선발	300	300	370	370
	측정·평가 참가	673	879	650	75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선발된 꿈나무선수의 훈련·관리 프로그램은 동·하계 합숙훈련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훈련 중 부상과 중도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충원은 재선발과정을 거치는데 측정·평가를 거쳐서 종목별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순위 선수가 선발된다.

선발된 꿈나무선수에 대한 연도별 지원 및 관리 운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09년부터 연간 24일 이내의 동·하계 합숙훈련을 지원하고, 둘째, 꿈나무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로 종목당 1명을 기준으로 2008년에는 분기별 20만 원씩 연 80만 원, 2009년에는 월 30만 원씩, 2010년과 2011년에는 9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여 선수지도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시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넷째, 꿈나무선수 지방순회지도제도로서 2008년에는 연중 2회, 2008년 이후부터 연중 3회에 걸쳐 종목별 꿈나무선수 육성 담당지도자가 전국(꿈나무선수 소재지)을 순회하며 선수 개인별 훈련 현황 파악 및 지도,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꿈나무선수의 경기력, 체형 등의 개인별 분석자료를 정리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매년 자료를 축적하여 꿈나무선수 훈련 자료의 지속적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3) 동·하계 훈련 현황

2008년 이후 동·하계 방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합숙훈련은 해당 종목별로 실시되며 해당 종목별 꿈나무선수 합숙훈련의 내용은 표 5-5와 같다.

표 5-5 연도별 세부종목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현황

단위: 명

종목	합숙훈련	일시	2008		2009		2010		2011		비고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육상	하계	1차	80	26	80	26	120	32	120	22	-
	동계	1차	80	26	80	26	120	32	120	22	-
수영	하계	1차	40	10	40	10	40	10	40	10	-
	동계	1차	40	10	40	10	40	10	40	10	-
체조	하계	1차	13	4	13	4	13	4			남
		2차	15	4	15	4	15	4	40	10	여
		3차	12	2	12	2	12	2			리듬
	동계	1차	13	4	13	4	13	4			남
		2차	15	4	15	4	15	4	40	10	여
		3차	12	2	12	2	12	2			리듬
빙상	하계	1차	12	3	12	3	18	4			스피드
		2차	12	3	12	3	18	4	50	10	쇼트트랙
		3차	6	2	6	2	14	2			피겨
	동계	1차	12	3	12	3	18	4			스피드
		2차	12	3	12	3	18	4	50	10	쇼트트랙
		3차	6	2	6	2	14	2			피겨
스키	하계	1차	10	2	12	2	12	2			알파인
		2차	10	2	11	2	6	2			크로스
		3차	5	2	1	2	12	2	40	10	스키점프
		4차	5	2	6	2	5	2			스노보드
		5차	-	-	-	-	5	2			프리스타일
	동계	1차	10	2	12	2	12	2			알파인
		2차	5	2	11	2	6	2			크로스
		3차	5	2	1	2	12	2	40	10	스키점프
		4차	10	2	6	2	5	2			스노보드
		5차	-	-	-	-	5	2			프리스타일
핸드볼	하계	1차	30	6	30	6	30	6	30	6	-
	동계	1차	30	6	30	6	30	6	30	6	-
탁구	하계	1차	30	6	30	6	30	6	30	6	-
	동계	1차	30	6	30	6	30	6	30	6	-
유도	하계	1차	20	6	20	6	20	6	20	6	-
	동계	1차	20	6	20	6	20	6	20	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청소년대표선수

(1) 개요

청소년대표선수는 기존 꿈나무선수-후보선수-국가대표 3단계로 있는 선수공급체계를 4단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초기만 해도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나 2010년부터 꿈나무선수와 후보선수 간 간극을 채우고 중간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이 시작되었다. 대상 종목은 우선 프로종목이 없고, 국내 훈련 및 경기 여건이 열악하며, 올림픽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거나 획득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올림픽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종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3개 종목(배드민턴, 복싱, 카누, 사이클, 펜싱,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테니스, 역도, 레슬링,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이 속한다.

(2) 청소년대표선수 선발·훈련

① 현황 및 선발기준

2010년 청소년대표 육성 사업을 살펴보면 동계종목(빙상, 스키)은 열악한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엔트리 수만큼 반영하였으며, 경기력 유망종목(유도, 역도, 레슬링, 체조) 등은 경기력 및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2~3배수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2011년에는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10개 세부종목으로 확대·조정하였다. 청소년대표선수 선발 육성과 선발기준은 표 5-6, 표 5-7과 같다.

청소년대표 선발기준은 각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령은 14세부터 19세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협회가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나 국제대회의 입상성적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의 입상성적과 기록 및 성장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선발하였다.

표 5-6 2010년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 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종목	종목			대상 연령	선수선발		훈련기간	물리 치료사
	선수	지도자	계		기준	기간		
유도	44	8	52	16~17	전국대회 입상성적	3~6월	12월 중(20일)	1
복싱	20	5	25	14~18	전국대회 입상성적	3월	7~8월 중(20일)	1
요트	27	5	32	14~18	2009, 2010년 전국대회 입상성적	6월	7~8월 중(20일)	1
하키	48	6	54	14~17	2009, 2010년 전국대회 입상성적	4월 중	12월 중(20일)	1
조정	32	6	38	14~18	2009, 2010년 전국대회 입상성적	9월 중	10월(20일)	1
레슬링	42	6	48	14~18	청소년올림픽대회 파견 선발대회 입상자	2월 중	7~8월 중(20일)	1
사이클	35	5	40	14~18	2010년 상반기대회성적	7월 중	8월 중(20일)	1
카누	31	7	38	13~18	상반기 선발전개최	4~6월	7~8월 중(20일)	1
사격	44	5	49	14~16	2010년 4개 공인대회 중 상기 3개 합산기록	7월	8월 중(16일)	0
역도	45	5	50	14~18	현재 경기기록 및 잠재력감안	3월	8월 중(20일)	1
체조	44	8	52	14~18 (여 11~16)	종별 전국대회성적	4월 중	8월 중(20일)	1
핸드볼	42	5	47	16~17	경기력기준	4~6월	7~8월 중(20일)	1
펜싱	36	7	43	16~19	국제·국내 대회성적	5~6월	7~8월 중(20일)	1
빙상	50	8	58	16~18	종목별 경기위원회	4~6월	7~8월 중(20일)	1
스키	42	8	50	14~18	전국대회 및 선발전성적	4월 중	9~10월 중(20일)	1
계	582	94	676					1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5-7 2011년도 청소년대표선수 선발 육성 및 선발기준 현황

종목	종목			대상 연령	선수선발		훈련 기관	물리 치료사
	선수	지도자	계		기준	기간		
배드민턴	40	6	0	14~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내외 대회 성적, 신체조건 및 경기력이 우수한 자 중 주니어대표 감독이 추천 • 잠재력, 경기력 등을 통합분석하여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선발 ※ 후보선수 차순위 선발 		8.13.~9.1.	
복싱	22	3	0	15~16세 (유소년) 17~18세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성적 • 경기기록, 잠재력 분석 및 시·도 추천 		8.1.~20.	
카누	26	4	0	14~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전 기록순위 또는 소년체전 상위 입상자 선발 		8.7.~26.	1
사이클	35	5	0	15~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사이클연맹선발규정에 따름 • 최근 3개 대회 성적순 선발 • 선수선발위원회회의 반영 	종	7.28.~8.16.	
펜싱	44	6	0	14~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국제대회 입상성적 • 신체조건 및 자질 등 성장가능성 • 경기기록 및 잠재력 분석기록 	목	12.10.~29.	1
체조	44	8	0	14~1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 입상성적 	별	12.8.~27.	1
핸드볼	42	5	0	1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가능성이 있는 선수, 포지션 및 신체조건이 우수한 선수 	1월	7.29.~8.17.	
하키	48	6	0	14~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회성적, 잠재력 및 장래성이 있는 우수 선수 	~	10.23.~11.11.	
유도	32	4	0	16~17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경기성적 및 전임지도자 점수 합산,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3월	7.4.~23.	
근대5종	15	2	0	14~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회(회장배, 문화부, 선수권, 체전)성적 - 4개 공인대회 평균기록: 국내 대회 성적 		7.18.~8.6.	1
조정	30	5	0	13~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체전 성적기준 우선 선발 • 일반대회 성적 감안 고등학생 위주 선발 		8.2.~17.	
요트	29	5	0	12~18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회 랭킹순 선발 		7.23.~8.11.	1
사격	44	5	0	14~1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공인대회 중 상위 2개 본선 합산기록순(문화부장관기, 중고연맹회장기, 봉황기, 경찰청장기) 		8.7.~25.	1
수영	경영 수구	50	8	0	14~18세		7.17.~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목기록을 기준으로 선발(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 포지션별 평가를 기준으로 선발(수구) 		8.12.~29.	

종목	종목			대상 연령	선수선발		훈련 기관	물리 치료사	
	선수	지도자	계		기준	기간			
탁구	30	4	0	만 15세 이하	• 주니어상비군 선발 성적순		6.28.~ 7.17.		
테니스	12	4	0	14~16세	• 국내랭킹+국제랭킹 순으로 선발 • 가능성 고려 주니어위원회 추천		6.26.~ 7.15.	1	
역도	30	4	0	14~18세	• 전국대회기록 및 잠재력이 있는 선수 선발 ※ 후보선수 차순위 선발		8.5.~24.	1	
레슬링	42	6	0	15~16세	• 2011회장기대회 및 2010경기실적을 평가하여 선발		10.16.~ 11.4.		
빙상	스피드						7.18.~ 8.6.		
	쇼트 트랙	40	7	40	14~18세	• 전국대회성적 및 해당대회 랭킹순 (후보선수와 중복되지 않는 선수)	중 목	7.17.~ 8.5.	
	피겨						별	8.1.~20.	
스키	알파인						1 월	7.9.~28.	
	크로스						~	7.29.~ 8.17.	
	스키 점프	43	8	0	14~17세	• 선수강화위원회 회의	3 월	7.9.~28.	1
	스노 보드							7.9.~28.	
	프리 스타일							7.9.~28.	
아이스하키	23	3	0	14~16세	• 경기력(게임운영능력, 각포지션별 대처능력, 스피드 및 파워) 우수 선수		7.8.~8.9.	1	
바이애슬론	18	3	0	14~18세	• 국제 및 국내 대회 성적 합산(해당년도시즌) • 현재 경기기록 및 잠재력 분석기록 등 ※ 후보선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령예정		7.21.~ 8.9.	1	
컬링	10	2	0	만 21세 이하	• 한국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선발전		9.1.~ 10.8.		
계	749	113	40					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2011 체육백서》

② 청소년대표선수 훈련

청소년대표선수를 위한 훈련은 동·하계 합숙훈련으로 구분된다. 동·하계 합숙훈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 선수층의 저변 확대 및 엘리트체육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대표선수 결원 시 충원이 가능한 경기력을 상시 보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0년에는 15개 종목이 약 20일간 훈련을 하였고, 2011년에는 아이스하키와 컬링(약 한 달 정도)을 제외한 28개 세부종목은 방학을 이용하여 약 20일간 실시하고 경기단체에 따라 동계 또는 하계로 정하여 한 번 실시하고 있어 일회성 단기 훈련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합숙훈련기간 동안 지원되는 훈련비는 표 5-8과 같다.

표 5-8 연도별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내용

구분	항목	연도별 내용	
		2010	2011
훈련비	숙박비	1인 1박 22,000원	1인 1박 22,000원
	식비, 간식비	1인 1일 23,000원	1인 1일 23,000원
	지도자수당	1인 1일 100,000원 (세부종목별 2명/종목별 8명 이내)	1인 1일 100,000원
	훈련복 구입	1인당 250,000원 내외	1인당 250,000원 내외
	훈련용구비	종목당 5,000,000원 내외	1인당 100,000원
	시설사용료	1인 1일 5,000원 내외	1인당 100,000원
	약품 구입비	1인당 5,000원	1인당 5,000원
	지도자활동비	1인당 30,000원	1인당 50,000원
	전문 지도자수당	1인 1일 35,000원	-
	목욕비	1인당 5,000원×4회	1인당 20,000원
	현수막	세부종목당 200,000원	1세부종목당 200,000원
	스포츠상해보험	1인당 20,000원	1인당 20,000원
	교통비	1인 40,000원(도지역 실비)	1인당 40,000원
	강습비	세부종목당 200,000원	1세부종목당 200,000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한편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에서는 스포츠 선진국 선수들과의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자신감 배양, 국제대회 참가와 합동훈련, 기술개발 및 정보수집을 통한 국제경력과 각국의 전력탐색 등 외국의 스포츠동향 파악을 위해 국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15개 경기단체에서 각 종목별로 20명 내외로 국외전지훈련 선수를 배정하도록 하여 10~15일 이내로 국제경쟁력이 입증된 메달 획득 가능종목에 우선 지원(유도, 역도, 레슬링 등)하였다. 소수정예 유망주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특성화 훈련 지원(사이클), 단체종목은 선수단 규모를 감안하여 순환배정(2010년 하키, 2011년 핸드볼)을 하였다. 또한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우선배정(스키, 빙상 미 신청)을 하고, 올림픽대회 다메달종목으로 향후 장기전략 육성종목의 경우 우선 지원(조정, 카누, 요트)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이후 정부에서는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전년보다 많은 동계종목(바이애슬론, 빙상(스피드), 컬링, 아이스하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수정예 유망주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특성화 훈련 지원(사이클), 단체종목은 전년(순환배정)과 달리 하키, 핸드볼 등을 지원하고 있고, 올림픽대회 다메달종목으로 향후 장기전략 육성종목의 경우 우선지원(조정, 카누, 요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9와 같다.

표 5-9 연도별 청소년대표선수 국외전지훈련 현황

종목	2010		2011	
	인원	금액(원)	인원(임원, 선수)	금액(원)
사이클	3	48,870,000	4(0, 4)	47,960,000
핸드볼	—	—	15(3, 12)	49,940,000
요트	8	17,760,000	10(3, 7)	33,111,000
아이스하키	—	—	26(3, 23)	54,355,600
유도	18	30,240,000	12(2, 10)	46,320,000
스키	알파인	—	5(1, 4)	54,815,900
	스노보드		3(1, 2)	
	프리스타일		3(1, 2)	
	크로스컨트리		4(1, 3)	
근대5종	—	—	12(2, 10)	44,005,200
역도	14	37,441,000	16(4, 12)	42,848,000
빙상(스피드)	—	—	16(2, 14)	38,739,000
배드민턴	—	—	15(2, 13)	38,046,000
탁구	—	—	15(3, 12)	46,028,550

종목	2010		2011	
	인원	금액(원)	인원(임원, 선수)	금액(원)
수영	-	-	15(2, 13)	41,505,000
카누	12	38,880,000	13(2, 11)	47,200,900
펜싱	-	-	22(4, 18)	45,452,000
레슬링	15	53,100,000	15(3, 12)	61,328,000
복싱	-	-	16(3, 13)	43,075,200
바이애슬론	-	-	13(2, 11)	71,476,000
컬링	-	-	12(2, 10)	48,612,000
하키	18	57,312,111	22(4, 18)	49,351,200
총계	8종목(100명)		19종목(284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후보선수

(1) 후보선수 관리 운영 개요

후보선수 육성 사업의 목적은 첫째, 잠재력 있는 우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 선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둘째, 국가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국가대표선수 결원 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후보선수를 즉시 대표선수로 충원하는 등 국가대표선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보선수 육성 사업은 1982년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선수 4,359명을 선발하는 것이 시초가 되었고, 1983년부터 각 경기단체가 매년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8종목에서 1,300명의 후보선수를 육성하였다.

표 5-10 후보선수 발굴 및 최종선발 인원수

연 도	발굴	탈락	(육성인원)최종선발	대표선수 배출	비율(%)
2008	1,300	-	1,300	115	8.8
2009	1,300	-	1,300	64	4.9
2010	1,300	-	1,300	82	6.3
2011	1,300	-	1,300	67	5.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5-10의 대표선수 배출비율은 당해 연도에 대표선수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정요건을 충족한 후보선수가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아래 표 5-11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11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중 후보선수 출신 비율

단위: 명

종 목	연도별 후보선수 출신 대표			
	2008	2009	2010	2011
육 상	48(86%)	68(81%)	54(90%)	46(77.97%)
수 영	53(100%)	53(100%)	49(100%)	59(100%)
체 조	26(92%)	27(96%)	25(89%)	24(92.31%)
복 싱	19(95%)	22(100%)	20(100%)	20(100%)
레 슬 링	33(91%)	41(93%)	44(100%)	34(100%)
역 도	11(84%)	23(77%)	22(78%)	23(79.31%)
유 도	30(93%)	36(82%)	36(90%)	34(85%)
태 권 도	17(47%)	6(38%)	11(39%)	25(96.15%)
양 궁	12(75%)	11(69%)	12(75%)	12(75%)
사 격	29(72%)	46(70%)	38(74%)	54(84.38%)
배 구	12(50%)	13(54%)	20(83%)	19(79.17%)
핸 드 볼	38(92%)	30(88%)	31(91%)	34(86%)
하 키	15(93%)	3(18%)	30(94%)	40(90.91%)
탁 구	14(60%)	18(90%)	13(81%)	30(88.24%)
근 대 5 종	14(70%)	10(71%)	5(50%)	10(71.43%)
펜 싱	32(91%)	29(66%)	38(86%)	39(88.64%)
테 니 스	8(100%)	8(100%)	8(100%)	11(91.67%)
사 이 클	15(83%)	15(94%)	24(92%)	22(100%)
조 정	8(100%)	9(90%)	14(88%)	19(95%)
요 트	14(77%)	19(86%)	21(75%)	15(83.33%)
카 누	9(69%)	13(87%)	11(73%)	13(86.67%)
배 드 민 턴	39(97%)	47(98%)	43(90%)	43(89.58%)
축 구	24(96%)	19(95%)	22(96%)	19(90.48%)
소 프 트 볼	—	11(69%)	16(100%)	15(88.24%)
아이스하키	23(100%)	22(100%)	20(91%)	20(90.91%)
바이애슬론	9(75%)	10(83%)	10(91%)	12(100%)
빙 상	30(38%)	24(63%)	22(70%)	33(97.06%)
스 키	30(61%)	29(97%)	30(100%)	30(100%)
합 계	611(85%)	662(82%)	689(86.34%)	755(89.4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후보선수 육성

후보선수를 육성하는 종목은 하계 24종목, 동계 4종목으로 총 28종목이다. 후보선수의 훈련 육성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첫째, 후보선수가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에 훈련용품 구입비·대회 참가비 등 지원, 둘째, 동·하계 합숙훈련 지원사업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평시훈련 및 경기력 향상정도 등 평가를 한다. 셋째, 국외전지훈련 지원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및 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후보선수 중 우수 선수를 경기단체별로 선발하여 전임 및 전문 지도자에 의한 기술훈련과 해외훈련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표 5-12 연도별 후보선수의 훈련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지원내역

단위: 천 원

구분	연 도	사업명			계
		동·하계 합숙훈련	국외전지훈련	전임지도자 운영	
기금보조사업	2008	3,970,259	296,297	1,195,536	5,462,092
	2009	3,915,887	262,144	1,234,730	5,412,761
	2010	3,541,699	283,971	1,565,330	5,391,000
	2011	3,431,594	295,370	1,587,805	5,314,76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5-13 연도별 후보선수 훈련종목과 정원

단위: 명

종 목		2008		2009		2010		2011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육 상	단·허들	33	5	33	5	33	5	33	5
	중·장거리	32	4	32	4	32	4	38	5
	도약·혼성	35	5	35	5	35	5	35	5
	투 척	29	4	29	4	29	4	29	4
수 영	경 영	66	6	66	6	66	6	66	6
	다이빙	27	3	27	3	27	3	27	3
	수 구	15	2	15	2	15	2	15	2
	싱크로	10	2	10	2	10	2	10	2
체 조	기 계	48	6	48	6	48	6	48	6
	리듬	12	2	12	2	12	2	12	2

종 목		2008		2009		2010		2011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선수	지도자
레슬링	자유형	29	3	29	3	29	3	30	3
	그레코로만형	21	2	21	2	21	2	20	2
	복 싱	30	4	30	4	30	4	30	4
	역 도	30	4	30	4	30	4	30	4
	유 도	48	4	48	4	48	4	48	4
	양 궁	40	4	40	4	40	4	40	4
	사 격	84	10	84	10	84	10	84	10
	배 구	36	4	36	4	36	4	36	4
	핸 드 볼	48	4	48	4	48	4	48	4
	하 키	48	4	48	4	48	4	48	4
	탁 구	30	4	30	4	30	4	30	4
	펜 싱	48	5	48	5	48	5	48	5
	테 니 스	24	4	24	4	24	4	24	4
	사 이 클	40	6	40	6	40	6	40	6
	조 정	30	5	30	5	30	5	30	5
	요 트	29	4	29	4	29	4	29	4
	카 누	26	4	26	4	26	4	26	4
	소프트볼	17	2	17	2	17	2	17	2
	배드민턴	60	6	60	6	60	6	60	6
	태 권 도	48	4	48	4	48	4	48	4
	근 대 5 종	15	2	15	2	15	2	15	2
	축 구	36	3	36	3	36	3	36	3
	아이스하키	25	2	25	2	25	2	25	3
빙 상	스피드	30	4	30	4	30	4	30	4
	피겨	12	2	12	2	12	2	12	2
	쇼트트랙	36	4	36	4	36	4	36	4
	바이애슬론	18	2	18	2	18	2	18	2
스 키	알파인	20	2	20	2	18	2	18	2
	크로스	21	2	21	2	19	2	19	2
	스키점프	4	1	4	1	4	1	4	1
	스노보드	4	1	4	1	4	1	4	1
	프리스타일	—	—	—	—	4	—	4	—
총 계		1,300	152	1,300	152	1,300	152	1,300	15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전임지도자제도 운영

1983년부터 시작된 전임지도자제도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13종목 20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로 월 20일 이상 전국단위 순회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제도는 1985년 대한체육회 회장이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임기 1년인 전임지도자를 임명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2005년부터 이들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처우를 보장해주는 각종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였고 임금도 대폭 인상되었다.

전임지도자의 주요 업무는 첫째, 후보선수의 발굴·추천 및 선발관리. 둘째, 후보선수 동·하계 합숙훈련과 국외훈련계획 수립 및 추진·평가 관리. 셋째, 후보선수 소재 지방순회지도. 넷째, 후보선수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경기력 향상도 평가 및 자료관리. 다섯째, 대표선수 훈련 지원. 여섯째, 연간·월별 업무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일곱째,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 참석. 여덟째, 기타 우수 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2008년과 2009년은 22종목에 29명의 전임지도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미임용 종목은 수영(경영), 사이클, 근대5종, 테니스, 빙상 등 5종목이고, 2010년은 22종목에 29명의 전임지도자가 임명되었으며 미임용 종목은 수영(경영), 조정, 테니스, 근대5종, 빙상 등 5종목이고, 2011년은 22종목에서 30명의 전임지도자가 임명되었으며 미임용 종목은 테니스, 탁구, 배구, 빙상 등 4종목이다.

이들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들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망 엘리트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대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서 공금유용 등 회계문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고, 전임지도자의 지도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전임지도자의 지도 및 관리업적 등을 연 1회, 4등급(A등급: 10%, B등급: 40%, C등급: 40%, D등급: 10%)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의 지도 및 관리업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시 평가결과를 반영(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4년 임기 중 3회 이상 기록했을 시 재임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임지도자의 자기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전임지도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표 5-14 연도별 전임지도자 종목과 정원

종 목	정 원	현 원				종 목	정 원	현 원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육상	단거리	1	1	1	1	핸드볼	1	1	1	1	1
	중·장거리	1	1	1	1	하키	1	1	1	1	1
	도약	1	1	1	1	조정	1	1	1	—	1
	투척	1	1	1	1	사이클	1	—	—	1	1
수영	경영	1	—	—	—	테니스	1	—	—	—	—
	다이빙	1	1	1	1	탁구	1	1	1	1	—
	싱크로	1	1	1	1	배구	1	1	1	1	—
체조	남자(기계)	1	1	1	1	배드민턴	1	1	1	1	1
	여자(기계)	1	1	1	1	펜싱	1	1	1	1	1
레슬링	자유형	1	1	1	1	요트	1	1	1	1	1
	그레코	1	1	1	1	카누	1	1	1	1	1
	복싱	1	1	1	1	근대5종	1	—	—	—	1
	유도	1	1	1	1	축구(여)	1	1	1	1	1
	역도	1	1	1	1	빙상	1	—	—	—	—
	양궁	1	1	1	1	스키	1	1	1	1	1
사격	공기총	1	1	1	1	아이스하키	1	1	1	1	1
	화약총	1	1	1	1	바이애슬론	1	1	1	1	1
		계						34	29	29	3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2절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1. 국가대표선수 훈련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사업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는 중점 지원종목의 경우 엔트리의 1.5~2배수로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아시아경기대회종목의 경우에는 엔트리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책정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대표코치는 훈련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하며 세부종목수 및 종목 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는 다음의 표 5-15와 같다.

표 5-15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훈련규모							단위: 명
연 도	종목 수		인원			계	총계
			코치	남자선수	여자선수		
2008	하계	39	157	542	327	1,026	1,187
	동계	6	23	77	61	161	
2009	하계	39	173	611	410	1,194	1,365
	동계	7	27	85	59	171	
2010	하계	39	152	463	354	969	1,137
	동계	7	25	85	58	168	
2011	하계	35	171	565	431	1,167	1,338
	동계	7	24	86	61	17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은 연간 200일 이내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전문체력 육성 및 기술연마를 하며, 7월에서 12월까지의 개인 및 단체 특기 개발 훈련을 실시한다. 대표선수 훈련은 태릉선수촌 및 태백선수촌에서 실시되는 촌내훈련과 종목별 전용훈련장에서 행해지는 촌외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촌내훈련은 촌내 및 인근지역 훈련시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촌외훈련은 훈련 여건상 불가피한 종목이나 자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내전지훈련은 태백선수촌에서 하며 특별훈련으로 파트너 훈련, 크로스컨트리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 등이 수행된다. 파트너 훈련은 메달유망종목 및 상대성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크로스컨트리훈련은 선수촌 입촌종목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하며,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은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 위주이다. 세부 훈련종목은 표 5-16과 같다.

표 5-16 연도별 국가대표선수 세부 훈련종목

구 분		종목 수	종 목
하 계 종 목	올림픽 및 아시아종목	2008	28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5종,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3종, 배구, 역도, 레슬링
		2009	26 2008년 종목에서 야구, 소프트볼 제외
		2010	26 2008년 종목에서 야구, 소프트볼 제외
		2011	26 2008년 종목에서 야구, 소프트볼 제외
	아시아종목	2008	11 당구, 볼링, 골프, 공수도, 럭비, 세팍타크로, 정구, 스쿼시, 우슈,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2009	13 2008년 종목에서 야구, 소프트볼 추가
		2010	13 2008년 종목에서 야구, 소프트볼 추가
		2011	9 2008년 종목에서 당구, 인라인, 댄스스포츠 제외, 카바디 추가
	동계종목	2008	7
		2009	7
		2010	7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봅슬레이 · 스켈레톤
		2011	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은 훈련을 통한 실전경험 축적, 외국인 코치 초청을 통한 선진 경기기술 습득, 스포츠 선진국에 지도자 파견을 통한 국외정보수집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1) 국외전지훈련

국외전지훈련은 실전경험을 통한 선진 기술의 습득과 상대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훈련 참가종목의 임원 및 선수의 엔트리 범위 내에서 참가하게 된다. 국외전지훈련 기간은 메달획득 유망종목의 경우 연중 2~3회, 1회당 30일 이내이며 기타 종목은 1회 20일 이내이다. 2008년에는 33종목 94건 1,344명(임원 260명, 선수 1,084명), 2009년에는 29종목 73건 1,063명(임원 212명, 선수 851명), 2010년에는 34종목 1,052명(임원 207명, 선수 845명), 2011년에는 31종목 1,216명(임원 263명, 선수 953명)이 참가하였다.

표 5-17 연도별 국가대표 국외전지훈련 및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종목 수 (세부종목)	인원			지원금액		
		계	임원	선수	계	국고	기금
2008	33(94)	1,344	260	1,084	4,321,300	2,016,084	2,305,246
2009	29(74)	1,063	212	851	3,212,547	359,136	2,853,411
2010	34(55)	1,052	207	845	2,905,821	456,263	2,449,558
2011	31(91)	1,216	263	953	3,856,329	624,026	3,232,30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외국인 코치 초청 사업

외국인 코치 초청 사업은 스포츠 선진국의 경기기술 습득 및 취약한 전술전략 습득을 목적으로 1982년부터 도입되었다. 대상종목은 메달 획득 유망종목 및 경기력 취약종목, 경기력 향상과 지도자 자질 향상에 효과가 큰 종목,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다. 초청

대상 외국인 코치는 세계 정상급 선수경력 보유자, 세계 정상급 선수지도 유경험자 및 지도자인데 2008년에는 4종목 9명, 2009년에는 4종목 5명, 2010년에는 4종목 4명, 2011년도에는 5종목에서 9명이 초청되었다.

표 5-18 외국인 코치 초청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종목 수 (세부종목)	인원 수	국가 수	지원금액		
				계	국고	기금
2008	4(6)	9	4	192,370	60,786	131,584
2009	4(4)	5	4	203,445	66,007	137,438
2010	4(4)	4	4	237,051	61,522	175,529
2011	5(9)	9	6	212,285	84,877	127,40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은 각종 세미나 및 강습회 참가를 통해 지도자 자질 향상, 주요 국제대회 파견 상대국 전력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종목은 메달 획득 유망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대상자는 종목별 국가대표코치와 훈련 필수지원요원(행정, 지도위원 등)이다. 정보수집 대상은 세계 정상급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 각종 국제스포츠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지, 체육 선진국의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체계, 훈련시설 등이며 기간은 종목별 10일 이내이다. 2008년에는 18종목 33명, 2009년에는 17종목 42명, 2010년에는 17종목 44명, 2011년에는 23종목 60명이 파견되었다.

표 5-19 지도자 해외연수(국외정보수집)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종목 수 (회)	인원 수	국가 수	지원금액		
				계	국고	기금
2008	18(24)	33	17	87,065	87,065	-
2009	17(23)	42	15	131,948	63,768	68,180
2010	17(24)	44	16	163,340	38,211	125,129
2011	23(51)	60	25	191,177	61,187	129,99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과학적 지원

국가대표선수에 대한 과학적 훈련 지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육과학연구원은 국가대표선수 지원을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구축(체력단련실 과학적 시스템 도입 등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종목별 훈련장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의무실 강화(선수 개인별 의무·체력측정카드제 도입, 운동처방실 강화를 통한 운동능력 평가, 재활훈련 기능 강화 등), 체육과학연구원과의 연계훈련 강화(훈련과학협의회·스포츠과학세미나, 스포츠과학교실 등), 국가대표 선발 시 의·과학화 기초자료 작성(연 2회 국가대표선수 ‘체력측정의 날’ 운영, 종목별 담당연구원과 체력측정 주기적 실시, 건강검진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 런던하계올림픽대회에서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 18개를 중점·전략 종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훈련, 체력훈련, 심리훈련을 지원하였다. 기술지원 훈련은 실시간 기술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동작의 즉각적 분석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선수 및 팀의 기술 향상을 도모했으며, 종목별 체력측정 및 훈련처방 제공, 주기별 체력 평가에 의한 향상도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체력훈련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장에서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적 요인 진단 연구, 심리기술훈련을 실시하였다.

둘째,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스포츠과학세미나 개최, 연구발표회 등 훈련 과학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도자와 연구원 간 공동으로 경기력을 분석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선진화된 종목별 특성화 훈련방법을 개발하여 적용시켰다. 종목별 체력진단평가 설명회, 대표팀 전체 스포츠과학교실 운영을 통해 대표팀 코치 및 선수 개인의 스포츠과학에 대한 인식 제고, 자율훈련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지도자 선수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셋째, 정보분석·제공을 위해 선수의 실전적응력을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 기술분석을 통해 선수 및 코치의 기술, 전략 이해도를 증대하였으며 정보분석·관리시스템 강화, 대표팀 동행 현지조사활동 실시, 연구원 해외 파견 정보수집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대표선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선수촌 내 의무실 및 물리치료실의 적극적 활용과 강화훈련 참가 전 건강진단과 영양관리(교육, 상담, 지도)를 지원하였다. 또한 약물복용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종목별 팀 닥터(Team Doctor)와 물리치료를 두어 부상방지와 재활을 돕고 있으며, 종목별 체력강화훈련과 체력측정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훈련을 도모하였다.

4. 국가대표선수 복지 개선

(1) 쾌적한 촌내 생활 환경 조성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입촌선수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수촌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선수들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챔피언 하우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저명인사 및 체육계 인사 또는 오리엔테이션 강사 및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월 1회 교양강좌를 실시하여 국가관, 사명감, 자신감을 고취하고 기본교양을 함양하며 정서순화 및 긴장감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종교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2) 학생선수 학업 증대

학생선수들의 학업손실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거주 학생의 오전수업 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결손의 가능성이 높은 지방 중·고교 소속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하여 훈련장 인근 학교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3) 국가대표선수를 위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대표선수와 코치에 대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선수수당은 1인 1월 3만 원, 코치수당은 월 330만 원이고, 2009년부터 직장이 있는 지도자와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대표팀만 전담하는 지도자(무직장)에 대한 수당 차이가 있는데 겸임(유직장) 코치수당은 1인 1월 330만 원, 전임(무직장) 코치수당은 380만 원이다. 2012년에는 선수수당 1인 1월 4만 원, 전임(무직장) 코치수당 1인 1월 430만 원, 급식비 1인 1월 3만 5천 원으로 국가대표선수단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였다.

표 5-20 국가대표선수·코치 훈련 여건 개선 현황

단위: 원

구분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급식(1일)	26,000	26,000	26,000	26,000	35,000
숙박(1일)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선수수당(1일)	30,000	30,000	30,000	30,000	40,000
코치수당(1월)	3,300천 원	3,300천 원(유직장) 3,800천 원(무직장)	3,300천 원(유직장) 3,800천 원(무직장)	3,300천 원(유직장) 3,800천 원(무직장)	3,300천 원(유직장) 4,300천 원(무직장)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3절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 대회 운영 및 훈련시설 확충

1. 전국체육대회

국내 체육대회 개최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일반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동·하계 전국체육대회가 192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최되어 우수 선수 선발과 지방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이외에도 국내 대회로는 종목별 전국대회, 종목별 시·도 대회, 시·도별 종합대회, 협회장기, 시·도지사기대회 등이 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오랜 시간동안 성장·발전하면서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주축인 꿈나무들을 선발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왔다. 무엇보다도 전국체전은 시·군·구 팀이 존속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아마추어스포츠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순위경쟁에 따른 지방 도시들의 위화감 조성, 종목 간 불균형 육성, 철새운동선수 증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심판판정시비, 국민의 무관심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2008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굳센 체력, 알찬단결, 빛나는 전진’이라는

구호 아래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및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총 42종목으로 그 중 정식종목은 41개로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에서 선수 1만 8,530명, 임원 6,424명이 참가하였다. 시상은 종합시상, 부별 종합시상, 종목별 종합시상 등으로 수여하였으며 종합시상의 경우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로 나뉘었으며 또한 대한체육회우수기를 수여했다. 부별종합시상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부와 일반부에 해당하며 1, 2, 3위에 대한체육회장배를 수여했다. 종목별종합시상은 1, 2, 3위를 대한체육회장배를 제공하며 개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1위 금메달과 상장, 2위 은메달과 상장, 3위 동메달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해외동포 종합시상, 성취상(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시·도에게 수여), 최우수 선수상(대회 참가선수 중 가장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선수에게 수여), 모범선수단상(국회의장배), 경기단체질서상, 모범심판상, 특별표창 등이 수여되었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에 이은 대회로서 어느 대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회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친환경체전을 위한 녹색체전의 일환으로 부별 종합시상에 도자기 상패를 제작 수여하였으며, 개회식행사에 축하불꽃놀이를 대체하는 물대포를 사용하였다. 또한 ‘보는 체전에서 참여하는 체전’이라는 가치 아래 일반동호인도 참여할 수 있는 동호인 참가종목으로 체조(에어로빅)등 17개 종목 채택으로 약 4,490여 명 참가하였으며, 특히 MBC의 무한도전프로그램의 팀이 에어로빅종목에 참가함으로써 전국체육대회의 홍보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 동호인 참여는 일반국민들에게 전국체육대회가 더 이상 체육인만을 위한 행사가 아님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고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막을 내렸다.

제90회 전국체육대회는 다음 해인 2009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마음을 하나로, 대전을 세계로’이라는 구호 아래 대전광역시에서 1994년 제75회 대회 이후 15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경기장의 신설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지방의 체육 기반시설 및 경기용구의 확충으로 지방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41개의 정식종목과 3개의 시범종목에 선수 1만 8,264명, 임원 6,277명이 참가하였고 해외동포선수단은 16개국에서 988명이 참가하였다. 동호인종목은 총 16개 종목에 3,023명이 참가하였다. 시상방식은 전년도 대회와 같이 시상하였으며 종합시상과 개인시상 역시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종합 1위는 경기도선수단, 종합 2위는 서울특별시선수단, 종합 3위는 대전광역시선수단이 수상하였다. 아울러 대전광역시는 대회에 앞서 우주·과학·문화가 함께하는 문화체전을 추진하며 개·폐회식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에 접목하여 창조체전을 추구하였다. 다

만 전국체육대회에 앞서 대전광역시는 우주과학도시축전을 개최하였으나 본 대회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대회개최에 앞서 숙박업소의 담합으로 평소가격보다 2배 정도 상승하여 시·도의 숙박비 부담과 함께 숙박업소의 비협조로 시설물이용비의 추가 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타 지역에서 온 많은 참가자 및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대회 개최지인 경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2010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하나 되어 다시 뛰자 경남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1982년과 1997년에 이어 13년 만에 경남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정식종목 41개와 시범종목 3개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2만 3,876명(선수 1만 7,773명, 임원 6,103명)이 참가하였다. 해외동포선수단은 17개국 999명(선수 513명, 임원 486명)이 참가하였고, 동호인은 총 15종목에 2,710명이 참가하였다. 종합 1위는 경기도(6만 9,440점), 2위는 경상남도(6만 4,595점), 3위는 서울특별시(5만 3,064점)가 차지하였다. 전국체전기간 동안 진주시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지역축제를 통한 국민들의 참가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를 냈지만, 경남 20개 시·군, 62개 경기장에서 경기들이 넓은 범위로 분산되어 있어 선수 가족이나 응원단들의 이동이 쉽지 않아 흥행이 잘 이뤄지지 않은 대회로 기록되어 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2011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꿈을 안고 경기로! 손을 잡고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89년 개최 후 23년 만에 경기도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정식종목 42개와 시범종목 3개 그리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2만 3,871명(선수 1만 7,983명, 임원 5,888명)이 참가하였고 해외동포선수단은 16개국 1,073명(선수 524명, 임원 449명)이 참가하였다. 종합 1위는 경기도(8만 5,082점), 2위는 서울특별시(5만 2,944점), 3위는 경상남도(4만 4,182점)가 차지하였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이 아닌 야외에서 개·폐회식이 치러져 기존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폐회식에는 이색 카퍼레이드와 K-POP 콘서트 등이 펼쳐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 문화제전’으로 진화한 대회로 기록되었다. 다음 표 5-21은 전국체육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이다.

표 5-21 전국체육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회수	개최연도	개최지	참가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89회	2008.10.10.~16.	전남	42	24,954	경기	서울	전남
90회	2009.10.20.~26.	대전	44	24,541	경기	서울	대전
91회	2010.10. 6.~12.	경남	44	23,876	경기	경남	서울
92회	2011.10. 6.~12.	경기	45	23,871	경기	서울	경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3년 1월 대동강에서 개최된 빙상대회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2년 뒤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1회 전조선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밖에 조선학생 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하여 조선빙상경기연맹 등 여러 경기단체에 의해 크고 작은 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스키대회의 효시는 1930년 2월 원산시 신평리 스키장에서 원산체육협회가 주최하였고, 조선체육협회 등의 후원으로 제1회 조선스키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일본인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광복 이후 1946년 1월 한강특설링크의 빙상대회는 오늘날의 빙상경기대회로 이어졌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링크인 동대문 실내 링크가 개장되어 1967년 동계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스키를 제외한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3개 종목경기를 한자리에서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를 동계대회로 통합하고, 종합채점제를 실시하여 동계 종합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 동계올림픽대회에서 보여준 한국 성적은 하계올림픽대회보다도 그 발전 속도가 두드러진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10위권 진입은 1994 릴레함메르동계올림픽대회에서 6위, 1998 나가노동계올림픽대회에서 9위,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에서 7위 그리고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하계올림픽대회에 이어 동계올림픽대회에서의 한국의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동계스포츠의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 배출된 우수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한국식 쇼트트랙’을 전파하고 있다.

전국동계체육대회는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을 포함한 실내스케이트장 개장, 10여 개에 이르는 스키장 개장, 스키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 시설 확충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정부와 전 국민의 관심으로 2018 동계올림픽대회를 평창으로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08년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총 3,38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등 5종목이었으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펼쳐졌다.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시상방식은 종합시상, 종목별종합시상, 개인 및 단체시상 등이 있다. 종합시상의 경우에 1위는 대통령배, 2위는 국무총리배, 3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이며 대한체육회 우승기를 제공하며 종목별종합시상은 1, 2, 3위에 대한체육회 회장배를 제공한다. 개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1위 금메달과 상장, 2위 은메달과 상장, 3위 동메달과 상장을 수여하며 이외에도 최우수 선수상(대회 참가선수 중 가장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선수에게 수여), 특별표창(한국신기록 이상 수립선수와 비기록의 경우 특별한 경기실적을 발휘한 선수나 팀에게 수여) 등으로 하계기간동안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와 큰 차이가 없다.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순위는 경기도가 1위, 강원도가 2위, 서울특별시가 3위를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다음 대회인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09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총 3,43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등 5종목으로 전년도 대회와 같으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펼쳐졌다.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전국의 많은 선수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IBU 세계바이애슬론선수권대회(2009.2.14.~22.) 및 제24회 하얼빈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2009.2.18.~28.) 기간 중 중첩되는 일정을 제외하여 대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중앙경기단체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하였다.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종합시상은 1위는 경기도선수단, 2위는 강원도선수단, 3위는 서울특별시선수단이 수상하며 막을 내렸다.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10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울, 강원, 전북, 경남에서 총 3,572명(선수 2,344명, 임원 1,228명)이 참가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38명이 증가하였고, 재일본선수단도 스키종목에 4명이 참가하였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

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5종목이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피겨와 컬링종목에 현저하게 참가인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겨의 김연아 효과와 컬링의 활성화로 동계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파악되었다. 다만 스키와 바이애슬론종목은 전년도에 비해 참가신청 후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불참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참가선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계종목 선수 저변 확대와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우수 선수의 육성을 통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종목별 스타선수를 발굴하여 선수로 유입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요구되었다. 종합 1위는 경기도(1,253점), 2위는 서울특별시(870.5점), 3위는 강원도(836점)가 차지하였다.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11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강원 전북에서 총 3,563명(선수 2,366명, 임원 1,197명)이 참가하였는데 전년도보다 9명이 감소하였다. 경기종목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컬링 5종목이며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하였다.

종합 1위는 경기도(1,320점), 2위는 강원도(1,041.5점), 3위는 서울특별시(908.5점)가 차지하였다. 종목별 1위를 보면 빙상종목(서울, 경기), 설상종목(강원), 바이애슬론(전북)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별 특화종목으로 선수 육성이 잘 이루어졌지만, 수도권과 강원권에만 집중적으로 위치한 동계 인프라로 인해 동계종목선수 저변 확대 및 일반인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있는 개최국으로 선수 저변 확대 및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우수 선수의 육성 및 동계시설 인프라 확충 등 장기계획이 요구된다.

표 5-22 전국동계체육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회수	개최년월일	개최지	참가 종목	참가인원	순위		
					1위	2위	3위
89회	2008.2.19.~22.	서울, 경기, 강원	5	3,381	경기	강원	서울
90회	2009.2.10.~13.	서울, 경기, 강원	5	3,434	경기	강원	서울
91회	2010.2. 2.~ 5.	서울, 강원, 경남, 전북	5	3,572	경기	서울	강원
92회	2011.2.15.~18.	서울, 강원, 전북	5	3,563	경기	강원	서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개최된 전국 규모의 주니어종합 대회이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표어 아래 지·덕·체를 연마하는 전인교육의 무대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여 해마다 봄에 거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소년·소녀 체육대회이다. 성장기에 있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시켜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선수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08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1만 6,581명(임원 4,759명 선수 1만 1,80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30종목과 시범종목 2종목(소프트볼, 요트)이었으며, 초등학교부의 경우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유도, 양궁,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인라인롤러의 17종목이고 중학교부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인라인롤러, 근대3종, 카누, 소프트볼(시범), 요트(시범)의 32개 종목이다.

시상방식은 단체시상과 개인시상 등이 있다. 단체시상은 단체전 종목 및 개인경기 단체전에 한정되어 실시하는데 1위는 금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배, 2위는 은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배, 3위는 동메달, 상장 및 대한체육회장배를 제공한다. 개인시상의 경우 1위는 금메달, 상장, 2위는 은메달, 상장, 3위는 동메달, 상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종목별 최우수 선수상(대한체육회장상)이 있으며, 특전으로 개인경기종목의 1위 입상자와 개인경기 단체전종목 및 단체경기종목의 1위 입상자 중 1명에게 체육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신기록 이상 신기록 수립선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우수 지도자(교사포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장 등이 수여되었다.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대회를 활성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 경기장의 전산화로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경기결과를 입력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소나마 대국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대회였다. 또한 전국어린이스포츠백일장 및 사생대회와 같은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되어 개최되었으며 부별 신기록 6개 등을 포함하여 77개의 신기록이 수립되었다.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1만 6,98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소년, 소녀에게 기초적 스포츠를 보급하여 스포츠정신을 고취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여 우수 선수의 조기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양질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대회라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대회규모 및 참가인원을 분석하였을 때 전년도에 비해 종목이 1개가 증가된 33개 종목(정식 30, 시범 3)으로 대회가 운영되었으며, 경기장 운영은 전년도에는 총 44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운영하였으나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총 47개 경기장에서 전년 대비 171명의 참가선수가 증가된 가운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자라나는 소년, 소녀에게 삶의 기본적인 스포츠를 보급하여 스포츠정신을 고취하고,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여 우수 선수의 조기발굴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앞서 전라남도 여수시는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5.12.~15.)를 개최하여 대회 준비에 있어 여수시와의 사전협조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전국단위 행사의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대회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0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대전광역시 4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체육회의 주최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체육회의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대회 슬로건 아래 1만 7,000명(선수 1만 2,000명, 임원 5,000명)이 참가하였다. 종목 수는 33개 종목(정식 30, 시범 3), 전년도와 규모에서 차이점은 없으며 대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46개 경기장에서 대회를 운영하였다.

대회신기록은 총 197개로 사격(3), 수영(31), 양궁(21), 역도(43), 육상필드(3), 인라인롤러(96)에서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인라인롤러 여자중학부 3,000m에서는 경기와 충남 팀이 한국기록을 경신하며 기준기록(4:27.781)을 각각 0.53초, 0.395초를 줄였다. 아울러 남중 수영에서 김영남(서울), 여초 양궁에서 이보영(충남)이 각각 4관왕을 차지했다.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1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체육회의 주최와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관으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대회 구호 아래 1만 6,879명(선수 1만 2,004명, 임원 4,875명)이 참가하였다. 종목 수는 33개 종목으로 전년도와 규모에서 차이점은 없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기가 필요

한 5개 종목의 초등부 경기(배구,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를 전국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였고 역대 최초로 개최식과 폐회식을 생략하였다.

대회신기록은 총 67개로 롤러(4), 사격(1), 사이클(21), 수영(13), 양궁(3), 역도(24), 육상필드(1)에서 성과를 얻었다. 특히 여자 혼계영 200m에서는 1998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양궁에서 강채영(울산), 이승불(대구)이 각각 4관왕을 차지하였다.

표 5-23 전국소년체육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회수	대회기간	장소	참가인원	순위			종목 수 (정식·시범)	비고
				1위	2위	3위		
37	2008.5.31.~6.3.	광주	16,816	개인시상			30/2	시범종목(2): 소프트볼, 요트
38	2009.5.30.~6.2.	전남	16,988	개인시상			30/3	시범종목(3):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39	2010.8.11.~14.	대전	16,998	개인시상			33/3	시범종목(3): 소프트볼, 요트, 트라이애슬론
40	2011.5.28.~31.	경남	16,879	개인시상			3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국가대표 훈련시설

(1) 선수촌 현황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선수촌, 무주합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① 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은 총 31만 694㎡(9만 3,983평)의 부지 위에 연건평 총 9만 9,173㎡(3만여 평)의 각종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양궁, 역도, 탁구, 필드하키, 농구, 배고, 축구, 유도, 레슬링, 육상, 수영, 펜싱, 체조, 복싱, 배드민턴, 핸드볼, 태권도 등 하계올림픽대회종목을 비롯하여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 동계올림픽대회종목의 선수

를 수용하고 있다. 입촌 대상자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대회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예정선수이다.

● 숙소

남성전용 숙소동은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1996년에 건립하였으며, 여성전용 숙소동은 기존의 올림픽경기대회의 집과 외국인 숙소를 철거한 후 2003년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건립하여 210명을 수용하고 있다.

● 체육관

선수촌 내의 체육관은 모두 11개가 있다. 체력단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상 1층의 월계관은 1978년 건립, 2001년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개선관과 연수관은 철거 후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탁구, 역도, 체조, 펜싱, 태권도 등 5종목을 훈련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으로 2003년에 신축하였다. 배구, 유도 종목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승리관은 1973년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였으며, 농구 훈련장으로 이용되는 다목적체육관은 1983년에 건립,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다. 경영, 수구,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등의 훈련장인 실내수영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1985년에 건립하였다. 특히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의 훈련을 위해 2000년에 건립한 오륜관은 지상 1층으로 총 1만 102㎡(3,056평)의 규모이다.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훈련을 위해 2005년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실내빙상장을 신축하였다. 필승체육관 A는 우수 종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1978년에 건립되었다. 필승관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2005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이다.

스피드스케이팅의 훈련을 위해 2000년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이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는 세계 8번째 400m 실내링크이며 국내 유일한 국제규모의 시설로서 동·하계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과 전문 선수의 지속적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력 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며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 학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빙상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옥외시설

태릉선수촌의 옥외시설에는 양궁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인조잔디구장이 있다. 110×50m 규격의 양궁장은 2005년에 새로 단장되어 양궁국가대표선수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6년에 만들어진 크로스컨트리코스는 입촌선수의 기초체력훈련 용도로 사용되는데 1.6km×3m의 규격으로 부상방지를 위해 톱밥이 포설되어 있다. 그리고 육상, 하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는 인조잔디구장은 400m 트랙 6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다.

● 부대시설

태릉선수촌의 부대시설로는 선수회관(챔피언 하우스), 행정동, 수위실, 양궁장 부속시설(창고, 사선대)이 있다. 이 가운데 영화관, 음악감상실, 당구장, 임원실, 미용실 등 위락시설과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수회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1986년에 건립되었다. 행정업무공간과 기계실이 있는 행정동은 지상 2층, 지하 2층의 규모이다.

② 태백선수촌 및 무주합숙소

● 태백선수촌

태백시 함백산 고지대에 위치한 태백선수촌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통한 심폐기능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96년 6월에 개촌하였으며, 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와 사우나실, 휴게실 등 부속시설, 관리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백선수촌 훈련시설은 총 면적 3만 2,267㎡(9,761평)으로 120평의 간이실내체육관, 400m 우레탄트랙 및 운동장이 있으며 육상, 수영, 레슬링, 빙상 등 21개 종목의 훈련이 가능하다. 다만 숙소와 운동장이 매우 노후하여 대대적인 보수가 요구된다.

● 무주합숙소

무주합숙소는 국가대표선수의 동계훈련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숙박이 가능한 19평 4인용 3실, 28평형 6인용 4실, 39평형 8인용 3실을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분양받아 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의 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표 5-24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현황

(태릉선수촌: 306,153㎡, 태백분촌: 61,486㎡)

지역	구분	건물명	용도 및 수용	규모	건립연도
태릉 (21)	숙소 (3)	올림픽의 집	238실(301명)	지상4, 지하2(13,906㎡)	1996
		영광의 집	98실(140명)	지상4, 지하1(5,639㎡)	2003
		감래관	22실(27명)	지상4, 지하2(1,877㎡)	2008
	훈련 시설 (13)	월계관	체력단련장	지상1(1,697㎡)	1978
		개선관	체조, 탁구, 역도	지상2, 지하1(7,792㎡)	2003
		승리관	배구, 유도	지상3(2,075㎡)	1973
		다목적체육관	농구	지상2, 지하1(1,593㎡)	1983
		실내수영장	경영, 수영, 싱크로	지상1, 지하1(2,644㎡)	1985
		오류관	육상, 핸드볼, 배드민턴	지상1(10,102㎡)	2000
		태릉국제스케이팅장	스피드스케이팅, 피겨	지상3, 지하1(27,067㎡)	2000
		필승주체육관	리듬체조, 레슬링	지상3, 지하1(4,402㎡)	1978
		필승보조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볼링	지상2, 지하1(5,056㎡)	2005
		실내빙상장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 컬링	지상4, 지하1(5,477㎡)	2005
		양궁장	양궁	110×50m	2005
		크로스컨트리	기초체력훈련	1.6km×3m 톱밥포설	1986
		인조잔디구장	육상, 하키, 축구	400m 트랙 6레인, 인조잔디	1984
	부대 시설 (5)	챔피언하우스	편의시설(영화관, 북카페, 당구장)	지상2, 지하1(2,523㎡)	1986
		행정동	행정업무, 기계실	지상2, 지하2(1,917㎡)	1987
		수위실(정문)	수위실	지상1(31.36㎡)	2003
		수위실(연구원)	수위실	지상1(62.28㎡)	1966
		양궁장 부속시설(사선대)	사대	지상2(408㎡)	2005
태백	시설	숙소, 체육관	45명(15실×3명)	지상2(2,155㎡: 행정동 포함)	1997
		행정동	-	지상2, 지하1	
무주	숙소	무주합숙소	60명 38평: 3실×8명 28평: 4실×6명 19평: 3실×4명	무주리조트	1997.8. ~ 2022.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선수촌 훈련시설 확충 지원

태릉선수촌은 입촌선수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훈련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첨단화된 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노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월계관 증축 및 보수, 대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스탠드 조성, 선수회관 내부 보수 등 기존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선수들의 훈련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오륜관, 개선관, 실내 빙상장, 필승관 등의 신규시설을 확충하여 왔다.

① 기존시설의 개보수

이명박 정부 4년간(2008~2011) 노후시설물에 대한 경제적 유지를 도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선수와 코치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노후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부분 개보수하였는데 연도별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5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시설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총계	계	4,937	1,022	1,100	1,400
	국고	2,500	1,022	1,100	1,400
	기금	2,437	-	-	-
1. 기존 시설 개보수	국고	1,500	658	1,100	1,400
2. 신규 시설 확충	소계	3,437	364	-	-
	국고	1,000	364	-	-
	기금	2,437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신규시설의 확충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촌 내 노후시설 철거 후 현대식 훈련 시설을 도입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노후한 시설을 철거하고 집약적으로 현대화·첨단화된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연도별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6 국가대표선수촌 연도별 시설 확충 현황

단위: 백만 원

연 도	사업내용	금액
2008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	2,437
	•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1,000
2009	• 올림픽의 집 환경 개선	364
2010	• 국제스케이트장 냉동설비 보강 및 전기승압공사	267
2011	• 국제스케이트장 링크복도 및 환경 개선	300
계		4,36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③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1단계 조성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번지 일원에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현 태릉선수촌의 노후화와 대표선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훈련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는 2005년 11월 현상공모를 통해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으며, 1단계 사업은 연면적 5만 6,124㎡로서 2009년 2월 5일 착공 31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8월 18일 공사가 완료되었다. 1단계 사업은 1966년에 건립된 태릉선수촌의 면적이 협소하고 추가 개발이 불가하여 추진되었으며, 주로 태릉선수촌에 훈련시설이 없는 종목 및 노후시설을 중심으로 건립되어 2012년 런던올림픽을 대비하는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사격장, 육상,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정구장(14면), 야구·소프트볼장, 축구·럭비장, 선수숙소(350명 수용), 행정동·체력 단련장, 선수회관 등 최첨단의 실내외 훈련장, 숙박 및 편의·위락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수영장은 경영, 수구,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다이빙 전용의 개별훈련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격장은 10m, 25m, 50m의 실내사격장과 클레이사격장이 조성되었으며 각각의 시설에는 전자측정장비가 설치되어 과학적인 훈련이 가능해졌다. 선수숙소는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되었으며 여가시간 활용을 위하여 선수회관 내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산책로를 많이 조성하였다. 또한 인접한 무이산 정상(해발 463m)까지 크로스컨트리 코스를 만들었으며 파트너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위하여 파트너하우스(200명 규모)도 건립하였다. 이 밖에도 체력단련장, 의무, 물리치료실과 함께 스포츠의 · 과학이 접목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 의학실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 1단계 사업 완성과 더불어 2012년부터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2017년 이후에는 총 37개 종목의 훈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계획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7 국가대표종합훈련원(제2선수촌) 조성 연도별 추진 현황

연 도	사업내용	비고
2001.6.	• 문화재 복원정비 관련 선수촌 이전요구(3회)	문화재청
2003.3.	• 선수촌 장기이전 계획안 수립	대한체육회
2003.6.	•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반영	문화관광부
2003.8.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문화관광부
2003.11.	• 2003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2004.3.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9.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 통보(사업승인) - 조사결과: 단계별 사업 추진 • 1단계: 현 태릉선수촌에 없는 시설물 건립 제2선수촌 형태로 부분이전(2005~2010) • 2단계: 향후 태릉선수촌 사용불가능 여부, 체육정책, 엘리트스포츠 육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여 추진(2011~2015)	기획예산처
2004.12.	• 제2선수촌 이전 대상지 선정 - 13개 후보지 중 2개 우수 후보지 선정(음성, 진천) - 2개 우수 후보지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선수촌 이전 추진자문위원회(6차회의/진천군 선정)	대한체육회
2005.11.	• 선수촌 이전사업 마스터플랜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대한체육회
2006.3.	• 선수촌 이전 마스터플랜 각계 의견수렴 및 최종확정	대한체육회
2006.5.~	•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진천군, 대한체육회

연 도	사업내용	비고
2007.1.~2008.10.	• 기본 · 실시설계	대한체육회
2008.11.28.	• 공사계약(터키방식)	대한체육회
2009.2.5.	• 진입도로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09.5.18.	• 본공사 착공	대한체육회
2010	• 공사 중	대한체육회
2011.8.18.	• 공사 완공	대한체육회
2012~2017	• 2단계 사업계획	대한체육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주요시설: 지원시설, 실내훈련시설, 실외훈련시설 등 12개 종목

구분	건립시설명
지원시설	행정동, 선수교육회관, 체력훈련장, 방문자센터, 스포츠의/과학실, 선수숙소(350명), 게스트하우스
실내훈련시설	수영센터,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정구장, 사격장, 조정/카누 연습장
실외훈련시설	종합훈련장, 투척필드, 다목적필드(소프트볼, 럭비, 야구), 테니스/정구장, 클레이사격장, 크로스컨트리코스

제4절 경기력 향상 지원성과

1. 하계 · 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은 2008년 제29회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와 2010년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그리고 2012년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를 참가하였다. 2008년 8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9회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참가국 204개국 중 금 13, 은 10, 동 8개의 메달 획득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계속된 10위권 이내의 종합순위 세계 7위 달성은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이 다시 한 번 도약한 대회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21회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참가국 82개국 중 금 6, 은 6, 동 2개의 메달 획득으로 역대 동계올림픽대회 참가사상 최고 성적(종합 5위)을 거두었다. 특히 종전 메달 획득의 효자종목이었던 쇼트트랙 이외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획득한 금메달이기에 타 종목의 발전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여준 대회였다.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0회 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참가국 204개국 중 금 13, 은 8, 동 7개의 메달 획득으로 대한민국은 종합 5위를 차지하며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 이어 한국 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세계 스포츠 5강’으로 떠오르는 경이로운 성과를 보여준 대회로 평가된다.

표 5-28 하·동계올림픽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대 회 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 종목	참가국 인원	한국 참가 현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순위
제29회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8.8. ~ 8.24.	중국 베이징	28종목	204개국 16,000명	389 (122/267)	금 13 은 10 동 8	7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2.12. ~ 2.28.	캐나다 밴쿠버 휘슬러	5종목	82개국 5,558명	83 (37/46)	금 6 은 6 동 2	5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7.27. ~ 8.12.	영국 런던	26종	204개국 19,000명	377 (129/248)	금 13 은 8 동 7	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1) 제29회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①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대한민국의 하계올림픽대회 참가는 1948년 런던올림픽대회에 ‘KOREA’라는 국가명으로 처음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이후 이번 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까지 15회 연속 참가하였다. 특히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하계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하면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한국은 다음 대회인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서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순위 4위에 입상하여 지금까지 기록한 종합순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후 25회 바르셀로나, 26회 애틀랜타, 27회 시드니, 28회 아테네 그리고 29회인 베이징올림픽대회까지 시드니 대회를 제외한 하계올림픽에서 10위권에 진입하여 국제 스포츠경쟁력에서 Top 10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의 종합순위 7위는 서울올림픽대회보다는 뒤이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역대 상위국가의 경기력과 비교한다면 매우 우수한 경기결과뿐만 아니라 금메달 13개 획득은 역대 올림픽대회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 획득이 이루어진 대회로 주요 스포츠 강대국의 참여에 비교한다면 매우 성과가 큰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29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성명	비고
금메달 (13)	태권도	남자 +80kg	차동민	-
		남자 -68kg	손태진	-
		여자 -67kg	황경선	-
		여자 -57kg	임수정	-
	역도	남자 77kg	사재혁	-
		여자 +75kg	장미란	-
	배드민턴	혼합복식	이효정, 이용대	-
	사격	50m 권총	진종오	-
	양궁	남자 단체전	박경모, 이창환, 임동현	-
		여자 단체전	박성현, 윤옥희, 주현정	세계신기록
	수영	자유형 400m	박태환	-
	유도	남자 -60kg	최민호	-
	야구	야구	이승엽 외 23명	-
은메달 (10)	양궁	남자 개인전	박경모	-
		여자 개인전	박성현	-
	유도	남자 -81kg	김재범	-
		남자 -73kg	왕기춘	-
	체조	남자 평행봉	유원철	-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박태환	-
	배드민턴	여자 복식	이경원, 이효정	-
	펜싱	플러레 여자개인	남현희	-
	역도	여자 53kg	윤진희	-
	사격	10m 공기권총	진종오	-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성명	비고
동메달 (8)	탁구	남자 단체전	오상민, 유승민, 윤재영	-
		여자 단체전	당에서, 김경아, 박미영	-
	배드민턴	남자복식	이재진, 황지만	-
	핸드볼	여자	오성옥 외 14명	-
	복싱	웰터급	김정주	-
	양궁	여자 개인전	윤옥희	-
	유도	여자 78kg	정경미	-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5kg	박은철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번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개최국 중국이 종합순위에서 매년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대회에서 종합순위 4위를 하였으며 이후 그 순위를 한 단계씩 줄여 이번 베이징에서 목표한 종합순위 1위(금메달 51개 획득)를 달성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동안의 대회에서 1위를 줄곧 고수하다가 이번 올림픽에서는 총 메달 수 합계에서는 110개로 중국보다 10개 앞섰으나 36개의 금메달 획득에 그쳐 금메달 수에서 중국보다 15개가 적어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 주게 되었다. 그 외 순위를 살펴보면 3위는 러시아가 차지하였으며 4위는 전 올림픽대회에서 종합순위 10위였던 차기 올림픽대회 개최국인 영국이 차지하여 6단계나 상승하였으며, 5위는 독일이 예전과 비슷한 평균 종합순위를, 6위는 호주, 7위 한국, 8위 일본 및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순으로 종합순위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프랑스가 그동안 10위 이내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다가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는 11위로 떨어졌으며 북한은 금메달 2개, 전체 메달 획득 6개로 참가국 중 종합순위 3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중국은 향후 올림픽대회에서 미국과 계속해서 1위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일본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스포츠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영국의 등극에 따른 정상권 유지 및 프랑스의 재도약을 위한 노력 등이 국제스포츠대회에서 계속해서 출현될 것이라 예상된다. 베이징올림픽 대회는 204개 국가가 참가하였고 이중 87개 국가가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52개 국가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나타난 신기록 달성은 육상 5개 세부종목에서 신기록이 달성되었으며 수영은 21개 경기종목에서 역도는 10개 경기종목에서 달성되었다. 한국의 강세 종목인 양궁경기에서는 1개 경기종목에서 달성되었는데 여자 단체전 예선전에서 한국의 박성현, 윤옥희, 주현정 선수가 231점을 기록하여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다. 사이클 종목에서는 트랙 남자단체출발에서 영국 팀이 3분 53초 314로 신기록을 달성하였다.

신기록 달성에 참여한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수영 10개 경기종목에서 신기록을 달성하였으며, 호주도 수영에서 5개 경기종목에서 달성하였고, 한국과 중국, 벨로루시가 각각 4개 종목에서 달성하였으며 자메이카는 육상 3개 경기종목에서, 러시아와 영국은 2개 경기종목에서 그리고 일본, 이탈리아, 짐바브웨가 각각 1개의 신기록을 달성하였다.

표 5-30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국가명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				
	순위	금	은	동	계
1	중국	51	21	28	100
2	미국	36	38	36	110
3	러시아	23	21	28	72
4	영국	19	13	15	47
5	독일	16	10	15	41
6	호주	14	15	17	46
7	한국	13	10	8	31
8	일본	9	6	10	25
9	이탈리아	8	10	10	28
10	우크라이나	7	16	17	40
11	프랑스	7	5	15	27
12	네덜란드	7	5	4	16
13	자메이카	6	3	2	11
14	스페인	5	10	3	18
15	케냐	5	5	4	14
33	북한	2	1	3	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2010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21회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밴쿠버 이외에 휘슬러, 리치몬드 등에서 15개 세부종목에서 86개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캐나다는 1988 캘거리동계올림픽경기대회 이후 두 번째 동계올림픽대회이자 1976 몬트리올하계올림픽대회까지 세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

①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는 82개국 5,558명[임원 2,939명, 선수 2,619(남 1,559, 여 1,060)]이 참가하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6개로 종합 5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빙상 스피드 500m(남·여), 10,000m(남)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1948년 생모리츠동계올림픽대회 이후, 62년 만에 하나의 국가가 단거리와 장거리를 석권하는 역사적인 새로운 기록을 남겼으며, 올림픽신기록 작성과 함께 피겨(여 싱글)에서는 역대 최고의 점수로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는 우리나라가 동계스포츠에서도 스포츠 강국임을 세계에 알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를 성공함에 있어 국가적 노력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상(雪上) 종목 및 봅슬레이의 발전가능성도 검증한 대회였다.

표 5-31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성명	기록	비고
금메달 (6)	스피드	남자 500m	모태범	69.82	—
		남자 10,000m	이승훈	12:58.55	올림픽신기록
	쇼트트랙	여자 500m	이상화	76.09	—
		남자 1,000m	이정수	1:23.747	—
		남자 1,500m	이정수	2:10.949	—
		피겨	여자 싱글	김연아	세계최고기록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성명	기록	비고
은메달 (6)	스피드	남자 1,000m	모태범	1:09.12	—
		남자 5,000m	이승훈	6:16.95	—
	쇼트트랙	남자 500m	성시백	41.340	—
		남자 1,000m	이호석	1:23.801	—
		남자 5,000m 계주	이호석, 성시백, 이정수, 김성일, 곽윤기	6:44.446	—
		여자 1,500m	이은별	2:17.849	—
동메달 (2)	쇼트트랙	여자 1,000m	박승희	1:29.379	—
		여자 1,500m	박승희	2:17.927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인 국가는 단연 개최지인 캐나다로, 지난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에서는 금 7개로 종합 5위를 차지하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총 금메달 86개 중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10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독일을 제치고 1위로 급부상하면서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독일은 금메달 10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지난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에서 획득한 총 메달 30개보다 1개 적은 29개로 대회를 마감하며 동계올림픽대회 최강국임을 확고히 하였으며, 미국은 종합 3위이나 총 메달 획득수로 보면 258개 중 37개로 가장 많아 스포츠 세계 최강국의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쇼트트랙 여자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차지하여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하여 종합 7위를 차지하는 약진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 11위를 차지한 러시아는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2개를 획득한 2006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보다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일본은 금메달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고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종합 20위에 머물렀다.

표 5-32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메달			
		금	은	동	합계
1	캐나다	14	7	5	26
2	독일	10	13	7	30
3	미국	9	15	13	37
4	노르웨이	9	8	6	23
5	대한민국	6	6	2	14
6	스위스	6	—	3	9
7	스웨덴	5	2	4	11
8	중국	5	2	4	11
9	오스트리아	4	6	6	16
10	네덜란드	4	1	3	8
11	러시아	3	5	7	15
12	프랑스	2	3	6	11
13	호주	2	1	—	3
14	체코	2	—	4	6
15	폴란드	1	3	2	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영국 런던에서 제30회 하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204개국 1만 9,000여명 참가, 26개 종목(세부종목 302개)으로 진행되었다. 영국은 1908년, 1948년에 이어 64년 만에 다시 런던에서 세 번째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

①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런던은 한국 올림픽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해방 직후인 1948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가했던 대회였다. 64년 만에 개최된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대회에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세계 5위를 기록하며, 4년 전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톱 7’이었던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톱 5’자리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거두었다.

사격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최고 효자종목으로 떠올랐고, 전통적인 메달밭이었던 양궁도 남자 단체전을 제외한 3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유도 또한 김재범과 송대남이 금메달을 따내며 강호임을 입증하였고,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한 펜싱은 새로운 메달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자배구와 여자핸드볼이 4위를 차지하였으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이외 체조 양학선, 사격 진종오, 김장미, 유도의 김재범, 송대남 그리고 수영 박태환, 리듬체조 손연재, 남자역도 원정식 등을 통해 다양한 하계종목에서의 성과를 검증한 대회로 기록된다.

표 5-33 런던하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성명	비고
금메달 (13)	사격	10m 공기권총	진종오	-
		25m 권총	김장미	-
		50m 권총	진종오	-
	양궁	개인전	기보배	-
		개인전	오진혁	-
		단체전	기보배, 이성진, 최현주	-
	유도	-81kg	김재범	-
		-90kg	송대남	-
	체조	기계(도마)	양학선	-
	태권도	-67kg	황경선	-
	펜싱	사브르 개인	김지연	-
		사브르 단체	구본길, 김정환, 오은석, 원우영	-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	김현우	-
은메달 (8)	복싱	라이트급 60kg	한순철	-
	사격	50m 권총	최영래	-
		50m 소총3자세	김종현	-
	수영	자유형 200m	박태환	-
		자유형 400m	박태환	-
	탁구	남자단체전	오상은, 유승민, 주세혁	-
	태권도	-58kg(플라이급)	이대훈	-
	펜싱	에페 단체	신아람, 정효정, 최은숙, 최인정	-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성명	비고
동메달 (7)	배드민턴	복식(남)	이용대, 정재성	—
	양궁	단체전	김법민, 오진혁, 임동현	—
	유도	-66kg	조준호	—
	축구	단체전	구자철 외 17명	—
	펜싱	에페 개인	정진선	—
		플러레 개인	최병철	—
		플러레 단체	남현희, 오하나, 전희숙, 정길옥	—

출처: 대한체육회(2012), 《스포츠코리아웹진》

②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런던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미국이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에서 중국을 제치고 다시금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 당시 총 메달 수 합계에서 110개로 중국보다 10개 앞섰으나 36개의 금메달 획득에 그쳐 1위를 내주었던 미국은 런던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총 메달 수 104개로 87개의 중국을 17개 차이로 제쳤으며, 금메달 수에서도 8개나 더 많은 46개를 따내며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개최국인 영국은 지난 대회보다 한 단계 상승하여 3위를 차지하였고, 4위는 러시아, 5위는 대한민국, 6위는 독일, 7위는 지난 대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프랑스가 4단계 상승하여 차지하였으며, 8위는 이탈리아, 9위 헝가리 순으로 종합순위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헝가리가 10위권 이내에 드는 기염을 토했으며 북한은 금메달 4개, 동메달 2개, 전체 메달 획득 6개로 지난 대회보다 13단계 상승한 20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런던올림픽대회에서는 모두 44개의 세계신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역도에서만 무려 11개의 세계신기록이 쏟아졌고, 사이클에서 10개, 한동안 신기록이 적었던 수영에서도 9개가 쏟아졌으며 사격 8개, 육상 4개, 양궁 2개의 세계신기록이 나왔다. 세계신기록의 시작을 알린 선수는 대한민국의 임동현 선수로 개막 전날 펼쳐진 양궁 남자 랭킹라운드(순위결정전)에서 72발 합계 699점을 쏜 지난 5월 자신이 세웠던 종전 기록(696점)을 갈아치웠다. 또 오진혁, 김법민과 함께 단체전 랭킹 라운드에서 216발 합계 2,087점을 기록하며 종전 기록(2,069점)을 훌쩍 넘기는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표 5-34 런던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상위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메달			
		금	은	동	합계
1	미국	46	29	29	104
2	중국	38	27	22	87
3	영국	29	17	19	65
4	러시아	24	25	33	82
5	대한민국	13	8	7	28
6	독일	11	19	14	44
7	프랑스	11	11	12	34
8	이탈리아	8	9	11	28
9	헝가리	8	4	5	17
10	호주	7	16	12	35
11	일본	7	14	17	38
12	카자흐스탄	7	1	5	13
13	네덜란드	6	6	8	20
14	우크라이나	6	5	9	20
15	쿠바	5	3	6	14
20	북한	4	—	2	6

출처: 대한체육회(2012), 《스포츠코리아웹진》

2. 하계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제16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는 중국 광저우에서 201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15일간 개최되었다. 1990년 북경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한 중국은 ‘스릴 넘치는 스포츠 제전, 조화로운 아시아’라는 슬로건 하에 질적 · 양적으로 기존의 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제7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2011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와 경제도시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86년 일본 삿포르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되면

서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의 일정상 한 해가 겹치는 문제 때문에 4회 대회부터 홀수년에 개최하도록 합의가 되어 1999년 제4회 대회부터는 매년 4년 주기로 홀수년에 개최하고 있다.

표 5-35 하·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대회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종목	참가국 인원	한국 참가 현황		
					인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순위
제16회 광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11.12. ~27.	중국 광저우	10종목	45개국 12,000명	1,010 (219/791)	금 76 은 65 동 91	2
제7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1.30. ~2.6.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10종목	26개국 1,100명	149 (43/106)	금 13 은 12 동 13	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1) 제16회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제16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국 1만 2,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로 한국 선수단은 41개 종목에 1,010명(임원 219명, 선수 79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76개, 은메달 65, 동메달 91개의 성적으로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①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제16회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은 76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총 232개의 메달(은 65, 동 91)을 획득하며 해외원정 국제경기대회 참가사상 가장 우수한 경기성적을 기록하면서 4회 대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하였다. 이는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참가 4연속 종합 2위 달성의 쾌거이며 경쟁국 일본(금 48, 은 74, 동 94, 총 216)의 금메달 수는 물론 전체 메달 수에서도 크게 앞섰다.

특히 사격, 펜싱, 유도 종목의 약진에 따른 다메달 획득전략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양궁, 태권도, 수영 종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다만 우리나라가 참가한 42개 종목이 메달을 전혀 획득하지 못하는 등 종목 간 경기력 편차를 보였다.

한국, 중국, 일본 국가의 메달 획득 현황은 다른 역대 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전체 476개의 금메달 중 중국이 199개(41.8%), 한국이 76개(16%), 일본은 48개(10.1%)를 차지하여 이들 3개 국가가 전체 금메달의 67.9%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의 메달 획득 결과는 표 5-36과 같다.

표 5-36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단위: 억 원

종 목	한국				종 목	한국				
	금	은	동	계		금	은	동	계	
축 구			2	2	골 프	4		1	5	
수영	경영	4	3	6	13	기계	2		2	4
	다이빙			1	1	체조	리듬		1	1
	싱크로			1	1	트램플린				0
	수구				0	핸 드 볼	1		1	2
양 구	4			4	하 키		1		1	
육 상	4	3	3	10	유 도	6	3	5	14	
배드민턴	1	1	5	7	카 바 디				0	
야 구	1			1	공 수 도			3	3	
농 구		2		2	근 대 5 종	1	2	2	5	
당 구		1	1	2	인라인롤러	3	2	2	7	
볼 링	8	5	2	15	조 정		3	3	6	
복 싱			2	2	력 비			1	1	
카누	스프린트			0	요 트	1	2	3	6	
	슬라롬			0	세팍타크로		1	2	3	
체스	바둑	3		1	4	사 격	13	8	7	28
	체스				0	스 퀴 시			1	1
	장기				0	탁 구		1	4	5
크리켓				0	태 권 도	4	4	2	10	
사이클	트랙	2	1		3	테니스	테니스		2	2
	로드	2			2	정구	2	4	4	10
	마운틴				0	트라이애슬론			1	1
	BMX				0	배구	배구	1	1	2
댄스스포츠		7	3	10	비치발리				0	
드래곤보트			1	1	역 도	1	2	2	5	
승 마	2	1		3	레 슬 링		3	6	9	
펜 싱					우 슈		2	2	4	
	7	2	5	14	합 계	76	65	91	23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2010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는 당초 예상대로 개최국 중국이 금메달 199개를 획득하여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76개를 획득하여 해외원정 대회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4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하였고, 일본은 유도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에서 부진을 보이며 금메달 48개로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진 각 국가별 경기력 변화를 살펴보면 이란이 지속적인 상승세(2002년 10위, 2006년 6위)를 보이며 카자흐스탄(금 18개)을 제치고 금메달 20개로 종합 4위를 차지하였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금 14개)와 대만(금 13개)이 종합 6위와 7위를 차지하였다. 이 국가들은 향후 경기력의 지속적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기력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5-37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총계
1	중 국	199	119	98	416
2	한 국	76	65	91	232
3	일 본	48	74	94	216
4	이 란	20	14	25	59
5	카자흐스탄	18	23	38	79
6	인 도	14	17	33	64
7	대 만	13	16	38	67
8	우즈베키스탄	11	22	23	56
9	태 국	11	9	32	52
10	말레이시아	9	18	14	4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

카자흐스탄 국가의 아스타나-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제7회 대회로 26개 국가 팀의 1,100명이 총 10개 종목의 경기에 참가하였다. 한국 선수단은 5개 종목에 선수 106명이 참가하여 금 13, 은 12, 동 13개로 종합순위 3위를 달성하였다. 이 성적은 지난 2007년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제6회 대회와 동일한 종합순위를 기록하였으나 동계아시아대회 참가사상 가장 많은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①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금 13개, 은 12개, 동 13개로 참가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일본과 금메달 개수가 동일, 은메달 수에서 밀려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대회 참가 사상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여자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프리스타일 등 3종목은 경기력 수준이 낮아 대회 참가만으로 만족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알파인과 크로스컨트리에서의 금메달 획득은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능성과 강화훈련의 당위성을 보여준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선수단 각 선수별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38과 같다.

표 5-38 아스타나-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고
금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노진규	
		쇼트트랙 여자 1,500m	조해리	
		쇼트트랙 여자 1,000m	박승희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이호석, 노진규, 성시백, 김병준, 엄천호	
		스피드 남자 5000m	이승훈	
		스피드 여자 Mass Start	노선영	
		스피드 남자 Mass Start	이승훈	
		스피드 남자 10,000m	이승훈	
		스피드 여자 팀추월	이주연, 노선영, 박도영	
	스 키	알파인 여활강	김선주	
		알파인 여 슈퍼대회전	김선주	
		알파인 슈퍼컴파인드	정동현	
	크로스컨트리	여 프리	이채원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고
은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엄천호	
		쇼트트랙 여자 1,500m	박승희	
		쇼트트랙 여자 1,000m	조해리	
		쇼트트랙 여자 3,500m 계주	박승희, 조해리, 양신영, 황현선, 감담민	
		스피드 여자 3,000m	김보름	
		스피드 남자 500m	이강석	
		스피드 여자 1,500m	노선영	
		스피드 여자 5,000m	박도영	
		스피드 남자 1,500m	모태범	
		스피드 남자 팀추월	이규혁, 이승훈, 모태범	
	스 키	알파인 슈퍼컴파인드	정소라	
	오리엔티어링	여자 리프레이	김자연, 최슬비, 이하나	
동	빙 상	스피드 여자 Mass Start	이주연	
		스피드 남자 1,500m	이규혁	
		스피드 여자 500m	이상화	
		쇼트트랙 남자 1,000m	성시백	
	스 키	알파인 남자 활강	정동현	
		알파인 여자 슈퍼대회전	정혜미	
		알파인 남자슈퍼컴바인드	김우성	
	크로스컨트리	점 프	최흥철, 강철구, 최용직, 김현기	
		남자 팀 스프린트	정의명, 박병주	
		남 계주	하태복, 임의규, 박병주, 이준길	
	오리엔티어링	Long	김자연	
	피겨	여 프리	곽민정	
	아이스하키	남단체전	권태완 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는 참가국 26개 국가 중 8개 국가만이 메달 획득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아시아 지역은 주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만이 겨울스포츠가 활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 획득한 각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메달 207개 중 카자흐스탄이 70개로 33.86%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4위 내 입상한 4개국의 메달 획득이 총 197개로 전체 메달의 95.2%의 메달을 획득하여 동계아시아 대회의 향후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국가별 메달 획득 상황을 분석하면 개최국인 카자흐스탄 국가의 독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동계종목 강국인 한국, 일본, 중국 간의 2~3위 다툼이 예상한 가운데 지난 대회 우승한 중국이 11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한국과 일본이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경기가 진행되었지만 일본이 은메달 수에서 앞서면서 한국팀은 종합순위 3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 팀은 지난 대회까지 빙상의 쇼트트랙과 스피드에 편중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설상종목인 스키 알파인 종목과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메달종목 다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은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부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피겨의 페어 부문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종합 7위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39와 같다.

표 5-39 아스타나-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 위	국가명	금	은	동	합계
1	카자흐스탄	32	21	17	70
2	일 본	13	24	17	54
3	한 국	13	12	13	38
4	중 국	11	10	14	35
5	몽 고	—	1	4	5
6	이 란	—	1	2	3
7	북 한	—	—	1	1
7	키르기스스탄	—	—	1	1
	계	69	69	69	20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기타

(1) 2008 국제종합경기대회

표 5-40 2008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대 회 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 종목	참가국 인원	한국 참가 현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순위
제1회 아시아 비치경기대회	10.18. ~ 10.26.	인도네시아 발리	16종목	42개국 6,000명	114 (29/85)	금 4 은 7 동 10	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① 제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

2008년 제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42개국 약 6,000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팀은 9개 종목에 114명(임원 29명, 선수 85명)이 참가하여 종합 4위를 차지하였다.

‘Inspire the Worl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바다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비치스포츠를 통해 스포츠교류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문화·종교 및 국가이념의 차이와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아시아 국가가 먼저 경제적 공동번영과 문화적 교류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및 실내아시아경기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종합스포츠축제로 각국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친선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었다. 제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총 9일간 16개 종목의 해양 및 비치스포츠종목이 3개 지역(Nusa Dua, Sanur, Kuta)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위주의 생소한 종목 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기 참여에도 불구하고 4위에 입상한 것은 향후 이 대회에서도 아시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참가한 한국 팀은 거의 모든 종목에 체계적인 훈련이나 세부 경기 종목에 대한 규정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참가함에도 불구하고 비체레슬링 75kg에서 이윤석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보디빌딩 종목에서는 85kg급에서 이진호 선수, 패러글라이딩 종목 Team Accuracy 종목에서는 김진오 외 4명의 선수 그리고 윈드서핑 종목에서 남자 RSX 세부종목에서 이태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4위 차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대회는 향후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스포츠교류를 통한 우호 및 협력관계 구축 차원에서 향후 참가가 정례화되는 대회이므로 대한체육회에서는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국위선양의 한 대회로 인식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제1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총 42개국이 참가하여 27개국이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중 개최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금 23, 은 8, 동 20개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태국 2위, 중국 3위, 한국 4위, 일본 5위순으로 나타났다. 북한도 마라톤 수영 여자부 5km와 10km에 2명이 선수가 참가하였으나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여 종합순위에 국가명을 등록하지 못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경기종목이 거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지형 특성을 고려하고 자국에서 많이 성행하는 비치스포츠 종목을 대회종목으로 선정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스포츠 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 국가가 종합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어 선수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3위부터 5위까지 중국, 한국, 일본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개 국가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는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무술인 비치 패낙실랏 종목에서는 8개 세부종목 중 말레이시아가 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그 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각각 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종목에서는 세부종목 8개 종목 중 인도네시아가 7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1개의 메달은 한국의 김진오 외 4명이 선수가 Team Accuracy 종목에서 우승하여 종합우승한 인도네시아의 패러글라이딩 종목에서의 독주를 막았다. 주로 해변에서 실시하는 비치스포츠 종목인 비치카바디, 비치 세팍타크로, 비치사커, 비치발리볼과 수상에서 실시하는 드래곤보트 레이싱이나 제트스키우드볼 등은 주로 동

남아시아 지역 국가가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종목과 유사한 보디빌딩, 비치레슬링, 트라이애슬론, 마라톤 수영과 같은 종목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메달을 획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에 비해 금메달이 1개 부족하여 5위를 기록한 일본은 서핑 종목에서 2개의 메달을 그리고 비치농구에서 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표 5-41 아시아비치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인도네시아	23	8	20	51
2	태국	10	17	10	31
3	중국	6	10	7	23
4	대한민국	4	7	10	21
5	일본	3	3	3	9
6	홍콩	3	3	2	5
7	인도	3	0	2	5
8	베트남	2	5	3	10
9	미얀마	2	3	0	5
10	말레이시아	2	2	6	10
11	파키스탄	2	2	3	7
12	대만	2	2	3	7
13	시리아	2	0	0	2
14	쿠웨이트	1	2	0	3
15	카자흐스탄	1	1	2	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2009 국제종합경기대회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는 8개 대회로 동계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월드게임, 아시아무도대회, 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8개 대회의 대회장소 및 일시 그리고 참가한 한국 대표팀의 선수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42 2009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대 회 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 종목	참가국 인원	한 국 참 가 현 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순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18.~28.	중국 하얼빈	12종목	50개국 1,500명	124 (33/91)	금 12 은 7 동 9	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7.1.~12.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12종목	120개국 10,000명	246 (66/180)	금 21 은 11 동 15	3
제1회 아시아청소년대회	6.29.~7.7.	싱가포르	10종목	42개국 2100명	99 (22/77)	금 20 은 17 동 17	2
2009 월드게임	7.16.~26.	대만 카오슝	35종목	105개국 3,200명	66 (18/48)	금 6 은 3 동 5	9
제1회 이사무도대회	8.1.~9.	태국 방콕	9종목	37개국 1,247명	39 (4/35)	금 10 은 6 동 3	3
제1회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8.21.~30.	뉴질랜드 퀸즈타운	7종목	38개국 1,500명	50 (12/38)	금 4 은 1 동 2	순위집계 없음
제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10.30.~11.8	베트남 하노이	22종목	45개국 4,500명	138 (37/101)	금 16 은 14 동 16	6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12.5.~13.	중국 홍콩	22종목	9개국 2,373명	385 (88/297)	금 39 은 45 동 59	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① 제24회 하얼빈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된 제24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09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총 50개국에서 1,500명이 참가하여 12개 세부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가 개최된 하얼빈은 한국 팀에게는 매우 역사와 관계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인 안중근 의사가 국가독립을 위해 하얼빈 역에서 당시 일본의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곳이다. 이런 역사가 깃든 곳에서 한국팀은 10종목에 124명의 선수단(임원 33명, 선수 91명)

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국 50개국 중 종합 3위를 차지하여 우수한 국제스포츠경쟁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의 특징적인 활동은 빙상 외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특히 스키점프, 스노보드에서의 선전은 향후 한국의 동계스포츠경쟁력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대회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 12, 은 7개, 동 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으며 메달 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43 하얼빈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수명	비고
금	스키점프	K90 단체	김현기, 최용직, 최흥철	
		K 90	김현기	
	쇼트트랙	1,000m	이승훈	
		3,000m	이승훈	
		3,000m	최정원	
		500m	장원훈	
		1,500m	이승훈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모태범	
		1,500m	모태범	
		100m	이강석	
		500m	이상화	
		500m	이강석	
은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단체	모태범, 송진수, 여사엽	
		여자 단체	김유림, 이주연, 노선영	
	쇼트트랙	3,000m 계주	김혜경, 양신영, 정바라, 이하경	
		3,000m	김성일	
		1,500m	김성일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호준	
	스키점프	K125	김현기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수명	비고
동	스피드 스케이트	1,000m	이강석	
		1,000m	이상화	
		500m	모태범	
	쇼트트랙	5,000m 계주	이승훈 외	
		1,000m	정바라	
		3,000m	윤태식	
		3,000m	김혜경	
		1,500m	윤태식	
	스키점프	K125	최흥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 대회에서 주최국인 중국이 금 18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대회인 제23회 토리노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3위를 차지하여 동계대회 스포츠경쟁력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참가 50개국 중 상위 입상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1위, 3위, 4위로 상위 입상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유럽에 있는 국가로 아직 동계스포츠는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경쟁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한국, 일본, 중국이 이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44 하얼빈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1	중 국	18	18	12
2	러시아	18	14	19
3	대한민국	12	7	9
4	일 본	9	8	3
5	스위스	7	3	4
6	오스트리아	4	3	2
7	프랑스	2	6	5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8	폴란드	2	4	8
9	네덜란드	2	1	1
10	스웨덴	2	0	0
11	캐나다	1	4	1
12	체 코	1	3	5
13	우크라이나	1	2	4
14	독 일	1	2	3
15	이스라엘	1	0	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제25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한국 팀은 12종목에 246명(임원 66명, 선수 180명)이 참가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1회 대회부터 참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구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제25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역대 대회에서 참가종목 및 참가선수인원을 종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다. 역대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대구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회에서도 3위를 했지만 이는 자국에서 개최되어 참가선수가 대규모(379명 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대회의 성적은 역대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기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대표팀은 금 21, 은 11개, 동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각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45와 같다.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국가별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표 5-4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종합우승한 중국을 제치고 러시아가 금메달 27개를 획득하여 종합우승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2, 3, 4위를 차지하였다.

표 5-45 베오그라드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수명	비고
금	태권도	품새(단체전)	이기성, 이상목, 지호용	
		품새(단체전)	황초룡, 안진영, 이한나	
		품새(개인전)	이기성	
		핀급(남)	천용	
		핀급(여)	박효지	
		페더급(여)	정진희	
		플라이급(남)	문길상	
	펜싱	남자플뢰레	손영기	
		여자사브로	김혜림	
	체조	철봉(개인)	김지훈	
		마루(개인)	김수면	
	유도	-73KG	왕기춘	
		남자오픈	김성민	
		남자단체	김성민 외	
	축구	여자축구	정원정 외	대 일본(결승)
	양궁	리커브	김예슬, 김성훈	
		여자리커브	장혜진, 김유미, 김예슬	
		남자리커브	김성훈, 박희재, 김재형	
		리커브(개인)	김예슬	
		컴파운드(개인)	석지현	
	육상	멀리뛰기	김덕현	
은	태권도	품새(개인)	황초룡	
		페더급	이순길	
		밴텀급	김택규	
		미들급	오혜리	
	유도	+78kg	이정은	
		-78kg	정경미	
		-81kg	김민규	
		여자단체	이정은 외	
	테니스	혼합복식	김현준, 김소정	
	양궁	여 리커브	김유미	
	수영	여 평영50m	김달은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수명	비고
동	태권도	품새(단체)	이상목, 안진영	
		월터급(여)	이선형	
		월터급(남)	백선희	
		밴텀급(여)	남진아	
	체조	개인종합	김수면	
	펜싱	여자플러레	전희숙, 이혜선, 오혜미	
		여자사브로	이희라, 김혜림	
	유도	-90kg	이규원	
		-70kg	황예슬	
		-48kg	정정연	
		여자오픈	김나연	
	탁구	여자복식	김소리, 서효영	
	육상	창던지기	박재명	
	양궁	컴바운드	김동규, 석지현	
		컴바운드	서정희, 권오향, 석지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5-46 베오그라드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러 시 아	27	22	27	76
2	중 국	22	21	15	58
3	한 국	21	11	15	47
4	일 본	20	21	32	73
5	미 국	13	13	13	39
6	우크라이나	7	11	13	31
7	대 만	7	5	5	17
8	이탈리아	6	14	11	31
9	폴 란 드	6	10	8	24
10	세르비아	5	5	9	19
21	북 한	1	3	4	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③ 제1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제1회 청소년올림픽을 1년 앞둔 2009년에 개최된 제1회 아시아청소년대회(The 1st Asian Youth Games)는 청소년선수를 대상으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9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선수촌 4층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가 마련되어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각 국가의 청소년들이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도 드럼 연주, 댄스 경연 등 경기와 훈련에 지친 선수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참가한 선수 간에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기회의 장을 준비하여 운영하였다. 아시아 회원국 즉 45개 OCA 회원국 중 42개국에 참가한 이 대회는 10개 종목(다이빙, 경영, 육상, FIBA 33, 볼링, 축구, 사격, 요트, 탁구, 비치발리볼)의 90개 세부종목이 경기종목으로 진행되었다. 싱가포르 일원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임원 700명, 선수 1,400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한국 선수단은 비치발리볼을 제외한 전 종목에 임원 22명(본부임원 7명 포함), 선수 77명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이 대회에서 중국 팀은 금 25, 은 16, 동 1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한국팀은 금 20, 은 17, 동 17개로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전체 메달 획득 수에서는 종합 1위인 중국보다 2개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른 종목별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47과 같다.

표 5-47 아시아청소년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종목 메달	다이빙	경 영	육 상	농 구	볼 링	축 구	요 트	사 격	탁 구
금	1	11	2	—	3	1	—	2	—
은	1	11	2	—	2	—	—	1	—
동	2	5	—	2	4	—	1	1	2
계	4	27	4	2	9	1	1	4	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④ 2009 월드게임

제8회 월드게임은 2009년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대만 카오슝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 35개 경기종목과 관련된 경기연맹과 3,2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6명의 선수단(임원 18명, 선수 48명) 참가하여 종합 9위의 성적으로 거두어 국제스포츠경쟁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이 대회는 1981년 7월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후 대규모 비올림픽종목의 스포츠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대회로 ‘Sports for all’에 한발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과 참가국 팀의 성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총 35개 종목 중 9개 종목에 선수가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경기성적은 다음과 같이 금 6개, 은 3개, 동 5개로 종합 9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3개의 시범종목에서는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경기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48과 같다.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총 105개국이 참가한 제8회 월드게임은 러시아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중국(3위)과 한국(9위)이 10위권에 진입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각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과 순위는 표 5-49와 같다.

표 5-48 월드게임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보디빌딩	70kg	김병수	1위
		75kg	부창순	1위
		85kg	이진호	1위
	롤 러	10,000m	우효숙	1위
		15,000m	우효숙	1위
	볼 링	혼합복식	공병희, 계민영	1위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기 록
은	수 중	여자표면 계영 400m	최새롬 외 3명	2위(2:41)
	산 악	여자리드	김자인	2위
	롤 러	여자500m	인진선	2위
동	롤 러	남 500m	이명규	3위
		여 300m	임진선	3위
		무호흡잠영 50m	이관호	3위
	수 중	표면 남 200m	유경현	3위
		표면 여 100m	최새롬	3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5-49 월드컵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1	러 시 아	18	14	15
2	이탈리아	16	12	13
3	중 국	14	10	5
4	미 국	13	8	5
5	프 랑 스	11	14	13
6	우크라이나	11	12	10
7	대 만	8	9	7
8	독 일	6	6	10
9	대한민국	6	3	5
10	호 주	5	10	5
11	영 국	4	6	9
12	일 본	4	5	6
13	콜롬비아	4	5	3
14	네덜란드	4	5	2
15	스 위 스	3	4	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⑤ 제1회 아시아무도대회

제1회 아시아무도대회는 2009년 8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태국 방콕의 수판부리에서 개최되었으며 9개 종목(유도, 주짓수, 공수도, 킥복싱, 쿠라쉬, 무에, 파낙실랏, 우슈 및 쿵푸, 태권도)에 37개국에서 1,247명의 선수(남자 526명, 여자 284명)가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무도대회 조직위원회(AMAGOC)가 주최하고 아시아올림픽위원회평의회(OCA)가 주관하는 대회로 우리나라는 4개 종목(태권도, 유도, 공수도, 우슈)에 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10, 은 6, 동 3으로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무도의 스포츠축제로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이은 또 하나의 아시아 지역 스포츠축제로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과 우애를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다.

표 5-50 아시아무도대회에서의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고
금	태권도	남자월터급	이규진	
		남자미들급	황대성	
		여자핀급	김민정	
		여자플라이급	장은숙	
	유 도	남자 -73kg	방귀만	
		남자 -81kg	송대남	
		남자 -90kg	권영우	
		여자 -48kg	정정연	
		여자 -78kg	정경미	
	우 슈	남자 산타 -60kg	김준열	
은	태권도	남자핀급	이재봉	
		남자플라이급	이 우리나라	
	유 도	여자 +78kg	김나영	
		여자 -70kg	황예슬	
	공수도	남자개인대련 -60kg	이지환	
	우 슈	여자산타 -60kg	유현석	
동	태권도	여자헤비급	오민아	
	유 도	남자 -60kg	김기용	
	우 슈	여자 산타 -48kg	최새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⑥ 제1회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제1회 환태평양 초청 동계대회는 2009년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뉴질랜드 퀸즈랜드 외 3곳에서 개최되었다. 총 38개국으로부터 선수 800여 명과 임원 70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 한국 팀은 피겨 스케이팅 종목으로 포함한 4개 세부종목에 임원 12명, 선수 38명으로 총 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뉴질랜드 NOC에서는 이번 대회를 매 2년마다 개최하고 북반부가 여름인 기간 중 대회를 개최하여 환태평양 지역의 동계종목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이 대회는 뉴질랜드 남부에 위치한 퀸즈타운과 와나카, 더니든, 나스비에서 개최되었으며 경기장 중 빙상·피겨경기 장소가 국제규격이 아닌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종목에서 나타난 한국 팀 경기성적은 표 5-51과 같다.

표 5-51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목	세부종목	선수명	비고
금	빙상(피겨)	NOVICE	이동원(남)	
			박소연(여)	
		JUNIOR	김민석(남)	
			김현정(여)	
은	빙상(피겨)	SENIOR	서민석(남)	
동	컬링	여자컬링	정은정, 박민아, 김영명, 강유리, 김지숙	
	빙상(피겨)	SENIOR	김나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이 대회에 한국 선수단은 얼음 위에서 열리는 빙상이나 피겨 종목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설상종목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아직 설상경기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⑦ 제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제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서 개최되었다. 20개 공식 종목과 시범종목 2개 종목에 총 45개국에서 4,5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2종목에 138명의 선수단(임원 37명, 선수 101명)이 경기에 참가하였으며 종합순위 6위를 차지하였다.

실내아시아경기대회는 종합대회로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대회로 OCA가 주관한다. 2005년 태국 방콕, 2007년 홍콩 마카오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3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대회는 2009년 제1회 대회로 개최된 아시아무도대회와 통합되어 다음 대회는 2013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것이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한국 선수단은 45개국에 참가한 이번 제3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16, 은 14, 동 16개로 합계 4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6위에 입상하였다. 이 대회에서 특히 핀 수영 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 양궁 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 볼링에서 3개 그리고 볼링과 당국에서 각각 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6위 입상에 기여하였다. 각 종목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52과 같다.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 대회에서의 국가별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이후 각종 국제 종합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이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경기종목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성행하는 스포츠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의 종목 이외의 종목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상위에 입상하고 있다. 또한 서남아시아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포츠종목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국가도 입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시아무도대회와 통합되어 다음 대회는 2013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될 것이다. 이것은 OCA가 아시아지역에 여러 가지 종합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각 국가들의 참가일정에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어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각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은 표 5-53과 같다.

표 5-52 실내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기 록
금	핀수영	남계영 800m	박찬호, 윤영중, 박성하, 유경현	5분44초74
		남표면 400m	윤영중	3분04초44
		남표면 200m	윤영중	1분23초88
		여표면 200m	전아람	1분31초77
		남표면 800m	박찬호	7분34초84
	볼링	여 개인	손연희	
		2 인조	전은희, 손연희	
	e-스포츠	여 4인조	강혜은, 손연희, 황선옥, 전은희	
		스타크래프트	이영호	
	당구	카운터	팀	
		3 쿠션	조재호	
	양궁	여 9볼	차유람	
		여 개인	안세진	
		남 개인	김영수	
		여 단체	정다소미, 유장미, 심미소	
		남 단체	성우경, 최건태, 김우진	
은	핀수영	여계영 400m	장예슬, 전아람, 최세롬, 김현진	2분43초
		남표면 50m	이관호	16초16
		여표면 400m	전아람	3분20초5
		남표면 400m	유경현	3분7초78
	볼링	남 개인	최복음	
		남 2인조	최복음, 김태영	
	에어로빅	남 개인	송종근	
		2인조	박연선, 이경호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정명훈	
	양궁	남 개인	김우진	
	댄스스포츠	삼바	정재호, 윤소연	
		비엔이즈 왈츠	이상민, 김혜인	
		슬로우폭스트롯	남상욱, 송이나	
		킥 스텝	이상민, 김혜인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기 록
동	핀수영	여표면 100m	장예솔	39초93
		여표면 50m	박성아	16초46
		여표면 50m	장예솔	17초80
		여표면 200m	최새롬	
	세팍타크로	팀	팀	
	에어로빅	여 개인	신현경	
		3인조	황인찬, 김균택, 조원호	
	양궁	여 개인	유장미	
	당구	1 쿠션	김경율	
	볼링	남 4인조	최복음, 조영선, 김태영, 장동철	
	수영	여 자유 200m	지혜원	2분01초67
		남 배영 100m	황경식	54초39
		여 개인혼영	이미림	1분03초87
	댄스스포츠	파소도볼레	김성민, 김미선	
		차차차	정재호, 윤소연	
		왈츠	남상웅, 송이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5-53 실내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중 국	48	25	19	92
2	베 트 남	42	30	22	94
3	카자흐스탄	21	16	21	58
4	태 국	19	17	34	70
5	이 란	17	15	13	45
6	한 국	16	14	16	46
7	인 도	6	9	25	40
8	홍 콩	6	9	17	32
9	인도네시아	6	3	13	22
10	우즈베키스탄	5	9	10	24
11	일 본	5	9	9	23
12	사우디아라비아	4	3	2	9
13	라오스	3	8	14	2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⑧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는 2009년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총 9개국에서 2,373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22개의 경기종목에서 금 262개, 은 262개, 동 315개로 총 839개의 메달을 두고 경기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금 39개, 은 45개, 동 59개로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 한국 대표단은 임원 88명, 선수 297명, 총 38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동아시아대회는 1993년 제1회대회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어 2009년까지 총 5회 대회가 열렸다. 처음 12개 종목에서 시작된 이 대회는 이번 중국·홍콩대회에서는 22개 종목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5번의 동아시아대회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줄곧 3위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동아시아대회 개최국은 중국, 한국 일본 3개국이다.

이번 제5회 동아시아경기대회는 한국을 비롯하여 9개국(중국, 북한, 일본, 마카오, 몽고, 대만, 괌, 홍콩)이 참가하여 9일간 개최되었다. 다음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9개 국가의 메달 획득 현황이다. 우리나라는 금 39, 은 45, 동 59개로 총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였다.

표 5-54 동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중 국	113	73	46	232
2	일 본	62	58	70	190
3	한 국	39	45	59	143
4	홍 콩	26	31	53	110
5	대 만	8	34	47	89
6	마카오	8	9	12	29
7	북 한	6	8	11	25
8	몽 고	0	4	16	20
9	괌	0	0	1	1
	계	262	262	315	83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2010 국제종합경기대회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는 4개 대회로 제21회 동계올림픽대회, 제16회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제1회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2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4개 대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 그리고 참가한 한국 대표팀의 선수단 구성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5-55 2010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대회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종목	참가국 인원	한국 참가 현황		
					인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순위
제1회 싱가포르 하계청소년 올림픽대회	2.14.~26.	싱가포르	18종목	205개국 5,481명	92 (20/72)	금 11 은 3 동 4	3
제2회 아시아비치 경기대회	12.8.~16.	오만 무스카트	4종목	43개국 2,500명	40 (14/26)	금 2 은 3	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① 제1회 싱가포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이번 2010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현재의 성인 올림픽대회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순수한 올림픽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2007년 7월 5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 119차 IOC 총회에서 IO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개최가 결정되었다. 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올림픽대회의 가치인 우수, 우정, 존중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스포츠행사와 함께 문화교육행사를 병행 실시한다는 점이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26개 종목, 201건의 세부경기가 개최되었으며, 수영에서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과 수구를, 근대 5종에서 승마를 제외하고, 사이클은 기존의 세부종목 대신 마운틴 바이크와 BMX를, 농구는 3:3 농구로 실시하는 등 일부 종목의 경기방식을 변경하였다. 이 대회는 동·하계올림픽대회에 이어 IOC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게 된 세 번째 국제종합대회이다. 제1회 2010년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2010년 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세계 205개국의 5,481명의 선수(3,522명)와 임원(1,959명)이 참가하였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한국 대표팀은 총 102명의 선수단(본부임원: 10명, 경기임원: 30명, 선수: 72명)이 양궁, 배드민턴, 농구(3:3), 펜싱, 체조(기계), 유도, 근대5종, 사격,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레슬링, 수영, 역도, 핸드볼(남자), 하키(여자), 육상, 요트 등 18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메달 11개를 획득함으로써, 총 202개의 금메달 중 30개의 메달을 획득한 중국, 18개를 획득한 러시아에 이어 종합 3위(금 11, 은 3, 동 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IOC 주최 대회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팀의 선수와 메달 획득내용은 표 5-56와 같다.

표 5-56 싱가포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메달	종 목	세부종목	성 명	비 고
금메달 (11)	펜싱	남자 사브르	송종훈	
	수영	남자 접영 100m	장규철	
	태권도	남자 -63kg	서병덕	
	태권도	여자 -63kg	전수현	
	태권도	남자 -73kg	김진학	
	양궁	리커브 여자개인	곽예지	
	유도	여자 -44kg	배슬비	
	유도	남자 -81kg	이재형	
	근대5종	4종 남자개인	김대범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김장미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고도원	
은메달	레슬링	여자 자유형	문진주	
	수영	남자 접영 50m	장규철	
	핸드볼	남자 단체	박형건 등 14명	
동메달 (4)	펜싱	남자 플러레	이광현	
	배드민턴	남자개인	강지욱	
	탁구	여자개인	양하은	
	사격	남자 공기권총	최대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2010년 제1회 싱가포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57과 같다. 총 금메달 202개 중 30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이 1위, 18개를 획득한 러시아가 2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출전선수 68명이 11개 종목에서 30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으며 이 중 15개 금메달을 수영 종목에서 획득하였다. 특히 수영의 Tang Yi(여) 선수는 자유형 100m를 비롯하여 Mix 팀까지 6관왕을 차지하며, 실력을 발휘하였다.

2위인 러시아와 함께 한국(3위), 우크라이나(4위), 쿠바(5위) 등 5위권에서 약진한 반면, 독일이 12위 미국은 13위, 영국은 17위의 저조한 기록을 보이는 등 성인 올림픽대회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기록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가에 따라 청소년 시기에 전문체육을 육성하는가의 여부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7 싱가포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메달			
		금	은	동	합계
1	중국	30	16	5	51
2	러시아	18	14	11	43
3	대한민국	11	3	4	18
4	우크라이나	9	9	15	33
5	쿠바	9	3	2	14
6	오스트리아	8	13	8	29
7	일본	8	5	3	16
8	헝가리	6	4	5	15
9	프랑스	6	2	7	15
10	이탈리아	5	9	5	19
11	아제르바이잔	5	3	0	8
12	독일	4	9	9	22
13	미국	4	9	8	21
14	태국	4	3	0	7
15	이스라엘	3	2	0	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제2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제2회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개최되었으며, 4개 종목에 총 45개 국가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40명(임원 14명, 선수 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와 동일한 해에 편성되어 있어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제1회 대회보다 소규모 선수단을 구성하여 경기에 참가하였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이번 무스카트아시아비치경기대회에 한국 선수단은 4종목 26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종합 8위(금 2, 은 3)의 성적을 거두었다.

아시아비치경기대회는 기후나 환경 면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종목이 많고 이번 대회의 경우 2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5개의 메달을 획득한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회 경기대회에 비하여 참가인원이 크게 축소되면서 4개 종목에만 참가하여 수상 스키 한 종목에서만 메달을 획득하였다는 점은 아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 국가별 메달 획득성적

이 대회에 참가한 각 국가의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58과 같다. 종목의 특성상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가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표 5-58 무스카트아시아비치경기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총계
1	태국	15	10	11	36
2	중국	12	6	5	23
3	오만	5	3	7	15
4	이라크	3	3	1	7
5	인도네시아	3	2	6	11
6	인도	3	0	1	4

순위	국가명	금	은	동	총계
7	쿠웨이트	2	3	1	6
8	대한민국	2	3	0	5
9	아랍에미리트	2	2	0	4
10	일본	2	1	3	6
11	카자흐스탄	1	2	0	3
12	말레이시아	1	1	0	2
13	시리아	1	1	0	2
14	베트남	0	4	4	8
15	파키스탄	0	4	2	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2011 국제종합경기대회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참가한 국제종합경기대회는 총 4개 대회로 2011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7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2011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제2회 뉴질랜드동계대회에 참가하였다. 앞서 요약한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제외한 3개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 그리고 참가한 한국 대표팀의 선수단 구성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5-59 2011년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요 및 참가 현황

대 회 명	개최일	개최지	경기 종목	참가국 인원	한 국 참 가 현 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순위
제25회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1.27.~2.6.	터키 예르주름	5종목	57개국 1,500명	125 (34/91)	금 7 은 3 동 5	2
제 26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8. 2.~23.	중국, 선전	18종목	179개국 13,000명	382 (25/357)	금 28 은 21 동 30	3
제2회 뉴질랜드동계대회	8.11.~28.	뉴질랜드 퀸즈타운	5종목	36개국 887명	63 (20/43)	금 19 은 9 동 3	순위 집계 없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① 제25회 에르주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터키 에르주름에서 개최된 제25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5개 종목 12개 세부종목의 경기에 58개국에서 2,700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였고 한국은 금 7, 은 3, 동 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러시아에 이어 종합 2위의 경기 성적을 거두었다.

●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성적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 7, 은 3, 동 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2위를 차지하였으며 메달 획득 현황은 표 5-60와 같다.

표 5-60 에르주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성적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고
금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김환이	
		쇼트트랙 여자 1,500m	이은별	
		쇼트트랙 남자 1,000m	이승훈	
		쇼트트랙 여자 1,000m	이승훈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최정원	
	스 키	스노보드 남자평행대회전	김성경	
	컬 링	남자단체전	김창민, 김민찬, 성세현, 서영선, 오은수	
은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김태훈	
		쇼트트랙 여자 1,500m	정바라	
		쇼트트랙 남자 1,000m	김민정	
동	빙 상	쇼트트랙 남자 1,500m	김성일	
		쇼트트랙 여자 500m	이은별	
		쇼트트랙 남자 1,000m	김성일	
	스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호준	
	컬 링	여자 단체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이혜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는 금 14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지난 대회 제24회 중국 하얼빈대회에서 3위를 한 한국은 2위를 차지하여 동계스포츠대회 국제경쟁력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우크라이나, 미국, 프랑스가 각각 3, 4, 5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입상국과 메달 획득 현황 및 순위는 표 5-61과 같다.

표 5-61 에르주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러시아	14	14	11	39
2	한 국	7	3	5	15
3	우크라이나	6	5	4	15
4	미 국	5	2		7
5	프랑스	4	4	4	12
6	일 본	4	3	3	10
7	슬로바키아	4		3	7
8	중 국	3	3	4	10
9	독 일	3	3	1	7
10	체 코	3	2	4	9
11	슬로베니아	2	2	3	7
12	스위스	2	1	2	5
13	오스트리아	2	1	1	4
14	이탈리아	1	3	4	8
15	캐나다	1	3	1	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25회 터키 에르주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승한 러시아는 선수 176명을 파견하여 금 14개, 은 14개, 동 11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우승하여 동계스포츠 강국임을 확인하였다. 한국 팀은 이 대회에서 쇼트트랙 종목에 집중되었던 메달 획득양상이 설상종목인 스키, 스노보드와 컬링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패거리를 이룩하였다. 특히 스키, 스노보드 3개 종목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1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아시아 선수들에게도 이 종목이 유망한 종목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② 제26회 중국 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2년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주최하여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로서 우리 선수단은 이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스포츠 및 문화교류를 통한 대학생선수들의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선수 및 임원 약 1만 3,000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 선수단은 19개 종목에 382명(임원 93명, 선수 289명)이 참가하여 종합 3위에 입상하였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이 대회에서 한국 팀은 금 13, 은 12, 동 1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3위를 차지하였는데 종목별로 메달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양궁 6개, 배드민턴 2개, 사이클 1개, 체조 1개, 유도 5개, 사격 3개, 태권도 7개, 테니스 2개, 에어로빅 1개로 총 2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한편 은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수영 1개, 양궁 3개, 사이클 2개, 펜싱 2개, 유도 4개, 사격 4개, 태권도 3개, 역도 2개로 총 21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동메달은 수영 1개, 양궁 1개, 사격 3개, 펜싱 5개, 골프 1개, 유도 3개, 요트 1개, 사격 3개, 탁구 2개, 태권도 4개, 테니스 2개, 역도 2개, 에어로빅 2개로 총 21개의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이에 다른 각 개인별 메달 획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62 중국 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 고
금	양 궁	남자 리커브	임동현	
		여자 리커브	기보배	
		여자 단체 컴파운드	김효선, 석지현, 서정희	
		혼성 단체 컴파운드	민리홍, 서정희	
		여 단체 리커브	한경희, 정다소미, 기보배	
		혼성단체 리커브	기보배, 김법민	
	배드민턴	혼합 복식	신백철, 엄혜원	
		여자 복식	엄혜원, 장혜나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 고
금	사이클	도로(여) 120km	구성은	
	체 조	여자 도마	조현주	
	유 도	남자 100kg	김수완	
		남자 -66kg	황보배	
		남자 오픈	김성민	
		여자 오픈	김지윤	
		남 -60kg	김원진	
	사 격	남 50m 권총	이대명	
		남 10m 공기권총	이대명	
		남 단체 10m 공기권총	이대명, 김근복, 김의중	
	태권도	남 단체 품세	안재성, 장준희, 이상목	
		여 단체 품세	조성예, 정스민, 강유진	
		혼성 단체 품세	이진호, 강수지	
		남자 -68kg	김 훈	
		남자 -74kg	김선욱	
		여자 -62kg	노은실	
		남자 -87kg	박용현	
	테니스	남 단식	임용규	
		남 단체	임용규, 오대성, 설재민	
	에어로빅	남 트리오	김균택, 이경호, 류주선	
은	수 영	개인혼영 200m	최혜라	
	양 구	남자 컴파운드	최용희	
		남자 리커브	김우진	
		여자 리커브	정다소미	
	사이클	도로(여) 120km	손희정	
		여 30km 단체 도로독주	손희정, 이애정, 유선희	
	펜 싱	남자 사브르	구본길	
		여자 플러레	전희숙	
	유 도	여자 -52kg	서하나	
		여자 -57kg	김잔디	
		남자 -73kg	김원중	
		여자 +78kg	김나영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 고
인	사 격	남자 10m 공기소총	류재철	
		남자 단체 50m 권총	이대명, 길양섭, 장하림	
		여자 단체 10m 공기소총	최윤정, 김선화, 정경숙	
		여자 단체 25m 권총	이호림, 김지혜, 조수영	
	태권도	남 품새	양주민	
		여 -49kg	김재아	
		여 -73kg	박미연	
	역 도	남 69kg	원정식	
		여 69kg	문유라	
	수 영	여 접영 200m	최혜라	
여	양 궁	남 리커브	김법민	
		남 4km 개인추발	장선재	
	사이클	남 30km 포인트레이스	최승우	
		남 50km 단체 도로독주	장찬재, 장선재, 박성백, 임재연	
	펜 싱	여자 에페	신아람	
		여자 사브르	김지연	
		남자 플러레	허 준	
		남자 사브르 단체	구본길, 황병열, 허영구	
		여자 사브르 단체	김지연, 이라진, 최수연	
	골 프	여 개인	고민정	
	유 도	여 -78kg	정경미	
		남 -100kg	김경태	
	요 트	남 단체	홍석웅, 황보배, 송수근, 김원중, 김성민	
		RS: X	이태훈	
	사 격	여 트랩	강지은	
		남 10m 공기권총	김근복	
		남 더블트랙	황성진	
	탁 구	혼합복식	이제훈, 김소리	
		여 복식	문미라, 지민형	
	태권도	여 품새	박지영	
		남 -54kg	박용한	
		여 -57kg	김소희	
		여 -67kg	우스미	

종류	종 목	세부종목	선 수 명	비 고
동	테니스	남 복식	이용규, 설재민	
		여 단식	유 미	
	역 도	여 75kg	이애라	
		남 85kg	유준호	
	에어로빅	남 단체댄스	황인찬, 김응수, 김성호, 이준규, 이경호, 류주선, 송성규, 윤창일, 윤광석, 윤태희	
		여 스텝	최하늘, 조예란, 김지연, 이사랑, 심미현, 신현경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 국가별 종합성적 현황

중국은 금메달 75개를 획득하면서 다시 한 번 스포츠 강국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이 각각 2, 3, 4, 5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 28개, 은 21개, 동 30개로 총 7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3위를 차지하여 하계유니버시아드 참가사상 최고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중국의 선전에서 개최된 제26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종합순위 10위권에 진입한 국가는 표 5-63과 같다.

표 5-63 중국 선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각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

순위	국 가 명	금	은	동	계
1	중 국	75	39	31	145
2	러 시 아	42	45	45	132
3	한 국	28	21	30	79
4	일 본	23	26	38	87
5	미 국	17	22	11	50
6	이탈리아	12	5	13	30
7	우크라이나	11	19	14	44
8	대 만	7	9	16	32
9	터 키	7	7	8	22
10	태 국	7	2	9	18
25	북 한	2	2	1	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③ 제2회 뉴질랜드동계대회

제2회 뉴질랜드동계대회는 2009년에 환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란 이름으로 대회가 개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뉴질랜드동계대회로 개칭하여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뉴질랜드 퀸즈랜드 외 3곳(와나카, 나스비, 더니든)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팀은 3종목(스키, 빙상, 컬링)에 임원 20명, 선수 43명으로 6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 대회는 뉴질랜드올림픽위원회(NOC)가 매 2년마다 개최하고 북반부가 여름인 기간 중 대회를 개최하여 환태평양 지역의 동계종목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대회이다.

● 한국 선수단 메달 획득성적

뉴질랜드 남섬 남부에 위치한 퀸즈타운과 와나카, 더니든, 나스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뉴질랜드동계대회는 경기장 중 빙상·피겨경기장소가 국제규격이 아닌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각 종목에서의 경기내용이 기록경신보다는 경기력 향상과 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경기성적에 주안점을 두고 경쟁을 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국의 종합성적도 발표를 하지 않는 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 19개, 은 9개, 동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메달 획득한 각 선수의 명단과 종목은 표 5-64와 같다.

표 5-64 제2회 뉴질랜드동계대회의 한국 선수단의 메달 획득 현황

구분	종 목	세부종목	성별	선수명
금	빙 상	쇼트트랙 Relay	남	김태훈 외
		쇼트트랙 Relay	여	정은주 외
		쇼트트랙-시니어 500m	남	이동환
		쇼트트랙-시니어 500m	여	정은주
		쇼트트랙-시니어 1,500m	남	서이라
		쇼트트랙-시니어 1,500m	여	정바라
		쇼트트랙-주니어 500m	남	박세영
		쇼트트랙-주니어 500m	여	최지현
		쇼트트랙-주니어 1,000m	남	박세영
		쇼트트랙-주니어 1,000m	여	이소연

구분	종 목	세부종목	성별	선수명
금	빙 상	쇼트트랙-주니어 1,500m	남	박세영
		쇼트트랙-주니어 1,500m	여	최지현
		쇼트트랙-시니어 1,000m	남	김태훈
		쇼트트랙-시니어 1,000m	여	정은주
		피겨-시니어	여	곽민정
		피겨-주니어	남	이동원
		피겨-주니어	여	김해진
	컬 링	컬링-남자부	남	김창민 외
		컬링-여자부	여	신미성 외
은	빙 상	쇼트트랙-시니어 500m	남	서이라
		쇼트트랙-시니어 500m	여	정바라
		쇼트트랙-시니어 1,500m	남	이동환
		쇼트트랙-시니어 1,500m	여	정은주
		쇼트트랙-주니어 500m	여	이소연
		쇼트트랙-주니어 1,000m	여	최지현
		쇼트트랙-주니어 1,500m	여	이소연
		쇼트트랙-시니어 1,000m	남	이동환
		쇼트트랙-시니어 1,000m	여	정바라
		쇼트트랙-시니어 1,500m	남	김태훈
동	빙 상	쇼트트랙-시니어 1,000m	남	서이라
		쇼트트랙-시니어 1,000m	남	서이라
	스 키	크로스컨트리-여자 10km 클래식	여	남슬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5절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활동이 해외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지만, 태릉선수촌 가까이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살려 훈련현장의 지도자와 연구원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적용효과를 빠르게 거둘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지원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동계올림픽대회 경기력 향상에 따른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연구, 장애인체육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에 따른 장애인올림픽대표팀 경기력 향상 연구 등이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훈련장비 개발 등 스포츠공학 적 접근이 본격화된 시기로,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를 위해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공학을 접목한 측정도구 및 훈련도구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수영 박태환 선수의 영법측정을 위한 장비 개발, 선수들의 지각능력 향상에 중요한 선수의 시선추적장치 개발 연구 등은 경기력 향상과 기술 발전의 중요한 기반 연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교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종목별 훈련지도서를 2009년에 22종목을 개발하고 2010년에도 20종목을 개발하여 경기단체와 지도자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2010년부터 종목별 연수사업을 통하여 스포츠 과학적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산업·공학 연구기능은 엘리트체육 육성에 도움이 되고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과의 협력연구로 연구역량이 배가된다. 엘리트체육의 경기력 제고에는 훈련장비나 용구의 개발, 훈련과학화 장비나 용구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특히 수영 실시간 속도측정기 개발은 실제 박태환 수영선수에게 적용되어 2008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1. 현장지원체제와 운영

태릉선수촌 가까이 위치한 입지적인 장점 외에도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올림픽대회와 같은 국제종합스포츠무대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 해외 스포츠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 종목별 담당연구원제도 운영

스포츠과학 지원효과는 훈련 및 경기현장의 문제점을 연구실로 가져와 문제 핵심을 찾아내고 해결 실마리를 다시 현장으로 환류(Feedback)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필요하며 종목 담당연구원제도는 연구원 내에 이를 위한 책임자를 선정하여 지원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표 5-65 올림픽대회 금메달 획득종목과 담당연구원

올림픽대회(개최년도)	금메달 수(종합순위)	금메달 종목 담당연구원
베이징(2008)	13(7)	양궁(김병현), 사격(신정택), 유도(김영수), 태권도(김용승), 역도(문영진), 배드민턴(구해모), 야구(신정택), 수영(송홍선)

출처: 체육과학연구원 내부자료

(2) 중점 · 전략종목지원팀제도 운영

선수에게 발생하는 경기력 관련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운동역학, 운동생리학(트레이닝), 스포츠심리학 전문연구원들이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거나 각기 다른 전공자들을 팀으로 묶어 상호 보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표 5-66 2011년 중점 · 전략종목과 지원팀 구성 현황

종 목	담당연구원 및 지원팀	종 목	담당연구원 및 지원팀
중점종목(하계) - 13개 종목			
양 궁	김병현, 이순호, 윤성원	배드민턴	성봉주, 구해모, 고병구
사 격	김병현, 최규정, 김광준	탁 구	이순호, 김병현, 송홍선
체 조	송주호, 송홍선, 김용승	핸 드 볼	윤성원, 송주호, 구해모
유 도	김영수, 김태완, 김병현	역 도	문영진, 김병현, 김영수
레 슬 링	최규정, 김영수, 김용승	펜 싱	김태완, 김광준, 우민정
태 권 도	김용승, 김태완, 김정훈	수영(경영)	송홍선, 김용승, 문영진
복 싱	김광준, 우민정, 최규정		
중점종목(동계) - 2개 종목			
스키점프	최규정, 김병현, 송홍선	스케이트	스피드
		쇼트트랙	윤성원, 이순호, 우민정
		피겨	이순호, 김병현, 윤성원
전략종목 - 5개 종목			
하 키	구해모, 윤성원, 송주호	볼 링	우민정, 박세정, 이순호
근대오종	고병구, 우민정, 성봉주	사 이 클	김정훈, 김용승, 문영진
육 상	남자 세단뛰기		성봉주, 김용승, 송주호
	여자 멀리뛰기		김정훈, 김병현, 김태완
	여자 장대높이뛰기		박세정, 문영진, 우민정
	투척		이순호, 구해모, 김광준

※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담당연구원, 나머지 두 사람은 해당종목의 지원팀원임

출처: 체육과학연구원

2010년 스포츠과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스포츠과학연구실 소속 17명의 연구원이다. 이들은 동·하계올림픽대회 종목 가운데 15개 중점종목, 5개 전략종목에 대해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5-66와 같다. 이 가운데 육상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겨냥하여 정책적으로 전략종목에 포함시켜 종합 지원을 실시하였다.

(3) 훈련과학화협의회 운영

훈련과학화협의회는 스포츠 현장의 과학화와 경기력 향상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스포츠과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협의체로서, 체육과학연구원과 대표선수지도자 및 대한체육회 선수촌 관계자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학술이론일지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거나 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면 활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포츠과학 지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경기현장의 선수·지도자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지원이 아니라면 설령 최선의 스포츠과학이론에 기반을 둔 것일지라도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도자와 연구원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문제점 발견 및 해결을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교류를 가져야 한다.

훈련과학화협의회는 발족 초기에 매월 1회씩 개최하였지만, 지도자 및 담당연구원 간의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스포츠과학 지원에 대한 효과가 경기력으로 입증되게 되면서 두 집단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인위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협의회를 운영해 오는 동안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협의내용도 점차 줄어들게 되어 2011년은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훈련과학화협의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많이 변화되었다. 종목별 현장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한 협의는 종목별 특이성을 감안하여 해당 종목 담당연구원과 지도자 및 경기단체 관련자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협의에 기반을 두어 모든 스포츠과학 지원이 종목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과학 지원사례발표회, 경기단체임원 초청간담회, 입촌훈련임원 기자재 연수 등에 대한 토의도 변화되어 스포츠과학 지원사례발표회, 경기단체임원 초청간담회도 역시 2010년 종목별로 이루어졌고 입촌훈련 임원 기자재 연수는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

① 훈련과학화협의회 구성원

훈련과학화협의회는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연구실 실장, 스포츠과학 3대 영역(운동

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연구원 각 1명 이상, 강화위원(대표선수지도자 포함) 및 대한체육회 훈련본부장, 훈련지원팀 팀장 및 팀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적 모임을 갖는 협의체이다.

② 훈련과학화협의회 주요 안건

- 대표선수 훈련 과학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 대표선수 체력측정일정 및 강화훈련 프로그램 설정방안
- 전체 대표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스포츠과학교실 개최방안
- 합동세미나 개최방안
- 훈련과학화협의회 활성화방안

③ 합동스포츠과학세미나 개최

새로운 정보, 스포츠과학지원 성공·실패사례나 연구내용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거나 토의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구하기 위하여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에 개최되는 스포츠과학세미나는 발표내용 측면에서 현장 지원사례발표회가 이어진 것이며, 분임토의를 실시하는 형태는 연구원-지도자 간담회 성격을 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스포츠과학세미나와는 별도로 연구과제발표회를 스포츠과학, 스포츠정책, 스포츠산업의 3분야로 나누어 개최하며 스포츠의·과학세미나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연말에 개최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과학지원 사례 및 결과 등을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이라는 보고서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4)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과학교실은 경기지도자 및 선수와 함께 해당종목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 체계적인 훈련방법, 선수 개인별 측정·실험·분석 결과 등에 대해 종목별로 논의함으로써 훈련현장의 과학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 기자재

선수들이 보유한 경기력과 개인별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 심리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요구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스포츠과학기자재를 이용한 측정, 실험 등을 실시한다.

(1) 연대별 기자재 도입 개요 및 특성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 경제난을 겪는 시기였기 때문에 체육과학연구원도 예산 축소에 따른 전반적 사업규모 축소와 함께 기자재 구입형태도 과거와 유사하게 이어졌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공단 내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규정에 묶여 스포츠과학기자재 도입을 위한 특별 지원도 어려웠다. 이러한 연유로 2000년대 후반에도 기존 기자재의 성능 보완과 낙후된 기자재 교체구매의 차원에서 기자재 도입이 이루어졌다. 체력측정기자재 교체구매는 과거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디지털형태의 기자재를 도입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5-67 연대별 기자재 도입 특성

연대	특성
2000년대 후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노후 스포츠과학 분석장비 교체를 위한 기자재 도입
	노후 체력측정기자재 디지털화를 위한 교체 도입
	운동역학실험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험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교체 도입
	스포츠용품/시설의 인증을 위한 물성 검사용 기자재 도입

출처: 체육과학연구원

(2) 기자재 도입규모

스포츠과학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선수 개인의 경기력 수준 또는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진단해야 한다. 이처럼 기자재는 스포츠와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발달과 선진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과학 기자재는 스포츠과학의

발전과 이를 통한 엘리트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연구원 발전의 기본적 인프라인 셈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2008~2011)시기에 투입된 예산 가운데 스포츠과학 분야 기자재 구입예산은 표 5-68에, 스포츠산업 분야 기자재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별도로 표 5-69에 제시하였다.

표 5-68 스포츠과학 기자재 구입예산(2008~2011)				
단위: 백만 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예 산	180	180	170	993

출처: 체육과학연구원

표 5-69 스포츠산업 기자재 구입예산(2008~2010)			
단위: 백만 원			
연 도	2008	2009	2010
예 산	300	100	100

출처: 체육과학연구원(2011년부터 스포츠산업연구실과 스포츠과학연구실 통합)

(3) 실험실 운영의 변화

2010년 연구원 내에 운동생리학실험실, 운동역학실험실, 전산실 3개와 연구원 밖에 2개의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3. 현장 지원사업의 성과와 실적

(1) 운동생리학적 접근

운동생리학 분야의 현장 지원내용을 보면 체력측정을 통한 신인선수 발굴과 국가대표선수들의 체력 관리 및 트레이닝 처방 그리고 세미나 및 스포츠과학교실을 통한 스포츠과학정보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의 특징은 스포츠과학 및 스포츠공학을 접목한 측정도구 및 훈련도구의 개발 및 적용으로 경기력 향상의 극대화를 추구한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체력관리 과학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된 스포츠영재 발굴평가도구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스포츠영재 발굴 및 육성 사업에서 스포츠영재 발굴도구로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 개발된 꿈나무선수의 선발을 위한 측정평가도구는 현재까지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탁구, 핸드볼, 유도 꿈나무선수의 선발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② 스포츠과학 정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종목별로 매년 현장 적용한 결과인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을 발간하고 있으며, 내용은 기록종목, 구기종목, 투기종목, 조준종목으로 나눠 현장적용한 결과와 스포츠과학고실이나 정보제공된 내용을 스포츠과학정보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의 생리학 분야 내용으로는 기초 및 종목 특성별 전문체력측정, 처방에 따른 트레이닝효과 분석, 재활훈련 그리고 영양 등과 같은 스포츠과학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③ 종목별 스포츠과학 현장적용 사례

2008년 올림픽대회를 대비한 특화된 지원은 경기력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수영의 박태환 선수, 역도의 장미란 선수, 핸드볼, 탁구, 유도 그리고 동계종목에서의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의 종목에서 생리, 역학 및 경기력 분석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 생리학 분야가 적용된 종목으로는 수영, 핸드볼과 스피드스케이팅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었다.

(2) 스포츠심리학적 접근

스포츠심리학 분야의 현장 지원내용을 보면 심리검사의 결과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심리적 상승효과나 불안·압박감 해소, 심리조정능력 향상, 동기 극대화, 자신감 유발 등을 위한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적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의 핵심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 《베이징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위한 심리기술 적용 연구》, 《베이징올림픽 국가대표 투기종목 선수에 대한 개인별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개입 및 효과》, 2009년에 《양궁 훈련 시와 시합 시의 심리상태 자

기진단 훈련효과》, 《국가대표 복싱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등으로 선수의 개인차가 고려된 완숙기의 심리 지원특징을 엿볼 수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연구는 심리검사지 기준 개발, 반사적 사격행위를 위한 훈련방법 개발, 심리 상태 자기진단 등과 같이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구축 및 보완 연구이다. 2010년부터 2011년은 런던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심리훈련 강화를 위한 슈팅기술의 자화상 훈련 프로그램, 반사적 훈련 프로그램, 우뇌 활성화 훈련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하였다.

(3) 운동역학적 접근

2000년대 역학적 측면에서 많이 현장지원 되었던 종목으로는 역도, 탁구, 체조, 하키, 레슬링 그리고 육상을 들 수 있다. 지원내용은 주로 기술동작 분석을 통해 선수들의 장단점과 선수의 특성을 파악하여 훈련자료로 제공하는 연구와 경기의 전술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경기내용 분석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① 역도

역도 종목의 역학적 접근의 지원은 기술과 근력의 밸런스였다. 기술과 근력의 밸런스는 특이적 기술훈련이었으며, 특이적 기술훈련은 정확한 기술동작을 수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 근력을 발전시키는 훈련이었다. 이의 기술과 훈련을 지원하는 역학적 접근은 근전도를 통한 주동근과 길항근의 활동 여부를 평가하고, 좌우와 전후 근력 밸런스 평가, 큰 근육과 기술의 핵심 근육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동작에 따른 근수축의 속도 및 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훈련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의 성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장미란 선수와 사재혁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그리고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② 체조

체조 종목의 역학적 현장 지원은 체조 종목별 특이성을 고려하여 고속카메라를 활용한 기술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트레이닝을 통해 자세 교정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였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③ 유도

유도 종목의 역학적 현장지원으로 기술훈련 지원 이외에도 비디오 영상자료를 이용한 유도경기의 경쟁선수들의 전략적 전술과 기술 등의 경기내용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유도경기의 경기내용 분석은《베이징올림픽 유도 종목 메달 획득 가능 체급별 경쟁상대 선수의 경기내용 분석 및 전술적 대응방안》등의 경기내용 분석의 연구와 현장 지원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④ 하키

하키 종목의 역학적 현장 지원 연구와 사례로는 《스포츠현장(한국여자하키팀 중국 광저우 전지훈련)》, 《2008 베이징올림픽 대비 남녀 하키 주요 경쟁국가의 경기내용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의 연구결과들이 현장에 지원되었다.

⑤ 탁구

탁구 종목 역시 기술동작분석 평가를 비롯한 전술적인 경기내용 분석 연구들의 현장 지원 사례를 들 수 있다. 경기내용 분석 현장 지원사례는 《베이징올림픽 대비 탁구경쟁국가 남자 주전 선수들의 경기내용 분석 및 전략적 훈련방안》, 《중국 여자 탁구 주전 선수들의 경기내용 분석》, 《중국 남자 주전 선수들의 탁구경기내용 분석》 등이 있다.

⑥ 육상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중점 지원 종목별 현장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점 지원 종목은 세단뛰기, 창던지기, 허들, 높이뛰기의 종목이었으며, 종목별 중점 지원선수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육상 중점 지원종목의 역학적 현장 지원은 실제 경기와 훈련 현장의 참여를 통한 영상촬영과 기술동작의 분석을 통해 훈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속적인 콘텐츠로 자료화하였고 선수들의 장단점 규명과 훈련방안을 제

시하였다. 육상 중점 지원선수들을 대상으로 역학적 측면의 현장지원 연구와 지원은 《세단뛰기 중점 지원선수의 기술유형 분석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방안》, 《허들 동작의 운동학적 분석》, 《창던지기 기술동작 분석》, 《장대높이뛰기 기술동작 분석》 등이었으며, 이러한 연구와 지원은 2009년, 2010년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었다. 세단뛰기는 중점 대상선수를 대상으로 기술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고 실제 경기상황에서 영상 촬영에 의한 정량적 기술동작 분석으로 기술의 장단점 제시와 훈련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허들 종목에서는 중점 지원선수 2명을 대상으로 도움닫기의 추진속도와 각도 분석 및 상체의 전경각도 등 자세와 관련된 기술요인들을 분석 평가하였다. 창던지기 종목에서는 실제 경기와 훈련 현장의 모의경기에서 중점 선수들의 기술동작 분석을 통하여 선수들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육상 중점 지원선수들은 멀리뛰기에서 김덕현 선수와 정순옥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100m허들 경기에서 이연경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창던지기 박재명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4) 스포츠과학 현장적용 관련제도와 사업

스포츠과학연구실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으로 소개되어 제공된 많은 스포츠과학 현장접목 내용 중 주요 국제대회인 올림픽대회에서 두드러진 훈련에 성과를 보여 한국의 국제스포츠경쟁력을 보여준 스포츠과학 정보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전공별로 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70 전공별 스포츠과학 현장적용 연구 분야(2008~2011)

연도 \ 분야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기타	스포츠과학교실	계
2008	32	2	11	22	9	76
2009	21	2	8	9	5	45
2010	162	59	17	5	27	270
2011	78	65	11	5	17	176
합 계	293	128	47	41	58	567

출처: 체육과학연구원

표 5-71 각 종목별 스포츠과학 현장적용 연구보고건수(2008~2009)

연도 \ 종목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계	
	야구	사격	체조	유도	레슬링	태권도	복싱	탁구	배드민턴	요도	펜싱	수영	육상	하키	그네5종	사이클	빙상스피드	배구	축구	조정	요트	정구	상마	고리볼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인라인	빙상		
2008	2	1	1	3	6	7	11	3	4	7		2		2		8	1	2	1						1	1	1	1	2	60
2009			4	3	2		6		4		1	3	4		3	1	4	1		1	4	1	1							43
합계	2	1	5	6	8	7	17	3	8	7	1	5	4	2	3	9	5	3	1	1	4	1	1	1	1	1	1	2	103	

출처: 체육과학연구원(2010년 이후 각 종목별 분류 미실시)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스포츠과학화를 통한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과학 협력 협약〉을 2011년 3월 체결하여 국가대표선수의 스포츠 과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선수촌과 연구원은 국가대표선수의 정기적인 체력측정과 정보공유, 해외 정보수집 및 연구, ‘훈련과학화협의회’ 및 ‘스포츠의과학 합동세미나’ 개최의 정례화 등 국가대표선수의 과학적인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수촌과 연구원은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우선적으로 종목별 출전권을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림픽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시스템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있다.

(5) 2012 런던올림픽대회 주요 종목 지원내용

2012 런던올림픽대회 대비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연구원 내 12개 종목별(사격, 권투, 체조, 유도, 양궁, 펜싱,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레슬링, 탁구, 수영) 전담연구원 및 지원팀을 운영하여 전사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전략종목 담당연구원(5명) 현지파견을 통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의 시차·환경 적응 및 컨디션 관리, 시험 및 훈련 영상자료 피드백, 심리상태 진단 등 밀착 지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역대최고인 종합 5위(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 획득)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 5-72 런던올림픽대회 지원내용 및 성과

종목 (연구원)	지원 내용	성과
사격 (김병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팅기술의 자화상 훈련 프로그램 – 반사적 훈련 프로그램 – 우뇌 활성화 훈련 프로그램 • 현지 시차·환경 적응 및 컨디션 관리 	금 3개 은 2개
체조 (송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2012 양학선 골드 프로젝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체조연맹(FIG)으로부터 YANG HAK SEON이라는 기술명으로 공식 등재(2012.1.25)에 기여(역대 최고 난도 인정 7.4점) – (YANG HAK SEON 기술)에 대한 특성과 기술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신기술의 완성도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실시 	금 1개
복싱 (김광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적 전술 및 체력훈련프로그램(COPAS) 지원 • 스포츠과학교실 운영 및 정기 체력측정·분석 • 올림픽기간 중 컨디셔닝 집중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조절, 체력유지, 영양섭취, 피로회복 등 	은 1개
펜싱 (김태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들의 심부근육 밸런스 강화 지원 • 영상분석 및 상대선수 장단점 분석 	금 2개 은 1개 동 3개
양궁 (김영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스포츠 심리지원 • 각국 주요 선수들의 경기력 사전 분석·지원 • 올림픽기간 중 최상의 심리상태 유지 지원 	금 3개

출처: 체육과학연구원

●

제6장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조성

제1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제2절 장애인대표선수 육성 및 지원 확대

제3절 국제대회 우수 성과 거양 및 스포츠외교력 강화





제6장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 조성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장애인스포츠와 특수학교 체육활동을 재활 영역의 하나로써 취급되었으나 복지 영역에서 체육 영역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이제 국민체육의 동일 수준 영역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편성을 띤 전문 용어로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과 체육이 결합된 용어(문화관광부(2007), 《장애인체육백서》)로 자리를 잡았다.

제1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구조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와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법·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상처로 인한 전상자들의 재활과정에서 체육활동의 접목을 통한 장애인스포츠활동과 교육의 수단으로서 특수교육 교과목의 하나로 시작된 체육교육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장애인스포츠와 특수학교 체육활동을 재활 영역의 하나로써 취급되었으나 복지 영역에서 체육영역으로의 업무 이관을 통해 국민체육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이제 국민체육의 동일 수준 영역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편성을 띤 전문용어로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장애인과 체육이 결합된 용어(문화관광부(2007), 《장애인체육백서》)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과정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2005.7.)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4.)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2008.4.) 등 법적 뒷받침과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체육과 설치(2005.12.)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11.)과 같은 조직 기반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아래 체육의 본질인 건강 유지와 삶의 질 제고라는 가치가 장애인에게도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구조는 일반체육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 학교체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재활체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장애유형별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음의 표 6-1은 체육구조별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의 정부 및 민간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표 6-1 체육구조별 정부 및 민간조직

체육구조	일반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부-국민생활체육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재활체육	없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법적 기반 마련, 관련 조직 및 단체(시·도 지부 및 가맹경기단체) 설립 확산, 예산의 지속적 증가, 생활체육 사업 확대 및 참여율 향상,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08년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국제교류 분야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통한 참여인구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보급 및 확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개 중흥 기반구축의 목표 아래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생활체육 기초조사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 지원,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축제 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5.4%였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6.3%로 0.9% 증가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각종 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장애인체육 질적 수준 제고,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 장애인스포츠경기력 향상 및 국제적 위상 강화의 목표 아래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지부, 가맹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참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가맹단체 지원, 장애인후보선수 지원, 장애인국제경기대

회 개최 지원,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시·도 지부 지원 등의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은 금 10, 은 8, 동 13개로 종합 1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국제스포츠외교력 강화를 위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와의 관계 강화, 국제장애인스포츠외교역량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와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장애인스포츠교류,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및 코리아하우스 운영 등 국제스포츠교류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운영과 같은 협력 및 교류차원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래 5년차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기(2대 회장 윤석용)가 출범하였다. 특히 2009년은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국제교류 분야 사업들이 자리를 잡은 한 해였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 지원, 전통종목 육성, 장애인생활체육 기초조사 연구,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장애인체육동호인대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축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시·도 주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신규 사업의 발굴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생활체육 참여율은 7.0%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장애인국제체육교류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 장애인후보선수 지원, 장애인국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대표선수 훈련시스템 준비 및 훈련용 기구 확보, 훈련장 환경 조성 차원에서 향후 경기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운영 지원, 장애인 국제스포츠교류와 같은 협력 및 교류차원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 장애인체육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지방 장애인체육행정실무자 교육, 시·도 주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계획 공고, 장애인체육용 휠체어리프트장착 특장차량 구입 지원,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한 시설로의 개선 추진 등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2010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래 6년차로서 대한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지부, 가맹경기단체를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포함)과 전문체육(국제교류 포함)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쳤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전통종목 육성,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생활체육 기초조사연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 축제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등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의 지속 성장과 안정을 꾀하였다. 그 결과 생활체육 참여율은 8.3%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국내 대회 지원을 통해 가맹단체별 전국규모의 국내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국내 등급분류사 및 심판경기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전문체육 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 지도자 및 국제심판 초청강습 등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9년 개관한 이천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은 2010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및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장애인국가대표선수 훈련 지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지방체육업무편람》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생활체육진흥 관련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지원과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지원, 공공체육시설 편의제공 등의 사항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장애학생체육대회 관련 사항,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지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생활체육 업무를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9.6%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전 세계 164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금 9, 은 9, 동 9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종합 1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1) 국내 장애인체육조직 변천과정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의 역사는 국제장애인스포츠 역사와 마찬가지로 전쟁과의 관련이 깊다. 즉 1950년 한국전쟁,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용사들에게 재활수단으로서의 체육활동이 시초가 되었고, 특수학교에서 교과목 또는 운동부 창설, 대회 개최 및 참가 등과 함께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수단으로 시작한 장애인체육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치료나 재활 측면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부족, 정부지원의 취약 등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육 관련 업무와 사업비전을 제시할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여 장애인체육 발전의 기반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현재 재활체육 영역을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가 담당하는 비합리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체육 업무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하여 2005년 7월 29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공포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여 장애인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 일부 시·도에 장애인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 전담부서 및 공무원이 없거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조직 분야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2005.11.) 이후로 장애인생활체육과 전문부서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16개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설립 완료(2008.2.) 후 최근에는 시·도별로 원활한 장애인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군·구지부를 일부 승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6-2 국내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이전 (1960~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클럽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원호청 창설(1961) – 국제적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1965~) –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1967) • 특수학교 체육활동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학생 야구 및 유도, 탁구대회(1960~1970년대) – 서울농학교 배구부 창단(1962) • 국내 장애인체육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건립(1975)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체육대회 개최(197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1981~) – 국제뇌성마비경기대회(육상) 참가(1982)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이후 (1988~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 장애인체육 조직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1989)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편(1999)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개편(2008) • 학문적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특수체육학회 창립(1990) →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창간(1993)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시작(2000) –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시작(2003)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이관 이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육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5.7.) – 대한장애인체육회(2005.11.) 및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2006.5.) 설립 → 16개 시·도 지부 설립 완료(2008.2.)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 장애인체육과(현 장애인문화체육과) 신설(2005.12.) – 장애인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발표(2007.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4.)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명문화,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08.4.)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2008.1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설립배경 및 목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 25일 설립된 단

체로 설립목적과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의 표 6-3과 같다.

표 6-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과 역할

구분	내용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 가맹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시·도 지부를 지원·육성 •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 • 국제스포츠교류 및 활동을 통한 국제친선에 기여
주요 기능 /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맹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장애인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 장애인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 장애인선수·장애인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계 유공자의 복지향상 •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조직 및 인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 및 인원은 2008년 회장 1인, 부회장 3인 포함 이사 25인과 2인의 감사, 사무국 1실 7팀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2009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관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조직에도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조직도 크게 사무처와 훈련원 2부로 나뉘게 되었고 그 현황은 표 6-4와 같다.

표 6-4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직도 변천

연 도	임원	조직
2008	회장 1, 부회장 3, 이사 25, 감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사업조정실) • 5팀(혁신기획팀, 총무회계팀, 전략사업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 국제협력팀)
2009	회장 1, 부회장 5, 이사 21, 감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감사실) • 사무국(기획조정부, 경영지원부, 홍보부, 생활체육부, 전문체육부, 국제협력부)
2010~2012	회장 1, 부회장 5, 이사 26, 감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원(시설운영부, 교육훈련부)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③ 시·도 지부 운영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관 제54조에 근거하여 전국의 균형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 또는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는 16개 시·도 지부 설립을 완료(표 6-5 참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각 가맹단체와 각급 장애인체육회의 육성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체육 생활화 사업 전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
-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체육의 육성
-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

그러나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를 구성하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과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으로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운영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현재 시·군·구 장애인체육지회는 33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시·군·구 장애인체육지회의 설립은 장애인체육 진흥의 원칙과 연계성의 원칙, 자율성 확보의 원칙, 지방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설립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6-5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설립 현황(2011, 2012.4.)

연번	지부승인	단 체 명	소 재 지	설립일	시군구 지부
1	2006. 9.27.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6. 7.27.	-
2	2006.12.29.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상남도 창원시	2006. 7.18.	-
3	2006.12.2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수원시	2006.11.20.	구리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양주시, 김포시, 평택시, (용인시, 의정부시)
4	2006.12.29.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충청북도 청주시	2006.12.18.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보은군)

연번	지부승인	단 체 명	소 재 지	설립일	시군구 지부
5	2006.12.29.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 전주시	2006.12.26.	(남원시, 정읍시)
6	2007. 4. 5.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중구	2007. 1.17.	서산시, (공주시, 홍성군, 연기군, 보령시)
7	2007. 4.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07. 2.14.	-
8	2007. 4. 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 3.30.	노원구
9	2007. 5. 3.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 경산시	2007. 4.10.	(포항시)
10	2007. 5.22.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2006.12. 7.	-
11	2007. 5.22.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 서구	2007. 5. 4.	(서구)
12	2007. 6. 7.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 동구	2007. 4.11.	-
13	2007. 8.27.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강원도 춘천시	2007. 5.30.	속초시, (양양군)
14	2007. 8.27.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광주광역시 서구	2007. 7.18.	-
15	2007.12.28.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 목포시	2007.11. 2.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16	2008. 2. 1.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울산광역시 중구	2008. 1.17.	-

※ ()는 2011년 4월에서 2012년 4월 사이 설립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헌장 제3장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의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National Paralympic Committee)로서 외국에 대하여는 Korean Paralympic Committee(KPC)라 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6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구분	내용
설립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올림픽사업에 관하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대외적 교섭을 갖는 유일한 단체로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올림픽정신의 함양·보급, 스포츠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신체적 자질의 발전 도모, 국제친선, 세계평화 및 장애인의 지위와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 2. 스포츠유리의 증진, 반도핑 및 장애인올림픽운동(Paralympic Movement)을 전개하는 사업을 수행 3. 목적수행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할 수 있으나, 장애인올림픽헌장에 부합하여야 하며 독립을 유지

구분	내용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에 대해 한국을 대표 2. 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게임 등 IPC의 후원을 받는 세계선수권대회, 지역대회, 대륙대회, 대륙간대회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단을 파견·관리 3. 국내에 있어서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장애인올림픽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올림픽표장 등을 관리 4. 대회 이외의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IPC, APC 및 장애인아시아게임 사업에 대표자 선정 파견 및 주관 5. 장애인스포츠의학의 진흥과 IPC 및 국제장애인경기연맹이 금지한 약물의 사용 금지활동 6. 장애인올림픽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7.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의 스포츠교류 8. 제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국내 개최 시 개최도시 지명권 및 장애인올림픽헌장에 근거한 대회조직의 책임 9. 국제심판, 기술임원, 국제등급분류위원, 스포츠행정가 연수 및 국제장애인체육 관련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10.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재정

장애인체육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예산으로 집행된다. 2005년도 장애인체육예산은 약 49억 원이었으나, 장애인체육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화,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 및 장애인체육 추진체계·조직정비 등으로 매년 100~200%의 대폭 증가되어 왔다. 장애인체육은 2012년 467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장애인체육활동 여건 개선 및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장애인체육예산의 연도별 증가액 및 증가율은 다음의 표 6-7와 같다.

표 6-7 장애인체육예산의 연도별 증가추세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계	10,936	19,634	26,018	36,387	30,560	34,393	46,761
장애인 체육예산							
소계	9,731	18,308	23,729	34,579	27,769	32,293	43,961
국고	3,898	8,513	4,110	6,610	5,500	5,401	7,747
기금	5,833	9,795	19,619	27,969	22,269	26,892	36,214
장애인체육인 복지 사업	1,205	1,326	2,289	1,808	2,791	2,100	2,800
전년대비 증가액		8,698	6,384	10,369	△5,827	3,833	12,368
전년대비 증가율		79.5%	32.5%	39.9%	△16.0%	12.5%	35.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예산은 국가대표 훈련 지원, 국제대회 참가·개최, 국제교류 사업 추진, 국내 동·하계체육대회, 장애인실업팀 마련 등 전문체육(국제체육 포함) 육성을 위해 할애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2.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1)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운동 경험이 없는) 장애인들을 생활체육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꾸준히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생활체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동호인 지원 등),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어울림체육대회, 종목생활체육축제 등),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전통종목 육성 지원 및 장애인동호인클럽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6-8과 같다.

표 6-8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지원 현황

연 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지원
2008	생활체육교실(123개소), 동·하계 캠프(8개소), 동호인클럽(83개소)
2009	생활체육교실(182개소), 전통종목 육성(75개소), 동호인클럽(85개소)
2010	생활체육교실(265개소), 전통종목 육성(31개소), 동호인클럽(126개소)
2011	생활체육교실(264개소), 전통종목 육성(32개소), 동호인클럽(135개소)
2012	생활체육교실(352개소), 전통종목 육성(28개소), 동호인클럽(138개소)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또한 전국·지역 어울림생활체육체육대회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함께 어울리는 통합체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 6-9와 같다.

표 6-9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현황

연 도	어울림생활체육대회
2008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5개),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29회)
2009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9개),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25회)
2010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6개),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35회)
2011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8개),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37회)
2012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2개),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39회)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2) 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

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2000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개칭)에서 1993년부터 지도자 양성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총 569명의 지도자가 배출되었다. 현행법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과정을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을 활용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주도로 시·도 대학과 함께 운용하였고 총 1,214명을 양성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 6-10과 같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관련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스포츠지도자’가 신설되었다(2012.2.17. 개정, 2015.1.1. 시행).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지도자강습회의 교과목은 장애인체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이론 및 실기종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기종목은 국내 미보급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여 현장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10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현황

연 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내용
2008	5개 시·도(서울, 충남, 경기, 부산, 광주) 5개 대학 337명 수료
2009	5개 시·도(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남) 5개 대학 256명 수료
2010	6개 시·도(서울, 경기, 충남, 경북, 부산, 광주) 6개 대학 314명 수료
2011	6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 6개 대학 307명 수료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② 경기지도자 양성

장애인체육 분야에 있어서 비장애인 경기지도자에 상응하는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자자격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모두에 걸쳐 유일한 자격으로, 현재 국가대표 전임지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이수자에 한하여 임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에도 비장애인 전문체육의 경우와 같이 쿼터 시스템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체육 선수의 지도와 생활체육현장에서의 지도를 동일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지도자가 담당한다는 것은 양쪽 모두의 전문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특수체육학과 설치 대학 현황

198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유도대학(현 용인대학교)에 특수체육학과가 설치되었고, 1990년 비로소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의 발급이 인정되었으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개 대학에서 중등 특수체육교사 및 특수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며, 기타 체육 부전공 중등 특수교원자격증 소지자, 일반체육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육대학원 졸업자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표 6-11 특수체육 관련학과 현황(2012.12.)

구 분	학 교 명	학 과 명	설치연도
1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1988
2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1994
3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1998
4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02
5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03
6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04
7	한국국제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05
8	가야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2005
9	경주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	2005
10	신라대학교	체육학부(특수체육전공)	2006
11	나사렛대학교	특수체육학과	2008

※ 2007년 신설된 동의대학교 특수체육학과는 2011년 체육학과로 통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④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용

생활체육지도자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지정된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실제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현장의 지도수준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부터 장애인체육 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 수요 충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 20명의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시·도 11명, 경기단체 4명, 총 15명) 및 보조생활체육지도자(시·도 5명)를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총 39명(대한장애인체육회 15명, 시·도 24명), 2009년 시·도와의 매칭 펀드 방식에 의해 총 101명을 배치 활용하였다(대한장애인체육회 54명, 시·도 47명). 2010년에는 16개 시·도에 총 138명(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 68명, 시·도 지원 70명)이, 2011년에는 총 172명(대한장애인체육회 86명, 시·도 지원 86명)이 배치되었고, 2012년에는 총 190명(대한장애인체육회 95명, 시·도 지원 95명)이 배치되었다.

한편 재가 및 중증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상담,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현장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즉 디딤체육 단계에서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운동 참여 경험을 누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울림체육 단계로 변화를 주기 위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2011년 현재 16개 시·도별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팀’을 설치 및 운영하고, 대표전화(1577-7976)를 통하여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화’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체육활동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체육지도자자격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이 법제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 의무 채용에 관한 법률적 강제, 세부 배치기준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인된 장애인체육(스포츠)지도자를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

표 6-12 전일제지도자 배치 현황(2012.9.)

단위: 명

연 번	연 도	시 · 도	지원인원		합계
			대한장애인체육회	시 · 도	
1	2008	16	15	24	39
2	2009	16	54	47	101
3	2010	16	68	70	138
4	2011	16	86	86	172
5	2012	16	95	95	190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매칭방식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제2절 장애인대표선수 육성 및 지원 확대

1. 가맹경기단체 및 등록선수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종목별 경기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종목별 경기단체 31개로 2006년(22개) 대비 9개 가맹단체가 늘어났으며 유형별 체육단체 4개와 별도의 인정단체 10개를 포함할 경우 총 41개이다. 각 가맹경기단체는 각각의 시·도 지부(총 259지부)를 두어 활동하고 있으나, 단체별 편차가 매우 심한 실정이며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13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현황

구분	가맹경기단체명	창립일	가맹일	시·도·지부	비고
1	대한장애인축구협회	2004. 9. 9.	2006. 4. 27.	3	종목별 경기단체
2	대한장애인골볼협회	2006. 2. 3.	2006. 4. 27.	11	
3	대한장애인농구협회	1997. 4. 25.	2006. 4. 27.	11	
4	대한장애인럭비협회	2004. 12. 19.	2006. 4. 27.	8	
5	대한장애인농볼연맹	1992. 5. 16.	2006. 4. 27.	15	
6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2000. 2. 15.	2006. 4. 27.	14	
7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2006. 3. 18.	2006. 4. 27.	10	
8	대한장애인볼링협회	2002. 12. 12.	2006. 4. 27.	15	
9	대한장애인사격연맹	1997. 4. 15.	2006. 4. 27.	13	
10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1993. 7. 10.	2006. 4. 27.	8	
11	대한장애인수영연맹	2003. 3. 22.	2006. 4. 27.	8	
12	대한장애인스키협회	2001. 10. 20.	2006. 4. 27.	4	
13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2003. 2. 21.	2006. 4. 27.	2	
14	대한장애인양궁협회	2004. 4. 4.	2006. 4. 27.	9	
15	대한장애인역도연맹	1996. 2. 28.	2006. 4. 27.	12	
16	대한장애인육상연맹	2002. 2. 25.	2006. 4. 27.	5	
17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1993. 10. 7.	2006. 4. 27.	10	
18	대한장애인펜싱협회	2004. 11. 28.	2006. 4. 27.	7	
19	대한장애인배구연맹	2006. 2. 26.	2006. 4. 27.	11	
20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2002. 7. 28.	2006. 4. 27.	15	
21	대한장애인조정연맹	2006. 7. 8.	2006. 7. 31.	8	
22	대한장애인탁구협회	1993. 8. 20.	2006. 7. 31.	15	
23	대한장애인컬링협회	2007. 3. 27.	2007. 10. 16.	5	
24	대한장애인요트연맹	2006. 12. 15.	2007. 10. 16.	4	
25	대한장애인유도협회	2006. 12. 15.	2007. 10. 16.		
26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1988. 3. 26.	2009. 9. 18.		유형별 체육단체
27	대한장애인승마협회	2006. 4. 2.	2009. 9. 18.		
28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1978. 5. 1.	2006. 4. 27.		
29	대한농아인체육연맹	1982. 12. 30.	2006. 7. 31.	16	
30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2006. 1. 18.	2006. 4. 27.	16	
31	대한지적장애인스포츠협회	2005. 8. 20.	2006. 4. 27.	4	
소 계				223	

구분	가맹경기단체명	창립일	가맹일	시·도지부	비고
32	대한장애인골프협회	2004. 9. 19.	2007. 10. 16.		인정단체
33	전국장애인바둑협회	1999. 7. 25.	2007. 10. 16.		
34	대한장애인탁구연맹	2007. 4. 13.	2007. 10. 16.		
35	대한장애인소프트볼아구협회	2007. 6. 15.	2007. 10. 16.		
36	대한장애인테니스포츠포럼	2008. 9. 24.	2009. 5. 18.		
37	대한장애인당구협회	2009. 1. 31.	2009. 5. 18.		
38	대한장애인검도회	2005. 10.23.	2009. 5. 18.		
39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2008. 11.11.	2010. 2. 19.		
40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2010. 10. 3.	2011. 12. 17.		
41	대한장애인궁도협회	2010. 11.28.	2011. 12. 27.		

※ 인정단체의 경우 시·도지부 현황 제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수 현황 파악 및 지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8년 2월부터 선수등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경기단체별 각 경기단체별 선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는 표 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개 시·도에 1만 2,978명(2012년 9월 현재)이 등록되어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1,529명)와 경기도(1,839명)의 등록선수가 가장 많아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였으며, 부산(1,000명)과 충북(873명)이 그 뒤를 잇고 있고, 대부분의 시·도는 700~600명 내외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다.

표 6-14 시·도별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 현황

연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2008	911	494	426	420	383	302	310	911	458	444	464	387	384	358	492	141	7,285
2009	874	469	565	513	373	404	874	469	565	513	373	404	439	469	565	513	8,382
2010	1,187	575	661	646	469	630	435	575	661	646	469	630	613	575	661	646	10,079
2011	1,303	658	804	750	624	662	515	658	804	750	624	662	612	658	804	750	11,638
2012	1,529	726	766	734	629	763	528	1,839	609	873	638	604	543	751	1,000	446	12,978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12.9.)

장애유형별로 선수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6-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현재 절단·기타장애(4,914명)와 지적장애(3,190명)가 가장 많고, 척수장애(1,318명)와 뇌성장애(1,061명), 시각장애(1,048명), 청각장애(547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 장애선수도 487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장애유형별 경기단체 등록선수 현황

연 도	절단/기타	시각	척수	뇌성	지적	청각	비장애	소계
2009	2,219	739	1,034	655	2,207	1,179	232	8,265명
2010	3,088	966	1,299	758	2,513	1,223	311	10,158명
2011	4,265	1,100	1,905	2,769	1,672	594	827	13,132명
2012	4,914	1,048	1,318	1,061	3,190	547	487	12,565명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등록시스템(2012.9.)

2. 전문체육

(1) 국내 대회 개최

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체육인의 경기력 향상 및 지방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장애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매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981년 유엔(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제5회 대회부터 1987년 제7회 대회까지는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였다. 제8회 대회는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로 인하여 열리지 않았으며 제9회 대회부터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매년 개최되었다. 2000년 제20회 인천대회부터는 전국체육대회 개최장소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여는 방식으로 규정을 변경하여 2001년 부산, 2003년 충남, 2004년 전북에서 대회를 거행하였으며(2002년은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미 개최), 2005년 제

25회 대회부터 종합점수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7년 대회는 광역시·도에서 벗어나 김천시에서 대회를 주관하여 경북 일원 7개 지역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루었다. 2008년 광주광역시대회는 16개 시·도지부가 모두 설립되어 치뤄진 첫 대회로서 전년대비 25%의 선수단 참가 증가율을 보였고, 대진추첨시스템 전산화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대진추첨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대회였다. 2009년 전남 여수대회에서는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9개 종목 참가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중복참가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1년부터 일반대회와 동반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와 더불어 2015년부터 동반 개최될 예정이다(표 6-16 참조).

표 6-16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체육대회	경남진주 (제91회)	경기고양 (제92회)	대구 (제93회)	인천 (제94회)	제주 (제95회)	(제9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전 (제30회)	경남진주 (제31회)	경기고양 (제32회)	대구 (제33회)	(인천) (제34회)	(제35회)

※ 1998년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장애인올림픽으로 제8회 대회 미개최

※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로 제22회 대회 미개최

※ 2012년과 2013년은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개최 시·도를 변경함(2009년 12월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정)

※ 201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는 201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2015년부터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동일시·도에서 동일년도에 개최될 예정임

※ 201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 개최 여부는 인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표 6-17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최기간	개최지	개최 종목	참가선수단(명)			순 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1회	1981.10. 2.~10. 4.		5	1,011	761	250			
2회	1982.10.11.~10.12.		7	1,295	945	350			
3회	1983.9.15.~9.16.		7	1,140	860	280			
4회	1984.10.24.~10.25.		8	1,507	1,157	350			
5회	1985.10.19.~10.20.		7	1,624	1,224	400			
6회	1986.10.11.~10.13.		9	1,733	1,314	419			
7회	1987.9.19.~9.22.		16	1,932	1,500	432			

회수	개 최 기 간	개최지	개최 종목	참가선수단(명)			순 위		
				계	선수	임원	1위	2위	3위
8회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관계로 개최하지 않음								
9회	1989.10.15.~10.17.		16	1,469	1,129	340	서울	경기	대구
10회	1990.5.14.~5.26.		15	1,443	1,052	391	서울	경기	경남
11회	1991.5.22.~5.24.		16	1,588	1,189	399	서울	경기	경북
12회	1992.5.7.~5.9.		16	1,708	1,304	404	서울	경기	부산
13회	1993.5.25.~5.27.		16	1,637	1,222	415	서울	경기	경남
14회	1994.5.14.~5.16.		16(시범1)	1,733	1,310	423	서울	경남	부산
15회	1995.5.23.~5.25.		17	1,695	1,276	419	경기	서울	부산
16회	1996.5.14.~5.16.		17	1,740	1,305	435	경기	서울	대구
17회	1997.5.20.~5.22.		17	1,756	1,340	416	경기	서울	충북
18회	1998.5.19.~5.21.		17	1,744	1,312	423	경기	서울	충북
19회	1999.5.25.~5.27.		17	1,766	1,334	432	경기	서울	충북
20회	2000.6.13.~6.15.	인천	17	1,867	1,375	492	경기	서울	충북
21회	2001.5.9.~5.11.	부산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부산
22회	제22회 대회는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하지 않음								
23회	2003.5.14.~5.16.	충남	17	2,020	1,500	520	경기	서울	충남
24회	2004.5.11.~5.14.	전북	17	2,291	1,656	635	경기	서울	충남
25회	2005.5.10.~5.13.	충북	18	2,586	1,885	701	서울	경기	충남
26회	2006.9.12.~9.15.	울산	19(시범1)	3,272	2,462	810	경기	서울	부산
27회	2007.9.10.~9.14.	경북 (김천)	22 (시범1, 전시1)	4,031	2,991	1,040	경기	서울	경북
28회	2008.10.5.~10.9.	광주	23 (전시2)	5,459	3,987	1,472	경기	서울	광주
29회	2009.9.21.~9.25.	전남 (여수)	24	6,350	4,692	1,653	경기	서울	충북
30회	2010.9.6.~9.10.	대전	24(전시1)	6,746	4,825	1,013	경기	서울	대전
31회	2011.10.17.~10.21.	경남 (진주)	27	7,095	4,964	2,131	경기	서울	경남
32회	2012.10.8~10.12	경기 (고양)	27	6,995	5,145	1,850	경기	서울	인천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보고서》

②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장애인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국대회를 통한 우수 선수 발굴 및 신인선수 발굴 육성,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200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대회 개최 현황은 다음의 표 6-18과 같다.

표 6-18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현황

회수	개 최 기 간	개최장소	참가종목	참가선수단(명)			참 가 대 상	주 최
				계	선수	임원		
1회	2004. 2.24.(화) ~2.25.(수)	용평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빙상	150	100	5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각 경기연맹
2회	2005. 2.17.(목) ~2.18.(금)	용평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150	80	7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관: 각 경기연맹
3회	2006. 2.22.(수) ~2.24.(금)	보광휘닉스파크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시범종목)	209	102	107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슬레지 하키협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국스피셜올림픽위원회
4회	2007. 2.21.(수) ~2.24.(토)	강원랜드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시범)	224	117	10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정신지체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종목별 경기단체
5회	2008. 2.19.(화) ~2.22.(금)	하이원 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울산과학 대학빙상장	알파인스키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크로스컨트리	446	215	231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한국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대한장애인컬링협회 한국스피셜올림픽위원회
6회	2009.2.10.(화) ~2.13.(금)	하이원스키장 춘천의암 빙상장 의성컬링경기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429	304	125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종목별 경기단체
7회	2010.1.26.(화) ~1.29.(금)	하이원스키장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동천빙상장 춘천의암 빙상장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660	330	330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종목별 경기단체
8회	2011.2.15.(화) ~2.18.(금)	하이원스키장 동천빙상장 창원서부스포츠허브센터 춘천의암 빙상장	스키 빙상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685	338	347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종목별 경기단체
9회	2012.2.28.(화) ~3.2.(금)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리조트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빙상 휠체어컬링 아이스슬레지하키	731	365	366	척수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지적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청각장애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전라북도,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제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결과보고서》

(2) 경기력 향상 지원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전국체전 등 국내 대회 개최를 통한 동기 부여와 더불어 장애인올림픽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를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의 발전과 국제대회 참가쿼터 확보 및 우수 메달 확보를 통해 장애인체육의 국제무대 경기력 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국가대표 상시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국가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수당, 급량비, 숙박비 및 훈련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상시훈련은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종목, 미참가종목 및 동계종목을 구별하여 국제대회계획에 따른 효율적 훈련이 진행되도록 훈련 지원을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준비 훈련 시에도 상시훈련 100일에 특별훈련 50을 추가 편성하여 경기당 평균 165일의 훈련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로 한 종합 13위 보다 한 단계 올라간 종합 12위(금 9, 은 9, 동 9)의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동계훈련과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계종목 대비 및 국가대표 후보군 훈련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선수 훈련 지원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의 표 6-19와 같다.

표 6-19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훈련 지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제 대회 참가	13종목 132명 평균 45~150일 (베이징올림픽)	9종목 95명 평균 50일 (농아인올림픽)	19종목 282명 평균 64일 (광저우아시아)	국제대회 미참가	13종목 201명 평균 165일 (런던올림픽)
국가 대표 미참가	9종목 143명 평균 20일	24종목 337명 평균 40일	7종목 113명 평균 33일	29종목 435명 평균 62일	14종목 222명 평균 40~60일
동계 종목 훈련	4종목 56명 평균 50일	3종목 41명 평균 60일	3종목 42명 평균 55일	3종목 40명 평균 60일	3종목 40명 평균 70일
국가 대표 후보 선수 후보 훈련	15종목 218명 평균 23일	21종목 175명 평균 34일	24종목 209명 평균 33일	15종목 167명 평균 30일	18종목 180명 평균 20일, 아태농아 및 스페셜 추가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외에 국가대표선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훈련 지원을 위한 연 관 사업으로 장애인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는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단체별 추천 지도자를 국가대표 전임지도자로 배치, 지도자수당을 지원하였고 연도별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은 다음의 표 6-20과 같다.

표 6-20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 현황

종목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임지도자	10	10	18	12	12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3) 체육인 복지 사업

체육인 복지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에 의거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력 향상연금 등 총 8개 분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체육 선수의 경우 2005년까지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정 관 제2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우수 선수연금 지원사업이 실시되었고, 2006년부터는 일반체 육선수 경기력 향상연금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일반 선수 연금지급액의 60%(2005년) 수준에서 80%(2007년)로 지급하던 것이 2008년부터는 100%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장애인선수연금의 경우 월정액으로 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으로 전환되어 비장애인선수와 마찬가지로 일시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졌다(2008년 일시금 수령자 1명). 지급 대상 대회는 장애인을 림픽대회와 세계농아인올림픽대회이며, 연금지급액은 선수 월정금의 경우 평가점수 30점 까지는 10점당 15만원씩, 평가점수 30점 초과부터 10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7만 5 천 원씩, 평가점수 100점 초과부터 110점까지는 초과점수 10점당 2만 5천 원씩 부가하여 산출 지급하되,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에 한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초 과점수가 장애인올림픽대회 금메달인 경우에는 10점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 다.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의 결과에 따라 10월부터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12 년 런던올림픽대회 이후에는 올림픽 금·은·동메달의 연금 격차를 현행 100:45:30에서

100:75:52.5로 조정하였고, 이전 올림픽메달리스트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연차별 지급 현황은 다음의 표 6-21과 같다.

표 6-21 경기력 향상연구연금(2005년 이전 명칭 '장애인선수연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지급대상)
지	152명	160명	168명	168명	165명	180명	199명	204명	210명	219명	장애인올림픽 대회 및
지급액	923	1,062	1,004	1,205	1,196	1,829	1,808	1,515	1,540	1,580	농아인올림픽 대회

출처: 보건복지부(2003~2004년) 및 국민체육진흥공단(2005~2012년)

그리고 2007년부터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 외에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상해보험),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체육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경기지도자연구비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6-22와 같다.

표 6-22 경기력 향상연구연금 외 체육인 복지 사업 지급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선수·지도자보호 지원금 (상해보험)	250명 24,586천 원	236명 14,300천 원	289명 12,281천 원	385명 11,372천 원	462명 30,000원	450명 30,000원
복지후생금 (생활보조비)	16명 32,000천 원 (연인원 192명)	16명 → 11명 69,500천 원 (연인원 139명)	11명 60,500천 원 (연인원 121명)	20명 46,000천 원 (연인원 92명)	20명 74,000천 원 (연인원 148명)	17명 102,000천 원 (연인원 204명)
체육장학금	50명 65,000천 원	11명 12,000천 원	40명 52,000천 원	36명 50,000천 원	36명 50,000천 원	56명 80,000천 원
대학원진학장학금	-	-	-	5명 15,000천 원	4명 15,165천 원	1명 1,655천 원 (상반기)
경기지도자연구비	-	21명 362,100천 원	14명 505,400천 원	18명 525,600천 원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07~2012년)

(4) 실업팀 지원

장애인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 입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자체와 기업 등의 후원을 받는 장애인실업팀은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인에게 고용 여건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실업팀 확대를 위한 개선책으로 2012년에 신규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실업팀 창단과 기존 장애인실업팀 및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비장애인실업팀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선수의 안정적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로 2012년에 신규로 창단된 8개 팀, 장애인선수가 입단하는 3개의 비장애인실업팀, 기존에 창단되어 운영되어오던 13개 팀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2년 현재까지의 장애인체육실업팀 창단 현황은 다음의 표 6-23과 같다.

표 6-23 장애인체육 실업팀 현황(2012.9.)

번호		시·도		장애인실업팀 현황									
				소속기관	운영기관	종목	구분	인원(명)					창단/입단
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13	—			16개		165	19	15	4	127	
1	서울	서울시청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W 농구	기존팀	12	1			1	10	2010.3.4.	
2		서울시청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탁구	창단	5	1				4	2012.7.1.	
3	부산	부산동구청	좌동	역도	기존팀	6	1	1			4	2011.1.1.	
4		부산지방공단 SPO1	좌동	사이클 (텐덤)	입단	3	1	1			1	2010.3.	
5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좌동	수영	기존팀	3		1			2	2011.6.1.	
6	인천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	기존팀	5		1			4	2010.4.29.	
7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역도	기존팀	5		1			4	2010.4.29.	
8	대구	달성군청	달성군청	W테니스	기존팀	4	1				3	2007.1.1.	
9		대구시청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탁구	창단	6		1			5	2012.2.10.	
10		대구시청	전석복지재단	W농구	기존팀	12	1	1			10	1996.1.	

번호		시·도	장애인실업팀 현황									
			소속기관	운영기관	종목	구분	인원(명)					창단/입단
							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11	대 전	대전 장애인체육회	대전 장애인체육회	양 궁	기존팀	5	1			4	2010.1.	
12		대전 장애인체육회	대전 장애인체육회	탁 구	기존팀	7	1	1		5	2011.12.27.	
13		대전 장애인체육회	대전 장애인체육회	수 영	창단	7	1			6	2012.9.	
14	광 주	광주광역시청	좌동	탁 구	기존팀	6	1	1		4	2011.3.9.	
15	울 산	울산광역시청	울산시 장애인체육회	육 상	기존팀	5	1			4	2007.11.	
16	경 기	스포츠포토	좌동	W테니스	창단	6	1	1		4	2011.11.15.	
17		양평군	좌동	유도 (시각)	입단	2	1			1	2012.4	
18		(주)휠라인	좌동	W펜싱	창단	5	1			4	2012.9	
19		광주시	좌동	육상	입단	2	1			1	2010.1	
20	강 원	강원도청	좌동	아이스 하키	기존팀	14		1	2	11	2006	
21		강릉시청	좌동	사 격	기존팀	3				3	2008	
22		하이원리조트	좌동	스 키	기존팀	5		2		3	2008	
23	충 북	청주시청	좌동	사 격	기존팀	8		1	1	6	2004	
24		신체장애인 복지회	좌동	W펜싱	창단	5	1			4	2012.5	
25		충북 장애인체육회	좌동	수 영	창단	7	1			6	2012.2.8	
26	충 남	천안시청	좌동	좌식배구	창단	11	2			9	2011.4.19	
27		한국수자원 공사	좌동	조 정	창단	3		1		2	2011.11.9	
28	경 남	거창군	좌동	탁구 (농아)	입단	1				1	2012.4	
29	제 주	제주도청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육상	기존팀	1				1	2011.3	
30		제주도청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수영	기존팀	1				1	2011.3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5)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전문체육시설(국가대표선수 선수촌) 확보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기반시설 확보의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천장애인종합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체육계의 숙원 사업으로서, 2006년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을 계기로 정식 정부정책 사업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훈련원은 전문체육 상시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개원 첫해에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를 대비해 수영장을 활용한 아이스링크에서 컬링 종목의 집중 훈련 결과 동계종목 최초 단체인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2012년 제14회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도 금 9, 은 9, 동 9, 총 2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12위 성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전문체육 상시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의 건립내역(표 6-24)과 활용계획(표 6-25)은 다음과 같다.

표 6-24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 건립내역

구 분	시설 주요 내역 및 규격(규모)	비 고
건 축 면 적	24,127㎡(7,229평 / 지하1층, 지상 4층)	
종합체육관	제1체육관 (종합플로어)	농구코트 3면 크기
	제2체육관 (실내수영장)	50m×8레인
	제3체육관 (테니스장)	테니스코트 2면 크기
	제4체육관 (개별종목실)	역도 · 펜싱 · 탁구 · 유도 · 골볼장, 체력단련실
생활관 (숙소, 식당, 사무실)	2인 84실 168명, 4인 16실 64명(총 100실 232명 이용) 식당, 주방, 관리사무실	8,940㎡ (2,704평)
운동장 (육상장, 축구장)	육상장: 트랙, 투척 · 도약장 축구장: 훈련용 잔디	23,800㎡ (7,200평)
기타시설	조경, 정문	479㎡ (145평)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표 6-25 이천장애인체육종합체육시설의 종목별 공간사용계획(14개 종목 활용)

시 설 명	사 용 종 목	비 고
제1체육관	휠체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휠체어력비	5개 종목
제2체육관	수영 / 타 종목 기초체력훈련	1개 종목
제3체육관	테니스 / 타 종목 공동사용	1개 종목
제4체육관	역도 · 펜싱 · 탁구 · 유도 · 골볼 / 체력단련실(공동사용)	5개 종목
운 동 장	육상, 축구, 타 종목 기초체력훈련	2개 종목

※ 사격, 양궁, 론볼, 사이클 종목은 지자체 시설을 활용한 혼외시설로 운영

※ 2010년 밴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대비 컬링 종목의 경우 훈련시설의 설의 어려움으로 수영장시설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하여 훈련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제3절 국제대회 우수 성과 거양 및 스포츠외교력 강화

1. 국제교류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등 각종 국제장애인체육 기구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가입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교류활동을 하였으나 통합관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변화하는 국제장애인체육계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2006.5.12.)가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KPC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기구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며 국 제교류 및 국제대회 · 회의 참가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제13회 베이징장 애인올림픽대회와 2010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해 한국홍보 관 및 프레스센터 운영, 국제스포츠외교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2010 광저우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기간 중 KPC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선수단 의 편의 지원과 주요 인사 활동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IPC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과 각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NPC) 위원장 초청을 통해 이천훈련원 방문 및 홍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 참석과 한국 정부

의 장애인스포츠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20개 국가와 스포츠교류협약서(LOI), 6개 국가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 장애인올림픽대회의 효시가 된 1988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장애인스포츠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장애인올림픽정신 제고 및 국제장애인스포츠 정책방향 수립에 일조하였다.

표 6-26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가입 현황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 국제뇌성마비인경기연맹(CP-ISRA)
▶ 기타 단체 가입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농아인체육연맹 -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한국지적장애인스포츠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농아인스포츠경기연맹(ICSD) •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IBSA) • 국제휠체어및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IWAS) • 국제지적장애인경기연맹(INAS-FID)

※ ISMWSF와 ISOD는 2004년 IWAS(국제휠체어절단장애인스포츠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

※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은 2006년 APC로 통합출범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08, 2009)

(1)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s)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기본이념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우정과 이해의 증진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올림픽이념과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조화시킨 것이다. 즉 올림픽이 인종, 국가, 정치, 문화 및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화합, 나아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범세계적인 축제로서 세계 젊은이들의 힘과 기록의 제전이라면, 장애인올림픽대회는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제이다.

①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때부터 장애인올림픽대회(Paralympics)를 동반 개최하게 된 것이 국제관례로 이어져 오다가 모든 장애인스포츠를 조직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국제장애

인스포츠키구인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설립(1997년)된 이후 2000년 시드니장애인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IOC와 IPC간의 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올림픽대회를 유치한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장애인올림픽대회가 동반 개최되고 있다. 2008년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는 전 세계 147개국 총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 131명(선수 77, 임원 54)이 금 10, 은 8, 동 13개를 획득함으로써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2012년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는 전 세계 164개국 총 6,7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 134명(선수 88명, 임원 46명)이 금 9, 은 9, 동 9개를 획득하여 종합 12위를 차지하였다.

표 6-27 하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 수	연 도	개최장소	참가장애	규 모	한국 선수단 입상 현황			비 고
					종목	임원/선수	결과	
1	1960	로마 (이탈리아)	척수장애	23개국 (550명)	-	-	-	
2	1964	동경 (일본)	척수장애	22개국 (515명)	-	-	-	
3	1968	텔아비브 (이스라엘)	척수장애	29개국 (1,100명)	2	10 (4/6)	-	처음 참가
4	1972	하이델베르크 (독일)	척수장애	44개국 (1,400명)	2	16 (6/10)	금4/은2/동1	첫메달 획득
5	1976	토론토 (캐나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42개국 (2,660명)	2	11 (4/7)	금1/은2/동1	종합27위
6	1980	안헴 (네덜란드)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시각장애 뇌성마비	42개국 (3,406명)	2	15 (5/10)	금2/은2/동1	종합26위
7	1984	뉴욕 (미국)	뇌성마비/시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45개국 (2,500명)	6	25 (11/14)	동1	동반개최 종합37위
		에일즈버리 (영국)	척수장애	45개국 (1,422명)	2	24 (12/12)	은2/동1	
8	1988	서울 (한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61개국 (4,103명)	16	366 (130/236)	금40/은35/ 동19	종합 7위
9	1992	바르셀로나 (스페인)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82개국 (4,242명)	10	92 (27/65)	금11/은15/ 동18	종합 12위

회 수	연 도	개최장소	참가장애	규 모	한국 선수단 입상 현황			비 고
					종목	입원/선수	결과	
10	1996	애틀랜타 (미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	103개국 (4,750명)	13	92 (28/64)	금13/은2/ 동15	종합 12위
11	2000	시드니 (호주)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23개국 (6,032명)	13	119 (30/89)	금18/은7/동7	종합 9위
12	2004	아테네 (그리스)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36개국 (6,274명)	13	123 (41/82)	금11/은11/ 동6	종합 16위
13	2008	북경 (중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47개국 (7,000여 명)	13	131 (54/77)	금10/은8/ 동13	종합 13위
14	2012	런던 (영국)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뇌성마비 시각장애/정신지체	165개국 (7,000여 명)	13	134 (46/88)	금9/은9/동9	종합 12위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2), 《제14회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보고서》

②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1976년 스웨덴 외른설드스비크(Sweden-Ornskoldsvik)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하계대회가 올림픽 개최국가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비해 동계대회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Tignes-Albertville)에서 열린 제5회 대회를 계기로 동계올림픽 개최국가에서 동반 개최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Lillehammer), 1998년 일본 나가노(Nagano)대회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개최되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와 2006년 이태리 토리노에서 개최된 제8회와 제9회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는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하여 동일 조직 안에서 조직, 인력, 물자, 시설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반 개최하는 것이 의무화됨으로써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향후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서 연중 기술 강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며, 선수 저변 확대 및 최신 장비 보급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표 6-28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현황 및 한국 참가성적

회수	연 도	개 최 지	참가장애	참가국가	대회규모 (선수)	한국 선수단		비 고
						선수 (여자)	성적	
1	1976	오른힐츠비크(스웨덴)	시각 기타장애	17	250	-	-	
2	1980	게일로(노르웨이)	전 장애인	18	350	-	-	
3	1984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전 장애인	21	457	-	-	
4	1988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전 장애인	22	397	-	-	
5	1992	티니/알베르빌(프랑스)	전 장애인	24	475	2	-	첫 참가
6	1994	릴리함메르(노르웨이)	전 장애인	31	492	2	-	
7	1998	나가노(일본)	전 장애인	32	571	4(1)	-	
8	2002	솔트레이크(미국)	전 장애인	36	416	6(1)	은1	개인 첫 메달
9	2006	토리노(이탈리아)	전 장애인	39	486	3	-	
10	2010	밴쿠버(캐나다)	전 장애인	44	505	25 (2)	은1	컬링 단체전 첫 메달
11	2014	소치(러시아)	전 장애인			개최 예정		

출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공식홈페이지(2009, 2010), [HTTP://WWW.PARALYMPIC.ORG](http://www.paralympic.org)

(2)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극동 및 아시아남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FESPIC Games;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는 아시아 지역과 남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4년마다 개최하는 스포츠행사였다. 1970년 인도네시아 YPOC 단체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을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 재활 사업을 목적으로 한 스포츠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가칭 ASSOD(아세안장애인스포츠기구) 설립을 관계국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일본 오이타의 유다카 나카무라 박사는 설립될 장애인스포츠기구의 회원을 아세안 5개국뿐만 아니라 극동 및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여 이에 대한 최종합의를 하고 1974년 10월 8일 일본 오이타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연맹(FESPIC Federation)을 정식 발족하였다. 그

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추구하는 지역위원회 설립에 따라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로 병합(2006)되면서 2010년 대회부터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 개최되었다.

표 6-29 역대 아·태장애인경기대회(향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연도	개최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 선수단 참가 현황		
				인원 (선수/임원)	메달 획득 (금/은/동)	종합순위
1	1975	일본(오이타)	18/973	—	—	
2	1977	호주(파라마타)	16/430	6	6/-/1	
3	1982	홍콩	23/744	11	8/4/3	
4	1986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	19/834	76 (62/14)	40/19/9	
5	1989	일본(고베)	41/1,648	114 (78/36)	73/29/29	4위
6	1994	중국(북경)	45/2,081	131 (93/38)	48/28/17	3위
7	1999	태국(방콕)	42/2,500	137 (104/33)	31/26/27	4위
8	2002	한국(부산)	40/2,268	425 (303/122)	63/67/60	2위
9	200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47/3,000	256 (166/90)	58/42/43	3위
10	2010	중국(광저우)	41/5,000	300 (198/102)	27/43/33	3위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0)

(3)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를 통하여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종합국제대회 참가쿼터 확보 및 종목별 경기력 향상 제고에 기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또한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를 통하여 국제대회 경기운영 노하우 획득, 국내외 선수들의 대회 참여를 통한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 및 우리나라의 국제장애인스포츠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2012년 국제대회 국내 개최는 IWTF 휠체어테니스세계선수권대회 등 총 8개 대회였으며, 국제대회 참가는 IPC 역도오픈선수권대회 등 총 15개 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올림픽 출전권 획득 및 경기력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6-30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연 도	국제대회 개최	국제대회 참가
2008	5개 대회(IPC 알파인스키대회, 서울 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등)	12개 대회(휠체어컬링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휠체어펜싱대회 등)
2009	5개 대회(아시아오픈사격선수권대회, 탁구세계선수권대회 등)	14개 대회(IPC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IBSA 세계유소선선수권대회 등)
2010	3개 대회(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I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등)	13개 대회(IPC 월드컵노르딕대회, CPISRA 보치아세계선수권대회 등)
2011	7개 대회(농아인배드민턴세계선수권대회, 수원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등)	18개 대회(APC 크로스컨트리선수권대회, IBD 론볼세계선수권대회 등)
2012	8개 대회(IWTF 휠체어테니스세계선수권 대회, 아태농아인종합경기대회 등)	15개 대회(IPC 역도오픈선수권대회, IPC 아이스레지하키세계선수권대회 등)

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4) 농아인올림픽대회(데프림픽대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기구는 여러 국가에서 1차 대전 이전에 조직되었지만(독일의 경우 1888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스포츠기구가 발족됨) 1924년 이전까지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국제청각장애인경기대회(International Games for the Deaf / International Silent Games)로 시작된 농아인 올림픽대회(Deaflympics)는 1969년 제11회 유고 벨그레이드(Belgrade)대회부터 청각장애인월드게임(World Games for the Deaf)으로 개최되던 것이 2001년 제19회 이탈리아 로마대회부터 지금의 Deaflympic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49년 시작된 동계 대회는 1949년 4회 스위스 몬타나대회부터 하계대회 개최년도 중간년도에 개최되고 있다. 동·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올림픽대회로서 스포츠를 통한 심신단련과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5회 대회에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하였고, 제16회 대회에서는 29명(선수21, 임원8)의 선수단 참가, 제17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사이클, 탁구 4개 종목 36명(선수25, 임원11)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나 입상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에는 육상, 축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회 참가 처음으로 육상 남자 100m 채경완 선수와 배드민턴 여자단식의 박혜연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회원국도 최근에 대만,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가입하여 72개국에 되었으며, 한국은 1984년 6월 1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경기종목으로는 육상경기, 배드민턴, 사이클, 사격, 수영, 탁구, 테니스, 레슬링, 농구, 축구, 핸드볼, 배구, 수구(Water-Polo), 볼링, 오리엔티어링 등 15개 종목이 있고, 참가자격은 국제연맹의 규정에 따른 아마추어로서 잘 들리는 쪽의 귀의 청력상실 정도가 55데시벨(dB) 이상인 농아인만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은 없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21회 타이페이대회에는 총 94명(선수 63, 임원 31)이 참가하여 금 14, 은13, 동 7의 메달을 획득, 종합 3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2011년 동계대회는 체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않았고 2013년 제22회 하계대회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6-31 역대 하계농아인올림픽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연도	개 최 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 선수단 참가 현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금/은/동)	종합 순위
1회	1924	파리(프랑스)	9/145	-	-	-
2회	1928	암스테르담(네덜란드)	10/210	-	-	-
3회	1931	뉴렌베르크(독일)	14/316	-	-	-
4회	1935	런던(영국)	12/293	-	-	-
5회	1939	스톡홀름(스웨덴)	13/264	-	-	-
6회	1949	코펜하겐(덴마크)	14/405	-	-	-
7회	1953	브뤼셀(벨기에)	16/524	-	-	-
8회	1957	밀라노(이탈리아)	25/625	-	-	-
9회	1961	헬싱키(핀란드)	24/595	-	-	-
10회	1965	워싱턴(미국)	27/697	-	-	-

회수	개최연도	개 최 지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 선수단 참가 현황		
				인 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금/은/동)	종합 순위
11회	1969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33/1183	—	—	—
12회	1973	말뫼(스웨덴)	32/1061	—	—	—
13회	1977	부쿠레슈티(루마니아)	32/1118	—	—	—
14회	1981	켈른(독일)	32/1213	—	—	—
15회	1985	로스앤젤레스(미국)	29/1053	19(9/10)	—	—
16회	1989	크라이스트처치(뉴질랜드)	30/959	30(8/22)	—	—
17회	1993	소피아(불가리아)	51/1705	36(11/25)	—	—
18회	1997	코펜하겐(덴마크)	62/2068	40(11/29)	—/—/2	38위
19회	2001	로마(이탈리아)	71/2405	44(16/28)	4/ 4/ 4	11위
20회	2005	멜버른(호주)	80/4000	50(15/35)	6/ 5/ 5	10위
21회	2009	타이페이(대만)	77/2493	94(31/63)	14/13/7	3위
22회	2013	불가리아(소피아)	개최예정	참가예정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09), Deaflympics(<http://www.deaflympics.com>)

(5) 스페셜올림픽대회

①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유치배경

우리나라는 1979년 제5회 뉴욕(미국) 하계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2011년 제13회 아테네(그리스) 대회까지 지속적인 참가를 해 왔으며 참가단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법인을 설립(회장 나경원)하여 한국의 지적발달 장애인이 스페셜올림픽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경기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 및 가족 구성원과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촌 구성원들과도 우애를 나누고 재능을 평가받게 하여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법인 설립과 함께 ‘2013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2008.2.19.) 유치 결의를 시작으로 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대회를 통하여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② 유치과정

2008년 2월 19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에서 2012년 동계대회 유치를 결의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30일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유치를 본격화하였다. 2010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세계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대회 개최 예정지에 대한 사전답사가 있었고 2010년 2월 17일 세계스페셜올림픽위원회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평창’을 2012년 세계동계대회 개최지로 승인하였다.

③ 대회 개요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①최고의 스페셜올림픽을 구현하여 최고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②스페셜올림픽 운동이 지속가능하도록 발전 모델을 확산합니다. ③지적장애인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꾀하고 스페셜올림픽 운동을 확산합니다.’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회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대회이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 대회기간: 2013. 1. 29.(화)~2. 5.(화), 8일간
- 개최장소: 평창(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실내빙상경기장)
- 경기종목: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
 - ※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 스노우슈잉,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플로어하키
- 참가규모: 113개국 3,300여 명(선수 2,300명, 임원 1,000명) 등 총 15,000여 명
- 주 최: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SOI)
- 주 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SOPOC)

④ 대회 준비 현황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준비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 운영(2010.12.~),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2011.4.), 지원특별법 제정(2011.4.) 등 대회 준비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시설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대회 운영 관리를 위한 각종 IT 시스템 구축·보완(2011.3.~12.),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계획 수립(2011.4.), 프레(Pre) 대회 대비 경기

장과 각종 시설 안전점검 및 보완을 추진하였으며, 상징물 개발, 개·폐회식, 성화 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2011.3.~12.), 대회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주제가 등) 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2011.4.), 자원봉사자 발대식(2011.5.) 등 대회 붐 조성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대회 준비 지원을 위하여 여러 차례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회의를 통하여 준비상황 및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재정 및 정부부처 협력 사항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13개 정부기관 및 15개 대회 유관기관의 국장 및 이사가 참여하는 ‘2013 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 실무위원회’를 개최(1차 회의 2012.9.5. 2차 회의 2012.11.7.)함으로써 대회 준비 상황 및 기관별 지원상황이 원활히 협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중앙부처 장관 및 대회 유관기관 사장(대표이사)이 참여하는 ‘2013 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 정부지원위원회’ 개최(2012.11.15.)를 통해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으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63년 Eunice Kennedy Shriver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5주간 여름 캠프를 시작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스페셜올림픽대회는 1968년 7월 20일 Joseph P. Kennedy, Jr. 재단과 시카고 공원지구 공동 후원으로 제1회 하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 선수 1,000명이 육상과 수영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듬해 비영리기구인 스페셜올림픽 법인이 설립되어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 프랑스에서 스페셜올림픽대회 현장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셜올림픽대회는 다른 스포츠 관련 대회와 다르게 참가선수들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후 디비전(Division)경기를 통하여 수준별 결선 경기 조를 편성한다. 기록경기를 중심으로 디비전경기의 기록과 수준별 결선 경기 기록을 비교하여 10%이상 초과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모든 선수들 중 결선경기의 1~3위를 한 선수들에게도 참가 리본을 제공한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도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미국 내에서는 각 주별로 스페셜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170여 개국 3만 명 이상의 선수와 코치, 자원봉사자들이 스페셜올림픽대회에 참가하며, 하계와 동계에 걸쳐 4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제5회 뉴욕(미국) 하계대회에 처음 참가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참가를 통하여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차기 동계대회인 2013 스페셜올림픽대회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05개국 3,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이다.

표 6-32 하계스페셜올림픽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 연도	개최지	대회 구분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 선수단 참가 현황	
					임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금/은/동)
1회	1968	시카고(미국)	하계	2/1,000	—	—
2회	1970	시카고(미국)	하계	4/2,000	—	—
3회	1972	로스앤젤레스(미국)	하계	—/2,500	—	—
4회	1975	미시건(미국)	하계	—/3200	—	—
5회	1979	뉴욕(미국)	하계	20/3,500	—	—
6회	1983	루이지애나(미국)	하계	—/4,000	—	—
7회	1987	인디애나(미국)	하계	70/4,700	—	—
8회	1991	미네아폴리스(미국)	하계	100/6,000	—	—
9회	1995	코네티컷(미국)	하계	143/7,000	—	—
10회	1999	노스캐롤라이나(미국)	하계	150/7,000	30(8/22)	—
11회	2003	더블린(아일랜드)	하계	150/6,500	40(11/29)	—/—/2
12회	2007	상하이(중국)	하계	160/—	50(15/35)	6/5/5
13회	2011	아테네(그리스)	하계	170/7,000	31/80	22/29/17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Special Olympics(<http://www.specialolympics.org>)

표 6-33 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

회수	개최 연도	개최지	대회 구분	대회규모 (국가/선수)	한국 선수단 참가 현황	
					임원 (임원/선수)	메달 획득 (금/은/동)
1회	1977	콜로라도(미국)	동계	—/500	—	—
2회	1981	버몬트(미국)	동계	—/600	—	—
3회	1985	유타(미국)	동계	14/—	—	—
4회	1989	네바다(미국)	동계	18/1,000	—	—
5회	1993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동계	50/1,600	—	—
6회	1997	토론토(캐나다)	동계	73/2,000	19(9/10)	—
7회	2001	앵커리지(미국)	동계	70/1,800	36(11/25)	—
8회	2005	나가노(일본)	동계	84/2,600	44(16/28)	4/4/4
9회	2009	아이다호(미국)	동계	100/2,750	94(31/63)	14/13/7
10회	2013	평창(대한민국)	동계	111/11,000	224(45/179)	개최 예정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2011), Special Olympics(<http://www.specialolympics.org>)

2.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스포츠외교인재 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국제심판 및 등급분류사 양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IPC 인턴십 파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스포츠국제기구와 우리나라 장애인국제기구 사이에 가교 및 교류에 기여하였으며 그 현황은 표 6-34와 같다.

표 6-34 스포츠외교인재 육성을 위한 IPC 인턴십 파견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기 간	2008.3.1.~2009.4.30.	2009.4.4.~2010.3.31.
장 소	IPC 사무국	IPC 사무국
인 원	2명	1명

※ 2009년 이후 파견 없음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표 6-35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현황

연 도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내용
2008	5개 시·도(서울, 충남, 경기, 부산, 광주) 5개 대학 337명 수료
2009	5개 시·도(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남) 5개 대학 256명 수료
2010	6개 시·도(서울, 경기, 충남, 경북, 부산, 광주) 6개 대학 314명 수료
2011	6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 6개 대학 307명 수료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또한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장애인스포츠 경쟁력 강화와 등급분류사라는 장애인체육의 특수 분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황은 표 6-36과 같다.

표 6-36 국제심판·등급분류사 양성 사업 현황

연 도	국제심판	등급분류사	소 계
2008	95	85	180
2009	1	69	70
2010	45	169	214
2011	45	169	214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제7장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1절 스포츠산업 현황

제2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제7장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조성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의 팀제로 전환하는 개편을 맞이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스포츠산업팀으로 개칭하였으며, 2009년 5월에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통합, 현재 체육진흥과로 개편하였다.

제1절 스포츠산업 현황

《2011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문화체육관광부, 2011)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 현황으로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는 6만 9,315개로 추정되고,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3조 934십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32조 79십억 원, 수출이 1조 855십억 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33조 934십억 원 중 영업비용 29조 637십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조 930십억 원으로 11.7%로 2009년 기준 14.9%의 이익률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7,131개 증가한 6만 9,315개로 추정되었다.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23만 3천 명으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현황

연 도	업체수 (개)	종사자 (천 명)	매출액 (십억 원)	내수 (십억 원)	수출 (십억 원)	영업이익 (십억 원)
2010	69,315	233	33,934	32,079	1,855	3,930
2009	62,184	210	33,456	32,575	874	4,99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1. 스포츠산업규모

(1) 국내 스포츠산업의 전체 규모

2010년도 국내 스포츠산업은 33조 934십억 원 규모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89% 수준이다. 이러한 스포츠산업규모는 총 연간 출하(매출)규모, 소비시장규모로 산정하였다. 국가 GDP 대비 스포츠산업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2.24%에서 2010년 2.89%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스포츠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11.4%로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 기준조사에서 모집단과 분류체계 적용 변화 등의 이유로 다소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기준 대비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규모 성장률이 1.4%로 나타났다.

표 7-2 GDP 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스포츠산업 규모(원)	19조 6,507억	22조 3,642억	23조 2,698억	26조 3,614억	33조 4,439억	33조 9,339억
GDP(원)	847조 9천 억	915조 9천 억	901조 2천 억	1,023조 9천 억	1,050조	1,172조
GDP 대비 스포츠산업 비율	2.24%	2.44%	2.58%	2.57%	3.18%	2.89%
증가율(%)		13.81%	4.05%	13.29%	26.86%	1.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2) 스포츠산업 부문별 규모

2009년 기준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1.4%로 33조 4,439억 원에서 33조 9,339억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기준 대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2010년도에 13.5% 증가하였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1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 기관 11.2%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기불황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3 연도별 스포츠산업규모

단위: 십억 원, %

분류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09	201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929(14.9)	5,593(16.5)	13.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2,570(67.5)	21,531(63.5)	-4.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5,124(15.5)	5,888(17.3)	14.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2.5)	926(2.7)	11.2
합계	33,456(100.0)	33,934(100.0)	1.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况정보》

(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스포츠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스포츠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차츰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9년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산업 역시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별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 스포츠산업(0.791) 전반적으로 전체 산업(0.687)에 비해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기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643으로 2008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0.904로 2008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포츠산업 전체가 국내 전체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고 분류별 비교 역시 스포츠산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스포츠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이

대분류	중분류	2000	2005	2007	2008	200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0.839	0.755	0.738	0.690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0.688	0.746	0.734	0.701	0.749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621	0.641	0.584	0.529	0.65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0.724	0.659	0.551	0.493	0.51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0.718	0.700	0.652	0.603	0.643

대분류	중분류	2000	2005	2007	2008	200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0.883	0.908	0.905	0.874	-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0.916	0.921	0.914	0.886	0.89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캠블링 및 베팅업	0.918	0.937	0.934	0.913	0.915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0.906	0.922	0.918	0.891	0.904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0.889	0.893	0.887	0.864	0.865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0.931	0.920	0.911	0.888	0.8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	-	-	-	-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0.91	0.907	0.899	0.876	0.89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0.85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0.851
스포츠산업(평균)		0.827	0.827	0.803	0.768	0.791
전체 산업(평균)		0.754	0.741	0.722	0.666	0.68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2. 스포츠산업 부문별 매출 및 실적 현황

(1) 부문별 매출 현황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전체 63.5%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이 17.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이 16.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2.7%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및 오락서비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같은 업종에 경륜, 경정, 경마 및 스포츠 복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기준조사보다 약 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7-5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단위: 억 원, %
대분류	중분류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244(4.0)	0.7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33,249(59.4)	9.8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107(11.0)	1.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332(25.6)	4.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5,932(100.0)	(16.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34,005(15.8)	10.0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15,226(7.1)	4.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111(15.3)	9.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7,320(17.3)	11.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04(0.4)	0.2
	캠핑 및 베팅업	94,523(43.9)	27.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25(0.2)	0.1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5,314(100.0)	(63.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4,618(58.8)	10.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3,740(40.3)	7.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480(0.9)	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58,837(100.0)	(17.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5(100)	2.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5(100.0)	(2.7)
합계		339,339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매출액 비중의 변화는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이 2009년 기준조사에 비해 14.8% 증가하였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3.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1.2%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비스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경기불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대분류	중분류	스포츠내수액		스포츠영업비용		스포츠영업이익	
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21	0.7	215	0.7	10	0.3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810	8.9	2,796	9.4	529	13.4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77	1.5	572	1.8	38	1.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847	2.6	1,269	4.3	164	4.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335	13.7	4,852	16.4	741	18.9
2	경기장 운영업	3,401	10.7	3,308	11.2	92	2.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521	3.6	1,112	3.8	45	1.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311	10.4	2,813	9.5	498	12.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732	11.8	2,986	10.1	746	19.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80	0.3	54	0.2	27	0.7
	캠핑 및 베딩업	9,452	29.8	8,776	29.5	676	17.2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3	0.1	32	0.1	1	0.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529	66.7	19,081	64.4	2,085	53.0
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059	9.6	3,214	10.8	248	6.3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162	6.8	1,947	6.6	427	1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48	0.2	31	0.1	17	0.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 임대업	5,269	16.6	5,192	17.5	691	17.6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	2.9	512	1.7	414	10.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	2.9	512	1.7	414	10.5
합계		32,079	100.0	29,637	100.0	3,931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3조 934십억 원으로 영업비용 29조 637십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3조 930십억 원으로 11.7%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4.5%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수출 비중이 5.5%에 불과하여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비중이 2009년 대비 1.5% 감소한 것은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 투자 등과 동시에 프로스포츠 및 생활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체 스포츠산업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사업실적은 2009년 대비 매출액규모는 1.4% 증가하였고, 특히 수출은 112.2% 향상되어 비록 수출 비중은 낮지만 성장 면에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 대비 21.3% 감소하여 기업들의 고용 확대와 투자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업종류별 내수 · 수출실적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내수 비율은 94.5%에 이르며 특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경우 2009년과 동일하게 10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22.1%의 수출 비중은 국내 전체 제조업 수출 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를 보이고 있어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지원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 증가율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7-7 사업종류별 내수 · 수출실적

단위: 십억 원, %

구 분	매출액(A)		내수		수출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929	5,593	4,232	4,355	697	1,23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2,570	21,531	22,567	21,529	3	2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5,124	5,884	4,950	5,269	174	61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33	926	833	926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3. 스포츠산업 종사자 및 고용 현황

(1) 부문별 종사자 현황

표 7-8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단위: 백 명, %

대분류	중분류	2009		2010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9(2.6)	0.4	9(2.6)	0.4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98(56.9)	8.5	198(56.9)	8.5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5(15.8)	2.4	55(15.8)	2.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86(24.7)	3.7	86(24.7)	3.7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48(100.0)	15.0	348(100.0)	15.0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70(5.3)	3.0	70(5.3)	3.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5(3.4)	1.9	45(3.4)	1.9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19(16.5)	9.4	219(16.5)	9.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88(67.1)	38.1	888(67.1)	38.1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44(3.3)	1.9	44(3.3)	1.9
	캠핑 및 베틱업	57(4.3)	2.4	57(4.3)	2.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1)	0.0	1(0.1)	0.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4(100.0)	56.8	1,324(100.0)	56.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86(29.8)	3.7	86(29.8)	3.7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83(63.3)	7.8	183(63.3)	7.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20(6.9)	0.9	20(6.9)	0.9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89(100.0)	12.4	289(100.0)	12.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68(100.0)	15.8	368(100.0)	15.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68(100.0)	15.8	368(100.0)	15.8
합계		2,329	100.0	2,329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23만 3천 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종사자 44만 6천 명(2009년 기준)의 약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13만 2천 명,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의 비율이 5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은 구명자켓, 구명벨트, 스포츠의류 제조 및 부분품으로 의류 제조 및 부분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67.1%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종사자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 부문별 고용 현황

스포츠산업 부문별 고용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10년도에 1만 3,600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는 32% 감소한 9,300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로 소폭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전반에 걸쳐 경기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된다.

표 7-9 부문별 고용 현황

단위: 백 명, %

구 분		인력총원*	
		2010	2011
합 계		136	93
사업종류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4	2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67	5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임대업	28	1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7	3

※ 인력총원: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조직형태별 고용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10년도에 약 1만 3,600여 명으로 나타났다으며 2011년도는 32% 감소한 9,300여 명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32% 감소한 2,900여 명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사업체의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회사법인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이외법인의 경우 고용이 2011년도 기준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 조직형태별 고용 현황

단위: 백 명, %

구 분		고용	
		2010	2011
합 계		136	93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58	29
	회사법인	69	57
	회사이외법인	5	5
	비법인단체	1	1
	국가·지자체	2	1

※ 고용은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내수 및 수입 현황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내수판매매출은 4조 335십억 원으로 비중이 77.9%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5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기준조사에서도 스포츠의류 내수(매출) 비중이 49.6%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내수 비중이 24.6%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의 경우 56.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11 운동·경기용품 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십억 원, %

구 분		금액	비 중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용품 제조업	내수	4,335	5.1	57.8	10.4	2.2	0.1	24.6
	수입	74	0.0	6.5	0.0	37.1	0.0	56.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5.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1) 규모, 연간 영업 개월 및 이용인원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2010년도 기준으로 그 규모가 21조 5,314억 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의 63.5%를 차지하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스포츠경기업의 경마, 경륜, 경정의 gambling(Gambling) 및 베팅(Betting)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3.9%로 스포츠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한 여타 스포츠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큰 업종이다.

표 7-12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구 분	평균 영업개월 수(월)		연간 이용인원 수(천명)		증감률
	2009	2010	2009	2010	
합 계	10	10	448,725	554,688	23.6
경기장 운영업		12		41,699	10.2
골프장 운영업		11		29,775	3.8
스키장 운영업		4		8,775	-1.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1		442,520	35.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		4,794	29.0
캐블링 및 베팅업		12		27,125	-36.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경기 및 오락스포츠서비스업의 평균 영업개월 수는 연간 10개월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인원수는 5억 5,468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스포츠시설, 수영장, 당구장 등 기타스포츠시설 이용인원이 전년 대비 35.4% 증가한 4억 4,25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캠블링 및 베테잉업을 이용한 인원도 2,713만 명으로 나타났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관람스포츠 분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의 핵심 부문이다.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성장은 스포츠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선도 분야라고도 일컬을 수 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미흡한 실정이지만 향후 스포츠산업의 산업적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경주스포츠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주요 경주스포츠업 이용자 수는 2002년 2,225만 명, 2003년 2,361만 명, 2004년 2,256만 명, 2005년 2,354만 명, 2006년 2,406만 명, 2007년 3,318만 명, 2008년 3,337만 명, 2009년 3,461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0년에는 경정장 입장객과 경륜장 입장객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이용자 수가 3,451만 명으로 3%감소하였다.

표 7-13 2002~2010년도 스포츠서비스업 주요 업종 이용자 수

단위: 만 명

종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마장 입장객 (서울+제주+김해 경마장)	1,628	1,674	1,541	1,618	1,645	2,045	2,080	2,168	2,181
경륜장 입장객 (잠실+창원+금정 경륜장)	552	565	572	545	564	905	914	943	941
경정장 입장객	45	122	143	191	197	298	343	350	329
합계	2,225	2,361	2,256	2,354	2,406	3,318	3,337	3,461	3,45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주요 업종 이용자는 경주스포츠 이용자와 프로스포츠 관람객을 합하여 2009년 4,533만 명이 넘었으며, 2010년의 프로야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축구, 프로배구 등 5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프로스포츠가 주도하기 때문에 팬 및 선수층이 두터운 종목은 프로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장임장료, 구장부대수입, 방송중계권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로구단

을 비롯하여 아마추어스포츠단체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스포츠경기업의 성장은 후원(Sponsorship), 라이선싱(Licensing), 선수관리 및 계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 기획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마케팅업은 스포츠마케팅대행업, 스포츠에이전트업, 선수양성업 등으로 시장규모는 2,723억 원이며 스포츠서비스업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람스포츠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해외진출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대행 및 컨설팅업, 스포츠에이전트업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시장을 겨냥한 해외 선진 스포츠마케팅업체들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포츠서비스업 분야에서 IMG, ISL, 옥타곤 등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에이전트(Agent)업에 있어서 관람스포츠의 핵심요소인 우수 선수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7-14 체육계학과 학생 및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현황						단위: 명
연 도	대학생총수	체육학과학생	체육계학과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비 고
				대학	대학원	
1996	1,266,876	23,777	146	1		
1997	1,368,461	25,689	172		5	
1998	1,477,715	28,229	200	3	5	
1999	1,587,667	31,555	200	4	7	
2000	1,665,398	34,891	216	7	7	
2001	1,699,293	38,563	236	8	12	
2002	1,771,738	42,957	245	7	17	
2003	1,808,539	46,653	267	7	17	
2004	1,836,649	44,387	234	7	17	
2005	1,859,639	45,745	234	7	17	
2006	1,888,436	50,042	295	7	18	
2007	1,943,437	53,863	261	6	7	
2008	1,984,043	55,649	283	6	7	
2009	1,984,043	60,882	283	6	7	
2010	2,028,841	63,093	283	6	7	
2011	2,065,451	80,693	358	6	7	

출처: 교육부(1995~2010), 《교육통계연보》

스포츠마케팅업은 전문가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220여 개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과정으로 스포츠산업, 경영, 마케팅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358개 체육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으나 스포츠산업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은 6개, 대학원은 7개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산업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전공 등의 대학원과정이 개설되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표 7-15 연도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수입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회장찬조금	기타찬조금	자체수입	기 타	합 계
2000	144	20	190	16	370
2001	100	13	382	142	637
2002	113	122	276	260	771
2003	133	17	367	429	946
2004	148	18	357	256	779
2005	144	19	456	324	943
2006	179	16	938	160	1,293
2007	161	19	948	264	1,392
2008	171	18	1,143	267	1,599
2009	155	15	941	406	1,517
2010	178	17	938	234	1,367*
2011	232	13	1,025	436	1,706

※ 정부보조금 제외

※ 2010년 합계는 이월금액 및 적립금 과실금 미포함

출처: 대한체육회(1988~2011), <대한체육회 예산 및 결산서>

국내 아마추어 체육단체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나 회장협찬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평균 45%로 나타났다.

(4) 스포츠미디어업(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스포츠미디어업(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2009년도 기준으로 매출액규모가 1조 2,926억 원으로 스포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이며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에서는 5.6%로 규모면에서 지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미디어업은 스포츠신문, 출판과 방송업, 스포츠여행업, 스포츠의학, 스포츠게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정보업은 위성채널, 인터넷방송 등 매체의 다양성에 따른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스포츠 전문 방송채널을 통해 격투기, 유럽축구, 자동차경주 등의 새로운 인기콘텐츠가 등장하고 지상파 3사에 국한된 시장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채널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스포츠신문 3사의 전체매출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7-16 스포츠신문 매출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2006	356	298	427
2007	377	382	413
2008	280	355	433
2009	283	178	384
2010	282	183	40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을 포함한다. 2010년도 기준 내수판매매출은 5조 269십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91.0%의 비중을 차지하여 운동경기용품 제조업과 같이 내수판매 위주의 산업으로 판단된다.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역시 32.7%로 신발, 공

류, 라켓류 등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스포츠 의류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은 스포츠의류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스포츠의류(등산, 골프의류 등)를 남녀노소가 구분하지 않고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17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십억 원, %

구 분			비 중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용품유통업	내수	5,269	0.0	32.7	13.8	4.4	6.9	42.2
	수입	518	0.0	29.0	2.6	2.9	10.2	55.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7.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 49.0%를 차지하였다. 태권도, 수영 등 유아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그 외 연령대 매출은 6.1~16.6% 사이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등이 부족하여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서비스콘텐츠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각 연령대별 잠재수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표 7-18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고객유형	7세 이하	8~13세	14~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00.0%	6.7%	49.0%	12.3%	9.4%	16.6%	6.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년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8. 프로스포츠산업 현황

(1) 개요

초기의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복싱과 레슬링을 시작으로 1982년 6개 팀으로 구성된 프로야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5년 프로축구, 1996년 프로농구, 2004년 프로배구가 설립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리그를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2 한·일 FIFA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의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선전과 2008 베이징하계올림픽대회에서 야구의 선전으로 축구, 야구를 비롯한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였다.

국내 대부분 프로스포츠는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연고제라 하면 일반적으로 홈구장이 위치한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연고제를 의미하고 있으며, 각 프로리그들은 2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최대의 마케팅 시장으로 판단하고 소속팀의 연고지로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주5일 근무 및 수업, 국민들의 스포츠 직간접 참여의식 성장, 미디어 발달 등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프로스포츠의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스포츠 대중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프로스포츠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과의 연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 국민들의 여가선용기회와 지역화합 도모, 아마추어선수들의 진로개척에 중추적 역할로서 프로스포츠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2) 프로스포츠 관람객 현황

프로스포츠 관람객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의 관람객을 합하여 2006년 약 713만 명, 2007년 약 886만 명, 2008년 약 1,018만 명, 2009년 약 1,082만 명, 2010년 약 1,048만 명, 2011년 약 1,18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개 프로종목 총 관람인원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프로스포츠가 주도하기 때문에 팬 및 선수층이 두터운 종목은 프로화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경기장입장료, 구장부대수입, 방송중계권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로구단을 비롯하여 아마추어스포츠단체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스포츠경기업의 성장은 스폰서십, 라이선싱, 선수관리 및 계약,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기획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19 주요 프로스포츠 관중 추이

단위: 명

연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합 계
2005	3,640,690	2,873,351	1,109,793	169,518	101,436/159,716	7,894,788/7,953,068
2006	3,240,992	2,448,128	1,104,503	106,999	227,954	7,128,576
2007	4,410,340	2,746,749	1,160,113	311,934	234,308	8,863,444
2008	5,636,191	2,945,400	1,191,242	129,835	278,106	10,180,774
2009	6,347,538	2,811,648	1,228,992	156,780	278,019	10,822,977
2010	6,236,626	2,703,323	1,133,841	91,584	317,943	10,483,319
2011	7,154,378	3,030,586	1,154,948	166,227	372,592	11,878,731

※ 프로배구: 2005년도~2005년 상반기 / 2005~2006년 시즌

※ 프로농구(남): 2008년 2009.4.23. 현재 기준(이하 동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표 7-20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 수 및 경기당 평균 관중 수

단위: 회, 명

연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경기 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 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 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 수	경기당 평균 관중	경기 수	경기당 평균 관중
2004	548	4,813	240	10,123	290	3,626	80	687		
2005	517	7,042	240	11,972	289	3,840	138	1,228	112/191	906/836
2006	518	6,257	278	8,806	288	3,835	123	869	163	1,398
2007	517	8,531	254	10,814	291	3,987	267	1,164	187	1,253
2008	518	10,881	253	11,642	292	4,080	118	1,100	189	1,472
2009	549	11,562	256	10,983	296	4,152	130	1,206	189	1,471
2010	547	11,402	210	12,873	293	3,870	130	705	216	1,479
2011	548	13,055	283	10,709	292	3,955	115	1,445	210	1,77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표 7-21 주요 프로스포츠 수용규모 및 좌석점유율

단위: 명, %

연 도	야 구		축 구		농 구(남)		농 구(여)		배 구	
	수 용 규 모	좌 석 점유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유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유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유율	수 용 규 모	좌 석 점유율
2002	21,934	22.0	31,008	47.3	5,039	74.8	3,776	26.7		
2003	21,934	24.7	37,468	24.7	6,298	57.3	3,776	30.6		
2004	21,934	21.9	42,173	24.0	6,283	57.7	3,776	18.2		
2005	21,934	32.1	42,173	28.4	6,283	61.3	3,776	32.5		
2006	20,429	30.6	40,255	21.9	5,899	65.0	3,230	25.6	5,129	16.3
2007	20,429	41.8	40,574	26.7	6,347	62.8	2,756	38.0	5,129	27.3
2008	20,429	53.3	40,574	28.7	6,354	64.2	2,756	39.1	5,089	24.6
2009	20,429	56.6	37,865	29.0	6,354	65.2	2,756	43.8	4,843	30.4
2010	19,675	58.0	36,592	29.4	6,354	60.9	2,066	34.1	5,093	28.9
2011	19,450	65.7	33,314	34.9	6,653	59.5	2,732	52.9	4,598	38.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3) 프로스포츠단체 및 운영 현황

프로스포츠는 1982년 프로야구리그가 출범한 이후 국내 스포츠산업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었다. 2011년 12월 기준 축구, 야구, 농구(남·여), 배구(남·여), 골프(남·여), 권투, 바둑 등 7개 종목에 (사)한국프로축구연맹, (사)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농구연맹, (사)한국여자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재)한국권투협회, (사)한국권투위원회, (재)한국기원 등 10개 프로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종목별로는 축구 15개 구단, 야구 8개 구단, 배구 12개 구단(남 7, 여 5), 남자농구 10개 구단, 여자농구 6개 구단 등 총 51개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7-22 프로단체 현황(2012.10.1. 현재)

구분 \ 종목	축 구	야 구	농구(남)	농구(여)	배 구	
단체명	(사)한국프로 축구연맹	(사)한국야구 위원회	(사)한국농구 연맹	(사)한국여자 농구연맹	(사)한국배구연맹	
대표	정몽규 회장	구본능 총재	한선교 총재	최경환 총재	구자준 총재	
구단 수	16	8	10	6	6	5
구단명	제주 유나이티드 FC	서울 두산 베어스	서울 삼성 썬더스	부천 하나위환은행	인천 대한항공	인천 GS칼텍스
	울산 현대 호랑이	서울 LG 트윈스	서울 SK 나이츠	안산 신한은행 에스버드	대전 삼성화재	대전 KT&G
	수원 삼성 블루윙즈	광주 기아 타이거즈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	용인 삼성생명 비추미	구미 LG화재	구미 한국 도로공사
	성남 일화	대구 삼성 라이온즈	대구 오리온스	천안 KB 세이버스	천안 현대 캐피탈	수원현대 그린포кс
	부산 아이파크	부산 롯데 자이언츠	울산 모비스 피버스	춘천 우리은행 한새	수원 한국전력	천안 흥국생명
	FC 서울	대전 한화 이글스	원주 동부프로미	구리 금호생명 레드윙스	아산 드림식스	
	전북 현대 모터스	서울 넥센 히어로즈	안양 KT&G 카이츠			
	전남 드래곤즈	인천 SK 와이번스	전주 KCC 이지스			
	포항 스틸러스		KTF 매직윙스			
	대전 시티즌		창원 LG 세이커스			
	대구 FC					
	상주 상무 불사조					
	인천 유나이티드 FC					
	경남 FC					
	광주 FC					
	강원 FC					
구분 \ 종목	골 프(남)	골 프(여)	권 투		바 둑	
단체명	(사)한국프로 골프협회	(사)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	(재)한국권투 협회	(사)한국권투 위원회	(재) 한국기원	
대 표	황성하 회장	구자용 회장	염동균 회장	홍수환 회장	허동수 이사장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

①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Korea League)은 1983년 2월 대한축구협회 내에서 슈퍼리그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당시 슈퍼리그위원회는 1983년 5월 슈퍼리그라는 명칭으로 프로리그를 시작하였는데, 그때까지 다각적으로 프로화를 모색했던 한국 축구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출발한 슈퍼리그는 프로 2팀, 아마추어 3팀이 참가하는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20년간 부침을 거듭하던 한국프로축구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중흥의 계기를 마련했다.

대전, 부산, 부천, 성남, 수원, 울산, 전남, 전북, 포항, 안양 등 10개 팀이 참가한 2002년 K리그에서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한 여세를 몰아 7월 7일 개막전에 총 12만 3천여 명이 입장, 역대 일일 최다관중수를 기록한데 이어 열린 11일 경기에는 총 10만 8천여 명이 입장, 역대 일일 2번째 기록이자 평일 최다관중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토, 일 양일간에 벌어진 다음 경기에는 총 13만 8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 역대 주말(토, 일 합산) 최다관중 신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17일에 열린 4차전에서는 총 11만 5천여 명을 끌어들여 11일에 수립했던 평일 최다관중기록을 1주일 만에 경신하는 등 매 경기 관중기록을 경신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을 계기로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된 가운데 2003년에는 프로축구계의 숙원이던 리그 참가팀 수의 증가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시민구단인 대구 FC와 광주 상무 불사조 두 개의 팀이 추가되어 총 12개 팀이 리그에 참여하면서 보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2003년 시즌은 기대와는 다르게 다시 전년 대비 약 30%의 관중 수 감소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프로축구리그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표 7-23 프로축구 연도별 관중 수 변화 추이

연 도	경기 수	총 관중 수	평균관중 수
2005	240	2,873,351	11,972
2006	275	2,448,128	8,806
2007	254	2,746,749	10,814
2008	253	2,945,400	11,642
2009	256	2,811,651	10,983
2010	210	2,703,323	12,873
2011	283	3,030,586	10,709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컵대회,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이후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팬들의 관심 속에서 2005년까지 총 관중 수 및 평균관중 수가 꾸준히 증대되었다. 2009 프로축구리그는 전년대비 3경기가 늘었으나 총 관중 수 및 평균관중 수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 FC와 수원 삼성의 저조한 성적이 전체적인 흥행의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한국야구위원회

(사)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는 1981년 12월 창립총회로 시작되어 1982년 3월 (사)한국야구위원회로 법인허가를 받고 그 해 프로야구 원년리그를 치른 이래 현재까지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프로야구는 고교 및 대학야구와 실업야구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1981년, 삼성, 롯데, MBC, OB, 해태, 삼미 등 6개 구단을 회원으로 하는 프로야구 창립총회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밝고 건강한 여가선용을”이란 기치 아래 개최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들 6개 팀은 드디어 1982년 3월 첫 경기를 가지며 프로야구시대를 열었으며, 지역연고제의 도입, 홈 앤드 어웨이제(Home & Away)의 실시, 일년 시즌의 장기 레이스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스포츠경기체제에서는 행해지지 못했던 현대적 프로스포츠의 운영방식을 최초로 접목시켰다.

프로야구 개막 초에는 총 240경기에 불과했지만 20시즌을 넘긴 지금은 총 504경기가 벌어질 정도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팀의 수도 최초로 6개 팀에 불과했으나, 1986년 빙그레(현재의 한화구단)가 충청권을 연고로 제7구단을 창단했고 1991년 창단된 쌍방울을 포함, 지금까지 8개 구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관중 수의 면에서 보면 개막년도에 143만 8,768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도에는 634만 7,547명으로 확대되어 역대 최고의 흥행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지난 3월에 있었던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으며 이러한 흐름이 프로야구에 대한 인기로 이어진 것에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2009년 6백만 관중 돌파를 기점으로 2012년에는 7백만을 돌파하는 등 이제 대표적인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제10구단 창단 승인, 2013년 엔시다이노스 1군 진입 등이 야구에 대한 관심과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4 프로야구 관중 입장 수

연 도	경기 수	총 관중 수	평균관중 수
2005	517	3,640,690	7,042
2006	518	3,240,992	6,257
2007	517	4,410,340	8,531
2008	518	5,636,191	10,860
2009	549	6,347,547	11,562
2010	547	6,236,626	11,402
2011	548	7,154,378	13,055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포스트시즌,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③ 한국농구연맹 및 한국여자농구연맹

1990년대 초반부터 프로화를 모색하던 농구계는 1995년 10월 한국농구연맹설립준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고 1996년 10월 한국농구연맹을 창립, 그 해 11월 (사)한국농구연맹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1996~1997 시즌으로 첫 리그를 시작하였다. 대학농구와 실업농구에 대한 팬들의 열기를 이어받아 프로농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미국식 스포츠마케팅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한국농구연맹의 노력에 힘입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여자농구도 연맹차원의 노력과 다양한 마케팅전략으로 여자농구 관중 수도 2011년을 기점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날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표 7-25 남자프로농구 관중 수

연 도	경기 수	총 관중 수	평균관중 수
2006	288	1,104,503	3,835
2007	291	1,160,113	3,987
2008	292	1,191,242	4,080
2009	296	1,228,992	4,152
2010	293	1,133,841	3,870
2011	292	1,154,948	3,955

※ 위의 수치는 정규시즌 및 플레이오프, 올스타전을 합친 것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표 7-26 여자프로농구 관중 수

연 도	경기 수	총 관중 수	평균관중 수
2006	123	106,999	869
2007	267	311,934	1,164
2008	118	129,835	1,100
2009	130	156,780	1,206
2010	130	91,584	705
2011	115	166,227	1,445

※ 위의 수치는 정규리그 및 결승리그를 합친 것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④ 한국배구연맹 및 기타 프로종목

타 구기종목의 프로화 추세에 따라 배구계는 2004년 한국배구연맹창립추진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프로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2월 16일을 기해 한국배구연맹을 출범시키므로써 본격적인 프로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후 한국배구연맹은 2005년 2월 20일 KT&G V-리그가 개막되면서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도 시즌 관중 수 27만 8,106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신생 프로리그로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30만 관중을 돌파한 이래 매년 관중 수와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다.

기타 남녀골프는 국내 선수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우수한 성적으로 놀라운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표 7-27 프로배구 관중 입장 수

연 도	경기 수	총 관중 수	평균관중 수
2006	163	227,954	1,398
2007	187	234,308	1,253
2008	189	278,106	1,472
2009	189	278,019	1,471
2010	216	317,943	1,479
2011	210	372,592	1,774

※ 총 관중 수는 남녀의 수치에 대한 합산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프로스포츠경기단체 자료)

제2절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1. 스포츠산업정책(2008~2012)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산업 선진국 도약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2009-2013)〉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국내 스포츠산업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 육성: 중소브랜드 유통망 및 내수 기반 확대, 10대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수출 촉진, 인증 지원체계 확립 및 상품화 지원

둘째, 스포츠융합 신서비스 창출: 미래형 신규 스포츠콘텐츠 기술개발, u-스포츠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활성화, 모태펀드 조성으로 마케팅회사 육성 및 창업 지원

셋째, 프로스포츠 경쟁력 제고: 프로구단 지역연고제 및 경기장 장기임대 도입, 시장 확대를 위한 아시아리그제 도입, 프로구단 마케팅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넷째, 지역 스포츠산업 수요 창출 및 인프라 구축: 한류 스포츠관광상품 육성, 지역 스포츠관광 인프라 조성, 민간체육시설 경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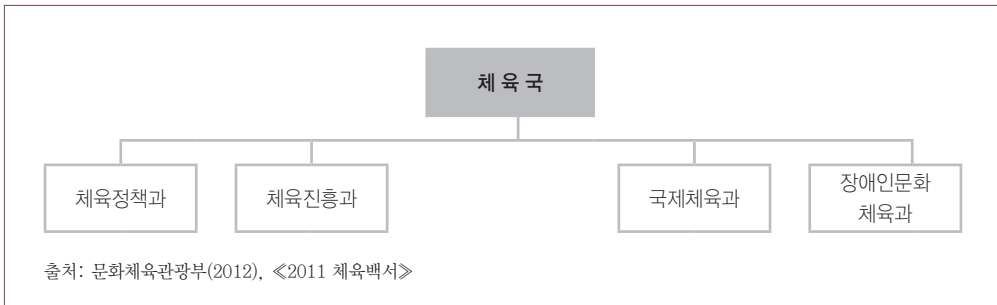
다섯째,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구축: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체계 구축,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2.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조직

정부는 스포츠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의 팀제로 전환하는 개편을 맞이하여 스포츠여가산업과를 스포츠산업팀으로 개칭하였으며 2009년 5월에 체육진흥과와 스포츠산업과를 통합, 현재 체육진흥과로 개편하였다.

그림 7-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조직도(2012.7.)



체육진흥과는 스포츠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국민의 스포츠 관련 소비 증대에 대비함과 더불어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스포츠산업을 국내경제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조직 개편취지에 따라 기존의 생활체육업무와 스포츠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체육진흥과에서 수행 중이다.

체육진흥과의 스포츠산업 관련 주요 업무는 스포츠산업을 21세기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근간인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및 지역별 특화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육성을 위해 스포츠레저용품전을 확대,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홍보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였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스포츠산업 진흥 거점기관화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스포츠산업 종합정보제공체계 확립을 위해 스포츠산업통합정보망(Spobiz)를 구축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관련 조직

①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

2012년 현재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산업 담당조직은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이 담당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의 업무내용은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기획업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 관련 업무를 지원·연구하는 것이다. 체육과학연구원의 조직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스포츠과학·산업연구실은 스포츠용품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증 관련 업무를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소를 설치·운영하였다.

표 7-28 체육과학연구원의 스포츠산업 연구조직구조 변화

구 분	1999	2000	2001~2002	2003~2010	2011~2012
연구조직 (팀/실)	정책개발팀 생활체육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국민체력센터 (5개 팀 1센터)	정책연구팀 전문체육팀 시스템개발팀 정보전산팀 (4개 팀)	정책개발연구실 전문체육연구실 정보전산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4개연구실)	정책개발연구실 스포츠과학연구실 스포츠산업연구실 (3개연구실)	스포츠 과학/산업 연구실 정책개발연구실 (2개 연구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② 스포츠산업본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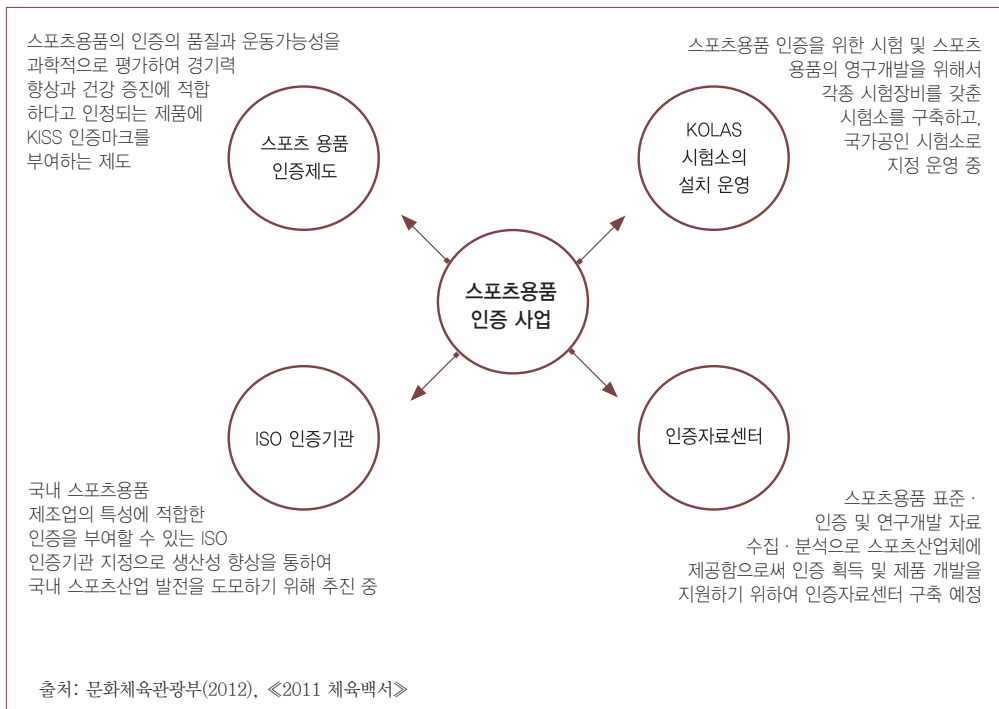
스포츠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2010년 스포츠산업본부를 신설하여 스포츠산업의 신규 영역을 창출·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틀을 준비하였다. 주요 업무는 스포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제도 개발과 우수 체육용구, 기자재 생산 및 장려와 용자지원, 체육시설업 용자지원, 스포츠서비스업 용자지원 등 스포츠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며 스포츠박람회 개최 및 참가업체 지원, 우수 스포츠산업체 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스포츠산업체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신규 사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및 운영 등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업무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스포츠산업체 지원 정책

(1)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스포츠용품 인증 사업은 스포츠용품 인증제도의 도입, 제품의 과학적 시험을 위한 국가공인(KOLAS)시험소의 설치 운영, 스포츠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SO 인증기관 지정 운영, 스포츠산업 정보와 자료를 서비스하는 인증자료센터의 설립 · 운영 등 네 분야로 구성된다. 스포츠용품 인증제 사업의 구성도는 그림 7-2와 같다.

그림 7-2 인증제 사업 구성도



정부는 국내 스포츠용품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 말 현재까지 학교체육시설 등 78종의 인증규격을 개발하였으며 인증

전산시스템 개발과 인증마크(KISS)를 제정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만능재료시험기, 삼차원측정기, 로크웰경도기 등 84종, 2011년 말 기준) 도입을 통해 스포츠용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7-29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위한 투자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계	2003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 액	81.2	25	10	8.5	7.2	7.5	5	9	9	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7-30 인증 시험·검사장비 도입 현황

단위: 개

연 도	계	품 목(총 119개)	
200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부품충격시험기 • 스포츠기능분석기 • 골프공역학측정시스템 • 자전거프레임배열측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형다기능측정기 • 육상트랙성능측정기 • 자전거구동저항측정기 • 인조잔디감속측정모듈
200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랭식 스크루 공기압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제동주행시험기
20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측정기 • 가속도측정기 • 파워특정기 • 축구공수분흡수율 측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구조해석용 컴퓨터 • MEMS 시그널컨디셔너 • 궁도시험기쇼어경도측정기
20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클링 시뮬레이터 • 골프 퍼팅동작 분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클 피팅시스템 시험기 • 바닥재 내구성 시험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011년 말까지 신도상사, 프로사이클 등 44개 업체의 복싱글러브, 자전거 프레임, 인라인 스케이트 등 99개 모델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수출판로 개척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년간 엑스골프 등 26개 업체에게 CE, ETL, TUV 등 30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스포츠산업박람회 개최

① 2008~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

2008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은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148개 업체와 해외 76개 업체를 포함해 총 224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 업체가 616부스, 해외 업체가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193개 업체와 해외 71개 업체 총 26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 업체가 682부스, 해외 업체가 138부스를 사용하였다. 2010년 박람회는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237개 업체와 해외 72개 업체 총 30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 업체가 765부스, 해외 업체가 140부스를 사용하였다. 2011년 박람회는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업체는 국내 230개 업체와 해외 81개 업체 총 311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부스도 국내 업체가 810부스, 해외 업체가 142부스를 사용하였다. 2012년 박람회에는 국내 235개 업체와 해외 77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국내 974부스, 해외 143부스를 사용하였다. 2011년 서울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의 규모, 참가국, 바이어 내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7-31 2011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전시규모 현황

구 분	국 내		해 외		계
	업 체	부 스	업 체	부 스	
2011	236개사	810부스	75개사	142부스	311개사 952부스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7-32 지역별 해외 바이어 참가 비율(38개국)

구 분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비율	60.4%	11.3%	15.4%	2.2%
구 분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기타
비율	0.8%	0.5%	1.6%	7.7%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7-33 품목별 참가 비율

계	피트니스 · 헬스	아웃도어 · 캠핑	수중 · 수상 스포츠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바이크 · 보드	기능성 신발	팀 · 인도어 스포츠	기관 및 단체	기타 스포츠 레저용품
100%	18.7%	17.7%	23.8%	12.5%	10.6%	3.5%	6.1%	2.6%	4.5%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표 7-34 상담 및 계약실적

구 분	내 수		수 출		비 고
	금액(백만 원)	건수(건)	금액(천 달러)	건수(건)	
2008	25,890	4,216	95,840	480	
증감	-4.0%	2.1%	1.2%	1.7%	
2009	25,553	4,325	86,448	468	
증감	-1.31%	2.1%	-9.79%	-2.5	
2010	26,549	4,501	96,995	486	
증감	3.9%	4.1%	12.2%	-3.8	
2011	28,919	4,725	125,300	526	
증감	8.9%	5.0%	29.1%	8.2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2011), 《2011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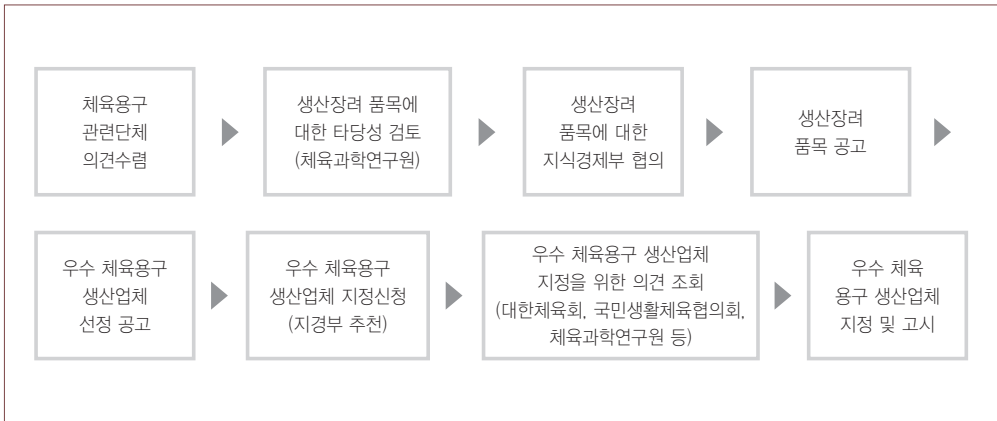
(3)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및 기금융자 확대

국내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생산 장려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생산장려품목 지정,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우수 업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을 장려하는 체육용구 · 기자재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 학교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 및 기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 등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식경제 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장려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 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절차는 그림 7-3과 같다.

그림 7-3 생산장려품목 및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절차



2011년 기준 생산장려품목으로 지정된 체육용구는 모두 578개 품목이며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는 112개 업체이다. 생산장려품목과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현황은 표 7-35, 표 7-36과 같다.

표 7-35 생산장려 체육용구 지정 현황

종목(분야)	품 목
검도	죽도, 목검, 호구, 도복, 전통도검 (5)
게이트볼	게이트용구 (1)
골볼	공, 골대 (2)
골프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하드커버, 골프카트, 퍼팅연습기, 골프연습용구, 그린볼과 티, 만능클럽, 볼하우스, 골프그립, 골프화, 그린경사측정기, 스윙파워측정기, 거리측정기 (16)
공수도	경기용글러브, 샷보대, 마우스피스, 도복, 보호대(가슴, 팔, 정강이, 발, 안면, 몸통), 심판깃발, 심판화 (12)
국무도	코브라장갑, 치마, 보호대(몸통, 발목, 발등, 머리, 낭심, 정강이), 암미트(타켓), 막대미트(타켓), 만능미트(타켓), 스폰지 검 (12)
궁도	화살(카본화살, 전통화살), 활(카본활, 전통활), 화살통, 각지 (6)
그라운드골프	홀 포스트, 클럽, 공 (3)
근력단련기구	기계식체력단련기구,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야외용체력단련기구, 고관절운동기구 (5)
낚시	안전모, 안전화, 구명복, 낚시복, 선글라스, 텐트, 낚시대, 릴, 낚시가방 및 보조가방, 쿨러, 낚시바늘 (11)
농구	농구넷트, 농구대, 농구공, 농구링, 경기용 휠체어 (5)

종목(분야)	품 목
당구	당구대(포켓, 캐롬), 당구큐, 쿠션고무, 당구나사지, 큐장[스코어보드겸], 스코어보드, 공, 쇼크 (9)
동력스포츠	헬멧, 원동기(스쿠터) (2)
등산	등산복, 등산화, 배낭, 아이스엑스, 안전벨트, FRIEND, 카라비너, 텐트, 안전모, 슬링/테이프, 빙벽용 아이젠, 가스버너, 코펠,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암벽화 (16)
라켓볼	라켓, 안경(보호안경), 공, 장갑 (4)
럭비	럭비공, 헤드기어, 골대, 럭비골대보호대, 스크럼머신, 태클머신, 마우스가드, 솔더패드, 콘택머더, 태클백, 킥팅티 (11)
레슬링	레슬링경기화, 레슬링인형, 레슬링 로프, 매트 (4)
미식축구	미식축구공, 의류, 보호장비 (3)
바둑	바둑판, 바둑통, 바둑알, 계시기 (4)
바운드볼	배트, 공 (2)
바이애슬론	롤로스키(스케이팅), 폴(스케이팅) (2)
배구	배구넷트, 배구공(0185LSTF), 비치발리볼(M 185A), 배구공(VB205), 칼라배구공(VB205-34), 지주, 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용전광판, 배구지주보호대, 공(시각장애인용) (11)
배드민턴	배드민턴넷트,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지주, 스트링거, 심판대, 배드민턴 전용화 (7)
보치아	볼, 작전판, 홈통, 레이저 빔 (4)
복싱	복싱글러브, 컴퓨터득점기, 헤드기어, 복싱링, 샌드백, 샌드백설치대, 펀치볼 (7)
볼링	레인, 볼링공, 볼링핀, 볼회수기, 손목보호대, 컴퓨터득점기, 핀세터, 볼링공지공기, 볼링화 (9)
사격	사격표적지, 전자표적장치 (2)
사이클	경기용사이클, 산악자전거, 레저용자전거, 헬멧, 자전거부품, 경기복, 롤러, 스텝보드 자전거, 사이클화 (9)
생활체조	줄넘기, 생활체조복(민속체조, 에어로빅), 다리펴기, 에어로빅매트, 홀라우프, 밴드 (7)
세탁타크로	포스트 (1)
소프트볼	글러브, 배트, 볼, 안전모, 포수장비, 소프트볼경기화, 선수보호망(펜스,백네트) (8)
수영	논슬립매트, 다이빙보드, 배수그레이트, 수구골대, 수영복,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스타트대, 코스레인, 코스로프, 핸드레일, 안전감시대, 수영장치동청소기, 핀수영용구(모노핀, 일반핀, 스노쿨, 버선, 공기통, 공기통연결구, 호흡기) (21)
빙상	스케이트(쇼트트랙, 스피드, 크랩, 휘저), 헬멧, 장갑, 방한모, 쇼트트랙블레이드 (8)
스쿼시	스쿼시화, 라켓, 공 (3)
스키	고글, 스노보드, 스키장갑, 스키플레이트, 폴, 스노보드 바인딩, 스노보드 부츠, 스노보드 장갑, 알파인 모노스키, 알파인 바이스키, 모노스키용 아웃리거, 절단장애인용 아웃리거 (12)
스크린골프	스크린골프시스템, 스윙분석시스템 (2)
스포츠평	검, 방패, 호면 (3)

종목(분야)	품 목
스포츠 IT	운동 관리 · 처방 · 운영 · 지도 관련 프로그램 (1)
스킨스쿠버	물안경, 부력조절기, 잠수복, 호흡용공기압축기, 핀(오리발), 호흡기, 마스크, 잠수복, 다이빙 칼, 다이빙용 낚 튜브 (10)
승마	바지, 부츠, 장갑, 헬멧, 장구(안전조끼) (5)
수상스키	투스키, 점프스키, 트릭스키, 웨이크보드 (4)
수상레저스포츠	구명조끼, 구명환 (2)
씨름	살바, 팬티, 씨름경기장 (3)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패널(조립식 포함) (1)
아이스하키	프레임, 슬레지(썰매), 블레이드, 퍽 (4)
야구	야구공, 야구글러브, 야구배트, 보호장구(케처보호구), 모자, 헬멧 (6)
양궁	화살, 활, 화살통, 핸들, 날개, 표적지, 조준기, 쿠션, 스타비라이저 (9)
역도	역도바벨원판, 경기대, 연습대, 하체대, 역도바벨 (5)
요트	딩기(DINGHY)요트, 크루징요트, 모터요트(보트), 구조정, 돛, 리깅, 스파, 피팅 (8)
우슈	투로용구(카페트, 신발, 유니폼, 도, 검, 창, 곤), 산타용구(산타경기장, 글러브, 헤드기어, 가슴보호대, 낭심보호대, 정강이보호대, 마우스피스, 유니폼) (15)
유도	유도복, 매트 (2)
유산소 운동기구	자전거에르고미터, 계단오르기운동기구,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타원궤도 보행체력 단련기),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상 · 하지연동운동기 (7)
육상	사진판정기, 스타팅블록, 원반, 투창, 풍향풍속계, 포환, 해머, 허들, 디지털 줄자, 무인카, 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 지주, 해머 원반 그물망,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 마라톤 전자계측 시계(차량부착용), 3000SC 이동장애물, 주회표시기(디지털식 및 수동식), 스타트용 확장장치, 멀리뛰기 구름판(세트), 높이뛰기 고도계, 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바, 장대높이뛰기 상자, 포환 이동레일, 레이싱용 휠체어 (27)
인라인롤러	경기복, 인라인스케이트, 바퀴(휠), 신발, 지지대, 무릎보호대, 장갑, 헬멧, 팔꿈치 보호대, 베어링, 프레임, 고글, 콘(고깔), 퍽 (14)
윈드서핑	보드, 세일, 붓, 마스크, 라이프 자켓, 헬멧, 하니스 (7)
재활운동기구	보행연습기, 평행봉연습기, 휠체어, 암에르고미터, 재활 로잉머신, 플라이 에르고미터 (6)
정구	고무공, 정구라켓, 정구네트, 정구라인테이프, 지주, 정구라인청소기 (6)
족구	족구지주네트(지주, 네트, 라인), 점수판, 경기용 족구공, 전용족구화 (6)
조정	경기정, 노, 자세지지의자(장애용) (3)
종합무술	도복, 보호대(머리, 몸통, 팔, 다리, 낭심), 장갑, 위 · 장 운동기계 (8)
주행식 운동기구	스케이트보드, 킥보드(핸들브레이크, 바퀴, 핸들) (4)

종목(분야)	품 목
줄다리기	로프, 매트, 경기화, 보호대(앵커선수용 보호조끼), 안전모(앵커선수용 안전모), 보호대(선수용 요대) (6)
체력측정장비	체성분분석기, 악력측정시스템, 앉아 엎드려 앞으로 굽히기 측정시스템, 제자리멀리뛰기 측정시스템, 50M 달리기 측정시스템, 왕복달리기 측정시스템, 엎드려 일으키기 측정시스템, 심박측정기기, 복합체력측정기 (9)
체육계측장비	레이저스톱워치, RFID계측장비(수신기) (2)
체육시설	바닥재(고무블록), 인조잔디, 전광스코어판(휴대용 포함), 매트(공수도, 단학기공, 배드민턴, 체조),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컬팅(경기장) (9)
체조	뿔통, 철봉, 체조복, 평행봉, 트램플린(체조경기 일종), 안마,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링, 체조착지매트, 에어매트, 구름판, 프로텍터, 마루매트 (15)
축구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구(발목보호대), 축구골네트, 골대, 임원선수벤치, 경기복, 골키퍼장갑, 동계축구니트장갑, 공(시각장애인용), 보호대(시각장애인용) (11)
츄크볼	네트 (1)
카누	경기정, 패들(노) (2)
컬링	발판, 브러쉬, 슈즈, 컬링스톤, 스틱 (5)
탁구	탁구공, 탁구넷트, 탁구대, 탁구라바, 라지볼, 라지볼용네트, 라지볼용지주, 라지볼용러버 (8)
태권도	도복, 보호대(다리, 머리, 몸통, 팔, 손등, 발등), 살보대, 전자호구, 매트 (10)
택견	택견수련복(철리, 대자, 행전, 버선), 택견경기복, 경기용 매트, 심판복(노랑), 택견수련화 (8)
테니스	테니스공, 테니스넷트, 테니스라켓, 지주, 스트링거, 경기용 휠체어 (6)
티볼	배트, 공, 배팅티, 베이스 (4)
파크골프	클럽, 공, 신발, 홀컵, 티박스(티잉그라운드), 볼 스탠드, 주춧기(출발주춧기) (7)
패러글라이딩	기체(리스폰스, 밀레니엄, 컴피던스, 콘트롤, 프라임, 프로미스), 보조낙하산, 비행복, 산줄, 웨빙, 하네스(선수용, 아크로, 연습자용, 코로나), 헬멧 (15)
펜싱	심판기, 펜싱검, 전기심판기, 메탈피스트, 릴, 릴선, 휠체어펜싱 프레임 (7)
풋살	풋살볼, 풋살화, 풋살골대 (3)
프리테니스	공, 라켓, 지주, 네트 (4)
플라잉디스크	디스크쳐, 원반, 번호판타켓, 우산트레블러, 미니디스크/마커, 링트레블러, 원형트레블러 (7)
하키	필드하키네트, 골대 (2)
핸드볼	핸드볼공, 핸드볼네트, 골대, 왁스 (4)
핸들러	라켓 (1)
휠체어러비	휠체어 (1)
기타	건강시계(심박측정기능 포함), 종목별 전문신발(댄스스포츠화), 운동보조영상장치, 라인마커, 기능성신발, 운동화, 진동운동기, 어린이 놀이기구(조합놀이대, FUN CLIMBER), 오십견예방운동기, 고령자용 운동기구(체력단련용, 재활치료용, 정신훈련겸용, 스트레칭용), 맞춤깎창, 낙상위험도측정시스템, 균형감각훈련시스템, 신체보호대, 스포츠화 살균기 (1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7-36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현황

업체명	품목명
(주)낫소	축구공, 테니스공
동화에스엔티(주)	농구대, 기계식체력단련기구, 평행봉 허들, 포환, 원반
동구산업개발	농구대
(주)삼익스포츠	양궁활
(주)낫소골프	골프공
수풍산업(주)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웅운체육산업(주)	허들, 스타팅블록, 뽐틀, 체조매트, 레슬링매트 켄파스, 높이뛰기지지주, 높이뛰기 매트, 장대높이뛰기 지지주, 장대높이뛰기매트
원엔원스포츠	양궁활
주식회사 참피온	탁구대
파트너스교역상사	복싱글러브, 복싱헤드기어, 복싱컴퓨터채점기, 복싱링
풍국레포츠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록, 역도바벨, 철봉, 포환, 해머, 축구골대, 축구임원선수벤치, 장대높이뛰기지지주, 높이뛰기지지주, 해머원반그물망, 럭비골대
한국체육산업	역도바벨
한아스포츠	허들, 스타팅블록, 포환, 해머, 원반, 높이뛰기 지지주, 해머그물망, 3000SC이동장애통, 멀리뛰기 구름판, 높이뛰기 고도계, 장대높이뛰기 고도계
현대체육산업(주)	매트(체조, 유도, 레슬링용),นอน슬립매트, 다이빙보드,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출발대, 코스로프, 농구대, 투로용구,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개선스포츠	기계식 체력단련기구
김해산업사	야구글러브
(주)에스피레저	수영코스로프 및 권치기, 스타트대, 배수그레이트, 안전감시대, 수위조절판, 수영장 자동청소기
오성체육산업주식회사	농구대
주식회사 키카	축구화, 축구공
(주)허리우드	포켓당구대, 케놈당구대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전동식러닝머신
와타엔지니어링	러닝머신
(주)범우티앤씨	นอน슬립매트, 배수그레이팅, 수구골대, 수위조절판, 수중창, 심판대, 출발대, 코스로프, 핸드레일
(주)알티뷰텍	전광스코어판
삼성포리머(주)	바닥재
(주)평화산업	탁구공, 탁구라바
클라임코리아(주)	경기등반(인공패널, 인공홀드)

업체명	품목명
한일스포렉스	포환, 원반, 스타팅블록, 높이뛰기지지주
(주)디자인파크개발	야외용체력, 단련기구
(주)다이나포스	기계식체력, 단련기구
대우스포츠산업(주)	농구대, 허들, 스타팅블록, 장대높이뛰기지지주, 배구지지주, 배구심판대, 배드민턴 지지주, 핸드볼 골대, 축구 골대, 축구 임원용벤취
(주)한국오리온	기계식체력, 단련기구
(주)동방데이터 테크놀로지	전광스코어판
(주)홍진HJC	동력스포츠헤لم
탐드림	댄스스포츠화
(주)모투스	전동식러닝머신
	엘립티컬
삼익전자공업(주)	스코어보드전광판
(주)오투런	체력진단시스템
승경체육산업(주)	기계식체력단련기구, 농구대, 배구지지주, 배구지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지지주보호대, 축구 골대
(주)시즈글로벌	스키장갑
디스커버리씨에스(주)	인공패널, 인공홀드
(주)이심기술	스쿠터
(주)바이오스페이스	체성분분석기, 운동관리 · 처방 · 운영 · 지도관련 프로그램
(주)이다에스엔티	배수그레이팅, 수위조절판, 코스로프, 농구대
(주)케이엘에스	야외용체력, 단련기구
(주)티에스코리아	전동운동기
(주)재영엠엔씨	의자(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하나산업사	골프채
(주)승리체육산업	장대높이뛰기 매트, 높이뛰기용 매트
(주)컬처메이커	도복(태권도), 보호대(태권도)
트로이	롤러스키(프레임/휠)(바이애슬론)
(주)대원포티스	헬스용, 승마용 운동기구(유산소운동기구)
신광바둑	바둑알
광신스포츠	농구대,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주)와룡산업	줄넘기, 훌라후프
(주)하림	낚시대

업체명	품목명
(주)이랜드체육산업	조립식아이스링크패널
에이뉴배트	야구배트(알루미늄)
(주)에스엠골프기기산업	골프연습용구
(주)트렉스타	등산화
(주)휴즈	야구배트(나무)
태영산업	런닝머신(유산소운동기구)
(주)INS102	경기복, 스포츠의류
(주)자이로	바퀴(인라인롤러스케이트)
맥스SN(주)	야구배트
시원교구	라인 마커
하드스포츠	야구공
(주)중앙카스포	농구대,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배구지주금구,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지주, 복싱링, 에어로빅메트,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허들, 높이뛰기지주, 장대높이뛰기지주, 높이뛰기용매트, 정구지주, 족구지주, 점수판, 매트, 뽕틀, 철봉, 평행봉, 이단평행봉, 평균대, 구름판, 프로텍터, 축구골대, 선수벤취,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필드하키골대, 필드하키골대 · 네트(하키), 핸드볼골대
가야스포츠	개량활
(주)제일체육공사	야외용체력단련기구, 농구대, 축구 골대, 족구지주네트
경일산업(주)	야외용체력단련기구
G,K SAIL	요트세일
동화체육(주)	농구대
파이비스 스포츠	양궁표적지
(주)자원메디칼	체성분분석기
(주)디엠비에이치	3차원 골프센서
한별체육산업	농구대, 근력단련기구
이글아이드	기능성골프화
(주)스포닉스	스포츠IT(심폐지구력측정용 무선심박동 평가시스템)
(주)티에스메디텍	음파진동운동기
(주)샤루스	진동운동기
테크웨이브(주)	RFID TAG
(주)라저스트스포츠	태권도 전자호구
(주)다트피쉬코리아	스포츠IT(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자세평가도우미)
(주)조인조경	야외용 체력단련기구

업체명	품목명
파마스포츠	테니스라켓
(주)구보코포레이션	파크골프클럽
(주)한발	당구큐
PSV	인라인스케이트
(주)카이로스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주)슬로비	스케이트보드, 퀵보드
제맥스코리아	탁구대
연무산업	활(개량활)
(주)트랑고	안전벨트, 프렌드, 카라비너, 슬링/테이프, 빙벽용아이젠, 아이스엑스, 안전모
송무궁	활(개량활)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골프채
프리원	디스캐처, 우산트레블러, 링트레블러, 원형트레블러
(주)휠라인	휠체어(재활운동기구), 휠체어펜싱, 프레임, 휠체어(휠체어력비)
(주)볼빅	골프공
대성체육산업	농구대, 배구지주, 축구골대,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
(주)두성기술	심박측정기기
(주)골프앤코	골프채
블랙야크	등산복, 배낭
마하무역(주)	스포츠화살균기
(주)조은프로텍	보호장구(발목보호대)
파이온시스템	전자표적장치
금호조침	낙시바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용자사업 확대

2011년 현재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기금용자사업 16억 9,7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용자 대상 업체는 2011년 12월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117개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이며,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아 용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설비자금은 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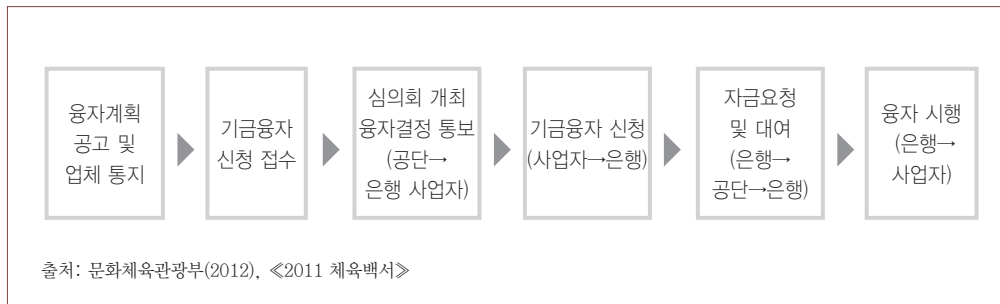
연구개발자금은 3억 원, 원자재구입자금은 1억 원을 한도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이율은 4%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및 조건은 표 7-37과 같다.

표 7-37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사업 개요

융자 대상	융자 분야	융자한도액	융자 기간	융자이율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5억 원	10년(거치기간4년)	4%
	연구개발자금	3억 원	5년(거치기간2년)	
	원자재구입자금	1억 원	3년(거치기간1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그림 7-4 기금융자 시행절차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2008~2011년 기금융자 현황은 표 7-38과 같다.

표 7-38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금융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연 도	융자 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2008	계	30	5,841	25	2,599	17	1,488
	설비투자	10	3,162	9	1,219	6	752
	연구개발	12	2,080	10	1,146	6	541
	원자재구입	8	599	6	234	5	195

연 도	용자 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2009	계	21	4,330	15	3,180	8	1,350
	설비투자	3	1,180	2	880	0	0
	연구개발	12	2,550	8	1,800	5	1,100
	원자재구입	6	600	5	500	3	250
2010	계	11	2,973	11	2,973	10	2,283
	설비투자	2	980	2	980	1	480
	연구개발	7	1,793	7	1,793	7	1,603
	원자재구입	2	200	2	200	2	200
2011	계	9	2,900	9	2,790	7	1,697
	설비투자	4	2,000	4	1,890	3	1,097
	연구개발	3	700	3	700	2	400
	원자재구입	2	200	2	200	2	2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4.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지원 정책

(1)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기금용자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체육시설업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용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용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등록 체육 시설(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신고체육시설 중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설치자금과 개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시설업체 용자제도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7-39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기준

용 자 대 상	용자 분야	용자한도액	용자기간	용자이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신규설치자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자 금	30억 원	10년 (거치기간 4년)	4%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신규설치자		5억 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 자 금	5억 원	5년 (거치기간 2년)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3억 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시설설치자금은 등록체육시설의 경우 30억 원(용자기간 10년),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5억 원(용자기간 10년)이며, 개보수자금은 등록체육시설 5억 원(용자기간 3년), 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3억 원(용자기간 3년)을 한도로 용자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 현황은 표 7-40과 같다.

표 7-40 체육시설업체 기금용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괄호는 업체 수

업 종 연 도	계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불링장	계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2008	신청	32,571 (65)	100 (1)	10,680 (27)	500 (1)	800 (1)	380 (2)	-	-	10,100 (8)	770 (2)	-	2,114 (5)	1,260 (5)	5,567 (12)	300 (1)
	결정	17,116 (46)	70 (1)	6,596 (20)	350 (1)	800 (1)	140 (1)	-	-	3,640 (4)	539 (2)	-	990 (3)	570 (3)	3,121 (9)	300 (1)
	시행	9,394 (25)	70 (1)	4,338 (13)	-	-	-	-	-	1,900 (1)	-	-	500 (1)	570 (4)	1,576 (4)	300 (1)

연도	업종	계	볼링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스키/ 빙상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기타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시설 설치	개보수
2009	신청	22,953 (52)	600 (2)	9,400 (22)	353 (1)	900 (3)	-	1300 (3)	-	-	4,730 (4)	350 (1)	270 (1)	620 (2)	200 (2)	3,930 (11)	300 (1)
	결정	15,123 (39)	600 (2)	6,300 (17)	353 (1)	600 (2)	-	1,300 (3)	-	-	2,500 (3)	350 (1)	270 (1)	620 (2)	200 (2)	2,030 (5)	-
	시행	7,550 (19)	300 (1)	3,200 (9)	-	300 (1)	-	500 (1)	-	-	1,500 (2)	350 (1)	-	-	100 (1)	1,300 (3)	-
2010	신청	13,774 (29)	200 (1)	7,850 (15)	300 (1)	300 (1)	-	354 (2)	-	-	2,800 (2)	500 (1)	-	-	500 (2)	650 (2)	320 (2)
	결정	12,549 (28)	200 (1)	6,625 (14)	300 (1)	300 (1)	-	354 (2)	-	-	2,800 (2)	500 (1)	-	-	500 (2)	650 (2)	320 (2)
	시행	5,490 (17)	100 (1)	2,160 (9)	-	300 (1)	-	260 (1)	-	-	1,700 (1)	500 (1)	-	-	-	150 (1)	320 (2)
2011	신청	22,525 (41)	800 (2)	5,725 (13)	-	-	-	90	-	500 (1)	10,900 (9)	-	-	1,210 (4)	860 (3)	2,110 (6)	330 (2)
	결정	9,590 (30)	800 (2)	3,010 (10)	-	-	-	1	-	370 (1)	2,000 (4)	-	-	710 (3)	860 (3)	1,510 (5)	330 (2)
	시행	5,444 (19)	300 (1)	1,416 (5)	-	-	-	-	-	370 (1)	1,000 (2)	-	-	710 (3)	811 (3)	807 (3)	30 (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체육시설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체육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간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만으로는 부족한 국민의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민간체육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골프장 입지기준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해외여행 등과 연관된 서비스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지방 골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했다.

2009년에는 골프장 외 체육시설업소 숙박시설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정을 폐지 및 완화하였으며 골프장 입지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였고, 2010년에는 종합체육시설업, 승

마장업 등 신고전환업종에 대한 총 투자범위 내 회원모집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골프장 입지에 대한 입지 허용 및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이어 2011년에는 승마·골프연습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였고 골프장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2012년에는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을 폐지하였다.

표 7-41 연도별 스포츠시설업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연 도	규 제 명	개 선 내 용
2008	골프장시설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기준 1a 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이내 지역 골프장 부지 내 숙박시설 설치 금지 규정 폐지 시·도기준 중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5% 초과금지 폐지 골프장 부지 내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폐지
	사업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
	골프장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보유세 → 면제, 체육진흥기금 → 면제 보유세 및 취득세 → 경감
2009	시설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장 외 체육시설업소 숙박시설 제한 폐지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규정 완화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
	골프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mm이상 조정지 설치·운영 시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밖 대중 골프장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II 권역(팔당호 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대중골프장 입지 허용
2010	회원모집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등 신고전환업종에 대하여 총 투자범위 내 회원모집 제한 규정 폐지
	골프장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밖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II 권역(팔당호 포함)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 허용
2011	승마장·골프연습장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장 실외 3,000㎡, 실내 1,500㎡, 말 10두 이상 → 실외 또는 실내 500㎡, 말 3두 이상 퍼팅·피칭 연습용 코스의 경우 타석 설치 의무 규정 완화
	신고체육시설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기준 폐지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검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변경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
2012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키장 회원증 확인자 지정 규정 폐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3)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기금용자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용자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용자 사업의 용자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회사를 설립 후 만 1년 경과하였으며 설립 이래 스포츠서비스업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단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업체, 공고일 현재 대회조직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기업, 공고일 현재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업체, 기타 스포츠단체 및 대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용자규모는 연 40억 원이며 10억 이내의 용자한도 내에서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용자이율은 연 4%이다.

표 7-42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용자기준

용 자 대 상		용자 분야	용자한도액	용자기간	용자이율
스포츠 서비스 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	설비자금	10억 원	10년 (거치기간 4년)	4%
		연구개발 자금	3억 원	5년 (거치기간 2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008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용자 사업에는 총 2개 업체에서 13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체에 13억 원이 용자되었다. 설비자금에 1개 업체가 10억 원을 신청하였고 연구개발에 1개 업체가 3억 원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신청한 업체 모두 시행하였다. 2010년에는 스포츠서비스업체 용자사업에는 총 1개 업체에서 3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1개 업체에 3억 원이 용자되었다. 연구 개발에 1개 업체가 3억 원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신청한 업체에 용자를 시행하였다. 2011년에는 스포츠서비스업체 용자 사업에는 총 2개 업체에서 3.5억여 원을 신청하였으며, 2개 업체에 총 3억 5천 만여 원이 용자되었다. 2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자금에 총 3억 5천 만여 원을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신청한 2개 업체에 용자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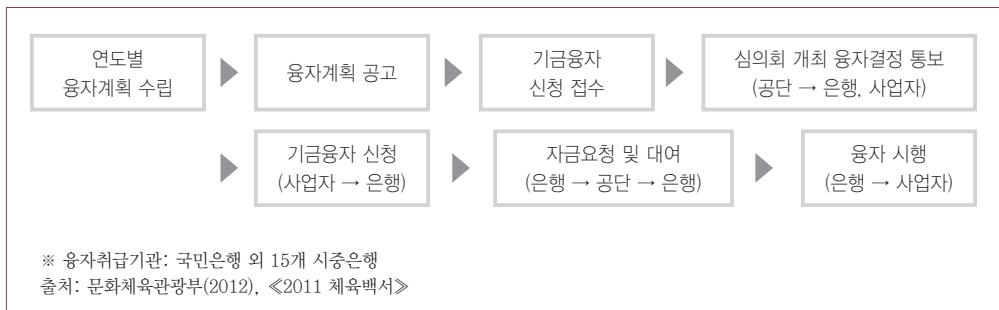
표 7-43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융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개

연 도	융자 분야	신 청		결 정		시 행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 액
2008	계	2	1,300	2	1,300	2	1,300
	설비투자	1	1,000	1	1,000	1	1,00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2009	계	5	1,749	3	949	1	150
	설비투자	3	1,349	2	649	1	150
	연구개발	2	400	1	300	0	0
2010	계	1	300	1	300	1	300
	설비투자	0	0	0	0	0	0
	연구개발	1	300	1	300	1	300
2011	계	2	350	2	350	2	350
	설비투자	0	0	0	0	0	0
	연구개발	2	350	2	350	2	35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그림 7-5 스포츠서비스업 기금융자 시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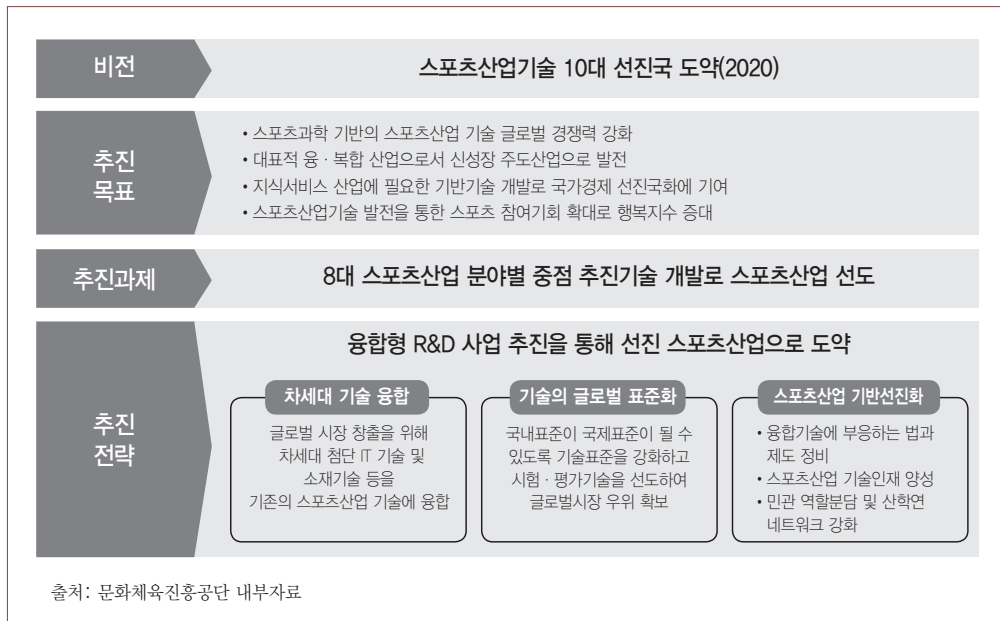


(4)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스포츠과학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였다. 스포츠 분야 전략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

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며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7-6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의 비전



지원 대상과제는 자유공모과제, 지정공모과제, 정책과제로 나누는데 자유공모과제는 과제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관·업체가 스스로 제안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정공모과제는 수행기간이 1~2년 이내의 단기과제로 정부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렴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제안을 제시하여 이를 수행할 기관·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정책과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적정한 기관·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제는 스포츠과학에 기반을 둔 기술로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성과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3년 이상의 장기 수행과제를 패키지(Package)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여기에서 선정된 스포츠과학 기반 인체 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평가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고회전율의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Personal Training System) 개발,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시스템 개발, 스포츠과학 기반 고성능 경기용 자전거 개발과제를 선정하였다.

2008년에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22건에 정부지원금 28억 1,160만 원, 2009년에는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12건에 정부지원금 57억 5,295만 원, 2010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에 정부지원금 67억 4,749만 8천 원을 지원하였다. 2011년도에는 계속사업 8건과 신규사업 8건에 정부지원금 65억 4,150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7-44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연 도	협약체결과제		정부보조금	민간보조금
2008	계속	2건(정책 2건)	400,000	2,811,600
	신규	22건(정책 1건, 지정 3건, 자유 18건)	2,411,600	
2009	계속	12건(정책 3건, 지정 3건, 자유 5건)	1,726,000	5,752,950
	신규	12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7건)	4,026,950	
2010	계속	8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3건)	4,617,498	6,747,498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130,000	
2011	계속	7건(정책 1건, 지정 4건, 자유 2건)	4,292,000	6,541,500
	신규	8건(정책 1건, 지정 1건, 자유 6건)	2,249,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7-45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지원과제 현황

연 도	과제명	기관명
2008	한국형 경기용 휠체어 개발 연구	대한장애인체육회
	아동용 야외운동시설(헬스기구) 기반기술 개발	(주)디자인파크개발
	척추 운동 및 근력 측정시스템 개발	재활공학연구소
	등속성 매커니즘을 활용한 근력 트레이닝시스템 개발	(주)두비원
	원호궤적을 가지는 새로운 운동기구의 개발	(주)모투스
	연속수평 매커니즘의 가변속 트레이닝장치	(주)제너럴로터
	호환성을 갖춘 Isolateral 3차원 운동기구	CYS-SYSTEM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체육활동을 위한 다중센서 기반 시각대체 정보인식시스템 개발	동국대 산학협력단
	스마트카드 기반의 유비쿼터스 동적 운동 처방시스템 개발	(주)엑스포웰
	디지털기술 기반의 고령친화 세대용 스포츠기구 및 콘텐츠 개발	동신대 산학협력단 부설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스마트 모션센서를 이용한 디지털 휘트니스 퍼스널 트레이닝기술 개발	위즈정보기술

연 도	과제명	기관명
2008	신체와 정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지능형 바이오피드백게임 휘트니스시스템 개발	(주)더힘스
	1:1 맞춤형 헬스 트레이닝시스템기술 개발	(주)프림포
	퍼터그립시스템(양손잡이그립) 개발	(주)리임코리아
	최적골프 퍼팅을 위한 사용자 친화형 스마트 퍼터시스템 개발	건국대 산학협력단
	노약자용 나비골프클럽 개발	(주)나비월드
	'RF 무선망 상에 위치추적기술을 이용한 LBS 골프장 경기위치 관제시스템' 개발	(주)리지시스
	고탄성 inner-tire system을 이용한 레이싱용 인라인 스케이트 WHEEL 개발	(주)자이로
	영상추적기술을 이용한 수영 분석시스템	(주)비주얼스포츠
	유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기능 유도 인형시스템 개발	용인대 산학협력단
	스포츠 무릎손상 예방 및 무통치료용 고탄성 섬유강화 복합재료 무릎보조기의 개발	(주)트리플씨메디칼
2009	3차원 골프볼 탄도 및 골프클럽 피팅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세계공인 전자호구 훈련용 디지털 태권도 트레이너 개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하지 융복합 지능형 전신 운동기기 개발	(주)휴모닉
	유비쿼터스 환경의 이동형 퍼스널 트레이닝 로봇 개발	(주)로보코
	축구경기기의 전략 분석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평가시스템 및 이를 지원하는 초광대역망 내 선수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포츠수행향상과 부상방지를 위한 원터치식 레이싱시스템 개발 및 스노보드 부츠 적용	(주)엘림코퍼레이션
	관절충격 방지 및 진동·소음 저감 런닝머신 개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효율 반도핑 약물검사를 위한 다성분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포츠과학 기반 인체모델 구축 및 인체영향 평가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시스템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0	스포츠과학과 첨단 IT 및 양방향 미디어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퍼스널 트레이닝 시스템	(주)오투런
	스포츠과학기반 고기능성 경기용 자전거 개발	건국대학교 충주산학협력단
	스포츠활동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변환시스템 개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친환경 노인 야외 스포츠시설 및 운동기구 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MEMS 기반의 디지털 퍼팅 칼리메이터기술 개발	(주)로보메이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 개발 및 정량적 측정방법 개발	PSV
	균형(BALANCE)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파도타기 장치 개발	(주)라이더텍
	Extreme Peformance를 발현하는 테니스용 String 국산화기술 개발	(주)해성엔터프라이즈
	자기력기술을 활용한 USN 기반의 차세대 C머신 개발	(주)개선스포츠
	스포츠재활치료용 이중제어 음파 진동시스템 개발	(주)소닉월드

연 도	과제명	기관명
2011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대비한 국산 경기용 컴파운드 보우 개발	(주)원엔원
	골프 비거리 증가를 위한 착용형 보조기어의 개발	건국대학교충주산학협력단
	생체신호 및 동작분석 기반 바이오 피드백 심리 훈련시스템 개발	(주)스포츠닉스
	IT 융합 야외 아동용 스포테인먼트 운동기기 개발	(주)디자인파크개발
	스포츠과학 기반 다기능 소형 풋볼 보트 및 IT 융합 라이프 자켓 개발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싸이클 개발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재활 훈련을 위한 4정점 리프트 제어용 체중 부하감소 트레드밀 개발	사이버메딕
	스포츠 과학적 검증을 통한 스포츠용 소아 전동 운동기 개발	에스엔에스케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는 표 7-46과 같다.

표 7-46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사항	비고
연구개발 분야 및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 관련 업계 및 학술기관 대상 기술개발수요조사 실시 타 부처 주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중 과제 중복여부 검토 산업 기반기술 및 제작기술, 공공 기술 분야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연구 분야 및 과제 도출 	국민체육진흥공단 ↔ 관련 기관
개발여부 검토 및 과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에의 파급효과 검토 기존기술 여부 및 개발완료가능성 검토 법령적합성·중복성 등 확인 연구개발과제 확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공고 및 계획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분야 및 과제 공모 공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 접수 	연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평가결과 기반 사업 추진적합도 및 필요성 재검토 후 주관연구기관 최종확정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 / 자문평가위원회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협약 체결 과제수행 및 과제진행결과 보고 	주관연구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결과 제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완료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최종결과 평가 및 보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 / 자문위원회
결과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산업계 기술 전파 	국민체육진흥공단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내부자료

2007년부터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과학 기반 융·복합기술의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IT 기술과 스포츠과학과의 융합, 고부가 장비산업, 첨단스포츠용품, 시뮬레이션스포츠, u-스포츠 등 첨단기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하고 산·학·연 교류를 통한 연구 기반구축을 통해 다양한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발생시키고 있다.

표 7-47 스포츠산업기술 개발 사업 지원 개발기술의 사업화 사례

구분	성과내용	적용사례
디지털 기반의 고령화 세대용 스포츠기구 및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트볼 콘텐츠 유통 '드림게이트'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3개 회사 유통 체결) • 공공기관 사업 추진(대한노인회 복지 사업 등) • 산·학 공동 개발협약((주)지티에듀, (주)더힘스)
한국형 경기용 휠체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용 휠체어 기술축적 및 국산화 기반 마련 •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휠체어 공급 • 2011 서울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SPOEX) 참가 (결과물 일반인 전시)
아동용 야외운동시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놀이터, 지역사회 공공장소에 아동용야외 운동시설 설치 • 2011 서울국제스포츠용품박람회(SPOEX) 참가 (결과물 일반인 전시) • 한국 아동의 표준 체계에 근거한 맞춤형 운동기구 제작 기반 마련
스포츠체육측정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on System(운동장비 소프트웨어)(오투런) • 체력진단시스템(S/W Program, T-helmas) • 전자에어식 근력강화 운동장비 • 서울아산병원, 자생한방병원, 서초노인복지회관 등 23개 업체(매출액 530백만 원 발생)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스포츠시스템 개발 • 차세대 실감스포츠 시스템을 구현하기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골프, 마운틴바이크, 스노보드 스포츠시스템에 적용하여 개발기술의 성능 및 상용성을 검증 • 성과 게재지 또는 언론사명(보도일자): SCI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rgonomics, Volume 41, Issue 1, pp 19-29, 2011

구분	성과내용	적용사례
디지털 퍼팅 컬리메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퍼트(디지털 퍼팅 컬리메이터)(로보메이션) • 롱기스트(디지털 드라이브 스윙 분석기), 정적인 중력측정을 동적인 가속도 측정으로 변경하여 스윙궤도 및 스피드, 템포 등을 조절 가능 • 탈부착 가능한 초경량으로 해외진출 유망 스포츠용품의 고부가가치화 분야 개척
원터치식 레이싱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노보드용품 종합제조회사, 버즈런 • 스노보드 60여년 역사동안 R&D 기술개발을 통해 스노보드 장비의 새로운 기능(부츠 끈조임 시스템)을 실현 • 2012년 약 100만 불 정도의 수출계약 상담이 진행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R&D 사업설명서자료

그림 7-7 전략과제(중장기 과제)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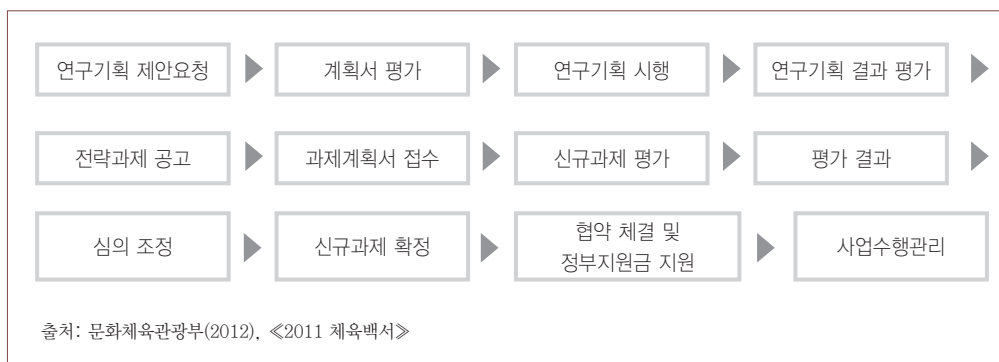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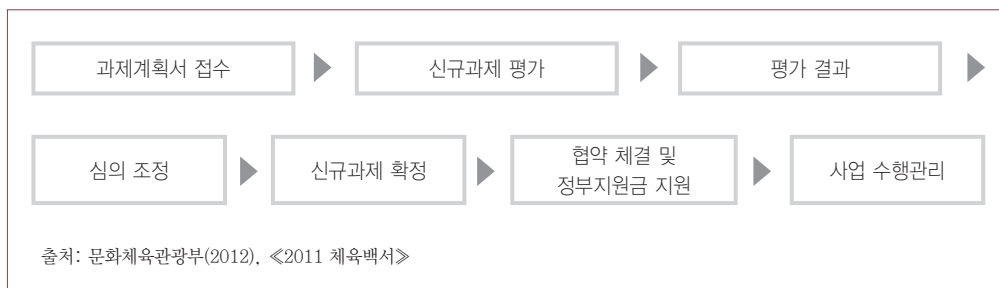


그림 7-8 자유공모과제 선정절차



5.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1)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계획 및 교육과정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2002년부터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경영관리자과정 등을 운영 2011년까지 총 4,463명을 양성하였다. 2008년에 양성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부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으로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2010년에는 산업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터과정을 장기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등 다수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의 전문성은 강화되었으나 양성 인원은 다소 감소되었다.

표 7-48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계
스포츠마케터	185	209	40	79	513
스포츠시설경영관리자	54	62	61	70	247
공공체육시설관리자	51	45	47	44	187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20	20	20	20	80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	22	21	25	25	93
프로스포츠마케팅 현장체험학습	119	88	—	—	207
체육행정공무원	46	36	50	38	170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교육	—	—	25	18	43
체육단체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교육	—	22	24	27	73
합 계	497	503	292	321	1,61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008년부터는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프로스포츠마케팅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스포츠 전문 인력의 현장경험을 쌓아 실무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09년부터 체육단체 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교육, 2010년부터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총 321명의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교육과정별로는 스포츠마케터 79명, 스포츠시설경영관리자 70명, 공공체육 시설관리자 44명,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20명,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 25명, 체육행정공무원 38명,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교육 18명, 체육단체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교육 27명이 양성되었다.

(2) 스포츠산업 해외연수 실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2002년 이후 스포츠마케터과정과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과정에 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면서 스포츠산업현장의 산업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2005년도에서부터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스포츠마케팅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전문 스포츠마케터 해외연수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2011년까지 15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교육대상자는 체육관계공무원, 공공체육시설 종사자,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업체 직원들로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선진 체육시설 및 스포츠마케팅현장을 방문하여 9박 10일간 선진 스포츠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교육의 실시는 국제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터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향후 개설될 전문 스포츠마케터의 전 과정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3) 프로스포츠마케팅 현장체험학습

프로스포츠마케팅 현장체험학습은 프로스포츠구단의 마케팅방법에 대한 현장체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첫 시행되었다. 교육대상자는 스포츠 관련 전공 대학생들로 각 차수별 15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선정된 스포츠구단의 스포츠마케팅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스포츠산업정보망 구축

정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을 통해 스포츠마케팅기법·첨단기술·특허 등 산업정보 DB 구축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내외 첨단정보의 체계적 수집, 가공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

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는 민간스포츠정보제공업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경기 기록조사·가공업, 선수기량등평가업, 스포츠판성향조사업 등을 활성화하며 스포츠에이전트활동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 스포츠산업 정보

스포츠산업 정보는 1997년에 개설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2차에 걸쳐 확대 구축하였다. 또한 2003년부터 2004년 동안 홈페이지 갱신(Renewal)과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객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도에 시스템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개편내용은 검색기능 확대 및 보완, 응용개발언어 변경, 메일링리스트 발송, 메인 디자인 변경 등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며 고객서비스와 연관된 항목을 강화해 개편하였다. 스포츠산업 정보는 스포츠산업에 관련된 최근 뉴스와 스포츠산업 자료, 산업체 정보, 스포츠용품 정보, 스포츠시설 정보 등을 서비스하였다.

이후 2010년에 스포츠산업 정보를 개편하여 스포츠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스포츠포털에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통계 정보 및 관련 뉴스를 제공하여 스포츠산업현장 발전을 도모하였다.

표 7-49 스포츠포털의 세부내용

구 분	목 적	세부내용
스포츠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 관련 통계 정보 제공 • 스포츠산업 관련 뉴스 및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 기술정보 • 스포츠업계뉴스정보 • 스포츠자료실 • 스포츠비즈니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또한 스포츠산업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스포츠용품 인증에 대한 정보와 관리 전산시스템을 서비스 하고 있다. 인증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스포츠용품 인증 및 시험업무의 관리와 정보제공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및 시험·검사 신청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비용절감효과를 나타냈다(표 7-50).

표 7-50 스포츠용품 인증 사업의 정보자료 구축내용

구 분	분 류	세부내용
인증 사업 관리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 소개 • 품질인증 절차 • 품질인증 업체 및 품목 현황
	스포츠용품 시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검사 안내 • 시험·검사 절차 • 시험·검사 온라인 신청 • KOLAS 시험 품목 • KOLAS 시험 절차 • KOLAS 시험 온라인 신청 • 주요 시험장비 현황
	스포츠용품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개발연구 안내 • 규격개발연구 실적 • 수탁연구개발 안내 • 수탁연구개발 실적 • 공동연구개발 안내 • 공동연구개발 실적
인증지원	고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 FAQ, Q&A
	회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및 관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제8장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제1절 선수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스포츠인권 사업 강화

제2절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





제8장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스포츠는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을 통해 승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공정성’의 확보는 어느 분야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선수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인권 강화 사업과 더불어 스포츠계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의 건설”이 발표되었다. 이후 ‘공정’,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정치·사회는 물론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는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을 통해 승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공정성’의 확보는 어느 분야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간 선수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인권 강화 사업과 더불어 스포츠계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제1절 선수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스포츠인권 사업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체육계의 고질병으로 지도자나 선배들의 구타, 심리적 폭력, 가혹행위, 폭언·욕설·비난·협박·괴롭힘·따돌림·놀림 등의 가혹행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 4년간(2008~2011) 스포츠선수들의 폭력, 성폭력, 기타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이나 신고 및 상담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스포츠인권익센터’ 및 ‘One-Stop 지원서비스’ 등 신고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실질적인 접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육계에서도 과거보다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신고, 상담 등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식전환의 결과로 증가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신고 및 상담 이후 해당 지도자의 징계 현황을 보면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민원 중 폭력·성폭력과 관련한 신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94건이며 이중 징계는 50건으로 징계율은 57%이고 신고된 건 중 징계가 되지 않거나 경징계(주의·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증거 부족, 당사자간 중재 등으로 인한 건으로 향후 신고 건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8-1 선수인권 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연 도	폭력			성폭력			기타 인권 침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2008	7	—	7	2	—	2	—	—	0	9	—	9
2009	11	8	19	2	2	4	4	47	51	17	57	74
2010	31	117	148	5	11	16	47	285	332	83	413	496
2011	28	72	100	8	26	34	40	382	422	76	480	556
계	87	197	284	17	39	56	91	714	805	195	950	1,14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표 8-2 선수인권 침해에 대한 징계건수

연 도	폭력		성폭력		기타 인권 침해		계	
	신고·상담	징계	신고·상담	징계	신고·상담	징계	신고·상담	징계
2008	7	3	2	1	—	—	9	4
2009	19	13	4	3	51	—	74	16
2010	148	13	16	2	332	3	496	18
2011	100	10	26	2	422	0	548	12
계	284	45	48	8	805	3	1,137	56
징계 비율	15.8%		16.6%		0.4%		4.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2. 추진계획

선수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16개 시·도교육청, 55개 경기단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연계하여 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선수인권 보호를 통한 즐거운 스포츠현장 구현에 목표를 두었다. 선수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방식으로는 첫째, 스포츠인권교육 강화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정례화, 학부모의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 및 지도자 자격연수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스포츠인권 보호지침(Guidance)을 적극 활용하고 선수 성폭력 방지지침 제정(2010년)을 보완 및 적극 활용한다. 중앙단위 전문 상담사와 전문 보조원(5명 배치 중) 및 권역별 상담 거점 확대(지역사회 예방 및 대처 협력망 구축)를 통해 스포츠인 권익센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합숙소 내 팀 매니저제도 도입 및 상담소 운영 활성화, 제3자 전문가 감시체제 도입을 통해 안전기준 미달 합숙소를 폐지하고 장기 합숙훈련을 제한하여 합숙소 개선에 앞장선다.

넷째, 재발방지를 위해 형사기록 조회를 통해 유사범죄 경력자를 사전에 차단하여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으로 인권유린 코치 및 지도자는 현장에서 퇴출시켜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제2절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1. 추진배경

스포츠계는 2008 베이징올림픽대회,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2010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아시아 최초 7연속 본선 진출을 이루는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일구어 내었다. 또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온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등 온 국민에게 기

쁨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에서의 놀라운 성과와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폭력, 승부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운영시스템과 비리문제는 공정하고 ‘선진 인류 국가’를 지향하는 국정철학에도 위배되어 스포츠 분야의 공정사회 건립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종목별 경기단체는 국내외에서 각 종목과 관련 대표성을 지닌 권위 있는 단체이자 체육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영세성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성과 각종 비리문제는 체육계의 공정 환경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지목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한체육회, 체육과학연구원, 전문회계법인 및 학계와 협력하여 그간 경기단체의 각종비리로 파급된 체육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체육발전을 견인할 선진적 단체로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 경기단체 평가를 근간으로 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축구는 2011년 6월 발생한 승부조작 사태로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2012년에도 연달아 발생한 프로야구와 배구 경기조작파문은 스포츠의 가치와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중요법적 처방이 아니라 관련부처 및 체육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을 수립(2012.2.)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주요 추진내용

(1)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코자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다.

첫째,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일벌백계하는 한편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암행감찰제도(Supervisor)’의 도입 등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프로구단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

는 방안도 추진한다.

셋째, 불법스포츠포드박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포츠포드박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스포츠포드박사이트 운영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지도자 등이 신분불안 없이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2)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스포츠계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 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실시시기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위 관련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말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①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 실시

종목별 경기단체의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 ‘경기단체 선진화방안 심포지엄’을 개최(2009.7.10.)하여 경기단체 선진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2010년 경기단체 임원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경기단체 평가 설명회(2010.4.26.)’를 개최하여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는 대한체육회 가맹 55개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①리더십 평가, ②핵심 사업 윤리성 평가, ③재무관리 평가를 기본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그 평가지표내용은 표 8-3과 같다.

첫째, 리더십 평가는 경기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단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경기단체 조직운영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이다. 둘째, 핵심 사업 윤리성 평가는 경기단체의 비윤리적 행동을 파악하여 향후 체육단체의 대내외적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경기단체 윤리의식의 확립 및 고취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단체 윤리경영의 제도화 및 정착화를 위한 지표이다. 셋째, 재무관리 평가는 경기단체의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용 상태를 파악하여 경기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이다.

표 8-3 경기단체 평가지표 총괄표

구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리더십 (300)	• 비전 및 전략 제시(50)	• 비전을 통한 협회의 위상 정립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이사회,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50)	• 단체장 선출의 투명성 • 집행부(이사회),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 합리적 · 민주적 단체 운영(50)	• 이사회, 대의원총회 운영 합리성 • 산하연맹과 협력적 협회 운영 • 분과위 등 전문위원회 운영실적
	• 재정 기여도(50)	• 회장 찬조금 및 기타 협찬금 유치실적 • 재정확충 제도화 노력
	• 국제교류사업의 합리성(50)	• 국제기구 활성화 • 국제교류사업의 성과
	• 체육선진화 정책과제 기여도(50)	• 국가시책 및 분야 선진화 노력
	• 대표팀의 지도자 관리(80)	• 감독 및 코치 선발 관리의 합리성 • 선발부정건수
핵심 사업의 윤리성 (400)	• 대표선수의 관리(80)	• 선수선발관리의 합리성 • 선발부정건수
	• 경기성적의 공정 관리(40)	• 공정 관리 노력 • 부정 적발건수
	• 선수폭력 방지 및 보호 노력(40)	• 폭력 발생건수 • 사전예방 노력(교육실적 등) • 선수상해 시 보호 조치
	• 심판제도 운영(80)	• 심판자격관리 및 심판배정의 적절성 • 심판보수교육실적 • 심판부정 발생
	• 반도핑 관리(40)	• 반도핑 정보 확산 노력 • 반도핑 교육 참가실적
	• 윤리교육(40)	• 윤리강령 보유 • 윤리교육 개최/참가실적

구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재무관리 (300)	• 회계 및 결산관리의 합리성(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객관성 • 회계투명성 확보 노력 • 회계구조의 개선노력
	• 예산운영관리의 적정성(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예산사용 방지 • 보조금 및 기금예산 관련 규정 준수 • 예산사용 절감
	• 재무성과(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경상비 • 고유목적사업 예산집행률 • 자체사업수입성장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② 기타 경기단체 공정성 제고

한편 경기단체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경기단체의 선진화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비리 임원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고보조를 중단하며 기금 및 협찬금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 회계사에게 회계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회계팀을 운영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선진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경기실적조작으로 인한 입시비리 등 부가적인 공정성 위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한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온라인증명을 발급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4) 공정 · 투명 스포츠환경 조성대책 추진체계

정부는 선진인류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포츠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조성이 국가적 과제를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하여 스포츠 환경을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각 프로스포츠연맹 등이 스포츠단체와 함께 종합대책을 2012년 2월 공동으로 수립하였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단 운영을 통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 추진성과

(1)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첫째, 경기조작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위한 프로야구가 가장 먼저 경기조작 관련 처벌 규정을 명문화(2012.3.13.)하였고 프로농구는 선수계약서를 개정(2012.3.30.)하였으며 프로연맹은 연맹별 규약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불법 스포츠도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개정(2012.2.17.)하고 그림 8-1과 같이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연 1회에서 4회로 프로스포츠 경기조작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프로 4개 종목 1,293명의 선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자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8-1 국민체육진흥법 홍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둘째, 2012년 3월부터 리그가 진행 중인 프로야구와 축구 종목에 대한 암행감찰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감독관을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2011년 6월 이후 축구에만 도입된 내부 고발에 대한 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2012년 4월부터 전 종목으로 확대 도입하였고, 브로커의 접근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조작 제의를 받은 선수들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콜센터’를 2012년 4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최저연봉을 2,400만 원으로 정하고 연금지원금을 증액하여 가계 곤란으로 인하여 경기조작에 가담하게

만드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였다.

셋째, 불법스포츠포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특별 집중단속기간(2012.5.~9.)을 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2012년 4월 24건 99명, 2012년 5월 77건 154명을 검거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주요 포털업체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회의 심의 전에 3일 이내 즉각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당초 40일 소요되던 불법사이트 심의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차단율 증가에 기여하였다. 2012년 불법사이트 접수 및 처리 비율은 4월말 현재 67.7%로 2010년의 36.4%와 2011년의 44%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8-4와 같다. 또한 2012년 4월 30일 개설 운영 중인 통합 콜센터(1899-1119)를 통하여 불법스포츠포도박사이트 신고 및 처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표 8-4 불법사이트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연 도	접속건수 (A)	처리건수			
		접속차단(B)	이용해지(C)	기타	차단률(B+C/A)
2010	7,951	2,241	656	5,054	36.4%
2011	13,755	5,399	648	7,708	44.0%
2012	1월	776	358	14	47.9%
	2월	979	472	56	53.9%
	3월	1,338	963	159	83.9%
	4월	1,288	858	85	73.2%
2012	4,381	2,651	314	1,416	67.7%

또한 경찰청도 불법스포츠포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을 2012년부터 실시하였고 2012년 5월에 만 105억 원대의 해외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광고업체 피의자 10명 검거(2012.5.1.), 538억 원대의 스포츠포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2012.5.15.) 등의 노력 경주하고 있다.

(2)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학교체육 주요 업무계획을 2012년 2월 수립하

였다. 이 계획을 기초로 학교운동부 수입을 학교회계로 편입하도록 2012년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마련하였고 불이행 시 지원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상별지침〉을 개정(2012.2.)하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상별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2012.6.) 하였고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201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도자 직무연수를 의무화하여 2012년 6월부터 총 6회에 걸쳐 1,000여 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인성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5월 21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15개의 주요 대학이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근절을 위한 성명발표에 동참하여 대학스포츠 정상화에 대하여 결의하는 등 자정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성명서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금전 스카우트 근절, 지원서 1인 1매 발급관행 즉각 중단 촉구, 경기지도자의 처우를 점진적 개선, 학생선수의 학업증진을 위한 노력 요구, 한국형 대학스포츠 운영관리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①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

2010년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 도입 이래,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55개 경기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경기단체의 종합평균은 리더십, 핵심 사업 윤리성에서 ‘미흡(C)’을 재무관리에서 ‘매우 미흡(D)’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경기단체에 대한 평가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는 등 경기단체의 공정성 회복 및 회계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평가 결과 2010년에 비해 조직운영과 재무평가에서 단체 평균 ‘보통(B)’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같이 정기적 평가를 통해 경기단체 조직운영, 재무 등 지표별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경기단체 지원과 연계하여 경기단체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기단체에서 개선해야 할 항목을 점수 조정 및 추가 지표 신설을 통해 공정 가치를 확산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기타 경기단체 공정성 제고

경기단체 비리 임원의 직무를 배제하도록 각 경기단체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집행내역을 2012년 3월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회계팀을 두어 경기단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회계지원을 할 예정이다.

(4) 공정·투명 스포츠 환경 조성대책 추진체계 구축

2012년 2월 공정·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및 체육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브리핑하는 등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향후 계획 및 과제

스포츠에 있어서 경기조작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스포츠정신 그 자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대중성과 파급효과로 인하여 공정사회 달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스포츠계는 2012년 2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대책>에 따라 경기조작 방지대책,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방안, 경기단체 선진화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교육, 자정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뿐만 아니라 현재 개정중인 경기조작 관련자와 구단 처벌, 경기단체 비리임원 배제, 신고 포상금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그간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경우 불법사이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2011년 3월 ‘스포츠불법도박에 관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불법스포츠와의 전쟁을 선언하였고 런던올림픽대회 이후 국제위원회와 교육기구를 구성하고 인터넷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공조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에 서버를 둔 경기조작사건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조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해서는 2012년 경기단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후속으로 윤리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표의 개발 조정을 통해 공정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틀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제1절 체육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

제2절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제9장 체육정책 전망과 과제



생활체육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의 균형적 배치, 스포츠클럽 정착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소외계층까지 스포츠 참여가 이어질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의 체육참여를 통해 사회적 소외 배제, 건강 유지,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제1절 체육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

1. 체육정책 환경 변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체육정책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책 수요 다양한 변화에 주목하여 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수정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의 도래와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제 본격 시행으로 스포츠 참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에 대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신체활동과 레저활동의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 분야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여가 소비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져 양극화의 영구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체육의 글로벌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는 과거 이념 전파의 수단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제경기대회의 유치와 참가를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스포츠 수요 확대와 글로벌화는 국가경제에서 스포츠산업의 규모와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으나 국제스포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스포츠시장의 확대와 함께 글로벌 스포츠브랜드의 용품은 시장은 물론 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 등의 국제스포츠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유통되면서 스포츠산업의 경쟁구도도 글로벌화되고 있다. 스포츠산업이

전통적으로 인지했던 경기적 요소를 넘어 문화, 미디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다른 영역과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요하고 있다.

스포츠의 가치와 범위의 확산은 스포츠의 영향력 또한 증가시켜 왔다. 따라서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과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묵인되었던 스포츠계의 전근대적 관행이 사회 발전과 스포츠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국민적 관심 제고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공정한 투명한 경쟁 유지를 위해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윤리성이 스포츠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스포츠가 사회문제의 해결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스포츠를 통해 공생발전, 사회통합을 해결하고 있으며 UN과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환경, 평화, 발전을 스포츠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2. 체육정책 전망

100세 시대의 도래,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스포츠 참여의 확대와 다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생활체육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의 균형적 배치, 스포츠클럽 정착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소외계층까지 스포츠 참여가 이어질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소외계층의 체육참여를 통해 사회적 소외 배제, 건강 유지,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2013 평창스페셜동계올림픽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국제스포츠계에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회 준비와 더불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 비인기 종목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과학 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경기 외적으로 국제스포츠계와 협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제스포츠역량의 배양도 필요하다.

한편 점점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업 등 업계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인력의 전문화, R&D 등 기술력 확보, 미디어,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체육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확충과 함께 장애인 선수들이 국제스포츠무대에서 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수 육성체계와 경기력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2012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 및 체육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을 강화하고 UN, UNESCO 등 국제기구의 국제스포츠계의 움직임과 발맞춰 나가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2절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1. 일상적 생활체육 참여 확대

생활체육은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생활체육 참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 진흥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체육 진흥의 핵심 정책 과제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생활체육 참여의 질 제고, 소외 계층 생활체육 지원 강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는 체육프로그램과 체육지도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체육 참여는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기반하며 자발적 의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등 생활체육 참여 환경과의 접근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환경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지도자 확대 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의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생활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꾸

준히 추진한 결과로 생활체육 참가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생활체육시설면적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국민의 9.8%,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국민의 18%에 불과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그러므로 생활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확대 정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심리적 접근성 확대란 국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설,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지도받고 싶은 지도자 등이 확대되는 국민 선호 맞춤형 생활체육 환경의 확대를 의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 정책은 생활체육 참여의 양적 기회뿐 아니라 질적 기회를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장애요인 최소화를 통한 생활체육 접근성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체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간부족 문제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공체육시설의 조성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증가하며 신체적 허약이 생활체육 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생활체육 참여 장애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국민 생활체육 정보서비스를 극대화해야 한다. 생활체육 정보는 일반대중에게 생활체육활동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가장 긴요하고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서비스는 대국민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2) 생활체육 참여의 질 제고

생활체육 참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생활체육 참여 만족도와 참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생활체육의 기본적 활동단위이자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 유인과 생활체육 참여의 효과 거양에 기여하는 생활체육동호인클럽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생활체육동호인클럽활동 지원사업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 유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정부와 민간단체인 국민생활체

육회가 전국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과 동호인행사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동호인클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국민체력 맞춤형 생활체육 진흥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참여의 결과의 효과로 나타나는 체력수준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민체력 실태 조사》).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 참여의 질적인 측면, 즉 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생활체육 참여행태와 참여 지속성 문제 등에 주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의 체력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과 건강유지 및 증진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국민체력 100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향후 소외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 첫째,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체육현장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신체적 장애자를 고려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활동에 처음 참가하게 되는 초보자를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이들이 체육활동 현장에서 기능적 미숙과 환경적 부적응 등의 이유로 스포츠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전담할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활동 지원 모두 전문적 소양과 자격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인성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정착

이명박 정부는 일반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이유로 학업스트레스해소, 체력증진과 비만 감소 그리고 학교폭력해소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체육수업 활성화와 스포츠강사 배치, 방과 후 체육활동 활성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확대 그리고 주말체육 육성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체육수업을 확대하였으며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 및 방과 후 체육활동을 지원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과 리그제 운영도 학생들의 체육 참여기회와 참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증가와 비만해소에도 일부 기여하였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은 향후 학교체육 발전에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체육수업시수에 체육수업과 함께 학교스포츠클럽활동까지 포함하고 있고 스포츠강사의 배치와 활용이 예산제약으로 일부 초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학생까지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우에도 참여율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에 동아리체육활동, 방과 후 체육 등도 통계에 포함시켜 정확한 참여율 산정이 필요하며 여학생 참여율 제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주말체육의 경우에는 주말스포츠강사 배치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서 학교자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교사 등 피로감 호소, 지역사회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학생체육활동 지원의 효율성 저하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또한 체력측정과 체력증진에 대한 유인책 마련, 체력증진을 위한 재미있고 효과 있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학생선수의 운동부 정상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력 제고, 구타 및 성희롱 방지 등 인권보장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유지 등을 통해 선수 이전에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은퇴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엘리트체육의 기반으로서도 자리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 확대, 학생선수 인권보장제 강화 그리고 대학스포츠 정상화 및 활성화 도모 그리고 학교 운동부 및 체육계학교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명박 정부의 학원스포츠 정상화 정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권 보장으로서 수업참여율은 높아졌고 학기 중 대회 축소와 주말리그가 활성화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등의 협력으로 구타 및 성희롱 예방 및 방지활동이 강화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방식으로서 체육지도자를 위한 스포츠과학 연수 및 지도서 보급 등이 추진되었고 대학스포츠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통해 대학특기자 입시비리 감소, 대학선수 학습권 보장제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참가하더라도 학교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력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시범 사업’ 등 학생선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훈련과 보다 인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스포츠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학특례 등을 둘러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시 입상실적(현재)외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 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선수발굴에서부터 메달 획득까지 스포츠과학의 지원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선수수급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학생선수 대회출전 기준으로서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합숙훈련 금지와 선수기숙사 또는 생활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학생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특기자제도 또한 운동성적에 공부성적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고 대학수업율도 제고해 나가며 스포츠과학 지원이 선수발굴에서부터 선수은퇴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와 국제스포츠역량 제고

2011년 7월 7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하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스포츠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올림픽대회와 월드컵 축구대회와 같은 주요 스포츠행사에 대한 유치를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동·하계 올림픽대회를 모두 개최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와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제스포츠 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개최도시로서 세계적인 인상을 남긴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 개최 이후에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로 국제스포츠계로부터 대회 개최와 운영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시기 동안에도 올림픽대회,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행사로 인정받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비롯한 각종 주요 국제체육대회를 잘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남

기고 있다. 이제 유치성공 요인으로 평가받은 콤팩트한 경기장 클러스터 구축과 개별 경기장의 계획적인 건설, 인천공항으로부터 교통망 신설 및 권역내 이동 교통망의 신설 및 정비 등 교통 인프라와 숙박시설 정비 문제부터 시작하여, 대회자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정비와 인력 준비, 방송 및 통신망 준비, 홍보대책 등 등 대회를 잘 치를 준비를 갖춰가야 한다. 국제경기대회의 준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회조직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순조로운 준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동시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가 동시에 준비되는 만큼 따라서 정부는 재정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지역 간에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일관된 지원논리를 유지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주도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일부 국제대회 개최국가들이 선도적으로 보여주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창하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은 물론 대회 이후에도 체육 분야는 물론 사회경제적·문화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국제대회를 준비해 나가야한다. 예를 들면 올림픽경기장은 대회 이후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주민의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도록 사전에 설계되고, 대회 이후에도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 올림픽이 경제적 올림픽이 되고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동시에 이를 입증시키는 올림픽이 되어야한다는 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회의 기치였던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열기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가 남북 평화와 한반도 통일 기반의 형성에 물꼬를 틀 중요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지니고 있다.

대회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인력을 개발하고, 체육 분야에서의 발전이 이뤄지는 것 등이 전통적 과제였다면 최근에는 대회가 지역경제, 더 나아가 사회와 문화의 발전과 같이 광범위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보다 정교한 기획과 시민사회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한편 대회 준비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국제스포츠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하여 보다 넓은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까지 스포츠 분야의 국제관계패러다임은 국제스포츠거버넌스의 핵 혹은 거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체육기구들이 전 지구적인 체육 진흥과 올림픽주의 확산을 미션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조직하고, 국제적으로 체육관련 회의와 학습, 정보교환을 주도하는 협의의 국가 간 관계의 유지와 발전이었다. 그러나 미래지

향형 스포츠 분야 국제관계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의제, 이질적 문화의 공존과 같은 평화 가치가 결합된 국제활동이 함께 진행되면서 국제스포츠거버넌스에 UN(산하기구인 UNESCO 등)이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스포츠교류를 활성화시켜 한국이 국제관계의 장에서 더욱 활발한 행위자가 되고 나아가서 주도적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각 종목 경기단체들의 국제 스포츠역량을 지원하고 활동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과 함께 국제스포츠계에서 활동할 인력의 양성하고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UN과 UNESCO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와도 스포츠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 9월에 태권도가 계속 올림픽종목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IOC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태권도의 올림픽종목으로의 위상 유지를 위해 정부는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단체와 함께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을 통한 태권도 보급 및 종주국 프로그램의 개발, 태권도시범단 등 세계화 사업의 추진으로 태권도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4.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종합 7위, 2010년 밴쿠버올림픽대회 종합 5위, 광저우아시아 경기대회 2위 및 FIFA U-17 여자월드컵 축구대회 우승, 2011년 에르주름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위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그리고 알마티동계아시아경기대회 3위,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종합 5위는 스포츠 강국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고, 장미란(역도), 박태환(수영), 이용대(배드민턴), 김연아(피겨스케이팅),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 양학선·손연재(체조), 진중오(사격)와 같은 국제스포츠스타를 배출하였다.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들의 훈련 여건 개선, 국제대회 참가 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우수 지도인력 투입,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계종목 집중 지원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체계적·전략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스포츠를 통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동안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전문체육에서의 성과는 높게 평가되며 국

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전문체육 지원성과는 인력, 시설 및 인프라, 시스템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인력지원으로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육상, 수영, 체조 3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본종목 꿈나무 발굴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종목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추고자 2008년도부터 핸드볼, 탁구, 유도 등을 포함하였고, 2010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국체육영재센터를 통해 KOSTASS, 즉 체육영재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재를 발굴·육성하였다. 그리고 꿈나무선수와 후보선수 간 간극을 채우기 위해 2010년부터 청소년대표선수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설 및 인프라 지원 관련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진천선수촌이 2009년 1단계사업을 필두로 2011년 8월 공사가 완료되어 육상, 사격, 수영, 테니스, 정구, 배구, 농구, 야구, 소프트볼, 조정, 카누, 럭비 등 12개 종목 350명의 선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었다. 이 외 지역 우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진로, 학업 및 심리상담, 스포츠과학 및 기술훈련 지원체제를 위한 학생선수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종목의 확대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동계종목 지원 강화, 메달종목 다변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선진체제 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 전문체육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선수자원의 지속적 감소하여 비인기 종목 선수 수급이 어렵고, 우수 선수 육성의 산실이었던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이 국민과 미디어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장기적·안정적 전문체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 체계적·장기적 계획을 통한 선진형 전문 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첫째, 국내 선수 수급 구조모형을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지속적으로 변형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단시간·단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부·대한체육회·각 경기기맹단체·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를 위한 동계선수 선발 및 육성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계선수육성체제 또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육상, 체조, 수영 등 기초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영재 발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하계올림픽 대회에서 5위권 내에 있는 우수 국가들의 경기력을 분석해보면 스포츠의 기초종목이라 할 수 있는 육상, 체조, 수영에서 그 성적과 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영의 박태환, 체조의 손연재의 뒤를 이을 선수 육성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훈련의 효율성을 최대도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각 대학교에 있는 스포츠(체

육)과학원(소)의 활동과 역할을 더욱 활성화시켜 선수훈련에 있어 과학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대표 선발기준과 절차, 선발 결과 처리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비인기 종목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

비인기 종목을 대상으로 청소년대표선수 양성·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인기 종목 실업팀 창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스포츠참여자들이 많으므로 이들의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인기 종목을 인터넷에 중계하여 마니아층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3) 선진 스포츠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2011년 8월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장 1단계 사업이 완료에 이어 진천선수촌 2단계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7년까지 국가대표훈련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다 많은 종목이 선진적인 스포츠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거점 지역별 빙상장의 건립을 비롯한 동계스포츠 인프라의 확충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스포츠현장에 스포츠과학 적용의 다양화

스포츠과학은 곧 선진국의 최대의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려면 스포츠과학의 발전과 스포츠과학의 현장적용 및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를 위한 세 가지 해결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체육과학연구원(KISS)의 선진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일본 국립스포츠과학연구소(JISS), 미국올림픽위원회 산하 Sport Performance Division, 호주 스포츠의·과학센터(SSSMC), 독일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BISP)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첨단스포츠과학 인프라를 갖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일본 JISS의 경우 정부와 국회, 국민의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높은 인식 덕분에 지속적인 지원예산 확보, 첨단과학시설 인프라 구축, 정규직원 이외 계약연구원 채용 등 스포츠과학자의 인력양성소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는 곧 자국의 스포츠과학에 기초한 엘리트스포츠시스템 및 훈련방법을 오래전부터 개발·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과학연구원은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시설·기자재의 첨단인프라 구축, 미래지향적이고 안정된 조직 개편, 학제 간 공동연구와 통합연구 기능 강화, 합리적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능동적이고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스포츠연구기관으로 변모되어야 하며 또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포츠과학의 다양화와 연구품질의 개선이다. 그 동안 한국의 스포츠과학은 경기력 향상과 메달 획득에 성공하여 오랫동안 국제무대에서 그 위용을 떨쳤다. 그러나 스포츠과학 연구는 어느 한 분야의 연구결과만을 응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연구성과를 총망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합성, 실용성, 학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며 선진국들의 모방연구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스포츠과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체육 진흥 기반조성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체육 관련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생활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참여인구 확대와 어울림체육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고,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2008 베이징올림픽대회, 2010 밴쿠버동계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2009년 10월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완공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안정적 훈련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관련 시설 편의성 제고, 관련 교실 및 클럽 지원 확대, 정보공유를 통한 참여 유인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과학적 훈련 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의 메카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지부, 가맹정기단체의 행정력 강화, 관련 예산 사용의 효율화 및 엄격성 부여 등을 통해 선수 및 지도자,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①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지원, ②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 ③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④〈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제공, ⑤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⑥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첫째,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재가 및 중증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상담,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현장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꾀하고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장애인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체육활동으로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제공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지방체육 업무편람》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 지방 장애인체육의 확대와 시·도별 균형적 발전 도모, 스포츠활동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우수·신인선수 발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방 체육 환경 기반구축,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대국민 홍보의 목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경우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한 장애청소년들의 장애극복의지와 사회적응력 신장, 장애청소년들의 재활의욕고취 및 생활체육의 기틀 마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여섯째, 장애인전문체육시설 역할 수행을 위해 건립된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의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조성

(1) 스포츠산업정책의 방향

스포츠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용품점, 스포츠서비스업은 모두 빈번한 국제 교류와 국제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해외진출 등을 통한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스포츠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율과 그 범위가 세계적·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스포츠 참여인구의 증가 및 다양화와 더불어 IT 기술의 발달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시장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으며 글로벌화되고 있다. 즉 스포츠의 보편화로 인하여 세계가 단일 시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활동을 중심으로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가 연계된 스포츠산업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2) 스포츠산업정책의 과제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포츠산업경쟁력 강화

시장 자유화와 자유무역협약(FTA)의 확산으로 인하여 스포츠시장도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는 국내 스포츠산업이 글로벌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흥국가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해외 스포츠시장이 창출되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과 동시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 간 경쟁이 글로벌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스포츠산업 분야를 도출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도출된 산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기관, 대학,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들,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산·학·관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② 스포츠산업 인력의 전문화

스포츠는 타 산업과 접목되어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스포츠미디어, 스포츠관광,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등 그 영역이 더욱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와 접목이 되어 고가의 장비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용품 개발과 시뮬레이션 스포츠 등 신산업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광고시장, 선수시장, 중계권시장은 개별 국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새로운 미디어콘텐츠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가 산업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와 융합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주변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종사자에게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스포츠의 복합화 및 융합화는 스포츠와 결합된 각 분야에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한다. 국내 스포츠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소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재교육함으로써 급변하는 스포츠시장의 변화에 대처하며 스포츠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스포츠마케터, 스포츠관광·스포츠이벤트관리자, 스포츠시설관리자, 골프장경영관리자 등의 전문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맞춤형 스포츠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스포츠시스템 공정성 제고 및 선진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공정한 사회의 건설”이 발표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비판의 가운데에 선 체육계에도 적극적인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었다. 스포츠는 그 동안 ‘경쟁’이라는 환경에서 ‘우승·승리’라는 최종목표에 도달하여 이에 따른 물질적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찍이 ‘공정’을 위한 규정과 규칙이 정착되어 ‘불공정’에 대해 문제점들을 해결해왔다. 선수인권 보호 사업, 스포츠 바우처 사업, 선수지도자 공정선발제도, 체육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운영 사업 등을 통해 그 동안 음지에 있었던 체육계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체육유관기관들은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직적인 체제 구축이 눈에 띄는 데 문화체육관광부를 위시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각 기관들의 연계·운영하였다.

선수 부정선발, 심판에 의한 부정판정, 팀(선수) 간에 의한 승부조작, 약물사용(Doping), 경기단체 회계비리 및 불투명,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문제 등 스포츠계에서 불공정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체육계의 깨끗한 환경 분위기 구축을 위해서 크게 체육계의 중심축인 스포츠경기, 학교운동부, 체육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공정성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의 명확화, 위해요소 제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근절 정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비용 집행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운동선수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기존 주말리그제와 종목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폭행, 언어·비신체적 폭행, 운영비 비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력과 인성을 동시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지도자이력제 및 등록제를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들의 책임성 및 감사를 강화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비리에 연루된 한국의 체육기관이라는 오명을 쌓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학생의 학부모, 운동부 소속 학교의 학교장, 토요스포츠강사에서 일반국민들까지 체육계의 음성적 비리들에 대한 후속 조치보다는 예방교육과 자정활동을 강화하여 꿈나무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체육과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집필자

제1장: 성문정(체육과학연구원)

제2장: 김양례(체육과학연구원)

제3장: 이용식(체육과학연구원)

제4장: 박영옥(체육과학연구원)

제5장: 김미숙 · 송주호(체육과학연구원)

제6장: 노용구(체육과학연구원)

제7장: 길세기 · 정지명 · 조운용(체육과학연구원)

제8장: 김미숙 · 송명규(체육과학연구원)

제9장: 김미숙 외 10인(체육과학연구원)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⑤ 체육

발행일 · 2013년 1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Tel. 02. 3704.9215 Fax. 02. 3704.9229

<http://www.mcst.go.kr>

인쇄처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